



학/술/대/회

평택지역 민속과 신앙

평택지역 마을신앙과 제(祭)의 특징 / 김해규

평택의 가정신앙(家庭信仰)의 양상과 의미 / 최자운

평택 무속의 지역성 / 목진호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 박성복

학/술/대/회

평택지역 나루와 포구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루포구의 위치 / 김해규

평택 나루포구의 문화적 의미 / 박경순

평택지역 조창과 조운-하양창을 중심으로 / 문경호

일/반/논/문

평택에서의 한국전쟁과 미군기지 이전 / 김아람

지역사(地域史)와 평택지역사 / 김해규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K-6) / 김희식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평택지역의 체육활동 / 성주현

일제강점기 안재홍 국내외 현장답사의 성인학습적 의미 / 황우갑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6.0600 Fax 031.654.8807



ISSN 2713-6884

평택문화연구

第2輯

평택문화연구

第2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평택문화연구

第2輯

발 간 사

평택학 연구의 밑거름

평택문화원 부설 지역사 연구기관으로 문화원의 역사와 함께해온 '평택향토사연구소 平澤鄉土史研究所'를 2020년 3월 '평택학연구소 平澤學研究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연구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평택학은 평택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역사를 비롯해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의 인문정신과 정체성을 함의하는 학문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평택학을 연구하는 평택학연구소는 지역의 인문정신과 정체성을 대변해 나가는데 충실할 것입니다.

이번 《평택문화연구》 제2집 발간은 이러한 평택학 연구의 밑거름으로 더욱 내실을 다져 후속 연구와 확산 사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평택학 연구소는 지속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로 지역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연구》가 나아가는데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2020. 1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소장 박성복

목 차

학/술/대/회

평택지역 민속과 신앙

평택지역 마을신앙과 제(祭)의 특징 / 김해규	09
평택의 가정신앙(家庭信仰)의 양상과 의미 / 최자운	43
평택 무속의 지역성 / 목진호	63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 박성복	91

학/술/대/회

평택지역 나무와 포구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무포구의 위치 / 김해규	135
평택 나무포구의 문화적 의미 / 박경순	151
평택지역 조창과 조운-하양창을 중심으로 / 문경호	169

일/반/논/문

평택에서의 한국전쟁과 미군기지 이전 / 김아람	199
지역사(地域史)와 평택지역사 / 김해규	227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K-6) / 김희식	257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평택지역의 체육활동 / 성주현	293
일제강점기 안재홍 국내외 현장답사의 성인학습적 의미 / 황우갑	319

평택지역 마을신앙과 제(祭)의 특징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평택지역 마을신앙의 지리적 환경
3. 평택지역 마을신앙의 유형
4. 평택지역 마을제의 분포와 시기, 제물(祭物)
5. 평택지역 마을제의 제의방식과 특징
6. 맺음말

1. 머리말

마을신앙은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마을신앙¹⁾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제이다. 일반적으로 계시나 교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종교와 달리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교성을 갖고 있으며, 민중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사회통합과 일체감을 부여한다.²⁾

마을신앙은 농경문화에서 풍농과 관련된 기원 또는 마을의 평안을 목적으로 기원하던 신앙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이전의 삶은 자연을 극복하며 살기보다 순응하고 기원하며 살아야 했다. 빈번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탐관오리의 수탈,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생활환경도 하늘에 기대고 신(神)에게 기원하는 원인이 되었다.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마을신앙이 농경이나 어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농경은 집단노동력을 요구해서 마을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마을구성원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마을신앙이다.³⁾

마을제는 마을공동체가 동신(洞神)에게 개인의 안녕과 구복,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부락제(部落祭), 동제(洞祭), 촌제(村祭)로도 불렀고 일반적으로 당제(堂祭)라고 부르는 지역도 많다. 마을제로는 성황제, 서낭제, 산신제, 용신제, 풍어제, 기우제, 정제, 거리제가 있다. 이밖에도 거리제에 해당되는 장승제, 솟대제, 탑제 등이 있고, 마을

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천제(天祭), 노제(路祭), 보제(湫祭), 지신제, 다리제가 있다.⁴⁾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줄다리기나 뱃고사도 궁극적으로는 마을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민속학자 허용호는 유교식 제사, 무속식 굿, 풍물굿을 포함하여 ‘마을굿’이라고 부르기도 했다.⁵⁾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 이전 농경문화와 어촌문화가 어우러졌던 지역이었다. 농업은 동북쪽에 위치한 구릉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남쪽 평야지대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하류를 중심으로 어업과 수산업도 발달했다. 평택지역 마을신앙은 이 같은 자연환경과 생산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을신앙은 성황제, 산신제, 당제, 풍어제, 정제이고 마을과 상황에 따라 보제(湫祭), 다리제, 기우제를 거행했다.

평택지역의 마을신앙은 다양하고 독특했지만 연구 성과는 미미했다. 《진위면지》(1999)에서 이성열이 진위면의 마을신앙을 조사 분석한 것과⁶⁾, 《송탄의 민속과 설화》⁷⁾에서 김용겸이 조사 정리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고, 그 뒤 《평택시사》(2001, 2014)와 《평택민속지》⁸⁾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했지만 분석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논문도 민속(民俗)보다는 무속(巫俗) 관련 연구가 많으며⁹⁾, 민속 중에서

4) 김의숙, <민속신앙 의례와 속신의 음양관>,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5) 허용호, <마을굿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연구》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6) 이성열, <개인구복과 마을의 평안을 비는 신앙생활>, 《진위면지》, 평택문화원, 1999

7) 송탄시·송탄향토사연구소, 《송탄시 민속과 설화》, 1993

8)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 상하, 2009

9) 홍태한, <평택지역의 무속연구>, 《국제어문》 제17호, 국제어문학회, 1996 외 다수

1) ‘마을신앙’이라는 용어를 일제시기에는 부락제(部落祭)라고 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동제(洞祭), 마을제, 마을신앙, 마을굿, 마을공동체신앙과 같은 용어로 부르고 있다. 조선총독부 간행 《부락제》, 1937,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지부,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2006에서 재인용.

2) 이두현 외, 《한국 민속학 개설》(개정판), 학연사, 1983

3)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마을신앙》, 민속원, 2004

도 마을제와 관련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¹⁰⁾

이 논문은 평택지역 마을신앙 그 중에서도 마을제와 관련된 연구다. 본인은 평택지역의 마을신앙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포와 시기, 제물의 특징, 유형과 마을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한 사료는 2009년, 2010년 평택문화원에서 간행한 《평택민속지》와 그동안 간행된 《읍(邑)·면(面)지》, 필자가 저술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3권) 등이다.

2. 평택지역 마을신앙의 지리적 환경

평택지역은 구릉과 평야가 발달했고 서쪽으로는 아산만과 인접했다. 구릉은 해발고도 최고 200m에서 최저 30m 내외다.¹¹⁾ 구릉과 들판 사이로는 안성천, 진위천을 중심으로 52개의 하천이 흐른다.¹²⁾ 근대 이전 하천에는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고, 내륙에는 한양에서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대로(大路)가 지났다. 마을은 구릉지대부터 생성되어 점차 낮은 지대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오래된 마을은 구릉지대 남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역사가 짧은 마을은 들판에 위치한다.

대로변에는 역촌(驛村)과 원촌(院村)이 발달했다. 또 나루와 포구에는 조운과 포구상업이 발달하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진촌(鎭村)과 어촌(漁村)이 발달했다. 근대 이후 철도역이 설치되고 근대교통이 발달하면

10) 김주희, 〈한국 농촌주민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화-경기도 평택시 S마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0집,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14 ; 안혜경, 〈평택일기를 통해 본 일생의례와 속신〉, 《실천민속학연구》 제18집, 실천민속학회, 2011 ; 최자운, 〈경기도 평택시 이민조 민요 가창자 연구〉, 《남도민속연구》1, 남도민속학회, 2017

11) 경기도, 《삼남길·의주길 연구-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 보고서》1, 2014

12) 경기도박물관, 위의 책, 142쪽

서 교통의 요지를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발달했으며,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기지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미군기지촌이 발달했다. 1990년대에는 서평택지역의 공업화로 안중읍 안중리가 근대도시로 발전했으며, 포승읍 도곡리, 청북읍 옥길리에도 근대도시가 형성되었다.

구릉지대는 초기에는 밭농사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지만 점차 농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밭농사와 함께 논농사가 발달했다. 논농사와 같은 수전농법은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보(湫)나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었고 저지대 간척지를 간척하여 경작지를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간척은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19세기부터는 갯벌이나 공유수면에 제언(월독)을 축조하여 간척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조선시대 평택지역의 간척은 대부분 궁방(宮房)이나 권력자들, 군영(軍營)에서 주도했다.¹³⁾ 일제강점기에는 동척(東拓)이나 일본인 지주, 조선인 지주들이 뛰어들었고, 한국전쟁 뒤에는 서평택지역과 팽성읍, 서탄면을 중심으로 피난민정착사업이 활발했다. 평택지역의 간척은 1974년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방조제 준공 뒤 형성된 간척지에는 충남 대청호 수몰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했다.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하류에서는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했다. 어업은 오성면 당거리, 길음리, 현덕면 대안리, 신왕리,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신전포, 원정리 호암마을, 팽성읍 노양리, 노성리 신성포 등 해안지역에서 발달했다. 어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하나는 순어업만 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반농반어를 하는 경우다. 평택지역에서 순어업만 했던 마을은 많지 않았지만 팽성읍 노양1리나 현덕면 신왕1리, 만호5리, 오성면 길음리 양성말의 경우는 순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

13) 평택평야에 궁방전이나 역둔토가 많았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소장 추수기(秋收記)로도 확인 된다.

다. 반농반어를 했던 마을들은 이른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 송어나 강다리를 잡다가 농번기가 되면 어업을 중단했고 늦가을에 또 한시적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민들도 농지를 매입하여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택지역은 이 같은 자연조건과 생산 활동 때문에 삶을 하나로 규정하고 지역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3. 평택지역 마을신앙의 유형

마을신앙은 기풍(祈豐), 기복(祈福), 제액(諸厄)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의(祭儀)다. 그러므로 마을신앙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짓는 경우 풍농을 기원하고 어로활동을 하는 마을에는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전염병 방지를 기원하면서 평안과 구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식수가 귀한 마을에서는 좋은 물을 공급받아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 자연적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쓴다.¹⁴⁾ 마을신앙은 농경문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민족은 기원하고 소망하며 농경과 목축, 어로활동을 했다. 그래서 평택지역의 자연마을에서는 성황제, 산신제, 당제, 풍어제도 지냈지만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정제(井祭), 거리제, 서낭제, 다리제, 보제(洑祭)도 지냈다.

마을신은 신격(神格)에 따라 산신(山神), 해신(海神), 용신(龍神), 성황신(城隍神), 서낭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마을신이 거처하는 곳도 성황당, 산신당, 해신당, 용왕당, 서낭당 등 다양하다. 마을신은 당집이나 나무, 커다란 돌, 장승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형체가 없을 수도 있다. 부르는 이름이나 형체는 달라도 마을신은 마을의 수호신이며 풍요와 안녕을 가져오는 신(神)이었다. 민중들이 마을신을 섬기는 제의(祭儀)를

주기적으로 행한 것은 그 때문이다. 민중들은 공동제의를 통해서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고, 신(神)에게 바쳤던 제물을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했다.¹⁵⁾

근대 이전 마을신앙은 관(官,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이 있었다.¹⁶⁾ 국가주도형은 역사가 오래됐지만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읍치(邑治) 또는 고을의 민간신앙은 민간에게 치제(致祭)를 내리지 않고 관(官)에서 직접 거행했다. 성황제가 대표적이다. 평택지역에서는 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추팔1리, 포승읍 방림2,3리에 성황제가 전승되고 있다. 성황신앙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중국과 동아시아에서는 성읍(城邑)을 보호하기 위해 성곽(城廓) 둘레에 연못(해자)을 파냈는데 그 연못에 사는 신(神)이 성황(城隍)이었다. 따라서 성황신은 성읍(城邑)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때 신성진에 성황사(城隍祠)를 둔 것이 시작이다.¹⁷⁾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郡縣)의 읍치(邑治)마다 성황사를 설치했다.¹⁸⁾ 평택지역에도 진위현의 읍치 봉남리와 팽택현

15) 김해규, <평택의 마을신앙>,《평택민속지》상, 평택문화원, 2009

16) 이관호,《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9

17) 성황신앙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후백제에 ‘성황의 수리를 담당하는 장선부라는 기관이 있었다(障繕府掌修理城隍)’고 기록되어 있다(《三國史記》卷第四十 雜志 第九 官職下外官). 기록상의 성황이 단지 성 둘레의 연못만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에도 유사한 신앙형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18) 《조선왕조실록》태조 원년 8월 11일 경신조에는 예조 전서 조박 등이 “여러 신묘(神廟)와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모주(某州), 모군(某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奠物), 제기(祭器), 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라고 상소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미 조선초기에도 성황신앙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14) 김종대, 앞의 책 11쪽

의 읍치 객사리, 그리고 고려시대 읍치였던 마을에 일부 남아 있다. 마을 제를 국가나 관(官)이 주도하면서 제의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무속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성도 제의에 참석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면서 유교적 제의방식이 마을신앙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참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마을신앙은 지역에 따라 제의 일시나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마을신앙의 형성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⁹⁾ 충청도와 서해안일대에서는 당제(堂祭)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같은 당제(堂祭)라고 해도 전라도는 당산제, 경상도는 동제(洞祭), 강원도는 성황제(城隍祭)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3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부락제(部落祭)》는 경기도지역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 보고서다. 이 책에서는 경기도지역 마을제의 명칭으로 동제(洞祭), 산제(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치성, 당제(堂祭), 도당제(都堂祭), 성황제(城隍祭), 정제(井祭), 대동제, 산천제, 부군산령제, 위제(衛祭), 구천제, 산고제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고 말한다.²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산신제(산제, 산치제 포함)와 동제(洞祭)다. 평택지역에서는 당제(堂祭)와 산신제(山神祭)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동제(洞祭)나 산천제(山天祭), 산제(山祭), 도당제(都堂祭)같은 명칭은 사용했던 사례가 거의 없다. 당제나 산신제 중에서도 구릉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산신제(山神祭)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평야지대로 내려갈수록 당제(堂祭)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

신격(神格)은 대부분 산신(山神)이 많지만 지역과 마을에 따라서 동신

(洞神), 도당신(都堂神), 성황지신(城隍之神)도 있다.²¹⁾ 제의 시기는 음력 정월이나 추수가 끝나는 음력 10월 상달에 가장 많다. 일부마을은 칠월칠석이나 음력 6월 말, 설달그믐에 지냈던 사례가 있고 음력 7월과 10월 두 번 지내기도 한다. 풍어제는 통상 정월에 지내지만 정월과 함께 음력 4월 성어기가 시작될 때 한 번 더 지내기도 한다. 정제(井祭)는 10월도 지내지만 정월에 많이 지내고 당제나 산신제를 지낼 때 함께 지내기도 한다. 거리제와 관련된 서낭제나 다리제, 풍농과 관련된 보제(湫祭)는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의에 참석하는 대상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의 형식은 거의 모든 마을이 유교적이며 각종 금기를 엄격하게 지킨다.

어업을 하다가 간척사업으로 농업으로 전환된 마을에서는 당제와 풍어제 또는 산신제와 풍어제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있고, 일부 마을은 산신제로 전환되기도 했다. 당제나 산신제 없이 '정제(우물고사)'만 지내는 마을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체로 물이 귀했던 하천변이나 갯벌에 형성된 마을에서 나타난다. 한두 가지 사례는 있지만 장승제는 거의 없으며²²⁾ 고잔4리처럼 간척지나 하천변에서는 보제(湫祭)를 지냈고 팽성읍 노성1리와 신장1동 구장터마을은 다리제를 지냈다. 이것은 간척과정에서 축조한 보(湫)의 안녕과 풍농, 주민들의 교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다리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업이 발달했던 안산만 연안의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대안4리, 신왕리, 오성면 당거리, 길음리에서는 뱃고사를 지냈다. 뱃고사는 설달그믐에도 지냈지만 출어나 만선으로 입항한 뒤에도 지냈다.

평택지역 마을제당의 형식은 다양하다. 유형별로는 당산(堂山)에 당집

21) 김종대, 앞의 책 13쪽 재인용

22) 포승읍 흥원2리 마장마을, 팽성읍 추팔1리에서는 장승제를 지냈다.

19) 김종대, 위 논문

20) 조선총독부, 《부락제》, 1937, 일제강점기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36년부터 조선의 사상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각 지방에서 신(神)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30곳을 조사하여 집필한 조사보고서다. 이것을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향토신사(朝鮮의 鄉土神祀)》 중 제1부로 발간했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09)

을 건축하고 위패나 산신의 상징물인 산신도나 말을 모신 경우가 있고, 당집 옆에 신목(神木)과 당숲을 조성하고 상징물을 모신 경우도 있다. 평성읍 추팔1리의 경우에는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 관운장의 그림을 모시기도 했고, 노양1리처럼 과거 해신당의 전통이 있었던 마을에서는 임경업장군도를 모시기도 했다. 관운장이나 최영, 임경업 장군은 무속이나 바닷가의 해신당에 모신 경우가 많다. 평택지역은 본래 바닷가 어촌마을이 간척으로 농촌으로 변모하면서 과거의 전통과 무속신앙이 습합된 마을에서 나타난다. 서탄면 금암2리처럼 당집 대신 터주가리를 해 놓은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당집을 두거나 신목만 섬기는 경우다. 당목(堂木)은 엄나무나 소나무, 참나무를 많이 섬긴다. 엄나무는 제액(諸厄), 다시 말해서 잡귀나 병마를 물리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인식되었다.²³⁾ 평택지역에서는 전 지역에서 당목으로 섬긴다. 소나무도 벽사(僻邪)의 의미를 가졌다고 믿었으며, 참나무는 평택지역의 안성천 북쪽지역에 많이 자생하며 민속행사의 낭대나 햇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흑자는 느티나무를 언급하지만 대체로 동구나무로는 많이 심지만 신목(神木)으로는 섬기지 않는 편이다.

4. 평택지역 마을제의 분포와 시기, 제물(祭物)

평택지역의 마을신앙은 지리적 환경, 마을의 역사적 배경, 풍속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의방식은 유교식이 대부분이며 여성의 참여는 드물다. 하지만 진위면 봉남리처럼 관(官)과 관련되었고 성황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했고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일부마을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함께 제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마을신앙의 종류와 제의시기를 분류해보자.

표1) 평택지역 마을신앙²⁴⁾

지역	지역 별 분포					제의 시기				존속 (Ox)	비고	
	성황제	산신제	당제	정제	풍어제	기타	정월	10월	7월			기타
구 평택·송탄		13	6	12		2	22	4	1	6	2	
평성읍	2	3	9	24		4	30	3		8	2	
안중읍		4	3	3			8	1	1			
포승읍		1	8	1	2	5	4	4	2	7		
고덕면			10	4		3	11	1	1	3	1	
오성면		2	6	2			7	1		2		
현덕면		4	5	3	3		4	6		2		
청북읍		3	15	9		1	7	12	9	1		황곡 2회
진위면	2	1	10	3		1	9	8			2	벌말 2회
서탄면		4	6	5			2	12		1		

표1)을 분석할 때 평택지역 마을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옛 고을의 읍치(邑治)를 비롯해서 관(官)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성황제가 발달했다. 둘째, 구 평택시와 송탄시에 속했던 동(洞) 지역에서는 산신제(山神祭)와 정제(井祭)가 많은 반면 당제(堂祭)는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아산만이나 안성천 하류와 인접했고 어업이 발달했던 포승읍과 현덕면 지역에서는 당제나 산신제와 함께 풍어제와 뱃고사가 거행되었다. 넷째, 구 평택시와 송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산신제보다 당제(堂祭)의 비중이 높다. 다섯째, 정제(井祭)는 평성읍처럼 전통마을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거행되었고, 오성면이나 고덕면처럼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

24)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2009 ;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3권), 평택문화원, 2006~8

2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세시풍속사전》, 2001

치며 형성된 마을에서는 사례가 적다. 여섯째, 일부 산간마을이나 포구마을에서는 하위신인 서낭제나 장승제의 전통이 있었고 간척지에서는 보제(淤祭)를 지낸 사례가 있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마을신앙으로 섬기는 신(神)은 명칭 상 42종이나 된다. 계통상으로도 천신(天神), 일신(日神), 성신(聖神), 산신(山神), 수신(水神), 지신(地神), 수신(樹神), 사신(邪神), 인신(人神) 등 아홉 계통이나 된다.²⁵⁾ 평택지역에서는 주로 산신(山神)이 많고²⁶⁾, 천신(天神), 수신(水神), 성신(聖神), 지신(地神), 수신(樹神)이 뒤를 이으며, 세교동 은실마을처럼 예외적으로 인신(人神)을 모시거나 구 대추리처럼 은행신(뱀, 이무기)을 섬기기도 한다.

제의(祭儀) 명칭은 일정하지 않다. 진위천 북쪽에서는 산신(山神)을 모시면서도 당제(堂祭)라고도 호칭하며, 수신(水神)을 모시며 산신당이라고 부르는 마을도 있다. 현덕면 장수리처럼 과거 바다와 인접했다가 간척사업으로 농촌으로 변모한 지역에서는 풍어제를 지내다가 산신제로 전환된 흔적도 나타난다. 현덕면 대안4리와 신왕1리처럼 어촌이거나 과거 반농반어를 했던 마을에서는 마을제당에서 시기만 달리하여 산신제와 풍어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산신제는 마을 전체가 지내고 풍어제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만 지낸다.

제의 시기는 당제와 정제는 정월(丁月)에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음력 칠월 칠석에도 지낸다. 정월(丁月)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로 예측적 의미가 담겼다.²⁷⁾ 반면 산신제는 주로 10월 상달에 지내는데 때에 따라 정월에 지내는 경우, 7월과 10월 두 번 지내는 경우, 10월에 제일(祭日)을 잡았지만 금기를 어겼을 경우 7월로 옮기거나 정월에 지내

는데 금기를 어겨 7월에 지내는 사례도 있다. 10월의 마을제는 감사제의 의미를 갖는다. 추수를 하고 한 해의 농사를 하늘과 산천에게 감사하며 지내는 마을제가 산신제다. 칠월 칠석에 지내는 제의는 칠성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사랑의 상징이므로 이날 제를 올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간에서는 장롱을 말리거나 책을 말리기도 한다.²⁸⁾

마을제에 올리는 제물(祭物)은 소나 돼지고기에 시루떡이나 백설기, 삼색실과²⁹⁾, 포, 조라술³⁰⁾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마을의 특성에 따라 적(炙)이나 나물을 올리기도 하고, 닭이나 떡과 포만 올리기도 하며, 팽성읍 석봉1리처럼 미역국에 밥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제물로 미역국이나 김을 올리는 것은 용왕제와 관련이 깊다.³¹⁾ 석봉리는 본래 나루가 있었고 어업을 했던 어촌마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본래는 해신당으로 풍어제를 올리다가 산신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는 마을사람들이 신(神)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다. 그만큼 공동체의 희생과 정성이 깃들여야 한다. 돼지는 삼국시대부터 희생 제물로 사용했고 신성한 제물로 여겼다.³²⁾ 소와 돼지가 희생 제물로 사용되면서 신성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금기가 더해졌다. 예컨대 잡털이 하나도 없는 황소나 흑돼지를 사용하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수돼지를 사용하고, 도살을 할 때는 지정된 신성지역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는 소머리와 삼색실과, 시루떡, 조라술을 올린다.

28) 디지털 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local=gimje>

29) 대추(棗), 밤(栗), 감(柿) 세 가지 과일을 말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감 대신 배를 올리기도 한다.

30) 조라술은 좁쌀로 만든 술이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누룩이나 엿기름을 넣기도 한다.

31) 이관호, <마을 공동체 신앙의 구성체계 분석 연구-충남 홍성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3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백과사전-한국민속신앙사전》, 2009

25) 김태근, <한국 신당 연구>, 《국어국문학》29, 국어국문학회, 1965

26) 산신은 산천을 주관하는 신(神)으로 천신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27) 이관호, <마을 공동체 신앙의 구성체계 분석 연구-충남 홍성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청북읍 울북1,2리 산신제도 소머리와 내장 각 부위를 올린다. 비전동 재랭이 동신제는 소머리와 소족을 올린다. 칠원1동 산신제도 소머리와 삼색실과 시루떡, 포를 올린다. 반면 도일동 상리마을 산신제는 잡티 없는 검은 통돼지를 잡아 머리와 부위별로 올렸다. 팽성읍 노성1리 신성포나 폐동된 구 대추리마을도 잡티 없는 검은 흑돼지를 제물로 올렸다. 반면 포승읍 도곡2리 당두마을 산신제는 수탉1마리와 소고기, 떡, 산적, 삼색실과, 조라술을 올렸다.

추팔리 산신제(성황제)는 고기 없이 백설기와 삼색실과, 조라술만 올린다. 석봉리 용왕제도 밥과 미역국, 조라술만으로 제를 올렸다. 제물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했다. 과거에는 소를 잡거나 통돼지를 잡아 올리다가 일제 말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소머리나 돼지머리로 바뀐 경우, 해방 후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나 돼지를 잡지 않고 시장에서 돼지머리를 사다가 지내는 경우가 있다. 서탄면 금암2리 안말은 산신제가 중단되었다가 2007년 복구되는 과정에서 소머리나 돼지를 닭으로 교체하기도 했다.³³⁾ 다음은 평택지역 주요 마을제에서 사용하는 제물(祭物)이다.

표2) 평택지역 마을제의 제물(祭物)^{34)35) 36)}

마을 명(名)	제(祭)의 명칭	주요 제물(祭物)	비고
비전1동 자란	비전동 동신제	소머리, 소족 ³⁵⁾	
소사1동 원소사	산신제	소머리, 소족	
동삭동 상서재	산신제	통돼지→소머리	

33)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 평택문화원, 2008
 34)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1, 2009 ; 평택문화원, 《팽성읍지》, 2010,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 평택문화원, 2006 참조
 35) 편익상 소머리나 돼지머리만 표기한 마을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루떡, 삼색실과, 포, 조라술’이 함께 사용되었다.
 36) 젓상에 올리는 밥을 말한다.

마을 명(名)	제(祭)의 명칭	주요 제물(祭物)	비고
세교동 은실	당제	소머리	
칠원1동 원칠원	산신제	소머리	
도일동 상리	산신제	통돼지, 백설기, 메 ³⁶⁾	
지장동 지장절	당제	소한마리→검정돼지→일반돼지	
동삭동 하서재	정제	돼지머리, 백설기	
팽성읍 추팔1리	산신제(성황제)	백설기, 삼색실과, 조라술	
팽성읍 노양1리	산신제, 샘제, 서낭제, 거리제, 뱃고사	소 한 마리→소머리, 삼색실과, 포, 나물, 시루떡, 조라술. 서낭제와 거리제는 떡과 과일만 올림.	
팽성읍 본정1리	당제, 정제	소머리	
팽성읍 노성1리	당제, 정제, 다릿제	검은 흑돼지(우물과 다리에는 북어포만 올림)	
팽성읍 신대1리	정제	소머리, 백설기, 오색사탕, 포, 조라술	
안중읍 금곡3,4리	산신제	소1마리를 잡아 각 부위→소머리	
안중읍 삼정리	정제	돼지머리, 시루떡, 삼색실과, 포, 조라술	
포승읍 방림2,3리	대덕산당제	소를 잡아 머리, 곱창, 적7개 사용	3년에 한 번
포승읍 흥원2리	당제	황소 또는 흥년에는 소머리와 내장 구입→일제 말 소머리	
포승읍 도곡2,3리	당제	수탉1마리, 소고기, 떡, 산적, 삼색실과, 조라술	
고덕면 당현리	당산제	원당현 : 소머리, 소고기 나머지 마을 : 소내장 각 부위 현재 : 소머리, 소적, 백설기, 삼색실과, 포, 전 수박, 참외	
고덕면 해창3,4리	성황제	황소머리, 적, 오색실과, 탕, 포, 무나물, 백설기, 조라술	
고덕면 해창2리	당산제	검정통돼지, 백설기, 삼색실과, 탕(통북어), 다시마 튀각, 두부	
오성면 숙성2리	당제	황소→돼지머리	
오성면 안화1리	당제	황소잡아 머리와 각 부위 사용→돼지머리, 시루떡, 삼색실과, 포, 조라술	
현덕면 대안4리	산신제, 풍어제	소머리, 시루떡, 삼색실과 포, 조라술	
현덕면 장수리	풍어제→산신제	검정돼지, 시루떡, 삼색실과, 조라술	

마을 명(名)	제(祭)의 명칭	주요 제물(祭物)	비고
현덕면 신앙1리	풍어제	멥쌀과 찹쌀 섞은 떡, 메밀범벅	
청북읍 울북1,2리	산신제	황소1마리→소머리, 소의 각 부위 구입	
청북읍 어연2리	당제	7월 : 황소 1마리 중 머리, 족, 오장육부, 적, 오색실과, 떡, 조라술 10월 : 소머리	
청북읍 삼계1리	산신제	검정돼지, 삼색실과, 떡, 조라술	
청북읍 고잔2리	정제	소머리→돼지머리	
진위면 봉남리	성황제	소머리, 돼지머리 각 1개, 떡시루 5개, 삼색실과, 나물, 포, 청주	3년에 한 번
진위면 가곡4리	당제	소족1개, 삼색실과, 떡, 탕, 북어2개, 조라술	
진위면 견산1리	당제	황소머리 및 소의 각 부위→소머리	
진위면 갈곶리(현 오산시 갈곶동)	성황제	소머리→소족1개, 천렵, 간, 닭	
진위면 마산1리	정제	황소1마리를 마을에서 도축→도축장에서 도축→시장에서 소고기 10근 구입함	
서탄면 금암2리	산신제	황소를 잡아 각 부위를 사용→소머리, 소의 각 부위를 구입함.	
서탄면 마두1리	서낭제	황소잡아 소머리만 사용(1970년대 이전)→돼지잡아 돼지머리만 사용	
서탄면 사리	산신제	소를 잡아 소머리와 각 부위를 사용	

표2)를 분석하면 평택지역 마을제에서 사용된 제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가 제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의 경우에는 잡티 없는 깨끗한 황소를 잡아 올리거나 소머리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며, 돼지는 잡티 없는 흑돼지를 사용했다. 풍습 읍 도곡3리 당두마을처럼 닭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과거 관(官)과 관련된 지역으로 성황제가 거행되는 마을에서는 제물(祭物)의 내용이 달랐다. 예컨대 조선시대 화천역이 설치되었던 팽성읍 추팔1리는 ‘백설기, 삼색실과, 조라술’

만을 제물로 사용했으며, 진위현의 읍치(邑治)였던 진위면 봉남리 성황제는 ‘소머리, 돼지머리 각 1개, 떡시루 5개, 삼색실과, 나물, 포, 청주’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진위현의 해창(海倉)이 설치되었던 해창 3,4리는 ‘황소머리, 적, 오색실과³⁷⁾, 탕, 포, 무나물, 백설기, 조라술’이 사용됐다. 셋째, 풍어제가 거행됐던 서평택지역 어촌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제나 산신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아산만 어업이 가장 발달했던 현덕면 신앙1리는 소나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떡과 메밀범벅으로만 제를 올렸다. 주민들은 용신(龍神)이 메밀범벅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을의 경제적 사정이나 특별한 경험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마을에서 소나 돼지를 도살했을 경우에는 소머리와 우족, 내장의 각 부위를 제물로 사용했지만 돼지는 돼지머리만 제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고기는 집집마다 똑 같이 분배했다. 다섯째, 일제 말 소의 민간도살이 금지되었을 때와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기 미신타파운동이 전개되면서, 또 휴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소를 도살하지 않고 소머리나 돼지머리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여섯째, 당제나 산신제와 정제(우물고사), 서낭제, 장승제가 함께 거행되는 경우, 정제나 다리제, 보제를 지낼 때는 당제나 산신제를 지낸 제물로 간단히 지내거나 떡과 포, 술 또는 시루떡과 술만으로 간단히 거행했다. 일곱째, 1990년대 이후 마을 공동체의 삶과 정서, 신앙의 변화로 마을제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황소를 도살했던 마을에서는 소머리나 돼지머리로, 돼지를 잡았던 마을에서는 돼지머리로 변화했다. 여덟째, 표2)에 들어 있지 않은 마을제의 경우는 대부분 소머리나 돼지머리가 제물로 사용되었다.

제의(祭儀)에 사용된 제물들은 제(祭)가 끝난 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소염을 맡은 사람이 집집마다 똑같이 나눴다. 제물은 ‘액막이 음식’으로 인

37) 대추, 밤, 감에 사과에 배가 추가된 것을 말한다.

식되어 이것을 먹어야 1년 동안 탈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도살된 소 고기나 돼지고기도 집집마다 똑같이 나눠 먹었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도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어서 민간도살이 금지되었지만 마을제를 지내는 경우에만 허락되어서 민중들에게는 단백질원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

5. 평택지역 마을제의 제의방식과 특징

평택지역 마을제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마을에 따라, 시대변화에 따라 제의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평택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황제, 당제, 산신제, 정제를 중심으로 마을제의 제의방식과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성황제

평택지역에서 성황제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을은 4~5곳 정도이다. 앞서 밝혔듯 대체로 과거 읍치(邑治)였거나 관(官)과 관련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황제로는 봉남리 성황제, 객사리 성황제, 추팔리 성황제(산신제), 포승읍 대덕산 당제, 고덕면 해창3,4리 성황제, 진위면 견산4리 성황제, 갈곶1리(현 오산시 갈곶동) 성황제 등이다.

평택지역 성황제는 당주와 제관을 선출하지만 제의절차를 무당이 주관하며 당굿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서탄면 사리는 마을 뒤의 통관사 법사가 주관하기도 한다. 특히 읍치(邑治)의 성황사에서 거행되는 성황제는 고을의 수령이 제관(초헌관)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⁸⁾ 제관, 제물의 종류도 당제나 산신제와 다른 경우가 많으며, 당제나 산신제가 남성중심이고 유교적인 형식이며 여성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는데 반해 여성과 아

이들도 제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진위면 봉남리는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치(邑治)다.³⁹⁾ 자연마을은 동부(1리), 서부(2리), 아곡(3리) 등 3개의 마을로 편성되었다.⁴⁰⁾ 봉남리 당제는 봉남1,2,3리에서 거행하는 마을제다.⁴¹⁾ 봉남리에서는 지금도 3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에 성황제⁴²⁾를 지낸다. 이 지역에서는 성황제를 당제(堂祭)라고 부른다. 마을제당은 진위면사무소 뒤쪽 산 중턱에 있다. 제당 안에는 ‘성황지신’이라고 쓰인 위패가 모셔졌고 우측 모서리에는 서낭대가 있다. 당주는 옛날에는 무당에게 가서 생기복덕을 따져 선출했지만 지금은 3개 마을 이장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제일(祭日)이 되면 당주의 지휘 하에 남자들이 제당(祭堂)과 당우물(샘)을 청소하고 소머리⁴³⁾와 돼지머리, 떡시루 5개, 삼색과일, 나물, 포, 청주를 제물로 준비한다. 제의과정에서 무당은 과거에는 보통 3~5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팽성읍 추팔리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과 아전이 제관을 맡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진위면장(북면장)이 제관을 맡기도 했다. 제의에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지만 월경을 하거나 부정한 사람은 금지된다. 제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이 제물과 청주를 음복하고 나머지 제물(祭物)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조선시대 화천역이 설치되었던 팽성읍 추팔리에서도 성황제가 거행된다. 이 마을에서는 성황제를 산신제라고 부르지만 마을제당이 ‘성황당’이고 안에 모셔진 신위도 ‘성황지신(城隍之神)’이었다. 지금은 2008년에

39) 김해규,《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 평택문화원, 2008

40) 황언년(82) : 2007년 7월 봉남2리 경로당에서 인터뷰

41) 이상렬,《진위면의 민간신앙》, 평택시. 평택시문화원 편《진위면지》, 1999

42) 본래는 성황제(城隍祭)라고 불렀지만 조선왕조가 망하고 관아가 해체되면서 ‘당제(堂祭)’라고 부르게 되었다.

43) 옛날에는 당주 주관으로 암소를 잡아 올렸지만 지금은 비용문제로 무당에게 일임하여 소머리로 대신한다.

38) 진위면지편찬위원회,《진위면지》, 평택문화원, 1999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황지신인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외에 관우장군이 모셔졌다. 성황당에서는 당제와 산신제를 모두 올렸다. 당제와 산신제를 지낸 뒤에는 마을로 내려와 정제(井祭)를 지낸다. 제의의 특징은 제일(祭日)이나 당주(堂主)를 무당에게 의뢰하여 정하고 제의절차도 무당이 주관하며 축문대신 고사소리를 한다는 점이다. 제물(祭物)도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고 백설기와 삼색실과만 준비하며, 제비(祭費)도 주민들에게 거출하지 않고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하며 거둬들인 것과 마을제를 지낼 때 소원 빌러 오는 사람들이 내는 쌀을 모아 충당한다. 제의과정에서도 당기를 든 풍물패가 동원되며⁴⁴⁾, 무당이 고사소리하고 나면 주민들 중에 강신(降神)이 이뤄진다.⁴⁵⁾

포승읍 방림2,3리는 고려시대 신영장⁴⁶⁾이다. 대덕산 당제는 신영장에서 비롯된 성황제 성격을 갖고 있다. 당제는 3년에 한 번 동짓달 가운데 흠없고 부정 타지 않는 날을 잡아 ‘성황신’에게 지냈다. 제의는 생기복덕을 따져 선출한 당주와 제관이 주도하고 축관도 주민들 중에서 선출하지만 이것은 조선시대 제의방식이 유교식으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지금은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에코센터 건립으로 폐동된 고덕면 해창3,4리는 조선시대 진위현 해창(海倉)이 있던 마을이다.⁴⁸⁾ 마을제당 상량(上梁)에는 ‘도광(道光) 12년(1832)’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어 마을제의 전통이

44) 마을제의 형식은 제사형, 풍물형, 무속형으로 구분한다. 제사형은 유교적 제사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풍물형은 풍물패가 등장하고, 무속형은 제의를 무당이 주관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7 참조

45)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1, 2009

46) 장(莊)은 고려시대 왕실의 여료지나 왕족이나 사원이 소유한 특수한 장원으로 지방행정조직인 군현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편성되었다.

47)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 평택문화원, 2008

48) 김해규, 《평택역사산책》, 평택시민신문, 2013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창리 마을제당은 상당신(할아버지당)을 모신 윗제당과 하당신(할머니당)을 모신 아래제당(해창(海倉)으로 구분되었다.⁴⁹⁾ 그러다가 해창4리 창말 즈나무 뒤에 있던 아래제당이 간척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상당신만 모시게 되었다. 윗제당 안에는 ‘성황지신’이라고 쓰인 위패 두 개가 모셔졌다. 위패가 두 개인 것은 아래제당에 모셨던 위패를 윗제당에 함께 모셨기 때문이다. 두 제당은 본래 무속인들이 관리했고 아래제당은 무속인들만 섬겼다. 본래 제당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당제와 하당제를 따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창3,4리 성황제에서는 삼색실과 대신 사과와 배를 올리고, 탕과 무나물도 올리며, 특이하게도 오색사탕도 올린다. 당제가 끝나면 밖에서 성황신이 거느린 12명의 수비에 게도 제를 올린다. 하위신에게도 제를 올리는 것은 경상도나 중부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해창리에서만 볼 수 있다.⁵⁰⁾

2) 당제(堂祭)⁵¹⁾와 산신제(山神祭)⁵²⁾

49) 이관호, 〈마을 공동체 신앙의 구성체계 분석 연구-충남 홍성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이관호는 마을신앙의 제의 형태를 상당, 중단, 하당으로 구분하는 삼중구조, 또는 상당, 하당으로 구분하는 이중구조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당신이라면 거리제에 해당되는 장승, 솟대, 선돌, 서낭당, 탑 신앙과 산신의 하위신인 수비를 말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상당, 하당의 이중구조 형태가 일부 나타나고 대부분 상당신만 섬긴다.

50)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1, 2009

51) 마을제를 ‘당제(堂祭)’로 호칭하는 지역은 서해안과 호남지역이다.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산신제와 구별되나 혼동되기도 하며, 제의 시기는 정월에 많이 지내지만 10월, 7월, 선달그믐 등 일정하지 않다.

52) 산신에게 올리는 제의다. 고대사회의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며 지역민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산신, 산신할아버지, 산할아버지, 산왕, 산군 등 다양하게 불리며, 호랑이를 대동한 산신도, 위패, 말 등으로 모셔지며 신목으로 소나무를 모신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2009 참조

앞서 밝혔듯 평택지역에서 당제와 산신제는 정제(井祭)와 함께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당제와 산신제는 제의 시기가 음력 정월과 10월에 많이 지내지만 마을과 지역에 따라 선달그믐이나 칠월 칠석, 6월에 지내는 경우가 있고, 정월에 지내지만 부정을 타면 7월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신격(神格)도 입향조를 모시거나 성황신, 서낭신, 산신 등 다양하며, 제물(祭物)도 다른 경우가 있다.

세교동 은실마을은 금녕 김씨 충의공파 집성촌이었다. 마을제당은 은실 북쪽 당산 정상부에 있다. 제당에 모신 신위(神位)는 ‘서낭’이다. 당제는 음력 2월 3일이다. 음력 2월 3일은 금녕 김씨 입향조 은곡공 김정대(金鼎大)의 생일이다. 주민 이영기(남, 1937년생)는 입향조를 신앙 대상으로 섬기게 된 것은 은곡공 김정대와 아들인 소은공 김재원의 효행⁵³⁾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효행으로 국가로부터 정려(旌閭)를 받아 마을제당에 신위를 모시고 김정대의 생일에 제를 올리게 되었다는 주장이다.⁵⁴⁾ 입향조를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거 진위면에 속했던 오산시 갈곶동⁵⁵⁾에서도 볼 수 있다.⁵⁶⁾ 입향조를 마을신으로 모시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⁵⁷⁾ 입향조 등 특정 인물이 마을신으로 섬겨

지는 것을 ‘인격신’이라고 한다.⁵⁸⁾ 입향조는 마을신화를 구성하는 마을신의 유형으로 신격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입향조 관련 신화는 신성시되어 전승되는데 세교동 은실마을의 김정대, 김재원의 효행관련 설화도 그 중 하나다.

고덕면 당현1리는 300여 년 역사를 지녔다. 영양 천씨와 의령 남씨가 대성(大姓)이며 벼농사와 밭농사가 고루 발달했다. 자연마을은 당현(당고개, 당아래, 1리), 늪말과 청룡말(2리), 내촌(안말, 3리), 막금(4리)으로 구성되었다. 마을제당은 당현1리 원당현(당고개) 북동쪽 당산에 있다. 제당은 엄나무를 중심으로 소나무, 밤나무가 당숲을 이루며 그 안에 당집이 있다. 신격은 산신(山神)이지만 명칭은 당산제라고 부른다. 당현리 마을제당은 4개 자연마을이 함께 섬겼다. 제일(祭日)이 가까워오면 생기복덕을 따져 당현1리와 당현2~4리에서는 제관과 당주(당현리에서는 주당이라고 함), 축관을 뽑은 뒤 금기를 지켰다. 제물은 소를 잡아 올리는데 흥년이 들면 소머리로 대체한다. 당현리 당산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원당현에서 먼저 제를 올리고 나면 나머지 마을이 연합해서 제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또 4개 마을이 함께 소를 잡은 뒤에도 당현1리에서 소머리와 소고기로 먼저 제를 올리면 3리 내촌을 비롯해서 나머지 마을에서 소머리와 살코기, 간, 천엽, 우랑으로 제를 올렸다. 이것은 마을형성 시기가 가장 앞 선 원당현에서 마을제당을 마련하고 제를 올리다가 나중에 형성된 2~4리가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당현리 당산제는 지금도 지내지만 제물도 간소화되었고 두부, 부침개, 누름적, 수박, 참외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제물로 사용되고 있다.

안중읍 금곡3, 4리는 쇠누리와 숲말(임동)이다. 이 마을은 한양 조씨,

53) 소은공 김재원의 효행에 관해서는 금녕 김씨 세보(1899년 판)에 수록된 면암 최익현의 ‘은곡공(銀谷公)사적’과 ‘소은공(素隱公)사적’에도 나타난다.

54) 이영기(76세)가 모친과 마을 어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대와 김재원은 높은 인품과 뛰어난 효행으로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나라에서도 두 부자(夫子)의 효행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예조에서 효자(孝子) 정려(旌閭)를 내렸고, 19세기 중반에는 당대 대학자이며 성균관 재주었던 임헌회가 찬(撰)한 신도비도 건립되었다.’ 현재 정려는 은실마을의 김념 김씨 세력이 약화되고 주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청주로 옮겨 복원되었다.

55) 오산시 갈곶동은 1995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오산시로 편입되었다.

56) 옛 갈곶1동 마을제당은 ‘성황지신’인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그리고 입향조인 강좌상과 마부를 모신다.

57) 백민영,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23년 편찬완료 예정

58) 이관호, 앞의 논문

전주 이씨, 경주 이씨가 대성(大姓)이며 농업이 주산업이다.⁵⁹⁾ 쇠누리와 숲말에서는 산신제를 지낸다. 제당은 3리와 4리 사이 고령산에 있다. 제당 안에는 흙으로 만든 말 두 마리를 모셨다. 본래는 나무를 깎아 모셨다가 나중에 흙으로 다시 만들었다. 말은 산신도나 호랑이와 함께 산신(山神)을 상징하는 신물(神物)이다. 산신제는 정월 흙 없는 날을 잡아 두 마을이 합동으로 지냈다. 제물은 소를 잡아 소머리와 각 부위를 올렸고 떡은 백설기를 사용했다.

청북읍 울북1,2리도 산신제를 지낸다.⁶⁰⁾ 울북리는 근대 이전 양성군 울북면의 중심마을이다. 자연마을은 1리(밤뒤, 맹골), 2리(안골), 3리(장계동), 4리(상현), 5리(불정)이다. 이 가운데 1,2,5리는 몇 백 년의 내력을 가졌지만 3,4리는 새로 형성되었거나 수해로 진위천변에서 이주한 마을이다. 특히 1,2리는 본래 같은 마을이었다가 분동(分洞)되어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다. 울북1,2리 마을제당은 울북1리 북쪽 당산 기슭에 있다. 산신(山神)은 산의 정상부나 양지바른 중턱, 산 아래에 머무는데 울북리 마을제당은 당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⁶¹⁾ 제당은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가로 60cm, 세로 40cm 규모로 아주 작으며 안에는 구리로 만든 말 두 마리가 모셔졌다. 앞서 안중읍 금곡3,4리 산신제에서 밝혔듯 말은 산신을 상징하는 신물이다. 울북리 말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신주(황동)로 다시 만들어 그 위에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를

모셨는데 도둑맞으면서 구리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⁶²⁾ 제일(祭日)이 가까워오면 생기복덕에 따라 제주와 당주를 선출했고 금기도 철저히 지켰다. 제물은 옛날에는 소를 잡았다. 소는 당샘 옆 정해진 장소에서만 도살할 수 있었다. 도살된 소는 머리와 오장육부 각 부위와 소고기 적 세 쪽만 제물로 올렸으며 과일은 오색실과를 올렸다.⁶³⁾

3) 풍어제(豐漁祭)

평택지역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산만 연안마을과 안성천 하류를 중심으로 어업이 발달했다. 그러다가 여말선초부터 해안지역이 간척되고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어촌에서는 선달그믐이나 출어를 할 때 뱃고사를 지냈고 정월이나 4월경에는 풍어제를 지냈다. 이 같은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을이 현덕면 대안4리와 장수리다. 그밖에 포승읍 만호5리, 현덕면 신왕1리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현덕면 장수리는 아산만 연안에 위치한 반농반어의 마을이었다. 과거 주민들은 어업도 하고 농사도 지었으며, 여성들을 중심으로 맨손어업도 발달했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10월에 당제를 지낸다. 제당은 마을 동쪽에 있다. 당숲은 엄나무와 참나무로 형성되었고 그 안에 당집이 있다. 당집 안에는 어른 주먹 두세 개만한 돌맹이가 놓여 있다. 옛날에는 어른 손바닥 너댓 개만한 나무 조각이 모셔졌는데 없어진 뒤에 돌맹이로 바꿨다

59) 신은호(56세, 숲말), 김원중(57세, 쇠누리), 2007년 6월 3일 숲말에서 인터뷰

60) 안춘배(2009년, 75세) 외 7인, 울북1리 경로당에서 인터뷰

61) 산신(山神)은 산의 주인으로 산 정상에서 주변을 아우르기도 하지만 산의 중턱 양지바른 곳에서 편안히 머물기도 하고, 수전농업의 발달로 저습지가 개간되면서 산의 아래로 내려온 경우가 있다.

62) 김영배(85세), 송용기(79세), 김종구(58세, 당주), 오세선(이장, 64세), 박윤희(제관, 66세), 울북리 밤뒤마을 경로당 및 마을에서 2009년 2월 4일 인터뷰

63) 평택문화원,《평택민속지》상, 2009

고 한다. 출향인 오재환(남, 1928년생)⁶⁴⁾은 나무 조각이 부서진 배의 파편이라고 주장했다. 오재환과 주민 홍세기(남, 1947년생)는 배의 파편은 용신(龍神)의 신물(神物)이며 돌맹이는 거북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돌맹이를 섬기게 된 것은 장수리가 천지개벽 때 바윗돌이 굴러와 멈춘 곳에 마을을 이뤘기 때문이다. 오재환이 어릴 적에는 당집을 ‘해신당(海神堂)’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장수리 마을제당은 본래 해신당(海神堂)으로 사용되다가 장수리 서쪽 원논 일대가 간척되고 농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신당(山神堂)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의 형태가 바뀐 뒤에도 제당 안에 모신 신위(神位)만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제일(祭日)은 음력 10월 초하루다. 제물(祭物)은 잡털 없는 흑돼지 두 마리(1960년대 말부터는 한 마리)와 삼색실과, 떡(백설기), 조라술을 올렸다. 그러다가 1970년을 전후 비용문제로 한 마리로 축소되었고 제의절차도 유교식으로 바뀌었다.

현덕면 대안4리는 구진 또는 구진개라고 부른다. 이 마을은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어촌이었다. 바닷물은 대안4리를 거쳐 대안2리 의경재까지 들어갔다.⁶⁵⁾ 그래서 어업도 발달했고 경기도 웅진군의 굴배, 새우젓배, 소금배가 드나들었다. 대안4리의 마을제당은 마안산 중턱에 있다. 신목(神木)은 본래 엄나무였지만 지금은 팽나무다. 음력 10월 초 3일에 산신제를 지냈고 제물로는 소머리를 올렸다. 산신제의 특징은 제관 부부가 함께 올라가 제(祭)를 지낸다는 사실이다. 조선후기부터 마을제에서는 부

정을 탄다고 해서 여성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채롭다. 음력 10월 상달에는 어민들만 따로 낱을 잡아 산신당에서 풍어제를 지냈다.⁶⁶⁾ 어민들은 설달그믐에 어선마다 배에 기를 꽂고 뱃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제의방식이나 음식은 산신제와 풍어제가 비슷했다.

현덕면 신왕리도 어촌이었다. 당두포 주변에 형성된 신왕1리 말머리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을 했지만⁶⁷⁾ 신왕2리는 철에 따라 어업을 하다가 농사철에는 농사만 지었다. 신왕리 마을제당은 본래 고등산 정상에 있었다. 그러다가 미군기지 주둔으로 나무가 베어지면서 신왕1,2리는 음력 10월 상일에 덕목5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신목(뒷서낭)에 산신제를 지냈고, 대안리로 넘어가기 전의 당목에도 신왕1리 주도로 제를 올렸다. 산신제는 매년 지내지 않고 마을에 액운이 끼었을 때나 큰 일이 발생했을 때만 지냈다. 어민들은 따로 풍어제를 지냈다. 마두1리의 풍어제는 정월 열나흘 밤 들물 때에 지냈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시루떡, 복어, 적, 삼색실과, 조라술을 올렸다. 음력 4월 3매날(물때가 3매일 때) 물이 뜨면 뱃고사를 먼저 지낸 뒤 어선에 기를 꽂고 풍어제를 지냈다. 4월 풍어제는 고기잡이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용왕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풍어제의 제물은 특이하게도 찹쌀과 멥쌀을 섞은 떡과 메밀범벅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메밀범벅은 용신(龍神)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한다.⁶⁸⁾

팽성읍 노양1리(경양포, 계양)⁶⁹⁾는 안성천 하구와 둔포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고려시대 하양창과 경양현이 설치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직

64) 오재환(남, 1928년생)은 장수리 출생으로 해방직후 조기회 운동을 전개하며 야학과 민중계몽, 생활개선운동을 했고 한국전쟁 뒤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사업을 했다. 출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과 관계를 맺고 두매리를 장수리로 개명하는 사업, 장수리향우회 결성, 장수리장학회 조직 등을 주도하며 마을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2020년 4월 23일 전화인터뷰)

65) 신건철(75세), 신동홍(75세), 신남철(80세), 조연희(75세), 2013년 3월 2일 대안2리 경로당에서 인터뷰

66) 54) 한철우(63세), 한경선(58세), 2005년 2월 21일 구진개 마을회관에서 인터뷰

67) 이태수(84세), 인원환(77세), 이상근(64세), 김인태(73세), 2013년 3월 2일 신왕1리 경로당에서 인터뷰

68)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2009

69) 구재권(78세), 방춘성(78세), 강청노(80세), 박상기(69세), 문용섭(74세) 외, 2009년 1월 10일 노양1리 경로당에서 인터뷰

산현과 평택현의 해창이 있었던 마을이다. 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업과 포구상업이 발달했고 안성천 하류 수로교통의 요지로 역할 했다. 노양리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음력 정월 초에 길일을 잡아 마을제를 지냈다. 이날에는 산신제를 비롯해서 샘제, 서낭제, 다리제를 함께 거행했으며 해방 전까지는 소를 잡아 지냈다. 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당샘 옆 큰 돌판에서 잡았다. 또 제물을 구입할 때 절대 값을 깎지 않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제일(祭日)이면 당주가 칠성당, 각시당 등 일곱장의 그림을 그려 당집에 붙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임경업장군도를 걸었다. 칠성당, 각시당 등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면, 임경업 장군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막아주는 해신(海神)으로 섬겼으므로 노양리 마을제당도 본래는 해신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물은 소머리와 밤, 사과, 배, 포, 나물, 시루떡이었고 술은 약주를 걸러내서 사용했다. 오색실과 중 감과 대추가 빠졌는데 이것은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산신제를 마친 뒤에는 샘제를 올렸다. 샘제의 제관은 산신제와 별도로 선출했다. 제물은 산신제를 지낼 때 바구니를 들고 와서 조금씩 나눠 뒀다가 사용했다. 소지를 올릴 때는 다른 고장에서 온 어선(漁船)의 선주나 뱃사람들도 돈을 내고 부탁해서 함께 올렸다. 음력 정월 14일에는 서낭제를 지냈다. 서낭제는 주민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끼리 당주를 선출하고 지냈다. 제물은 떡과 삼색실과만 올렸다. 어선을 보유한 주민들은 선달그믐에 뱃고사를 지냈다. 뱃고사를 지낼 때는 깨끗하게 배를 청소하고 시루떡과 삼색실과만 올렸다.⁷⁰⁾

4) 정제(井祭)

정제(井祭)는 우물의 용신(龍神)에게 지내는 마을제다. 평택지역에서는 우물고사, 샘제, 용신제, 샘고사, 정제사라고도 부른다. 우물제는 정월 세

시풍속의 하나로 거행되는 경우도 있고⁷¹⁾ 평택지역처럼 당제나 산신제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체로 정월 대보름 이전에 거행되지만 때론 음력 10월이나 정월 초, 칠월 칠석에도 지낸다. 정제(井祭)의 신격은 용신(龍神)이며 물을 신격화한 수신(水神)이다. 용신은 본래 수신으로 물을 관장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풍요를 의미하기도 했고 개인구복과 무병장수, 평안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제(井祭)에는 제의와 풍물굿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시작하며 간단하게 우물에 예를 갖추기도 한다.

진위면 마산1리 오룡동은 정월 대보름에 정제(井祭)와 줄다리기를 한다. 오룡동에서는 정제를 우물고사라고 부른다. 오룡동에는 공동우물 4개가 있었다. 큰우물은 마을회관 근처 지금은 철거된 정미소 옆에 있었다. 예전에는 큰 우물을 중심으로 매년 우물고사를 지내다가 2000년 전후에는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만 지냈고, 2010년 전후 오룡동줄다리기가 외부로 널리 알려지면서 매년 우물고사와 줄다리를 거행한다. 우물고사는 본래 7월 그믐쯤 거행했다. 제의 날짜가 잡히고 제관이 선정되면 금기를 엄격히 지켰고 우물을 청소한 뒤에 큰우물에 옷나무 장대 세 개를 세우고 금줄을 쳤다. 우물고사는 오전 10시 경에 큰우물에서 시작해서 네 개 우물에서 모두 지냈다.⁷²⁾ 제물(祭物)은 잡티 없는 황소를 잡아서 각 부위별로 살을 발라 막걸리와 함께 올렸다. 제의방식은 당제나 산신제처럼 유교식이었고 제의가 끝나면 풍물패가 풍물을 쳤고 마을주민들은 먹고 마시며 놀았다. 제(祭)를 올리고 남은 소고기와 선지, 내장 부속은 집집마다 똑같이 나눴다. 우물고사가 끝난 뒤에는 소선지를 갖고 집집마다 대문에 열십자를 그렸다. 이것은 피가 액운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7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민속신앙사전》, 2009

72) 평택문화원, 《진위면지》, 1999

70)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2009

여성들은 우물에 걸쳐놓은 옷나무에 나눠 가진 소고기 한 점씩 걸어 놓고 물을 뿌리며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했다. 오룡동 정제(우물고사)는 2010년을 전후해서 정월대보름 줄다리기가 지역축제로 거행되면서 음력 정월로 제의시기를 옮겼다. 마을에서는 오전에 우물고사를 지내고 하루 종일 윷놀이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놀다가 저녁이 되면 줄다리를 한다.

이충동 동령마을은 고려시대 송장부곡의 중심이었다. 이 마을 정제(井祭)와 줄다리는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동령마을은 정제(井祭)를 샘고사라고 부른다. 샘고사는 공동우물에 지낸다. 제의시기는 정월 첫 용날이다. 제의방식은 당제나 산신제와 똑같다. 생기복덕을 따져 제관과 축관을 선출하고 금기를 엄격하게 지킨다. 금기 중에는 비린 생선을 먹지 않고 심지어 도마에 칼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생산 잡거나 도마소리를 용신(수신)이 싫어하기 때문이다.⁷³⁾ 제물은 본래 잡털이 섞이지 않은 흑돼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소머리와 삼색실과, 백설기, 탕, 포와 당일 아침에 담근 식혜를 사용했다. 다른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흑돼지가 소머리를 바뀐 이유는 ‘잡털 없는 흑돼지를 구하기 힘들어서’이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진행됐다. 제의는 소지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소지는 마을마다 올리는 방식이 다른데 동령마을은 세대별로 올렸다. 동령마을 샘고사는 줄다리와 별도로 지냈지만 2005년을 전후해서 줄다리를 지역축제로 거행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간소하게 지냈다가 근래 줄다리가 중단되면서 지내지 않는다.⁷⁴⁾

팽성읍 노성1리는 신성포다. 신성포는 둔포천 수로에 위치한 포구이고 둔포와 다리 하나 사이로 인접했다.⁷⁵⁾ 생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는 어업이나 포구상업, 포구와 관련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신성포는 음력 정월 초에 산신당에서 제를 올렸다. 제물은 잡털 없는 흑돼지와 삼색실과, 포를 올렸다. 특이한 점은 다른 마을은 돼지를 잡아 머리와 각 부위를 올리는데 반해 이 마을은 통돼지 한 마리를 모두 올렸다는 점이다. 또 액막이 음식인 제물을 나눌 때에도 제비(祭費)거출 때 낸 금액에 따라 상, 중, 하로 차등 분배했다. 산신제를 올린 뒤에는 마을공동우물에서 정제(井祭, 우물고사)를 지내고 다리에는 다리제를 지냈다. 다리(노성교)는 신성포에서 둔포로 넘어가는 유일한 교통로였다. 옛날에는 섶다리였다가 나중에 흙다리로 교체했고 새마을운동을 하며 지금의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 다리제는 북어포만 올려놓고 간단히 지냈다.

6. 맺음말

평택지역 마을신앙은 한반도 중부지방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구릉과 평야, 해양문화가 복합된 평택지역의 지리·경제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근대 전후 갯벌과 해수면이 간척되어 전통의 어촌들이 반농반어 또는 농촌지역으로 변모되면서 마을신앙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반촌(班村)이거나 마을형성 시기가 짧은 마을에서는 마을신앙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교적 영향과 함께 마을신앙이 공동체성과 밀접히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지역 마을신앙은 성황제(城隍祭)와 산신제(山神祭), 당제(堂祭), 정제(井祭)가 많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다리제나 장승제, 보제(湫祭)가 일부 존재했다. 성황제는 주로 과거 관아(官衙)나 관(官)관 관련된 마을에서 전승되었고 산신제는 안성천 북쪽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성황제는 제(祭)를 무당이 주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당제는 산신제와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없이 지역과 마을에 따라 명칭만 달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는 오래된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거행하며 당제나 산신제를 지내

73) 송탄문화원, 《송탄시사》, 1994

74) 송탄문화원, 《송탄의 민속과 설화》, 1993

75) 평택문화원, 《팽성읍지》, 2010

지 않더라도 정제(우물고사)를 지내는 마을이 많았다. 이것은 당제나 산신제가 마을공동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데 비해 정제(井祭)는 생존의 절박함과 관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하류를 중심으로 풍어제와 뱃고사가 발달했다. 풍어제와 뱃고사는 어민들의 마을신앙이지만 1974년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방조제가 준공되고 어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대부분 중단되거나 산신제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의방식은 유교식을 따르지만 풍어제의 전통이 있는 마을에서는 무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교적 제의방식에서는 여성들이 참여가 금지되지만 특정 마을에서는 제관 부부가 함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물은 대부분 소와 돼지를 사용했지만 극히 일부 마을은 소고기와 닭을 함께 올리기도 하고, 닭만 올리기도 하며, 소나 돼지, 닭 없이 떡과 삼색실과, 술만 올리기도 했다. 일제 말 전시체제기,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흉년 등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재해가 닥치면 제물을 줄이거나 제의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금기를 어겨 부정을 타면 제의날짜를 바꾸기도 했다. 제물에 삼색실과를 올리는 것과 제사의식이 끝난 뒤 새벽 동터오기 전 소염이 집집마다 제물을 나누는 행위는 공통적이었지만, 1990년대 전후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고 마을제가 약화되면서 제관을 이장이나 마을 임원들이 담당하고 제물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나눠 먹는 형태로 바뀌는 모습은 평택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평택지역 마을제는 1990년에서 2000년대 사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존속되는 마을에서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기보다 마을임원과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평택지역의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적 영향, 이촌향도나 젊은층의 도시정책으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노령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농업기계화와 의료해택의 확대로 무속에 기대고 의존하는 삶이 크게 약화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평택지역 마을제는 과거 농촌공동체를 지탱해온 민중들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매우 가치 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부락제》, 193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세시풍속(2001), 민속신앙(200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2009
 평택문화원, 《진위면지》, 1999
 평택문화원, 《팽성읍지》, 20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995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 민속원, 2004
 강성복, 《충청민속문화론》, 민속원, 2005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3권), 평택문화원, 2008
 김의숙, <민속신앙 의례와 속신의 음양관>,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허용호, <마을곳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연구》 제13집, 한국민속학회, 2006
 이두현 외, 《한국 민속학 개설》(개정판), 학연사, 1983
 이관호, <마을 공동체 신앙의 구성체계 분석 연구-충남 홍성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평택의 가정신앙(家庭信仰)의 양상과 의미

최자운/세명대학교 교수

차례

1. 머리말
2. 평택지역 가정신앙(家庭信仰) 사례
3. 평택지역 가정신앙(家庭信仰)의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그간 조사된 평택지역 가정신앙 양상을 의례 대상 및 목적별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평택지역 가정신앙 조사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진위면 봉남3리, 현덕면 장수리, 안중면 덕우1리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신앙 사례를 조사하고 특징을 요약 정리하였다.¹⁾ 평택소재 읍 및 면지 편찬위원회에서는 가정신앙을 지역 별로 현장 조사하였다.²⁾ 이 조사 보고서들은 70, 80대 토박이들 대상 저인망식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택지역 일생 및 세시의례,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례의 변화 관련 연구는 한 차례씩 진행되었으나, 가정신앙 자체로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³⁾

평택지역 가정신앙은 크게 지신밟기, 상달 고사 등 가신(家神) 대상 의례와 삼신 위하기, 왕신단지 모시기와 같은 특수목적 의례, 그리고 풀에 밥질, 삼눈 잡기와 같은 치병(治病) 의례로 나눌 수 있다. 치병의례는 속신적 요소가 강하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정신앙의 연장선상에서 다룰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 가신의례와 평택 전 지역에서 조사된 여섯 가지 치병의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평택지역 가정신앙(家庭信仰) 사례

1) 가신의례(家神儀禮)

(1) 정초 지신밟기

평택에서는 대체로 정초에 유교식 제사 형태의 동제(洞祭)를 지낸 뒤 서낭신의 은혜가 가가호호(家家戶戶) 골고루 미치는 동시에 각 가정에 좌정한 가신(家神)들에게 축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농악대가 서낭기를 앞세우고 지신밟기를 했다. 지신밟기는 한 해 동안의 무탈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월 세시의례 중 하나이다. 이 의례가 시작되기 전 청년들은 우물에 들어가 물을 다 퍼내고 내부를 청소한 뒤 우물 윗 부분을 멍석으로 덮어두었다. 마을 농악대는 가장 먼저 마을 공동우물 앞에 가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놓고 한 해 동안 물이 잘 샘솟기를 기원한다. 그 뒤 그 동네의 최고 연장자나 마을 이장의 집을 시작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순서대로 여러 집들을 방문하여 지신을 밟는다.

지신밟기가 시작되면 각 집에서는 대주 밥그릇 안에 쌀을 가득 담아 놓고, 농악대가 방문하기를 기다린다. 그 쌀은 ‘꽃반’이라고 한다. 가구별로 모인 쌀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마을 농악대가 그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문긧을 치는데 그러면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주와 기주가 나와 농악대를 맞이하였다.

농악대는 집에 들어가 우물긧 및 조왕긧을 친다. 부엌 뒷문을 통해 장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 조사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고덕면지집필위원회 편,《고덕면지》, 고덕면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07.

팽성읍지집필위원회 편,《팽성읍지》, 팽성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0.

안중읍지집필위원회 편,《안중읍지》, 안중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1.

청북읍지집필위원회 편,《청북읍지》, 청북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7.

3) 관련 논의는 아래와 같다.

김종대,〈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특징과 그 기능〉,《우리문학연구》제62집, 우리문학회, 2019.

안혜경,〈평택일기를 통해 본 일생의례와 속신〉,《실천민속학연구》제18집, 실천민속학회, 2011.

김주희,〈한국 농촌주민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화〉,《비교문화연구》제20집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독대로 나가서 터줏가리 앞에서 터주굿을 연주하고는 대청마루 앞에 차려진 고사(告祀) 상 앞으로 이동하여 마지막으로 성주굿을 쳤다.⁴⁾ 성주굿은 지신밟기의 하이라이트이다. 포승읍 방림리 토박이 이민조(1935) 구연 성주굿 고사소리를 보면, 독창(獨唱) 방식의 선고사와 치배들과의 선후창(先後唱)으로 노래하는 뒷고사로 구성된다. 선고사는 산세풀이로 시작하여, 호구별상풀이, 성주풀이, 세간풀이, 집안 축원, 화초풀이, 농사풀이, 살풀이, 액막이타령으로 이어지고, 뒷고사는 집안 축원이 노래된다. 상쇠는 이 소리를 통해 이 집터가 명당이고, 성주도 잘 계시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탈 없이 두루 평안할 것이라고 축원한다.

우물, 부역, 변소, 대문, 곳간 등에는 따로 신체(神體)가 없다. 각 장소에 서는 그곳에 좌정한 신에게 한 해 동안의 무탈과 평안을 기원하는 소리를 한다. 이곳에서 하는 고사소리들 중 한 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왕굿 : 놀릅시오 놀릅시오 조왕님전 놀릅시오 받읍시오 받읍시오 만고
복덕 받읍시오 일년은 열두달 삼백육십일 내년에 벌떡 돌아갈지라도 관
재귀신 삼재팔난 우환천환 근심걱정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 이뤄주십시
오(평택농악 최은창, 경기민속지 Ⅷ)⁵⁾

위 인용문에서는 처음에 AAXA 형태로 조왕님전 누르자고 한 뒤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이 노래되었다. 가장 먼저 조

왕을 누르자고 하는 것은 실제 조왕신이 아닌, 조왕신 아래에 존재하는 터주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뒤에 이어지는 소원성취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역에 좌정하는 조왕신에게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내용이 한 자리에서 노래되다 보니 놀려야 할 대상과 축원해야 할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였다. 이 자료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3장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2020년 현재 평택 지역에서는 동제(洞祭) 및 지신밟기 전통이 대부분 끊어졌다. 2010년대 이후 청북읍 율북1리 같은 곳에서는 마을 청장년 층들이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산신제 및 지신밟기 전통을 복원했으나, 지신밟기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였다.

(2) 시월 상달 고사(告祀)

평택지역에서는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며 정월과 음력 시월에 떡을 찌서 고사(告祀)를 지냈다. 두 가지 의례는 방식이 비슷하고, 시월에 고사를 더 많이 지낸 관계로,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가정 주부들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사(告祀)를 지냈다.⁶⁾ 이 고사를 ‘가을떡’ 혹은 ‘고사떡 만든다’ 고도 하는데, 이는 절구에다 햅쌀을 서너말 정도, 팔은 한 말 정도 빵아서 그것으로 떡을 찌서 의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고사를 지내기에 앞서 혹시 모를 부정을 막기 위해 사기 그

4) 성주는 여러 가신(家神) 중 가장 상위 신이다. 집을 새로 지은 뒤 농악대를 초청하여 낙성연(落成宴)을 할 때나 3년에 한 번씩 시월 상달에 단골 무당이 주재하는 성주굿을 할 때 새성주를 모시게 된다. 성주 신체(神體)는 참나무로 만든 막대기에 한지를 칭칭 감은 뒤 수술을 내린 형태로, 대들보 상단에 붙이기도 하고, 그 위에 올리기도 한다.

5) 이민조(1935)가 구연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그와 함께 농악대 활동을 했던 최은창 구연본을 활용하고자 한다.

6) 고사(告祀)는 손 없는 날 지냈는데, 음력으로 1, 11, 21일과 2, 12, 22일에 동쪽, 3, 13, 13일과 4, 14, 24일에 남쪽, 5, 15, 25일과 6, 16, 26일에 서쪽, 7, 17, 27일과 8, 18, 28일에 북쪽에 손이 있다고 여겼다. 9, 19, 29일과 10, 20, 30일은 손이 없는 날이므로 날짜의 끝이 9와 10으로 끝나는 날들 중에 하루를 선택했다.

제보자들 중에는 시월상달은 귀신달로, 연중 귀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차린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가라는 의미에서 이 달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들도 있었다.

릇에다 냉수를 한 사발을 뜨고 아궁이 아래에 있는 깨끗한 재를 긁어서 그 그릇에 넣었다. 물과 재를 담은 그릇은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 이것은 우리 집에 상달고사를 지내니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표시이다.

제물인 떡을 찌는 도중에도 부정을 타게 되면 떡이 제대로 찌지지 않는다. 일단 선떡은 다시 찌려해도 익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여성들은 떡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시루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시월 상달 고사의 첫 번째 순서는 성주 위하기이다. 가정 주부는 대청 마루의 한 쪽에 작은 상을 두고 그 위에 시루를 놓는다. 시루 가운데에는 대주의 밥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서 올리고, 시루 양쪽 옆으로 마른 북어를 세웠다. 의례 주관자는 대주를 비롯하여 집안사람들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절을 했다. 가정에 따라서는 청수 대신 막걸리를 놓기도 했다. 그 다음 집 뒤안의 장독대 앞에 있는 터줏가리⁷⁾ 앞에 짚을 깔고는 다른 떡시루를 그 위에 놓고 터주님께 집안이 무탈하기를 기원했다.

두 군데 의례를 마치면 떡시루들을 마루로 가지고 와서 조각조각 썰어서 제석주머니, 부엌, 우물, 대감항아리⁸⁾, 외양간, 곳간, 변소 등에 두었다. 20여분 정도 둔 뒤 고사를 모두 마치면, 집안의 아이들이 그 떡들을

7) 터줏가리는 짚 이엉을 이어서 만들되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나무 막대기로 중심축을 만들었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축을 '말짱'이라고 한다. 그 안에는 뚜껑이 있는 집그릇에 한 말 정도의 찰벼를 넣어 두었다. 새로 수확한 벼를 넣어두면 1년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간혹 그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려면 쥐가 그 벼를 다 파먹어버리거나, 그 쌀에 이상이 생기는 수가 있었다.

8) 대감은 가신(家神)의 하나로, 집안의 재물(財物)이나 재복(財福)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떡은 모두 나누어 먹지만, 대감을 위한 떡은 이웃집에 돌리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먹었다. 재운(財運)이 나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감항아리에는 항상 곡식을 채워두었다.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대감항아리 쌀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거지들이 동냥을 와도 대감항아리의 쌀은 퍼주지 않았다.

이웃집에 돌리는 심부름을 하였다.⁹⁾

70, 80대 여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시어머니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터라, 1990년대까지도 고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생활공간이 현대화되면서 2020년 현재 시월 상달고사를 비롯한 가정의례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집안 각 신(神)께 그 연유를 세세하게 보고해야 했고,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가족 중 누군가에게 갑자기 탈이 나거나 신이 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¹⁰⁾

2) 치병의례(治病儀禮)

가정 내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치병의례들 중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루걸이

평택지역 치병의례들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조사된 것은 하루걸이이다. 이 병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환자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다. 하루걸이에 걸리면 고열과 오한을 겪은 뒤 다음 날은 괜찮고, 그 다음날 또 아픈 것을 반복한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아래와 같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았다고 했다. 평택에서 조사된 치료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어머니가 왼새끼를 꼬아서 아이 허리춤에 동여매고 근처 산으로 올라간

9) 마을에 따라서는 떡을 집안 각 장소에 두면 단골 만신이 와서 비손을 해주기도 하고, 부잣집에서는 단골 만신을 초청하여 3년에 한 번씩 1박 2일 동안 굿을 하기도 했다.

10) 집안 대대로 모셔오던 터줏가리는 아무나 없앨 수 없지만, 새며느리가 치우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속신(俗信)이 있다. 터줏가리를 모시기 싫은 새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터줏가리를 치워버린 사례가 조사되기도 했다.

다. 하나의 소나무 앞에 가서 “여기 도둑놈 없구먼.” 하고 다른 소나무 앞에 가서 “여기 도둑놈 없구먼.” 하고 세 번째 소나무 앞에 가서 “아이구! 도둑놈 여기 있구먼.” 한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마지막에 깜짝 놀란다. 새끼줄은 소나무를 묶어 두고 내려온다.

② 한 밤중에 아이를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서 오래된 무덤 위에서 앉구르기 재주를 넘게 한다. 그런 뒤 근처의 소나무에 앞에 가서 “송친님, 송친님” 하고 부른다. 그렇게 부른 뒤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 가서 또 아까와 같이 부른다. 이렇게 세 나무에 가서 송친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허리에 매고 간 새끼줄을 풀어서 세 번째 소나무에 묶어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③ 아이를 마당에 드러눕게 한 뒤 낮으로 환자 형상을 그린다. 그런 뒤 일어나게 하고, 그 형상 위에 낮을 콧꽃는다.

④ 젖은 행주를 “뱀이다!!”고 소리치며 앓는 아이 앞에다 툭 던지며 깜짝 놀라게 한다.¹¹⁾

⑤ 아이를 아궁이 앞에 앉아 있게 한다. 그런 뒤 엄마가 굴뚝에 가서 “이 집에 뭐하우?” 하면 부뚜막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 쫓우.”라고 한다. 이렇게 세 번을 주고받았다.

⑥ 마당 한쪽 끝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 위를 뛰어 넘게 한 뒤 소금을 뿌리고 박 바가지를 세게 밟게 한다.

⑦ 이웃집 서너집 밥을 조리에 얻어 와서 거기다 김치를 섞어서 변소에 가서 아이에게 그 밥을 먹인다.

11) 아이로 하여금 놀람과 당혹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다리 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오줌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싸게 하기, 아이에게 달걀을 주면서, “이거 개 똥구녕에 썼었다.”고 말하기, 왼새끼를 한 발 넘게 꼬아서 하루걸이를 앓는 아이 목에 걸어서 대추나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너 여기 목뭇 거야!”라고 하기, 아이를 멍석말이 하고 소를 그 위로 건너게 하기, 아이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변소 발판 바닥을 훑으라고 하기(물론, 실제로 훑게 한 것은 아님.)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2) 삼눈 잡기

눈에 삼이 서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통증을 수반한다. 증세가 유행성 결막염과 비슷하다. 평택에서 조사된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아침에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아이를 앉힌다. 상 위에 물 한 대접에 떠놓고 그 위에 젓가락으로 십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뒤 삼이 선 눈 쪽에서 두 손으로 실을 붙여서 늘어뜨려 놓고는 팔 3개를 하나씩 사발 안으로 떨어트리면서, “쌈 따자, 쌈 따자.” 혹은 “내 눈에 삼 꺼내라, 삼 꺼내라.”라고 한다. 그러면 팔이 떨어지면서 기포가 생기면 그것이 삼이 잡히는 것이라고 여겼다.

②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질그릇 깨진 사금파리를 놓고 그 위에 아픈 눈의 눈곱을 하나 떼어서 그것과 함께 땅에 묻어버린다.

③ 바늘을 가지고 가서 대추나무에 가서 해가 돌을 때 “내 삼을 꼭 맡아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바늘로 대추나무를 찌른다.¹²⁾

④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환자를 마당에 데리고 나가서 동쪽에 해 뜨는 것을 쳐다보라고 하고는 정수리에 바늘로 열십자를 세 번 긋는다. 소금을 세 번을 환부에 비빈다.

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햇빛이 비치는 벽에 사람 얼굴 형태를 둥글게 그리고는 눈, 코, 입을 차례대로 그린다. 그런 뒤 그 얼굴 그림의 눈에 바늘을 찔러 둔다. 이때 “안 낮게 해주면 찔러 죽인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벽은 온통 성한 곳이 없었다.

⑥ 변소의 지붕 지푸라기를 몇 가닥 빼다가 조그맣게 가락지 형태로 파리를 만들었다. 그 지푸라기 가락지를 옷고름에다 차고 다니면 눈에 삼 선 것이 낫기도 했다.

12) 동쪽으로 난 복숭아가지와 마찬가지로, 대추나무도 양기가 많은 나무로 인식된다. 팽성읍의 한 제보자는 젊었을 때 아들을 낳기 위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삶은 물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하였다.

(3) 마마(천연두)

이른바 ‘마마(천연두)’는 일 년에 정해진 때가 없이 수시로 발생했다. 다른 마을에서 천연두가 창궐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을사람들은 마을 출입구에 금줄을 치고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마을 초입에 모여서 징이나 팽과리 등을 마구 두드렸다.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실을 다녀오게 되면 집에 오면서 도량을 건널 때 물을 치울리고 와야 한다. 이는 손님마마가 훔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가정 단위의 마마 예방책을 보면, 홍역이나 마마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대문 위쪽에 엄나무를 걸어두거나, 개를 잡아서 피를 열 십자 형태로 발라 놓기도 한다. 천연두가 발병한 가구에는 되도록 가지 않았다. 어쩔 수 없기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집에서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특히, 그 집에서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해야 했다. 방문한 집에서 어떠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말했던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마마신을 위해야 했다.

아이가 마마를 앓으면 빨래를 삶지 않았고, 기름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 고하여 부침개나 전 등은 절대 하지 않았다. 천연두에 걸린 아이가 실수로 얼굴을 긁었을 경우 그 집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청수 한 그릇이라도 떠 놓고 마마신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빌고 절 하였다. 그렇게 하면 다소 차도가 있을 때도 있었다.

(4) 풀에밥질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한과 발열 등으로 앓아눕게 되면 객귀(客鬼)가 들어서 아픈 것으로 판단했다. 객귀가 들면 아궁이에 고추를 태웠을 때 매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때는 풀에밥질을 하였다.¹³⁾

13) 풀에밥질은 마을에 따라 ‘푸닥거리’, ‘풀어버리기’라고도 한다.

먼저 시래기, 된장, 밥 등을 넣어서 장죽을 쏜다. 그런 뒤 바가지에 그 장죽을 담아서 방 안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카락을 조금 끊어서 넣고 환자로 하여금 그 죽에 침을 세 번 뱉게 해서 칼을 머리 위로 몇 번 두르고는 대문으로 가서, “물러나가라. 잡귀잡신아 물러나가라.” 혹은, “이 집에 뭐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고 하는 내용의 소리를 주워섬기고 칼을 대문 바깥으로 던진다.

이때 칼의 끝부분이 집 밖으로 향하면 환자의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칼 끝이 집 안으로 향하면 썩 물러나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하고 칼을 대문 밖으로 던졌다. 의례 주관자는 바가지 안의 음식들을 손이 없는 곳으로 버리고 대문 밖에서 열 십자를 그은 뒤 그 중앙에 칼을 꽂고 바가지를 엮어두었다. 풀에밥질을 하면 신기하게도 아픈 사람이 낫는 수가 있었다.

(5) 동토(動土)

동토(動土)는 마을에 따라 ‘동티’, ‘동태’라고도 한다. 대체로 손이 든 날에 집 수리를 했을 때, 손이 있는 방위로 가구를 옮기거나 기둥에 못을 박았을 때, 남의 집에서 쓰던 쇠붙이가 있는 물건을 가져왔을 때, 집 밖에서 큰 나무를 들여왔는데 그 나무에 목살(木煞)이 묻어 들어왔을 때 동토가 났다. 동토가 나게 되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한과 발열 증상을 겪으며 앓아눕게 된다.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 세 개를 꺾어 와서 저녁 때 누워있는 환자를 마구 때린다.¹⁴⁾ 그런 뒤 준비해둔 된장국에다 환자로 하여금 침을 뱉게 하고, 머리 위쪽으로 복숭아 가지를 휘두른다. 된장국은 집 밖으로 가지고 가서 버려버린다.

14) 복숭아 나무는 양기(陽氣)가 강하기 때문에 집 안에는 심지 않았다.

② 각성받이 세 사람 혹은, 다섯 사람이 아픈 사람 집의 부엌에 가서 씨레를 부엌에 거꾸로 세워두고 그 위에 고깔을 씌운다. 그 앞에 술 석 잔과 물 세 그릇, 메밀범벅 세 접시, 팔 한 사발, 소금 한 종지, 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져다 놓고 바닥에 둘러앉는다. 그들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씨레를 때리면서, “동녘동토는 부지동서남북이요. 각항서방 십육두요 오실령사파하”라는 내용의 경문(經文)을 읽는다.¹⁵⁾ 경문을 각자 세 번씩 3일 동안 읽고, 마지막 날에 나물, 시래기 등을 담은 바가지를 집 바깥에 버린다.¹⁶⁾

③ 각성받이 세 사람이 환자의 집에 가서 씨레를 세워놓고 의례를 할 준비를 한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이서방 동통, 김서방 동통”이라고 한 다음 팔을 씨레에 끼얹는다. 그런 뒤 앞서 한 주문을 다시 외우고 팔 끼얹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 바가지에 씨레 앞에 준비하였던 음식들을 모두 담고서, “휘이~ 속거천리(速去千里) 천리만리(千里萬里)로 가버려라. 뚝 떨어져라.” 하고 소리친 뒤 씨레를 복숭아 가지로 후려 갈긴다.

④ 각성받이의 집에 가서 쌀뜨물을 얻어서 그것을 한데 모아 팔팔 끓인 뒤 동티가 난 곳에 끼얹는다.

(6) 주당(周堂)

사람이 주당을 맞게 될 경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눈 밑이 검어지면서 의식을 잃기도 하였고 심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수도 있었다. 앞서 살핀 증상들에 비해 손쓸 새도 없이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주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사주당 혹은 가마주당이다. 혼사주당을 방지하기 위해 새며느리가 시집으로 출발할 때 가마 한쪽

15) 마을에 따라 “동방지신(東方地神) 서방지신(西方地神) 남방지신(南方地神) 북방지신(北方地神)~”로 시작되는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16) 이렇게 했는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으면 만신을 불리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

끝에 기름병 한 병 매달고 온다. 그리고 출발할 때 가마에 소금을 끼얹기도 한다. 이는 부정한 것이 가마를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새며느리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수저들을 한 웅금 쥐고 바닥에 소리나게 떨어트리기도 하고, 새색시가 집으로 들어오기 앞서 문 앞에다 바가지를 얹어놓고 바가지를 색시로 하여금 세게 밟아서 깨트리게 하기도 한다. 특히, 새색시가 시댁으로 처음 들어올 때 부엌에 있는 사람이 혼사주당을 맞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색시가 들어올 때는 부엌을 비워두는 수가 많았다.

주당은 장사(葬事)를 치르고 봉분(封墳)을 만들 때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지관(地官)이 그 날의 신수를 따져 봉분을 만들 때 때 특정 띠의 사람들은 그 장소를 피하라고 한다. 그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하관(下棺)하는 것도 못 보게 했다.

3. 평택지역 가정신앙(家庭信仰)의 특징

앞서 살핀 가신의례의 경우 신체(神體), 의례(儀禮), 그리고 대상에 대한 신앙(信仰)을, 치병의례는 병의 원인과 치료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신의례(家神儀禮)

평택지역 가신(家神)은 신체(神體)가 없는 건궁과 신체가 있는 신(神)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가 있는 신들 중 가장 높은 신격은 성주이다. 전국적으로 성주신 형태는 크게 한지형과 단지형, 그리고 성주대형으로 나뉘는데, 평택에서는 대부분 성주대에 한지를 오려 붙인 형태가 조사되었다.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드는 제석주머니나 터줏가리 등과 달리, 성

주대는 단골 만신이 만든 뒤 봉안하였다.¹⁷⁾ 여러 가신 신체들 중 전문 사제자가 만드는 것은 성주대가 유일하다. 이는 성주신의 가신 내 위치와 관련이 있다.

성주는 가신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집안의 가장인 대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진다.¹⁸⁾ 마루대 상단에 좌정하고 있는 성주는 대주가 사망하거나 환갑을 맞이했을 때, 집안에 우환이 발생했을 때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주신을 다시 모시고 들어와야 집안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만신을 초청하여 안택굿을 하면서 새성주를 봉안하기도 하였다.

매년 이루어지는 성주 대상 의례는 정초 지신밧기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지신밧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주를 비롯하여, 여러 가신(家神)들에게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이 의례는 원래 선달그믐 밤에 악기 소리를 크게 내어 한 해 동안 집 안에 쌓인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지신(地神)이 동하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다.¹⁹⁾ 이후 정초로 의례 시기가 옮겨짐과 동시에 가신 관념이 발달하면서 축원으로 목적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악대의 사제자로서의 권능도 점차 약화된다.²⁰⁾ 앞서, 조왕굿 고사소리에 신을 누르자는 사실과 신에게 소원성취를 비는 내용이 같이 노래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흔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17) 2020년 현재 터줏가리나 제석주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은 간혹 있다. 그러나 필자가 10여 년 전부터 평택지역 가신신앙에 대해 조사한 이래 성주대를 본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는 평택지역 전래 단골판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이다.

18) 가정에 따라서는 성주신이 조상신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는 성주와 대주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19) 졸저, 《덕담과 성주풀이》, 학고방, 2016, 206쪽.

20) 마을에 따라서는 농악기를 마을 전체의 눈을 매는 방식인 두레라고도 하였다. 이는 두레를 할 때 쓰는 악기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시월 상달 고사이다. 이 의례의 핵심은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와 집안 식구들의 안녕 기원이다. 가을 고사에서 성주 다음으로 중요한 신은 모든 가신들의 바탕이 되는 집터를 담당하는 터주이다. 평택지역에서는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터줏가리를 만들고, 의례도 주관한다. 신체(神體)는 대부분 벼를 담은 단지 위에 짚주저리를 씌운 형태이다. 터주신은 가정에 따라 자손의 안녕, 집안의 평화를 지킨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터줏가리 옆에 설치했던 엽가리를 없애면서 재운(財運)과 관련된 업신 역할이 합쳐지기도 하였다.

터줏가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집 뒤안의 장독대 옆에 설치하였다. 주부들은 부정을 막기 위해 간장 항아리 입구 부분에 원새끼로 새끼를 꼬아 숯, 고추 등을 새끼줄에 끼워두었다. 같은 목적으로 창호지를 버선 모양으로 오려서 간장 독에 붙이기도 하였다. 터줏가리를 장독대 옆에 설치한 이유는 장독대가 정결한 곳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²¹⁾

평택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담당하는 신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정기 의례의 대표는 삼신 위하기이고, 정기 의례는 제석주머니 만들기이다. 산모가 순산하게 되면 삼신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아이의 건강 기원의 의미로, 밥과 미역국을 올린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께 올린 삼밥은 산모가 먹게 하는데, 이는 삼신의 힘을 빌어 산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아기를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아기 머리 밑에 밥, 미역국 한 그릇, 청수 한 그릇을 일 주일에 3일 동안 총 3주간 올린다. 삼신은 보통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보살펴 준다고 생각한다.

제석주머니는 제석신을 위한 주머니라는 뜻이다. 가정에 따라서는 주머

21) 간장은 집안 식구와 마찬가지로 관념이 있다. 노인이 돌아가시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려면 간장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뒤집어진다. 그런 뒤 간장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니 위에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깔을 씌우기도 했다. 이 신체(神體)를 안방 윗목에 걸어두는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정서적 이유²²⁾와 가난한 상황에서의 비상 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칠석날 비게 된 주머니는 깨끗하게 빨아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추수를 하고 나서 햅쌀을 채워서 다시 걸어둔다. 이 주머니 속 쌀은 칠월칠석날 꺼내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서 같이 먹는다. 이날은 비린 반찬은 밥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음식에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담당하는 칠성신에 대한 의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²³⁾

2) 치병의례(治病儀禮)

과거에는 환자가 발생해도 한의원에 가거나, 만신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 이유로, 평택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치병의례가 조사되었다. 치료 행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다. 몸에 이상을 일으킨 존재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에 따른 의례가 마련된다. 병의 경중(輕重)은 병의 원인과 비례할 때가 많았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병명(치료방법)	원인	증상	대표적 치료 방법
하루걸이	모기	격일로 고열, 오한	놀라게 하기
삼눈(삼눈잡기)	나쁜 기운 침입	충혈, 통증	나쁜 기운 나가게 하기

22) 가정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산할 때 바닥에 깔았던 짚을 하나 빼서 고리를 만들어 제석 주머니 위에 걸어두기도 했다.

23) 7월경에 보리타작을 하고 나서 얼마 후 밀을 수확한다. 햅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밀가루를 만들어 채로 친 뒤 애호박을 넣어서 찌거나 부침개를 만들었다. 고사떡과 같은 맥락에서, 이 음식들은 접시에 담아 터숫가리, 대감항아리 등에 두었다.

천연두	마마의 노여움	위중	예방하기(무조건 빌기)
풀에밥질	객귀(客鬼) 침입	몸살, 오한	음식 대접 후 쫓아내기
동토(動土)	정해진 방위나 날짜 미준수	위중	동도지(東桃枝)와 독경(讀經)으로 쫓아내기
주당(周堂)	살(煞) 침입	위중	예방하기(굿)

위에서 제시된 치병의례들은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몸에 침입하여 아프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보내거나 풀어야 한다는 대항 주술(對抗 呪術)의 성격이 있다.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이면서 환자의 상태 역시 위중한 병은 마마(천연두)이다. 천연두는 전염성이 강한데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건강을 회복해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았다. 그런 이유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고, 특별한 치료책이 없는 관계로, 병에 걸리게 되면 마마신에게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었다.

천연두 다음으로 위중한 것은 주당(周堂)이다. 주당은 살(煞)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병 역시 보통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고, 병세가 급박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무조건 조심했다. 앞서 살핀 천연두와 비교할 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정형의 존재인 관계로, 주당을 맞았을 때는 따로 낮게 해달라고 빌거나 내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동토(動土)는 조심해야 할 날짜나 방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발생 요인은 주당과 비슷하지만, 주당에 비해 발병 빈도가 높고 증상은 약하다. 그럼에도,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정한 의례가 수반된다. 이때는 양기(陽氣)가 충만한 주술 도구와 도교 계통의 축귀(逐鬼) 관련 경전이 활용되었다. 이 의례를 주관하는 각성받이 3

명 역시 이때만큼은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가진다.²⁴⁾

객귀(客鬼)는 앞서 살핀 병들과 같이 해로운 귀신이기는 하지만, 조상신이 되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도는 잡귀(雜鬼)의 일종이다. 사람 몸에 쉽게 붙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고 여긴다. 풀에밥질을 할 때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한 뒤 객귀를 호명하고는 환자의 몸에서 얼른 나가라고 명령하고, 나가지 않으면 소멸시키겠다고 위협한다. 이들은 의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만신의 곳에서 들은 축귀 관련 주문(呪言)을 차용하기도 했다.

제보자들은 삼눈의 원인이 나쁜 기운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아픈 눈으로부터 팔을 떨어트리기, 벽에 얼굴 그림을 그려서 바늘로 찌르기이다. 양기(陽氣)가 가장 충만한 때 벽사(闢邪)에 효험이 있는 팔을 눈에 대고 물에 떨어트림으로써 눈에 든 삼이 나가게 하는 것은 접촉 주술(接觸 呪術)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눈 부분을 바늘로 찌러 삼을 없애는 것은 유감 주술(類感 呪術)이 작용하고 있다.²⁵⁾

하루걸이는 모기에 물려서 발병하지만, 대부분 제보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조사된 치료 방법들 중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기가 가장 많다. 전체 치병의례 중 유일하게 원인과 그에 대한 치료 행위가 불일치한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가 아직 아이이고, 증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으며, 제보자에 따라 풀에밥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루걸이 치료 행위의 배면에는 직접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면 몸에 침범한 잡귀를 내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다.

24) 제보자들은 마을에 동토가 났을 때 전문적으로 경(經)을 읽으러 다니는 남성들이 있었다고 했다.

25) 유감 주술과 접촉 주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책을 참조하였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4. 맺음말

평택 토박이들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 행위를 전승하였다. 특정 시기에 집의 각 장소에 좌정한 신들에게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속신에 기반한 여러 가지의 치병 의례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가신 의례(家神儀禮)의 경우 정초 지신밟기와 시월 상달 고사(告祀)를 논의하였다. 두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성주신이다. 성주는 집안의 대주와 같은 성격으로, 잘 모셔야 집안이 두루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지신밟기 때는 가장 뒤에, 상달 고사 때는 가장 먼저 성주를 위하는데, 이는 성주 위하기를 주관하는 의례자, 의례의 내용 및 상황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가신(家神)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의 신에 다른 성격 및 기능이 적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정에 따라 성주신이 조상신의 의미도 있고, 터줏가리 옆에 모시던 업신가리가 없어지면서 터주신이 업신의 성격까지 겸하기도 하며, 제석주머니에 칠성신의 직능이 덧붙기도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삼신, 제석주머니 등 유아 및 아동을 보살피는 신들이 두 종류 이상 존재하는 것이다.²⁶⁾ 이는 당시 높은 유아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병의례(治病儀禮)는 병의 원인에 따라 의례자 및 치료 방법이 결정되었다. 평택지역 토박이들은 좋지 않은 것이 몸을 침입하여 아프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보내거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환자를 낮게 하기 위해 병의 원인에 따라 깜짝 놀라게 하기, 음식 제공 후 내쫓기, 주술 도구로 때리며 경(經) 읽기, 그리고 무조건 빌기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치병 행위에 따라 접촉 및 유감주술의 작용도 확인되었다.

26) 아기가 태어나면 단골 만신에게 명다리를 걸거나, 만신의 수양아들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 참고문헌

고덕면지집필위원회 편, 《고덕면지》, 고덕면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김주희, <한국 농촌주민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화>, 《비교문화연구》제 20집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김종대,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특징과 그 기능>, 《우리문학연구》제62집, 우리문학회, 2019.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민속지》 VII, 경기도 박물관, 2004.

안중읍지집필위원회 편, 《안중읍지》, 안중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1.

안혜경, <평택일기를 통해 본 일생의례와 속신>, 《실천민속학연구》제 18집, 실천민속학회, 2011.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팽성읍지집필위원회 편, 《팽성읍지》, 팽성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0.

청북읍지집필위원회 편, 《청북읍지》, 청북읍지편찬위원회·평택문화원, 2017.

최자운, 《덕담과 성주풀이》, 학고방, 2016.

평택 무속의 지역성

목진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 례

1. 서론
2. 경기지역의 유역권과 경기 도당곳의 분포
3. 평택 세습무계 : 방용현, 오강산, 김돌쇠, 지영희, 방돌근
4. 평택 무속의 지역성
5. 결론

1. 서론

무(巫)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체계이자, 상징체계 또는 문화적 현상의 하나다. 이 현상에는 인간의 문명과 지혜가 담겨 있다. 무속은 씨족국가에서 부족국가로 넘어가는 과정, 즉 왕권이 성립하는 정교일치의 시대에 가장 성행했다.

무속은 굿이라는 의례를 포함한다. 굿은 무부(巫夫)나 무녀(巫女)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지만, 무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부나 무녀를 중심으로 굿 의례에 초점을 맞춘 시각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그것이다.

평택 무속의 경우, 무부나 무녀에 대한 현지 조사가 극히 드문 편이다. 1970년대 이후 평택 무속의 무녀나 법사를 중심에 놓고 보면, 조사 당시의 현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평택 무속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깊은 역사적 유래를 재고할 수 있다. 평택 무속은 경기 남부 무속으로서 이 권역의 다양한 무속문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세습 무부와 무녀의 역사이다.

이러한 평택 무속의 중요성 때문에 해방 이후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됐다. 1999년 하주성은 경기 시나위를 남양제, 동령제, 안산제, 광주제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남양제는 화성군 남양면의 장유순으로부터 방돌근, 동령제는 방화준으로부터 김광채, 광주제는 이충선(李忠善, 1901-1989), 안산제는 지영희(池瑛熙, 1909-1979)로 전해졌음을 밝혔다.¹⁾

이용범·손태도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부 굿 담당자의 유형을 세습무와 단골무로 구분하고, 평택을 세습무의 활동지역으로 보아 그 종교적 특징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단골 제도 측면에서 조명하였고, 세습무 무속

1)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하주성, 《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29쪽.

의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장적 측면에서는 서울굿 유형의 굿 절차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평택 무녀 김유순의 경사굿, 변병주 무녀의 굿을 소개하였다.²⁾ 이용범의 연구에서는 평택이 경기 도당굿과 충청도 얇은굿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굿의 형태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³⁾ 홍태한의 연구에서는 1996년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 새남굿의 <바리공주>, <당금애기>, <성주무가>를 조사했고, 평택지역 노재용 만신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⁴⁾

이필영의 연구는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굿의 유형, 가신의 유형, 무구 및 무복, 현장조사를 했다. 굿의 종류는 대동굿, 안택굿, 내림굿, 자리걸이, 삼신받기, 살풀이, 사후혼, 홍수맥이 등으로 보았고, 무속의 가신은 성주대감, 텃대감, 조왕, 제석, 문간대감, 상문, 동토로 밝혔다. 무구는 부채, 방울, 신칼, 삼지창, 오방기 등을 조사했고, 무복으로는 활옷, 장삼, 쾌자, 천익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노재용 법사, 임영화 만신, 진수복 만신, 김종희 보살, 박정미 보살을 조사하여 법사나 만신의 역할과 내력, 굿당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뤘다.⁵⁾

평택의 전통예인을 주제로도 단행본이 있다. 이 책에서는 지영희, 방용현, 방돌근, 김부역쇠 등 시나위 연주자를 언급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 세습무로서 평택 서쪽 포승읍 출신 지영희와 지문일가, 평택 동쪽 이충동 동령마을의 방용현과 그의 손자 방돌근을 방문일가, 그리고 청북면에 거

2) 이용범·손태도, <경기도 남부 무속의 지역적 정체성: 실태 소개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9(서울: 비교민속학회, 2005), 151-194쪽.

3) 이용범, <평택무속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국무속학회》 23(서울: 한국무속학회, 2011), 133-166쪽.

4) 홍태한, <평택 민속 문화의 특징: 무속을 중심으로>,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지영희와 한국사회》(서울: 중앙인쇄소, 2011), 83-104쪽.

5)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 상(평택: 평택문화원, 2010), 255-281쪽.

주했던 김부역쇠를 오산의 경기재인청 가문의 후예로서 이용우에게 대금을 사사한 인물로 조명하고 있다.⁶⁾

또한 2018년 박성복의 글에서는 평택의 경기 시나위를 주제로 도당굿의 분포, 연주자의 분포와 활동내용을 밝혔다. 특히 2001년 작고한 방돌근을 배출한 방씨가문을 언급하면서 화성 일원 흩어져 있던 임씨네, 문씨네, 이씨네 등과 인척 관계를 맺어왔음도 밝혔다.⁷⁾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방용현, 오강산, 지영희, 방돌근 등의 무속음악 연주자들이 어떻게 한국음악 형성에 그렇게 큰 기여했는지 그 이유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평택 무속의 역사적 배경과 근거, 그리고 평택 무속의 지역성에 대한 고찰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를 찾는 작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급속도로 해체되어간 평택 무속의 단절을 주시하는 것이고, 평택 무속을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백두대간의 경기만유역권을 확인하고, 이 권역의 무계(巫契) 조직 재인청(才人廳)과 그 후손 방용현, 오강산, 지영희, 지갑성, 방돌근의 무악 연주자의 계보를 다룸으로써 평택 무속의 지역성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경기지역의 유역권과 경기 도당굿의 분포

경기지역의 유역권과 경기 도당굿 분포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⁸⁾ 이 연구에 따르면, 백두대간에 의한 경기지역은 예성강유역권, 임진강유역권, 한강유역권, 경기만유역권 등으로 4등분 된다. 평택의 경우는 경기만유역권에 해당하는데, 이 유역권에는 강화, 인천, 안산, 수원, 오산, 평택, 천안, 안성, 당진, 온양, 예산까지 포함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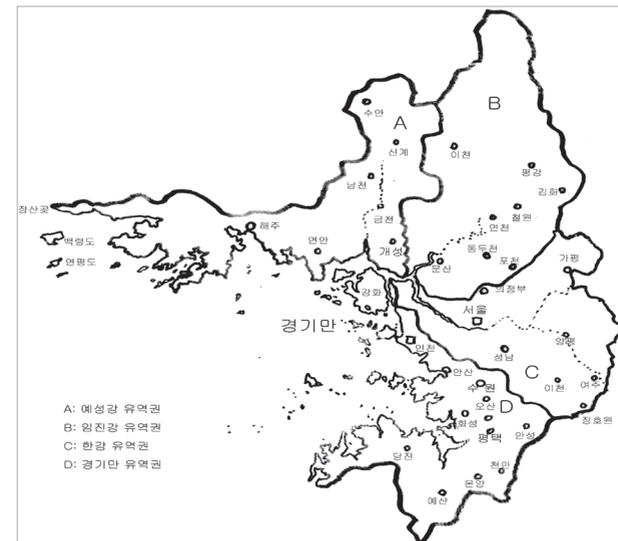


그림 1) 백두대간에 의한 경기지역의 유역권

평택은 경기 도당굿 유형 중에서 경기무악형 도당굿에 해당한다. 199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도살푸리 장단에 시나위 반주를 위주로 하는 경기무악형 도당굿이다.

8)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지역성 연구>, 《로컬리티인문학》 10(부산: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13), 149-180쪽.

9)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지역성 연구>, 《로컬리티인문학》, 157쪽.

6) 평택문화원, 《평택인물지 4: 평택의 전통예인》(평택: 평택문화원, 2016).

7) 박성복,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2018 평택학 학술대회 · 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전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183-223쪽.

이 곳 스타일(Style, 양식·제·유형)은 경기 세습무부들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거리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거리에는 돌돌이, 장문잡기, 얇은거리(부정청배, 시루청배, 제석청배, 조상청배, 군웅청배)와 군웅노정기(손님노정기), 터벌림춤이나 진쇠춤, 뒷전 등이 있다. 지영희는 경기무악형 도당굿의 분포지역에 평택을 언급한다. 이 분포지역은 경기만유역권과 일치한다.

“이 장고를 쓰는 무속은 경기도 용광주, 인안산이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용인, 광주, 수원, 안성, 평택, 남양, 상귀, 과천, 안산, 시흥, 부평, 인천, 강화, 영종, 예단포섬에서 신사굿이나 도당굿 할때와 죽은 사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새남굿에서 수백년을 쳐 왔다. 그러나 서울의 무속은 이 장고를 이름조차 모른다”¹⁰⁾

서울 새남굿 만신이나 악사들은 장고장단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경기무악형 도당굿에는 고유한 장단세계가 있음을 밝힌 내용이다. 1968년 박헌봉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8호 《진쇠외 11장단》에서 밝힌 내용이 경기무악형 장고장단이다.

1970-1980년대, 1999년, 2000년대에도 평택지역의 도당굿이나 당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1970-1980년대에는 여러 마을에서 산신제나 당제가 있었다.

비전동 삼각산 도당제, 비전동 덕동산 도당, 비전동 자란동신제, 비전동 재랭이 당제, 합정동 조개터 당제, 소사동 소사마을 당제, 용이동 현촌마을 당제, 죽백동 방아다리 당제, 동삭 동 상서재 당제, 지제동 당제, 팽성읍 추팔리 산신제, 팽성읍 함정리 서원말 당제, 팽성읍 근내리 서낭제, 팽성읍 본

10) 成錦鳶 編, 《池瑛熙民俗音樂研究資料集》(서울: 僑文社, 1986), 97쪽.

정리 새나리 당제, 팽성읍 송화3리 큰말 당제, 안중읍 금곡4리 숲말 산신제, 안중읍 용성3리 설창마을 당제, 청북읍 율북 리 당제, 청북읍 현곡3리 광승 당제, 청북읍 백봉1리 원백봉 당제, 청북읍 삼계 2리 원삼계 당제, 진위면 청호리 당제, 진위면 갈곶리 당제, 진위면 마산리 오룡 마을 정제, 진위면 가곡리 당제, 진위면 봉남리 성황제, 진위면 견산1리 별미마을 당제, 서탄면 금암2리 안말 당제, 서탄면 금각1리 쇠부리 당제, 서탄면 사리 당제, 고덕면 당현리 당산제, 고덕면 해창3~4리 원해창 신촌 당제, 고덕면 두릉 2리 계루지 당제, 오성면 안화1리 우다네 당제, 오성면 속성리 대조두 당제, 포승읍 만호리 당제, 포승읍 원정리 당제, 현덕면 신왕1리 마두마을 풍어제, 현덕면 신왕2리 신왕리 산신제, 현덕면 대안1리 작은박골 당제와 우물제, 현덕면 대안4리 구진개 산신제, 세교동 잔다리 서낭제,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비전2동 당재마을 당제, 합정동 배미마을 당제, 합정동 통미마을 당제, 칠원동 원칠원 산신제, 칠원동 수촌마을 용신제, 서정동 서두물 정제, 죽백2동 안말 당제, 도일동 상리 산신제, 서정동 갈평마을 당제, 이충동 동령마을 정제, 장당동 광천마을 너브내 당제, 모곡동 모곡마을 당제, 서정동 지장절 당제, 도일동 하리마을 여의실 서낭제¹¹⁾

1999년 평택시에서 당제나 산신제를 거행한 마을은 아래와 같다.¹²⁾

표 1) 1999년 평택시의 당제, 산신제 현황

삼각산 서낭도당		소멸, 서낭, 마을의 안녕
동탄 서낭도당		소멸, 산신, 마을의 안녕

11) 평택문화원, 《평택인물지 4: 평택의 전통예인》(평택: 평택문화원, 2016), 93쪽.

12) 하주성, 《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138-142쪽.

덕동산 도당		신설, 덕동산신, 마을의 안녕
비전동 은행나무		신목, 마을의 평안을 위해 고사
지제동		당집이 있었음, 당제말, 당제
진위면 청호리		원당
진위면 가곡리		당월(당집너머 마을)
진위면 봉남리	★	당집, 10월 당고사, 제관, 무당 소지축원만
고덕면 당현리		내촌(안말) 산위에 당집, 매년 7월 초 당제
포승면 당두리		마을입구 당집, 정월과 7월 당제
포승면 만호5리		당집, 당굿, 단골, 인천만신(설계순)-작두
포승면 원정리		호암리(범바위골) 당집, 매년 당제

이 중에서 현장조사를 시행한 곳은 진위면 봉남리 당제뿐이다. 1999년 조사에서 박상욱(남, 56세)의 증언을 통해 유래와 현황, 신위와 제일, 제관의 형태 및 전승, 제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제보자와 3점의 사진 및 산제당의 약도가 제시되었다.

봉남리 당제의 유래와 현황에서는 당의 위치나 건물 모양, 내부의 구조와 무구 등이 조사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 길일을 택해 산신제를 올렸다고 한다. 신위와 제일로는 산신에게 매년 정월 초 제일을 정해 당제를 거행했다고 한다. 제관의 형태 및 전승으로는 당제 형식과 무당의 축원이 결합된 형태로 산신제를 거행했으며, 무당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한다. 제의 내용은 당제날 밤 10시가 되면 소머리와 삼색실과, 그리고 떡 등을 준비해서 제관 일행이 산신제를 유교식으로 지낸다.¹³⁾

2000년대 이후로는 진위면 마산리 오룡마을 정제와 이충동 동령마을 정제, 도일동 상리 산신제, 청북읍 울북리 당제, 현덕면 평택호 풍어제 등만이 남아있다고 한다.¹⁴⁾

13) 하주성, 《경기도의 굿》, 140-141쪽.

14) 평택문화원, 《평택인물지 4: 평택의 전통예인》(평택: 평택문화원, 2016), 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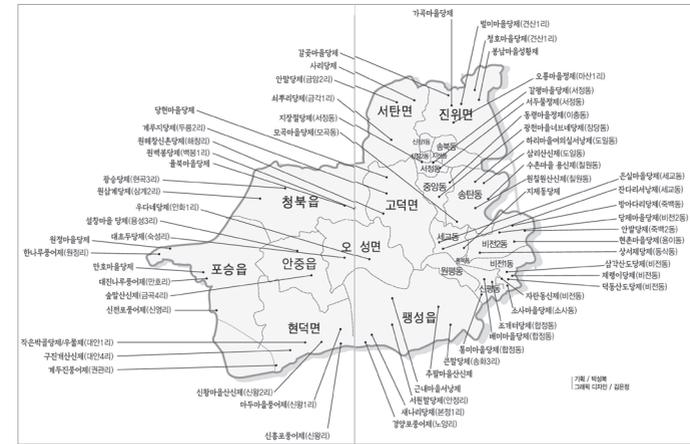


그림 2) 평택의 당제 · 산신제 · 도당곳¹⁵⁾

하지만, 평택의 경기무악형 도당곳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평택의 도당곳이나 당제를 조사한 시점이 1970년대 전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미 이 시기에는 평택의 변화가 가속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당제나 산신제는 여러 지역에 남아있었지만, 경기 세습무가 주도하는 경기무악형 도당곳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3. 평택 세습무계 : 방용현, 오강산, 김돌쇠, 지영희, 방돌근

평택지역과 관련된 세습무부로는 방용현(方龍鉉, 1860 ~ 1930), 오강산, 김돌쇠, 지영희, 방돌근 등이 있다. 이들은 무속음악의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면서 국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 1) 방용현 : 지영희, 김광식, 이충선, 방돌근(方夏根, 1941-2001)
1968년 《京畿시나위》, 1970 《시나위》, 1971년 《시나위》, 1978년 《안

15) 박성복,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2018 평택학 학술대회 · 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183-223쪽.

성무속》등 조사자료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표 1)에서 평택의 시나위 연주자는 방용현이다.

수원의 박용현(朴容玄)은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의 방용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원의 박용현에 대한 추후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수원 굿 현장에서 그에 대한 계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표 2) 1960-1970년대 경기 도당굿 시나위 연주자¹⁶⁾

지역명	지방	1968년 《京畿시나위》 ¹⁸⁾	1970년 《시나위》 ¹⁹⁾	1971년 《시나위》 ²⁰⁾	1978년 《안성무속》 ²¹⁾
광주(廣州)	차석근(車石根)	차석근	차석근	차석근	
	서호봉(徐浩奉)	서호봉	서호봉	서호봉	
	서호산(徐浩山)	서호산	서호산	서호산	
	김창순(金昌順)	김창순	김창순	김창순	
	김익순(金議淳)	김이순	김이순	김이순	
	이일선(李日善, 生)	이일선	이일선	이일선	
	이충선(李忠善, 生)	없음	이충선	이충선	

지역명	지방	1968년 《京畿시나위》 ¹⁸⁾	1970년 《시나위》 ¹⁹⁾	1971년 《시나위》 ²⁰⁾	1978년 《안성무속》 ²¹⁾
	이달선(李達善, 生)	이달선 生	이달선 生	이달선	
	김석근(金石根)	김석근	김석근	김석근	
	조용운(趙龍雲)	조용운	조용운	조용운	
	지영희(池瑛熙, 生)	지영희 生	지영희 生	지영희	
	지갑성(池甲成, 生)	지갑성 生	지갑성 生	지갑술	
	오명옥(吳明玉, 生)	오명옥 生	오명옥 生	오명옥	
	김광식(金光植, 生)	김광식 生	김광식 生	김광식	
	지광희(池光熙, 生)	지광희 生	지광희 生	지광희	
	김덕근(金德根, 生)	김덕근 生	김덕근 生	김덕근	
					이덕준(李德俊) ²²⁾ 또는 이덕재 양경원(梁慶元) ²³⁾
수원(水原)	이영수(李永洙)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옥수(李玉洙)	이옥수	이옥수	이옥수	
	임학준(林學俊)	임학준	임학준	임학준	
	장점옥(張点玉)	장점옥	장점옥	장점옥	
	박용현(朴容玄)	박용현	박용현	박공현	
	김덕진(金德鎭)	김덕진	없음	없음	
	양계원(梁啓源)	양계원	양계원	양계원	
	오용해(吳容海)	오용해	오용해	오용해	
	장희성(張희성, 生)	장희성 生	장희성 生	장희성	
	이장관(李長官, 生)	이장관 生	이장관 生	이장관	
안산(鞍山)	이태순(李泰淳)	이태순	이태순	이태순	
	이안이(李安伊)	이안이	이안이	이안이	
	이천이(李千伊)	이천이	이천이	이천이	
	이성대(李成大)	이성대	이성대	이성대	
	이정업(李正業, 生)	이정업	이정업	이정업	
	신승태(申勝泰)	신승태	신승태	신승태	
	김규봉(金奎奉)	김규태	김규태	김규태	
	이충옥(李忠玉)	이충옥	이충옥	이충옥	
	정만복(鄭万福)	정만복	정만복	정만복	
	인천·부평(仁川·富平)	조한춘(趙韓春, 生)	조한춘 生	조한춘	
	조인옥(趙人玉)	조인옥	조인옥	조인옥	
	조만봉(趙만봉)	조만봉	조만봉	조만복	

16) 목진호, <경기 도당굿 '화랭이' 연구>(서울: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07쪽.
 17) 劉起龍·洪潤植,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京畿시나위》 54(서울: 文化財管理局, 1968), 8-12쪽.
 18) 朴憲鳳·劉起龍·洪潤植,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도살푸리, 살푸리)》 76(서울: 文化財管理局, 1970), 225-32쪽.
 19) 劉起龍·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 85(서울: 文化財管理局, 1971), 580-83쪽.
 20) 沈雨星·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 85(서울: 文化財管理局, 1971), 461-65쪽.
 21) 이덕준은 이덕재라고도 함. 광주(廣州)의 세습무부로 이충선의 부친이고, 장고와 무가에 뛰어났다고 함.
 22) 양경원은 광주(廣州)출생으로 서울 상왕십리에 거주했으며, 피리에 능했다고 함.

지역	1968년 《京畿시나위》 ¹⁸⁾	1970년 《시나위》 ¹⁹⁾	1971년 《시나위》 ²⁰⁾	1978년 《안성무속》 ²¹⁾
	이영수(李英수)	이영수	이영수	
	조한길(趙韓길)	조한길	조한길	
				오현숙(오강산) ²⁴⁾
				전태룡(全泰龍)
				김한국(金漢國)
				김일산(金日山) ²⁵⁾
여주·장호원 (驪州·長湖院)	백점봉(白点奉)	백점봉	백점봉	
	백영수(白英수)	백영수	백영수	
	김승환(金勝煥)	김승환	김승환	
	김덕진(金德鎭)	김덕진	김덕진	
	김광채(金光彩)	김광채	김광채	
	김창식(金昌植)	김창식	김창식	
	안황운(安黃雲)	안황운	안황운	
시흥(始興)	김만삼(金萬三)	김만삼	김만삼	
	김봉순(金奉淳)	김봉순	김봉순	
	정팔봉(丁八峰)	정팔봉	정팔봉	
	정칠봉(丁七峰)	정칠봉	정칠봉	
	정월동(丁월동, 生)	정월동 生	정월동	
	정길동(丁길동, 生)	정길동 生	정길동	
				김창호 ²⁶⁾
				이치문 ²⁷⁾
과천(果川)	임종성(林宗성)	임종성	임종성	
	임봉규(林봉규)	임봉규	임봉규	
	임세근(林세근, 生)	임세근 生	임세근	
	김완근(金完根, 生)	김완근 生	김완근	
	김석문(金石文)	김석문	김석문	
	오명환(吳明煥, 生)	오명환 生	오명환	
양주(楊州)	허선재(許선재)	허선재	없음	
	김무경(金무경)	김무경	없음	
	김덕근(金德根)	김덕근	없음	
김포(金浦)	조일홍(趙일홍)	조일홍	없음	
	조순조(趙순조)	조순조	없음	
안성(安城)				김덕순(金德順) ²⁸⁾
				조진영 ²⁹⁾

지역	1968년 《京畿시나위》 ¹⁸⁾	1970년 《시나위》 ¹⁹⁾	1971년 《시나위》 ²⁰⁾	1978년 《안성무속》 ²¹⁾
말죽거리 (구 광주)				김대방 부부 ³⁰⁾
화성(華城)· 남양(南陽)				이흥수 ³¹⁾
				임선문(林善文)
				장성근(장점학)
영등포구 (구 시흥)				정해종(鄭海種) ³²⁾

1970년대 경기 남부지역 무녀와 무부에 대해 1973년 김태근과 1978년 장주근의 조사가 있었다.³²⁾ 이용우의 구술에 의하면, 평택지역에 한 쌍의 세습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이 조사에서 평택의 세습무부로서 방용현, 방화준, 방인근이 나온다. 방인근의 본명은 방돌근으로 부친은 방만관(方萬官), 모친은 김달용(金達容)이고, 본적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208번지이다.³³⁾

23) 오현숙은 부평 또는 평택출신이며, 일명 오강산이라고 불렀는데, 장고·피리에 능했다고 함.

24) 김일산은 세습무부이며, 전태룡의 아버지임.

25) 시흥의 김창호는 피리·팽과리에 능했다고 하며, 정길동의 스승이다.

26) 시흥의 이치문은 장고·무가에 뛰어났다고 한다.

27) 김덕순은 1930년대 이름을 떨친 세습무부였고, 김숙자의 아버지이며 해금·무용·고사반에 능했다고 함.

28) 조진영은 김숙자의 시나위춤과 창을 지도한 스승이다.

29) 서울 말죽거리 김대방(별명)부부는 장고·무가 등에 능했다고 함.

30) 이흥수는 화성군 반월면 출신으로 대금과 무가가 특기라고 함.

31) 정해종은 세습무부로 정길동의 아버지이다.

32) 金泰坤, 《韓國巫歌集》 제3권(서울: 집문당, 1978), 152쪽; 張籌根, 《巫俗》,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京畿道編》(서울: 민속원, 1978), 106-130쪽.

33) 〈방돌근의 제적등본〉, 2012년 11년 5일자, 11쪽, 방돌근의 장남 방성용(方成龍, 1963-) 제공.

표 3) 1970년대 세습무부의 활동지역표³⁴⁾

세습무부	지역
우정원(禹正元, 1912)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하중리(下中里) 또는 샘말
평택 1, 인천 1	평택, 인천 각 한 쌍의 세습무(이용우 구술)
이덕만(李德萬, 1900)	시흥군 반월면
이장선(李長先, 1925)의 부(父)	시흥군 반월면
임선문(林先文, 약70세), 임성준	화성군에서 살다가 수원시 (화성군 대안면 황교동 거주)
지수상(池壽祥, 당시 64세, 1914)	화성군 승산면 생정리 215에 거주
진갑을 넘긴 화랭이	화성군 정남면 발산리
우윤안(禹潤安)	화성군 우정면 원안2리
오순흥(吳순흥, 1910)	화성군(華城郡) 정남면(正南面) 보통리(普通里)
이광달(李光達)	화성군
이규인(李奎仁)	화성군
이종하(李鍾河)	화성군
이용우(李龍雨, 1899)	화성군 오산
김돌식	화성
방화준	평택
양경원	광주
오강산(오현숙)	인천
장만용	아산
장점학	화성
장성순	화성
임선문(임선준)	화성
지갑성	인천
전태룡	인천 영종도
전선옥	인천 영종도
이충선	광주(廣州)
방인근	평택
김성준	광주(廣州)
김광채	광주(廣州)
김광식	광주(廣州)

세습무부	지역
이정업	시흥
이치문	시흥
이영수	인천
방용현	모름
당주무녀와 세습무부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방화준에 관한 기록은 1974년부터 등장한다.

조사자> 이충선 선생님은 함자는?

이충선> 충성충자, 착한선자

조사자> 연세는?

이충선> 1901년 신축(辛丑)생. 75세

조사자> 본적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이충선> 광주군

조사자> 지금 주소는?

이충선> 지금은 송파 근처입니다.

조사자> 선생님의 학습은 피리하시고...

이충선> 원래 피리는 방화준에게 배웠어요

조사자> 피리는 처음 누구에게?

이충선> 양경원 그분도 광주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 넘으셨습니
다. 저는 피리 시나위는 양경원, 풍류는 양금을 정악원에서 배웠고, 영산
회상도 방화준씨, 대금도 방화준씨에게...³⁵⁾

방용현의 기록은 1984년에 문화재관리국 조사에 남아있다.

34) 목진호, <경기 도당곳 '화랭이' 연구>(서울: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12쪽.

35) 국립문화재연구소·이용우·이충선·지갑성·임선문, 《경기무악》 CD 4매(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소장자료시리즈 13.

방용현(方龍玄, 1870년 庚午生), 평택 서탄면 서정리 출생, 송탄읍 이층리 거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안정사, 제자로는 김광식, 문상근, 조만봉 등이 있다.³⁶⁾

방화준과 방용현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둘 다 평택 출신이고, 같은 방씨 성을 쓰면서 당대 이름을 날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술 면담 과정에서 성명을 적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기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당시 예명을 하나씩 더 가진 악사가 많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방화준의 성명은 1970년대 장주근의 현장 연구와 이충선의 증언 이외에는 별다른 출현이 없다.³⁷⁾

방용현은 대금악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서 경기무악을 학습한 연주자 중에 지영희와 김광식(金光植, 1911~1972), 문상근, 조만봉이 있다.

지영희는 수원군 포내면 내기리에서 지용득(池龍得, 1888-1928)씨의 장남으로, 어머니는 김기덕(金基德)이다. 지용득은 피리와 태평소를 잘 다루는 악사였고, 어머니는 세습무 당골만신이였다. 그의 동생 지옥희(池玉姬, 1919년생)는 무업을 전수받았고, 남동생 지천석(池千石, 1911-1980)은 피리에 능했다고 한다.³⁸⁾

지영희는 1915년 7세부터 13세까지 한문을 수학하고, 1918년 이석은(李錫隱)씨 문하에서 고전무용(승무, 검무, 굿거리)을 2년간 사사한다. 1929

년에는 조항련씨 문하에서 호적을 사사하고, 1930년에는 정태신(鄭泰信)씨 문하에서 양금, 단소 등 관악곡을 민속악보로서 사사한다. 1931년 지용구(池龍九)씨 문하에서 해금과 양경원(梁慶元)씨 문하에서 피리를 사사하고, 1932년 김계선(金桂善)씨 문하에서 풍류대금과 방용현(方龍鉉)씨 문하에서 민속대금, 풍류대금을 한문악보로 사사한다. 1933년 최?선(崔?善)씨 문하에서 농악전반을 사사. 1935년 지용주(池龍珠)씨 문하에서 무용장고 12채를 사사(진쇠외 12장단)하며, 1936년 박춘재(朴春載)씨 문하에서 경서도민요를 사사한다. 1937년 조선음악연구소에 입소하여 양금, 피리, 해금, 단소 등 악기를 지도하며 민족음악육성에 힘쓰는 한편, 고전무용과 창악, 민속장고, 남도민요, 판소리, 북 등을 연구했다.³⁹⁾ 그가 지도했던 악기와 제자로는 피리(최경만, 박범훈, 박승률, 김광복, 송선원, 한상일), 대금(이철주, 김방현), 해금(최태현, 김영재, 김무경, 신상철, 박정실, 홍옥미, 백정순), 타악(장덕화, 김덕수, 김용배, 최종실, 남기문), 무용(김경희), 가야금(지성자, 지윤자, 김명신, 김수란, 박미령, 김승희) 등이다.⁴⁰⁾

김광식은 1924년 방용현 선생께 시나위 대금 전공(10년간) 했다고 한다.⁴¹⁾

“방용현의 가락은 매우 ‘된청’을 연주하였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의 가락은 경기도 시나위와 대풍류를 쳤다고 하며 첫째 시나위로는 ‘아래 윗대를 덮었다’는 화성군 송산면 이물리 태생 문상근(생존하면 약 85-86세)도 이런 가락을 전수받아서 일세를 진동한 이고, ‘얼빡청’은 가히 독보적

36) 문화재관리국, <경기삼현육각>, 《삼현육각》(서울: 문화재연구소, 1984).

37) 박성복,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2018 평택학 학술대회·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201쪽에서는 “방용현은 이처럼 전통이 잘 보존되어온 동령마을에서 태어나 방화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이 마을에서 무속 악사로 종사했다”고 한다.

38) 노동은, <지영희의 삶과 예술 II>,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지영희와 한국사회》(서울: 중앙인쇄소, 2011), 20쪽; 노동은, 《지영희 평전》(서울: 민속원, 2015), 17-19쪽.

39) 朴憲鳳,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진쇠장단의 十一장단》, 28(서울: 文化財管理局, 1966), 21-25쪽.

40) 평택문화원, 《2018 평택학 학술대회·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12-13쪽.

41) 劉起龍·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 85(서울: 文化財管理局, 1971), 578쪽.

이었다 한다.”⁴²⁾

2) 오강산(吳光山 또는 오현숙, 1870-195?) : 지갑성, 조한춘, 전태룡, 김순덕, 임선문

평택 출신 오강산은 무속장단과 마달(唱)로 유명하다. 오강산에게서 경기 무악을 배운 명인은 지갑성(池甲成, 1910-1980), 조한춘(趙漢春, 1919-1995), 전태룡(全泰龍, 1922-), 김순덕(金順德, 1937-2009) 등이다.

지갑성은 1929년 오현숙(일명 오강산), 양경원으로부터 장고, 피리, 해금 등의 무속음악을 배웠고,⁴³⁾ 그는 무악 장단과 무가 가창에서 당대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⁴⁴⁾

지갑성의 출생지는 인천이며, 수원, 안산에서 자랐다고 한다. 15세 무렵 서울로 상경하여 경기무악의 악사로 굿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국악에 종사했다고 전한다.⁴⁵⁾

지갑성, 호적에는 지갑술, 개술자 씬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셨죠? 66세입니다. 경술생. 1910년 자란 곳 인천서 낳고, 자란 곳은 저...수원 서도 좀 자랐고, 수원서 15살에 안산에 갔었고, 15살에 서울 올랐습니다. 단체도 많이 다녔습니다.⁴⁶⁾

42) 이자균, <유성기음반의 명인명창 열전(2)>, 《한국음반학》 제4호(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517-24쪽.

43) 沈雨星·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安城巫俗(경기시나위춤)》 121(서울: 문화재관리국, 1976), 585쪽.

44) 그의 가창은 《한국의 전통음악-KBS소장 작고명인연주집》 16(서울: 서울음반, 1994), 《한국의 전통음악-KBS소장 작고명인연주집》 34(서울: 서울음반, 1994)에 전해지고 있다.

4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무악: 대담자료》 3(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4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무악: 대담자료》 3(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지갑성의 학습은 피리, 대금, 해금, 호적, 장단에 걸쳐 이루어진다. 양경원에게 피리 사사, 호적 학습을 하고,⁴⁷⁾ 평택 출신 오강산(오현숙)과 광주의 이덕재(李德在)에게 무악장단을 배운다. 특히 그는 오강산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양경원 선생님께 피리를 배웠습니다. 호적, 해금, 대금도 봅니다. 장고 학습은 그분한테 배워서 이런 데를 다니다보니까 오강산씨에게 배웠다. 이름의 유래는 김포에 가서 총을 잘 쏘셨거든요, 그 양반이 강원도에 범을 잡았다 해서 제일 처음 범을 잡았다 해서 나라에서 지어준 이름이 강산이라 했습니다. 예명은 오현숙입니다.⁴⁸⁾

오강산은 평택에서 살다가 사회적 신분 차별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척이 있는 인천시 경서동에 자리 잡으면서 국악을 하였다. 이치문 문하에서 현재 인천 삼현육각 장구 보유자인 이영수(본명: 영만)도 이웃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무악 장구와 삼현, 풍류를 익혔다 한다.⁴⁹⁾ 밑줄은 필자.

조한춘은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출신으로 1927년부터 전상현, 이덕만에게 굿을 배웠고, 장고와 북은 한성준, 오현숙으로부터 배웠다고 한다.⁵⁰⁾

전태룡은 1941년 오강산으로부터 무속음악의 타악기를 배웠다고 밝힌

47)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무악: 대담자료》 3(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48)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무악: 대담자료》 3(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49) 노동은 외 고상미·김수현·김은영·배인교·손인애·이소영·홍태한, 《경기음악II》(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280쪽.

50) 이윤경·이자균, 《경기 도당굿: 음반해설서》.

바 있다.⁵¹⁾

시흥 군자봉의 세습무계 김순덕은 경기도 시흥 출신으로, 안산에서 유명한 만신 김부전의 딸로 태어나 56년부터 이영수(인천시 삼현육각 장고 보유자), 이치문, 오강산 등에게 장구를 학습하였다고 한다.⁵²⁾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의 임선문(林善文, 1913-1987)도 평택과 인연이 깊다. 그는 경기도 시흥, 안산, 남양, 평택, 수원, 용인군 일대에서 해금을 지도하여 무속과 관련한 악사를 많이 배출했다고 전한다.⁵³⁾

3) 김돌쇠와 이용우

다음에 제시할 자료는 이용우와의 대담내용이다.⁵⁴⁾ 청북면의 김돌쇠(또는 김부역쇠)라는 예명을 쓰는 대금 시나위 연주자에 대한 기록이다.

조사자 이용우선생님 이중에서 춘추가 제일 많으신가요? 무슨 자 쓰시죠?

이용우 용룡(龍)자 비우(雨)자 씁니다.

조사자 본적은 어디십니까?

이용우 오산, 수원 남쪽, 그 전에는 화성군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오산이 됐습니다. 수원은 지 30년, 223번지. 77세이고 기해생입니다.

조사자 그리고 학습은 대금, 창, 반설음무용하시고요, 대금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용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화성군이 아니고 청북면(靑北面) 양간

면(楊甘面) 김씨집 그분 관명은(?) 예명밖에 모릅니다. 예명은 돌쇠. 내게 조부향렬 돼요. 시나위는 줄거리는 배준 거지만, 내가 자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땀것입니다.

이용우 가계는 오산의 경기재인청과 관련되어 일제강점기부터 《경기재인청선생안》, 《지두서》, 《죽음의 말》, 《오산12제차 무가》 등이 조사된 곳이다. 현재 화성재인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산 이용우 가계가 있던 부산동이 과거 화성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우는 시나위 연주가 이루어질 때 대금을 주로 연주하거나 장고를 담당했으며, 경기무악형 도당굿의 선거리를 주도하던 대표적인 세습무부다. 오산의 이용우가 평택 청북면의 스승을 찾아가 대금 시나위와 풍류를 익혔다는 점은 이 두 지역에서 경기무악형 도당굿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곳임을 말해준다.

4. 평택 무속의 지역성

지역성이란 그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이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편성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교집합을 가진다는 특성을 말하고, 개별성은 그 지역만의 특수한 성격을 뜻한다. 평택 무속의 지역성을 논할 때 그 주체와 대상을 누구와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보편성과 개별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⁵⁾

51) 沈雨星·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安城巫俗(경기시나위춤)》 121(서울: 문화재관리국, 1976), 583쪽.

52) 국립국악원, 《경기 도당굿: 음반해설서》cd 1-5(서울: 국립국악원, 1998).

53) 노동은 외 고상미·김수현·김은영·배인교·손인애·이소영·홍태한, 《경기음악II》(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282쪽

54) 국립문화재연구소·이용우·이충선·지갑성·임선문, 《경기무악》 대담자료3.

55)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지역성 연구〉, 《로컬리티인문학》 10(부산: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13), 155쪽.



사진 1) 방용현·방돌근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동명마을회관의 광경⁵⁶⁾

예를 들어, 평택 무속의 주체를 방용현·김돌쇠·방돌근·지영희로 삼고, 이들이 연주했던 경기 시나위와 경기무악형 도당굿을 대상으로 여길 때, 평택 무속의 지역성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방용현 개인은 평택이 배출한 연주자이지만, 경기만유역권역에 속한 경기 시나위 기반의 경기무악형 도당굿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점이다.

평택의 무속을 조선 전기와 후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로 크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평택 무속의 지역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연원을 찾는 것이기에 타당해 보인다. 평택 무속은 재인청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재인청은 무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고, 국가적인 기구로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왔다. 재인청에 소속된 무부는 하나같이 천민계급으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비천한 존재로 규정된 집단 구성원이었다.

조선 전기 재인청은 전국적인 무단제도(巫團制度)를 이뤄 국가적 산대

희나 지방관아 행사, 사신 접대나 장원급제자의 유가를 담당했다. 전국 재인청에서 한양으로 상송된 재인들은 1626년 《나례청등록》(儼禮廳謄錄)에 기록되었다. 이 기록에는 경기, 전라, 경상 3개 지역에서 285명이 동원되었는데, 경기는 27명이고 전라는 170, 경상은 85명이다. 이 중에서 수원은 3명, 양성은 1명이었다.⁵⁷⁾ 조선 전기 평택은 경기와 충청으로 갈라져 서평택지역은 수원도호부, 양성현, 직산현으로 편제되었다.⁵⁸⁾

조선 후기 재인청의 재인은 관아와 군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경기도는 주·부·군·현으로 관할구역을 나눠서 목3, 도호부8, 군10, 대현4, 소현8 모두 33개로 편제되었다. 목에는 좌수1명, 별감3명, 군관200명, 아전71명, 지인14명, 사령24명, 군뢰25명, 관노23명, 비20명을 두었고, 부·군·현에도 이들을 두었다. 경기도는 관찰사가 총괄하고, 수원 유수부는 정2품 유수, 진위현은 종5품, 양성현은 종6품 현령을 두었다.

관아와 군영에서 행사나 연회를 담당하는 이들은 군뢰(軍牢), 나장(羅將), 급창(及唱) 등이었으며, 이들은 배우이자 광대였고 재인청 소속 무부 또는 화랑이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화랑즉무부방 언알광대(花郎卽巫夫方言曰廣大)’라고 했으며, 이는 화랑과 무부, 또는 광대가 같은 계통임을 드러내 준다.

한양의 왕실음악 기관인 장악원에서 소수의 악생을 제외하고 악공 대부분은 노비 출신 세악수와 취고수였다. 경기도 각 지역의 군뢰, 관노, 관비, 군병의 수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전한다. 그중에서 진위현은 관노7, 관비8, 군병1,973이고, 양성현은 관노18, 관비5, 군병2,577(장악원

57) 노동은 외 고상미·김수현·김은영·배인교·손인애·이소영·홍태한, 《경기음악II》(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375-376쪽.

58) 평택문화원, 《평택인물지 4: 평택의 전통예인》(평택: 평택문화원, 2016), 26쪽.

56) 방돌근의 장남 방성용씨의 증언과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동명마을회관 부근이라고 한다(2020. 6. 14).

악생보 8, 악공보 3포함)이다.⁵⁹⁾

1895년 갑오동학농민혁명 이후, 신분 계급이 타파되면서 국가 사회적 차별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나,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까지도 무부는 재인, 공인, 화랑, 광대로 불렸고, 무녀의 굿 반주를 맡았으며 <산이> 혈통으로 무계(巫系) 내에서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일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대접을 받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천시의 대상이었다.⁶⁰⁾

평택은 경기 재인청의 세습무계가 주름잡던 지역이었다. 세습무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세습무녀는 단골판을 잃어버렸고, 세습무부는 악사로서 지역과 지역을 오고 가며 예술 종목이나 서울 곳으로 입지를 넓혀갔다. 특히 평택의 악사는 서울과 수원으로 대다수 이동해나갔다. 그들의 자리는 토박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서울굿형 만신과 향해도굿형 만신, 또는 충청도 법사의 영역으로 바뀌어 간다.

평택 무속의 주체는 왜 세습무부인가? 평택 무속의 대상은 왜 경기시나위와 경기무악형 도당굿인가? 그 이유는 역사적 연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평택은 시나위 연주자 방용현과 오강산과 김돌쇠를 기

59) 노동은 외 고상미·김수현·김은영·배인교·손인애·이소영·홍태한, 《경기음악II》(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363-365쪽; 368쪽.

60) 심우성 역(적송지성·추엽룡 저), 《조선무속의 연구》하(서울: 동문선, 1991), 255-256쪽에 의하면, 경기 남부 지방의 세습 속무에 관해 보면, 그것은 소위 무부와 무녀의 혼인[도록 194, 195]에 의해 성립된 가족이다. 무부는 재인(才人)·공인(工人)·화랑(花郎)·광대(廣大) 등으로 칭하고 가무음악(歌舞音樂) 일에 종사하며, 무녀가 굿을 할 때는 무악(巫樂)을 반주하여 이를 도와주고 종종 특수한 무사에는 독경 등을 한다. 이에 대해 무녀는 단골이라 칭하며, 굿의 주제자(主祭者)로서 가무강신(歌舞降神)을 행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하권 제2장]. 더구나 이들 재인·단골의 일가족은 소위 <산이>의 혈통이라 칭하며, 보통 사람은 이들을 무당의 피가 흐르는 일족, 털어 없앨 수 없는 더러운 핏줄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들과 혼인하는 것을 기피한다. 따라서 그들은 부정신성(不淨神聖)의 종교적 천민을 형성하며 계급적 내혼(內婚)을 행하므로, 그들 가족은 신성가족(神聖家族)이라 할 수 있다.

억해야 하고 그들에게서 학습한 이용우, 지영희, 지갑성, 김광식, 이충선, 조한춘, 전태룡 등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평택 무속의 정체성, 지역성이라는 주제 앞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평택의 상황은 경기지역 전반과 다르지 않다. 경기 어느 지역이라도 경기무악형 도당굿은 지역민들에게서 멀어졌고, 이 일을 수행하는 세습무부나 당주무의 숫자나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평택의 무속을 역사적 연원과 맥락이 닿는 선에서 복원하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갈 때, 평택에는 풍성한 문화적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은 평택 무속의 지역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둔 글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택지역이 경기만유역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고, 경기만유역권이 경기무악형 도당굿 권역임을 밝혔다.

둘째, 이 권역은 세습무권 무부가 중요하게 활동했던 지역이므로, 방용현, 김돌쇠, 오강산과 같은 명인이 출생했고 이들에게 학습한 지영희, 이충선, 지갑성, 조한춘, 전태룡, 김광식, 방돌근, 김순덕, 문상근 등의 걸출한 전통예술인이 배출되어 한국음악계를 형성시켜 왔다는 점이다.

셋째, 평택 무속의 지역성은 주체와 대상에 따라, 역사적으로 경기 재인청의 세습무부, 또는 경기시나위를 위주로 하는 경기무악형 도당굿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 참고문헌

- 金泰坤, 《韓國巫歌集》 제3권, 서울: 집문당, 1978.
- 노동은, 《지영희 평전》, 서울: 민속원, 2015.
- 노동은 · 고상미 · 김수현 · 김은영 · 배인교 · 손인애 · 이소영 · 홍태한 공저, 《경기음악II》, 수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 노동은, 〈지영희의 삶과 예술 II〉,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지영희와 한국사회》(서울: 중앙인쇄소, 2011), 27-62쪽.
- 목진호, 〈경기 도당굿 '화랭이' 연구〉, 서울: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 〈경기 도당굿의 지역성 연구〉, 《로컬리티인문학》 10(부산: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13), 149-180쪽.
- 문화재관리국, 〈경기삼현육각〉, 《삼현육각》, 서울: 문화재연구소, 1984. 〈방돌근의 제적등본〉.
- 박성복,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2018 평택학 학술대회 · 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183-223쪽.
- 박성복,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2018 평택학 학술대회 · 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평택: 평택문화원, 2018), 183-223쪽.
- 成錦鳶 編, 《池瑛熙民俗音樂研究資料集》, 서울: 僑文社, 1986.
- 심우성 역(적송지성 · 추엽룡 저), 《조선무속의 연구》 하, 서울: 동문선, 1991.
- 이용범, 〈평택무속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국무속학회》 23(서울: 한국무속학회, 2011), 133-166쪽.
- 이용범 · 손태도, 〈경기도 남부 무속의 지역적 정체성: 실태 소개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9(서울: 비교민속학회, 2005), 151-194쪽.
- 이자균, 〈유성기음반의 명인명창 열전(2)〉, 《한국음반학》 제4호(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517-524쪽.
- 평택문화원, 《2018 평택학 학술대회 · 제4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희'》, 평택: 평택문화원, 2018.
-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 상, 평택: 평택문화원, 2010.
- , 《평택인물지 4: 평택의 전통예인》, 평택: 평택문화원, 2016.
- 하주성, 《경기도의 굿》, 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 홍태한, 〈평택 민속 문화의 특징: 무속을 중심으로〉,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지영희와 한국사회》(서울: 중앙인쇄소, 2011), 83-104쪽.
- 朴憲鳳,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진쇠장단외 十一장단》, 28(서울: 文化財管理局, 1966), 871-901쪽.
- 劉起龍 · 洪潤植,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京畿시나위》 54(서울: 文化財管理局, 1968), 207-225쪽.
- 朴憲鳳 · 劉起龍 · 洪潤植,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도살पुर리, 살पुर리)》 76(서울: 文化財管理局, 1970), 209-232쪽.
- 劉起龍 · 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시나위》 85(서울: 文化財管理局, 1971), 543-583쪽.
- 沈雨星 · 李輔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安城巫俗(경기시나위춤)》 121(서울: 문화재관리국, 1976), 455-601쪽.
- 張籌根, 〈巫俗〉,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京畿道編》(서울: 민속원, 1978), 106-130쪽.
- 국립국악원, 《경기 도당굿: 음반해설서》 cd 1-5, 서울: 국립국악원, 1998.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무악: 대담자료》 3,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용우 · 이충선 · 지갑성 · 임선문, 《경기무악》 CD 4매(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소장자료시리즈 13.

이윤경 · 이자균, 《경기 도당굿: 음반해설서》.

《한국의 전통음악-KBS소장 작고명인연주집》 16, 서울: 서울음반, 1994.

《한국의 전통음악-KBS소장 작고명인연주집》 34, 서울: 서울음반, 1994.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박성복/평택학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거북놀이의 유래와 전래
3.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특징
4. 평택거북놀이의 연희 준비
5. 평택거북놀이 연희 과정
6.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
7. 맺음말

1. 머리말

한반도의 허리, 경기도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오래전부터 민속 놀이와 전통예술이 발달한 곳이다. 평택은 300여m가 넘는 높은 산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야와 바닷가가 위치한 동고서저(東高西低) 지역으로 동쪽에서부터 중심부까지는 밭농사와 논농사를 주로 경작했다. 반면 서쪽은 바닷가에 접해있어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살아왔다.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성은 평택을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게 했다. 자연을 밀천으로 살아온 민초들에게는 풍년, 풍어, 무사안녕 등 기원(祈願)과 기복(祈福), 축원(祝願)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자연스럽게 농악을 비롯한 민속놀이는 물론 굿 음악을 융성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평택에서는 소리와 기악, 춤, 풍물 등 많은 예인들이 배출됐다. 모흥갑, 지영희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만한 전통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이 평택이며, 남사당과 웃다리농악, 경기도당굿, 경기시나위를 주도해온 전통예술의 본류로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준 고장도 바로 평택이다.

이와 함께 줄다리기와 거북놀이, 얼레공치기 등 마을 주민들의 일체감을 심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민속놀이도 다양하게 연희되어왔다.

평택지역에서 행해져온 민속놀이에는 단체놀이로 줄다리기와 거북놀이, 얼레공치기(장치기), 쥐불놀이, 햇불싸움, 춘향이놀이, 씨름, 윷놀이, 걸립농악, 두레놀이, 두레싸움(기싸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줄다리기와 거북놀이, 씨름, 윷놀이, 걸립놀이, 두레놀이, 고무줄놀이, 널뛰기, 사방치기, 천렵, 지게놀이는 몇몇 마을 또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연희되고 있다.

민속놀이 가운데 평택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개인놀이로는 연날리기, 자치기, 제기차기, 그네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낫치기, 갈퀴치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등은 학교 수업 과정 중에 진행하고 있으며, 그네뛰기와 널뛰기 등은 평택문화원에서 격년마다 개최하는 ‘소사별단오제’에서 읍·면·동 대항 방식으로 진행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에서 거북놀이와 줄다리기는 현재까지도 몇몇 마을에서 연희되어오고 있다. 거북놀이의 경우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평택시 평성읍 노와2리 와야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연희 내용을 중심으로 평택거북놀이보존회가 조직돼 전승 활동에 힘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평택에서 오랜 기간 행해져온 민속놀이 가운데 거북놀이의 역사와 분포, 연희 내용을 살펴보고, 잊혀져오다 최근에 다시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거북놀이의 연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거북놀이의 유래와 전래

거북놀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설고총서》로 신라 문무왕 때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때 15세의 공주가 병에 들었는데, 영추대사가 15세 소년들로 하여금 수수 잎으로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게 하고 유희하며 집 안팎을 깨끗이 쓸게 하였더니 공주의 병이 나았다¹⁾

1) 홍순석,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이천문화원, 2004.

이 유래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에서 전승되어야 할 거북놀이가 왜 이천, 평택, 안성, 천안 등 기호지방에서만 전승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 이 유래담에서는 병의 치유에 거북놀이가 행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조사된 기호지방의 거북놀이로 보면 병의 치료, 혹은 예방 차원에서 거북놀이를 연희했다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지역에서 행해진 거북놀이의 유래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거북의 기능인 수명장수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는 점 때문이다.²⁾

근대 이전 평택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1984년 간행된 《평택군지》에는 고려 8대 임금 현종 때(1009~1031년) 천안부 직산현에서 거북놀이가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8대 현종(1009~1031) 왕은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메말라 죽어가고 도둑이 들끓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때에 여러 고을을 돌아보던 중에 천안부 직산현(지금의 입장면을 포함한 직산지방)을 와서 유하게 됐다.

이때 꿈속에서 신라 문무왕이 나타나 하는 말이 한가위 날 거북이를 보낼 터이니 거북이를 닮은 마을에서 옥수수 잎사귀 옷을 해 입고 거북이와 더불어 뛰어놀라는 계시를 받았다.

현종은 이튿날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입장면 신덕리 1구 마을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추석날 조정 대신들을 이 마을에 파견시켜 옥수수 잎사귀를 엮어 옷을 입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북이 놀이를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듬해에 벼 알이 마치 옥수수 알처럼 풍성하

게 머물어 대풍을 이루어 이 때부터 이 마을을 비롯해서 다른 마을로 파급되면서 추석을 맞아 거북이놀이가 행하여졌다고 한다.³⁾

《평택군지》에 기술된 천안 직산지방 거북놀이 유래에도 신라 문무왕이 등장한다. 《설고총서》에 기술된 이천지방 거북놀이 유래와 같이 신라 문무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문무왕이 사후에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일 그러하다면 문무왕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호지방에 문무왕 관련 설화가 등장하는 것은 ‘문무왕이 사후 용이었다면 거북을 부리는 능력을 소유했을 것’이라는 작위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평택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된 것은 1984년 발간한 《평택군지》에 기술했듯이 고려 현종의 지시로 입장면 신덕리 1구 마을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된 후 다른 마을에도 파급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직산과 인접한 평택지역에도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놀이를 기술한 또 다른 기록은 일제강점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1941년에 발간한 조사자료 47집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郷土娛樂)》은 당시 인류학자인 무라야마지준(村山)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책은 농촌·산촌·어촌 사람들이 이어온 전국의 향토 오락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1936년 각 시·도지사에 조회⁴⁾하였고, 관할 군의 초등학교에 의뢰하여 수집해 보고된 자료를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평택지역 거북놀이가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평택과 인접한 경기도 이천과 안성지역에 소개된 지역별 거북놀이 전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이천지역은 추석에 수수단으로 거북이를 만들어 몇 명의 아이

3) 《평택군지》, 평택군지편찬위원회, 1984년 12월 30일.

4) 어떤 사람의 인적 사항 따위를 관계 기관에 알아보는 행위를 말한다.

2) 김중대, 이승수, 임장혁, 《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2006년 10월 30일.

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수숫잎으로 엮은 한 사람이 거북이를 지휘하여 마을 각 집을 방문한다. 덕담을 하며 떡과 과일을 준다. 경기도 안성지역은 추석에 농민들이 행하며, 경기도 타 지역과 동일하다. 거북은 장수(長壽)와 무병(無病)을 축원하며, 마을의 잡귀를 쫓는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지역은 정월에 짚으로 거북이 형태를 착용한 자를 다른 한 사람이 데리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가 여러 놀이를 한다. 집안 땅위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고 그 집의 사람이 이유를 물으면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떡과 먹거리를 준다. 경기도 수원지역은 추석에 행하며 청소년이 하는 놀이이다.

충청남도 천안지역은 명석으로 거북을 만들어 이를 쓴 사람이 선두에서면 농악대가 따른다. 마을의 각 집에 들어가 각종 놀이를 하며 축원을 한다. 문안을 받은 집은 술을 내 놓고 향응을 한다. 거북놀이 노래는 “거북 거북 놀아라, 만석거북 놀아라, 천석거북 놀아라” 하고 부른다. 충청남도 아산지역은 추석에 농민의 놀이였으나 거의 전승되지 않는다. 충청남도 서산지역은 추석에 어린이들이 행하는 놀이이다.

충청북도 음성지역은 짚, 완초(莞草), 나뭇잎으로 거북을 만들어 쓰고 거북이처럼 걸으며 각 집을 돌아다닌다. 각 집에서는 떡과 여러 먹을 것을 준다. 충청북도 청주지역은 추석에 행하며 어린이의 놀이이다.

이상과 같이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면 거북놀이는 추석 또는 정월에 행하는 놀이이며, 놀이의 주체는 어린이나 청장년이 중심이 된다. 거북은 주로 수숫잎으로 제작하며, 겨울철인 정월에 행할 경우에는 짚과 명석으로 제작한다. 거북놀이의 목적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행하는 덕담에 나타나 있듯이 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써 방문자로 거북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수(靈獸)인 거북은 수신으로 풍년을 보장하고 장수 동물로 무병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아쉽게도 평택지역 거북놀이가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연희 시기와 연희 대상, 연희 방식이 평택지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은 경기도 이천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평택은 이천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석에 아이들이 참여해 수숫잎으로 엮은 거북이를 지휘하여 마을 각 집을 방문해 마을과 가정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면 집주인이 떡과 과일을 내주는 형태로 연희되어 왔다.

평택시 서탄면 금각1리 쇠뿔마을에서는 1940~50년대에 매년 추석 명절 때 마을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거북놀이를 진행했다. 이때 거북놀이의 왕 거북이의 재료는 대나무와 수숫잎으로 엮었으며, 연희는 남자 어린이들이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거북이는 배가 고파 쓰러지는데 이 마을에서는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 쓰러지면 침을 놓는 시늉을 했다고 한다. 또 거북놀이 연희가 끝나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 거뒸들인 음식을 어르신들과 나눠먹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옛날 우리 자랄 때 거북놀이라고 있어요. 밭에 수수를 많이 심었었는데 수숫잎을 따다가 줄로 엮어서 사람 둘이 엮은 걸 쓰고 뒤에 거북이 꼬리한다고 엮어서 뒷사람이 흔드는 거야. 엮은 걸로 갑옷처럼 입고 집집마다 다니지. 가다가 거북이가 쓰러지면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러면 음식을 잘못 먹고 체했다고, 그러면 침놓는 시늉하고 그랬어. 집집마다 가서 송편 같은 거 나눠먹고 그릇에 담고 끝나면 마을 뒤에 종중산이나 산소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노인들하고 나눠먹고 그랬어. 옛날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먹어도 절도가 아니야.⁵⁾

평택의 거북놀이는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적 성격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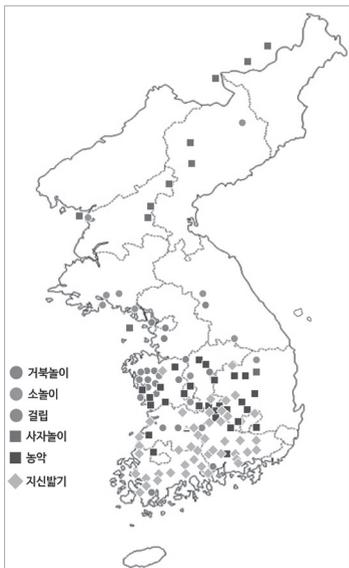
5) 평택시 서탄면 금각1리 이경태 씨 구술, 2006년 10월 9일, 평택문화원 박성복

이레로써 마을의 공동 안녕과 풍년을 위해 창출된 전통 민속놀이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온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거북놀이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물, 터주, 대청 등을 돌며 사악한 것을 쫓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 놀이가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지방의 무속에서 거북이 등장하는 굿거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이 놀이가 무속신앙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평택지역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이의 모습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의 형태는 각 마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나며 그들 나름대로 거북이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상징적인 거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가장연희의 분포⁶⁾



6)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년, 이 책의 '가장연희의 분포도'를 2020년 박성복이 재구성

이러한 거북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의 사회성을 키웠고 서로가 협동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토대로 이 놀이가 문화화 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첫째, 거북놀이의 중요성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고장에 두루 존재하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의 거북놀이는 팽성, 서탄, 진위 등 지역적 분포가 넓고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었다. 이미 평택거북놀이 전승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평택거북놀이는 근래에 들어 경기도민속예술축제와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입상한 바 있으므로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활동을 체계화 한다면 무형문화재로 전승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평택거북놀이는 평택지방의 민속문화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관광적 요소와 결합하여 위상을 제고해 그 활용성을 드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특징

기호지방(畿湖地方)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거북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연희 시기는 주로 8월 대보름 즉 추석 날 저녁이었다. 이때가 되면 낮에 준비해 둔 거북의 옷을 뒤집어쓰고 마을 집집마다 다니며 덕담(德談)을 해주는 일종의 주술적(呪術的) 의미를 갖고 있는 대동(大同)의 놀이었다.

평택지역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이의 모습은 지역마다 다소 다른 특성이 있다. 거북이의 형태는 1990년대 놀이가 중단될 때까지 머리와 몸

체, 꼬리가 세분되지 않고 연결해서 만들었다. 연희자도 1~2명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점, 특히 팽성읍 노와2리의 경우 수장거북이 떡메를 치고 일반거북이는 발을 구르며 이동하거나 복을 비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거북놀이의 특징으로는 다른 민속놀이와 달리 추석날 달 밝은 밤에 연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마을의 거북놀이 연희는 그 지역의 두레농악 발달 역사와 전승을 함께 보아야 한다.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음악 풍물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거북이가 울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거북이의 느린 동작과 조화를 이뤄 농악 가락을 전개한다.

거북놀이의 진행과정은 대문, 우물, 터주, 대청 등을 돌며 잡귀를 쫓는 행위를 통해 이 놀이가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택농악 걸립굿 가운데 촌건립에서 볼 수 있는 집안을 돌며 액운을 쫓는 지신밟기와 같은 연희가 거북놀이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연구할 부분이다. 거북놀이를 연희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축원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며 살림에 여유가 있는 집은 고마움의 표시로 쌀 한 말을 내놓기도 한다.

평택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되는 시기는 대부분 추석이다. 추석에는 각 가정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해 거북놀이로 함께 여흥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연희에 유리한 점이다. 연희 시기가 추석이 아닌 때에 행해지는 마을도 있는데,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는 정월 보름날에도 거북놀이를 연희했다고 한다.

평택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된 장소는 마을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곳은 없다. 대개 마을의 공터에서 준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노는 것이 일반적이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역시 공터로 모여서 추렴한 음식과 술

등을 먹으면서 노는 것으로 끝난다.

팽성읍 노와2리에는 거북이가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기 보다는 형편이 좋은 집을 골라 찾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점은 백중놀이나 머슴날에 행해지는 방식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노와2리 거북놀이 연희는 각 가정에서 추석날 차례를 지낸 후에 연희자들이 모여 수수 잎을 따 모으고, 점심 이후에 용마름을 틀어서 거북이를 만들고 저녁 무렵부터 놀기 시작한다. 저녁 시간에 연희가 이뤄지다 보니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의 경우 마을 전체 가구를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방문할 집을 정해놓고 연희를 한다.

4. 평택거북놀이의 연희 준비

거북놀이를 연희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거북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평택시 팽성읍 노와1리 평택거북놀이보존회에서 매년 추석 연희하고 있는 평택와야골거북놀이의 연희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거북놀이의 핵심인 거북이는 거북이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춤을 추기에 적당한 기능을 갖추면 된다. 거북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재료는 머리와 몸통은 대부분 수수잎을 사용한다. 추석 때 농촌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수수잎이며, 거북이 틀을 가리면서 손쉽게 꾸밀 수 있는 재료가 수수잎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다. 정월 대보름에 거북놀이를 하는 마을은 수수잎을 구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벼짚을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거북이 한 마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잎은 성인 한 사람이 두 팔로 안을 정도의 규격으로 15단 정도가 필요하다. 거북이를 만드는데 적당한

크기의 수숫잎은 110~120cm 정도이다.

거북이 등 모양을 만드는 데는 직경 5cm, 길이 3cm 정도의 대나무 20여개와 새끼줄을 만들 벗짚 10단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거북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거북이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수숫잎이 준비되면 이엉을 엮는데, 이때 새끼줄을 사용한다. 먼저 거북이의 몸체에 사용되는 수숫잎 두서너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이엉을 엮어나가는데, 처음에는 3m 정도의 새끼줄을 절반으로 접어 그 사이에 수수 잎을 넣고 꼭 묶는다.

이때 한쪽 끝 부분이 5cm 정도 나오도록 한다. 그런 뒤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 꺾어 그 위에 새로운 수수 잎을 대고 엮는다. 이렇게 꺾고 대고 엮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숫잎으로 엮은 이엉이 120cm 정도가 되면 거북이의 몸통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거북이 뒤를 따르는 일반 거북의 복장을 만드는데도 쓰인다.

다음은 수숫잎으로 용마름을 엮는다. 용마름은 3m 정도 길이의 새끼줄을 축으로 하여 수숫잎 3~4개의 밑 부분을 가지런히 하여 교대로 서로 마주 보게 교차시키면서 엮어 나간다. 이 때 매듭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밑 부분의 길이는 20cm 정도이다. 이렇게 완성한 용마름은 거북의 등 부분을 덮는데 사용한다.

거북의 몸통에 씌울 이엉과 용마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거북의 몸통 골격을 만든다. 거북이 몸통 골격 제작에는 대나무와 매듭용 끈, 고무줄 등의 재료가 사용된다. 타원형 모양의 골격이 완성되면, 가장 긴 지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보조용 대나무를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서로 교차된 거북이 등 부분의 대나무 골격은 매듭용 끈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한 골격이 완성되면 그 위에 이엉을 가장 아래 부

분부터 둘러싸는 형식으로 덮어가면서 대나무 골격에 노끈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위에 용마름을 덮어씌운다. 마지막으로 수수 잎을 거북 특유의 마름모무늬를 만들면서 원줄을 둥글게 고정시킨다.

거북등이 완성되면 일반 거북의 복장을 만든다. 일반 거북의 복장은 수숫잎을 적당한 크기로 3개의 이엉을 엮어 하나는 머리에 뒤집어쓰고, 나머지는 각각 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먼저 수수 잎으로 이엉을 엮는데 길이 60cm 정도 1개와 40cm정도 1개, 50cm정도 1개를 만들고 크기는 연희자의 체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머리에 쓸 이엉은 양끝을 묶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이엉의 3분의 2지점을 묶어 준다. 그리고 연희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에 쓴 이엉을 묶어준다.

거북놀이에 등장하는 깃발은 크게 다섯 종류가 있다. 거북이의 형상을 그린 ‘거북기’, 물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용기’, 농사를 천하의 대본으로 여기는 ‘농자천하대본기’, 신령스러운 기운을 뜻하는 깃발 ‘영기’, 연희를 진행하는 ‘거북놀이보존회기’, 우주를 나타내는 ‘오방기’로 나뉜다. 깃발은 매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해오던 깃발을 그대로 사용한다.

‘용기(龍旗)’는 마을을 상징하는 기(旗)이다. 모든 마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할 때 또는 다른 마을과 교류할 때 마을의 상징물로 등장한다. 용기(龍旗)는 10m 정도 되는 긴 대나무 끝에 평장목이나 생목기로 깃봉을 만들어 달고 깃봉 끝에 너비 1m 65cm, 길이 5m 가량 된 큰 기폭(旗幅)을 단다. 기폭 주위에는 검은색 천으로 지네발을 달고 기폭은 흰색의 천에 오색(五色)으로 용(龍)을 그리는 데 곁들여 여의주, 거북, 잉어 등을 그린다.

‘농기(農旗)’는 ‘농자천하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인 기(旗)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농악대에서 공동으로 등장하는 기이다. 5m 가량 되는

대나무 끝에 꿩 장목을 달고 깃 폭은 흰색의 천을 사용하며 깃 폭 주위에는 검은색 지네발을 단다. 농기에 '평택거북놀이보존회'라는 소속을 쓴다.

'영기(令旗)'는 2.5m 가량 되는 대나무 끝에 늦쇠로 만든 삼지창을 단다. 그리고 깃봉 밑에 흰 창호지로 만든 지전을 주렁주렁 단다. 깃 폭은 정방형 또는 사각현의 깃 폭을 달고 깃 폭의 색깔은 오색을 많이 사용하며 깃 폭 속에는 영(令)자라고 쓰는데, 기폭의 색깔과 글씨의 색깔은 다르게 해야 한다. 또한 기폭의 둘레에는 기설을 달며 영기(令旗)는 용기(龍旗)와 농기(農期)를 호위하고 굿패의 신호기 또는 진법놀이 등에 사용된다.

5. 평택와야골거북놀이 연희 과정

평택와야골거북놀이의 구성은 거북기(1명), 용기(3명-청룡기, 흑룡기), 영기2(빨강, 파랑), 단체기(거북놀이보존회) 등 다양한 깃발과 농악대, 대감, 마님, 양반, 마을 사람, 잡색, 마을 아이들 등이며, 농악대는 쇠 3명, 징 2명, 북 3명, 장구 4명, 소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거북을 비롯한 연희자 일동은 한 자리에 모여 길놀이로 막을 연다. 놀이과정은 거북옷 만들기 → 길놀이 → 수문장굿 → 용왕굿 → 터주굿 → 조왕굿 → 마당놀이 순으로 이어진다.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총 9마당으로 구성하였다. 각 마당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마당(거북옷 만들기) : 수수 잎을 따다가 엮어 거북이 옷을 만들어 입는다.

제2마당(길놀이) : 대장거북을 앞세우고 일반거북이 뒤따르고 농악대가 합류해 길놀이를 한다.

제3마당(수문장굿) : 집 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인장을 불러 대장거

북을 맞이하도록 한다.

제4마당(용왕굿) : 집에 들어가 우물 앞에서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며 집 돌이를 한다.

제5마당(터주굿) : 장독대 옆에서 한해 액을 막고 가내 평온하기를 터주에게 기원한다.

제6마당(조왕굿) : 부엌 앞에서 조왕신에게 가족의 건강과 가내의 영화를 빈다.

제7마당(대청굿) : 앞마당에서 주인과 가족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며 놀이판을 벌인다.

제8마당(마당굿) : 거북과 농악대가 어울려 놓고 지친 거북을 위한 놀이판을 벌인다.

제9마당(마을 뒷놀이) : 집밖으로 나와 마을에서 놀이패와 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판을 만든다.

각 연희 과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북옷 만들기

수수 잎을 따서 거북등과 수장거북, 일반거북 옷을 만들어 입고 거북이기, 농기, 영기, 용기를 앞세우고 길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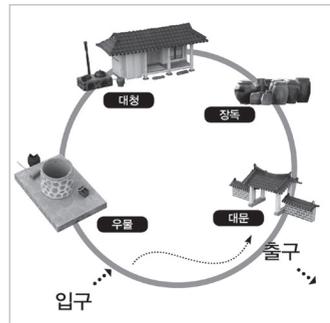
2) 길놀이

마을사람(소리꾼) : 올해도 8월 한가위를 맞아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다녀왔으니, 우리 거북놀이 한판 놀아보세.

일동 : 그렇게!, 열씨고

수장거북 : 우리 천석만석 거북이가 서해바다 거친 파도를 거치고 또 높은 봉우리 건너서 우리 이 마을의 가가호호 천석만석만큼 복을 빌어주기 위해 왔으니 자 거북 우리 이 마을에 복이나 빌어주고 가자꾸나.

거북이기, 농기, 영기, 용기 등 깃발을 든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수장거북과 거북잡이, 일반거북, 마을사람들, 농악대, 마을아이들이 따른다. 거북이의 뒤를 이어 정자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든 양반과 빨강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은 여종, 그리고 패랭이를 쓰고 붓짐을 지고 등걸 잠방이에 바지 한쪽을 걸어 올린 머슴이 해학적인 춤을 추며 뒤따른다. 잡색들 뒤로는 풍물을 치는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이 뒤 따른다.



3) 장승굿

덩덕궁이 가락에 맞춰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앞까지 농악대가 도착하면 장승 앞에서 굿판이 시작된다. 장승 앞에 도착한 농악대는 거북이를

가운데 두고 짹짹이 장단, 자진가락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이어서 농악대가 인사가락을 치면 농악대 일동이 거북이에게 인사를 드린다. 인사를 드린 후, 덩덕궁이 가락에 맞추어 거북이의 돌레를 돌다가 가락이 다시 자진가락으로 바뀌면 소고잡이들은 제자리에서 뛰면서 양상을 치고 또 덩덕궁이로 풀고 맺은 후 상쇠의 고사를 올리기를 시작한다.

수장거북 : 자 장승님께 고사하나다.

일동 : 예이!

수장거북 : 천하대장군 우통광대하니, 지하여장군 마을장승이요, 호봉팔현은 가급천병이다.

장승 고사가 끝나면, 농악대는 일체 가락을 치며 세 번 인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점고를 세 번 쳐서 마을 진입을 알리고, 덩덕궁이 가락에 맞추어 마을에서 잘사는 집을 찾아 이동한다.

4) 수문장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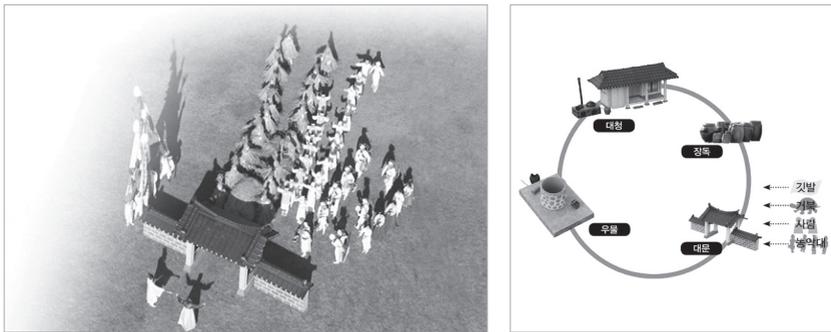
마을길을 지나 골목길을 들어서서 목적으로 한 집 대문 앞에 멈추어 선다. 거북 놀이패는 일체를 치다가 자진가락으로 바꾸고 다시 맺는다. 거북이와 수장거북이 나란히 서고, 그 뒤에 다른 연희자들과 농악대가 선다. 수장거북의 말에 따라 거북이가 문에 인사를 하자 집 주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한다. 거북놀이패는 가락을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순서로 치고 농악을 멈춘다.

수장거북 : 문 엽소 문 엽소 수문장군 문 엽소 만인간 들어가고, 구렁이 복은 굴러 들어오고 제비복은 날아 들어오고, 삼태기복은 안아들어 오고

만복을 잔뜩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집주인 부부 : (문을 열어주며 인사한다.)

사설이 끝나자 거북이 놀이패가 덩덕궁이를 치며 문안으로 들어서고 주인 부부가 대문을 활짝 열고 일행을 정중히 맞이한다. 그러면 풍물을 치며 일동은 집안 마당으로 들어선다.



5) 용왕굿

집안 우물 주위로 허드레춤을 추며 모인다. 우물에 도착한 수장거북, 일반거북, 마을 사람들은 주위에 서서 기원을 한다. 수장거북은 우물 주위에 큰 나무망치로 땅을 치고, 일반거북은 발을 구르고 꼬리를 흔들며 춤을 춘다. 그리고 장단에 맞춰 비손을 하고 세 번 절을 한다.

농악대(쇠잡이) : 뚫으시오, 뚫으시오, 샘구멍을 뚫으시오.

일동 : 뚫으시오, 뚫으시오, 샘구멍을 뚫으시오.(더드레기가락 연주함께)

농악대(쇠잡이) : 물 주시오 물 주시오 사해용왕 물주시오.

일동 : 물주시오 물 주시오 사해용왕 물주시오.(더드레기가락 연주함께)

농악대(쇠잡이) :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

일동 :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더드레기 연주함께)

농악대(쇠잡이) : 자야!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사는 법. 7년에 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철철 내주고, 9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맑게 해 주십시오~~.

일동 : 그렇치~~. 암! 그렇고 말구요.

농악대(쇠잡이) :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중앙황제 용왕님.

일동 : (큰 소리) 예이!

농악대(쇠잡이) : 1년 열두 달 맑은 물이 철철 넘치게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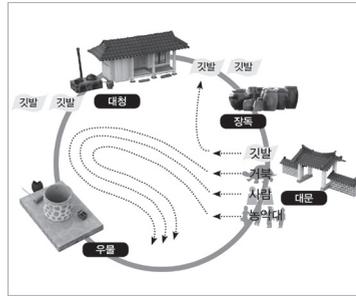
일동 : (큰 소리로) 그렇고 말고.

농악대(쇠잡이) : 이 샘물을 먹는 사람, 모두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농악대(쇠잡이)가 ‘선창’을 하면 일동 ‘후창’을 받을 때 농악대는 더드레기 가락을 쳐준다. 주받기 사설이 끝나면 농악대가 짚은 가락을 짧게 치고, 일체가락을 치면 일동이 세 번 인사를 한다. 농악 전체는 자진가락에 맞추어 큰 소리로 흥을 돋운다. 놀이패들은 “어! 좋다. 얼씨구!” 하며 함성을 지른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흥을 돋우다가 농악이 멈춘다. 거북이는 머리와 꼬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사람들의 기원을 듣는 흥내를 낸다.

6) 터주굿

거북놀이 일행이 집 울타리 안쪽의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로 간다. 그리고 터주가리와 장독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발구르기와 비손으로 기원을 한다. 그리고 장독대 주위를 돈다. 이때에 농악은 덩덕궁이 가락을 치다 자진가락을 친다.



농악대(쇠잡이) :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큰소리로 외치며 땅을 꼭꼭 밟아준다)

일동 :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농악대(쇠잡이) : 누르세 누르세, 천년지덕 누르세.

일동 : 누르세 누르세, 천년지덕 누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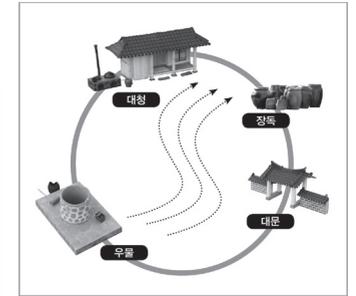
농악대(쇠잡이) : 누르세 누르세, 만년지덕 누르세.

일동 : 누르세 누르세, 만년지덕 누르세.

농악대(쇠잡이) :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을 내내 벌떡 할지라도 관재 귀살 삼재팔난 우환재란 근심걱정 다 소멸하시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취 이뤄 주십시오.

농악대(쇠잡이)의 선창에 따라 일동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을 꼭꼭 밟아 준다. 수장거북은 큰 나무망치로 땅을 치며 좌우로 움직이고, 일반거북은 노래를 부르며 발을 구른다. 그리고 덩덕궁이 가락에 맞추어 터주거리 주위를 돌면서 “잡귀 잡신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땅을 밟는다. 농악대가 잦은 가락을 짧게 치고, 일체가락을 치면 일동이 세 번 인사를 한다.

다른 거북놀이패는 덩덕궁이 가락에 맞추어 터주거리 주위를 돌면서 “잡귀 잡신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땅을 밟는다.



7) 조왕굿

거북놀이 일동은 이어 정지(부역)로 향한다. 부역 앞에서 일행은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를 계속 외친다. 부역에 모여 바닥을 밟으며 춤을 춘다. 춤 동작은 제 터주굿 때와 동일하다.

농악대(쇠잡이) :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일 년은 열두 달, 나날을 삼백 육십오일. 큰솔은 밥솔이요, 작은 솔은 국솔인데. 큰솔에 불을 때면, 밥이 가득 소복하고. 작은 솔에 불을 때면, 국이 출렁하게 해 주소서. 이 집에 거북이 놓고 가니 이 가문에 영화가 비칠 것이요.

농악대(쇠잡이) : 이 집에 거북이 놓고 가니 이 가문에 영화가 비칠 것이요.

일동 : 그렇치~~.

일행 :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세 번 반복)



8) 대청굿

일동이 집 안을 다 돌고 완전히 마당 안으로 들어설 무렵 주인댁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청아래에 돛자리를 깔고 상을 차린다. 일동을 정성스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상 위에는 사과, 배, 밤, 꽃감, 대추 등 과일이 올라가고 촛대 2개, 쌀 1말이 올라간다. 여기에 쌀 말 위에는 쌀이 가득 담긴 밥그릇 3개를 쌓아 올리고 수저 한 벌씩을 거꾸로 꽂아두며 실로 주위를 두른다.

이렇게 상이 차려지면 상 앞 왼쪽에 수장거북이 서고 집주인은 무릎을 꿇고 향을 지핀다. 먼저 수장거북이 집주인에게 술을 따라주면, 집주인은 그 잔을 상에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그리고 나면 고사반이 시작된다. 고사반이 이어지는 동안 집주인 부부를 비롯하여 일동은 뒤에서 비손을 한다.

수장거북 : 아! 여보게!

일동 : 예!

수장거북 : 우리가 이렇게 가락만 두드릴게 아니라 오복만복 고사를 정성껏 드려야지!

일동 : 그렇구 말구요.

상쇠 : (축원덕담을 한다.)

천계우주 하나리요 지계조축 땅생길재
 국태민안 시화연풍 연-년이 돌아든다
 허대주대왕 등극시에 봉황이 어찌 생겼느냐
 삼각산-기봉하고 인왕산이 조산되고
 왕심산-청룡되고 종남산-안산되고

동구제 말리제 백호로다.

삼각산이 쇠산될적 한강수- 독을 막아
 여-천지 무궁해라 만복을 구할적에
 봉황이어찌 생겼구나 생각등에 대결짓고
 봉황허리에 물을대어 대결앞에 육조로다.
 오 영문- 하각수- 각도각금을 마련할제
 경기도로 접어들어 이대면래 대면래면
 이대동녕 대도동녕 가개각각 다모아서
 건구곤명 모씨덕으로 들어가자.

이때 거북이는 마당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기어 다니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의 염원을 듣는다. 고사소리가 끝나면 거북놀이패와 마을 사람들의 춤판이 벌어지고 농악가락은 덩덕궁이로 바뀌었다가 자진가락으로 맺어진다.

9) 마당굿

흥겹게 춤을 추던 거북이들이 한두 마리씩 쓰러지다가 모든 거북이 쓰러진다. 주민들은 쓰러진 거북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달래다가, 나중에 함께 음식을 먹으며 논다. 이 부분은 거북놀이에서 희극적 요소가 가장 많은 장면이다. 쓰러진 상태의 동작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수장거북이 : 거북이가 쓰러졌다~~. 어이구! 거북이가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마을사람들 : 아이고 거북이가 쓰러졌데.(수근수근 거리며...), 아이고 어째.

(집주인과 마을사람들이 놀라서 거북이 주변에 반원을 그리며 모여든다.)

거북이 머리를 만지면서 이리 저리 살핀다. 거북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배가 고프다는 시늉을 하며 입을 짹짹 벌리고 고개를 넣었다 빼는 동작을 한다.)

수장거북이 : 우리 거북이가 서해바다를 건너오느라 지치고 배가 고파서 쓰러 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주인부부 : (마루의 상에 있는 떡과 음식을 가지고 오며) 아! 올해는 대풍년이고 오늘 한가위에 먹을 것이 잔뜩 있으니 많이 드시고 우리 집에 건강과 복을 틔웁 주십시오.

수장거북이 : (음식을 받고 부족한 듯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거북이가 이 먼 길을 힘들게 왔는데, 이 음식으로 어찌 허기를 채우겠소?

수장거북 : 울어라.(수장거북이 심술이 난 표정으로 거북이에게 손짓을 하며.....)

거북이일동 : 우!(우는 소리를 내며 거북이들도 고개를 저으며 뒤로 더 눕는다.)

주인부부 : (음식을 더 가져오며) 아이고, 미처 몰랐습니다.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져왔으니 배 불리고, 우리 집에 온갖 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

마을 소리꾼이 소리를 하는 동안 마을사람들은 거북이에 음식을 주고 마을 사람들 중 한사람이 곱추 흉내를 내보이기도 하고 마을 주정뱅이가 음식을 구걸하는 등 익살스러운 부분을 보여준다.

소리가 끝나고 수장거북이 신호에 따라 거북이들이 일어난다.

수장거북이 : 이젠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신명나게 돌아보세!

수장거북이 : 주인장, 잘 먹고 갑니다. 항상 집안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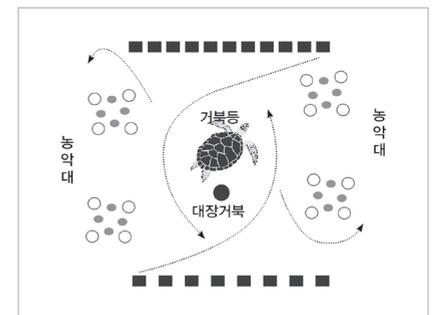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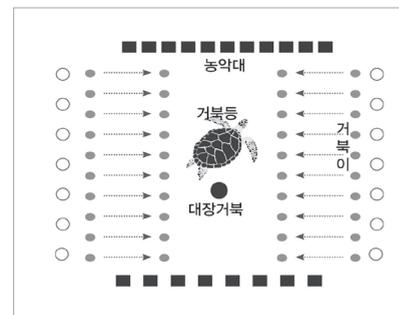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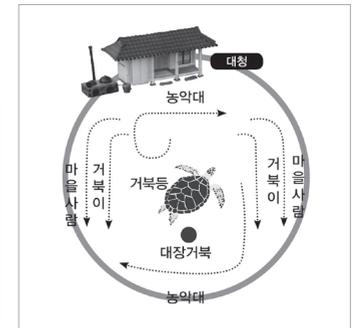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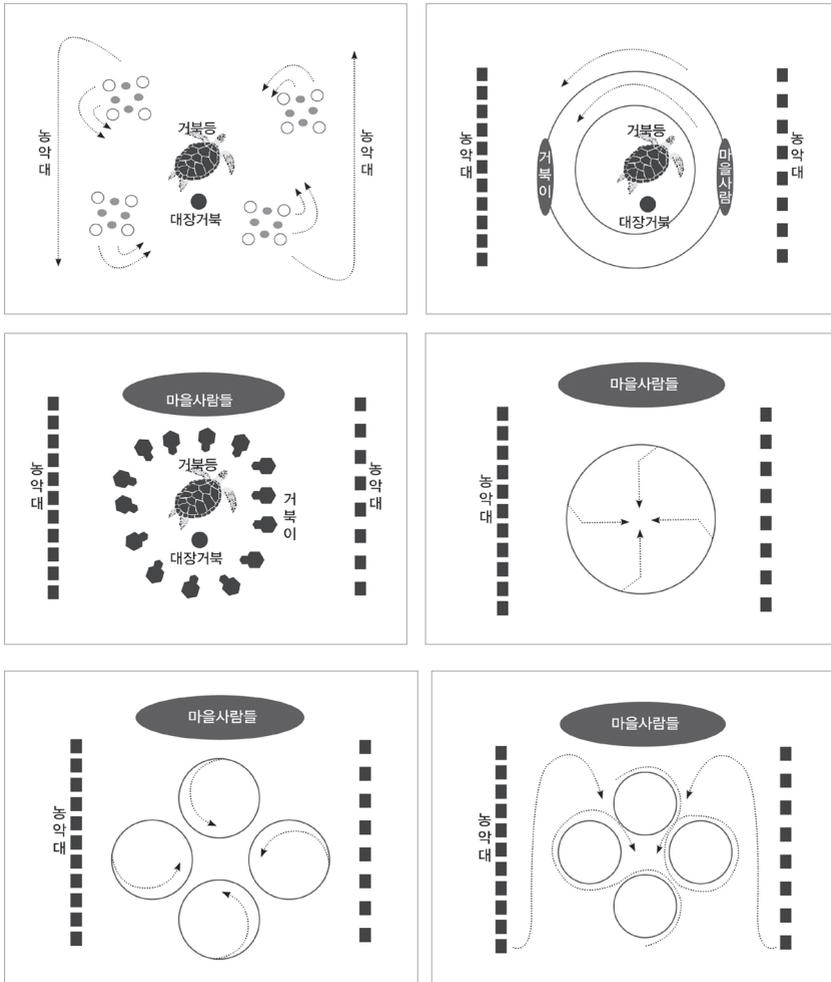
주인부부 :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거북이 꼭 방문하셔서 우리 집 무병장수 가내 평안 기원해 주세요.

(거북이들이 모두 일어나자)

일동 : 와~~~.(기쁘게 환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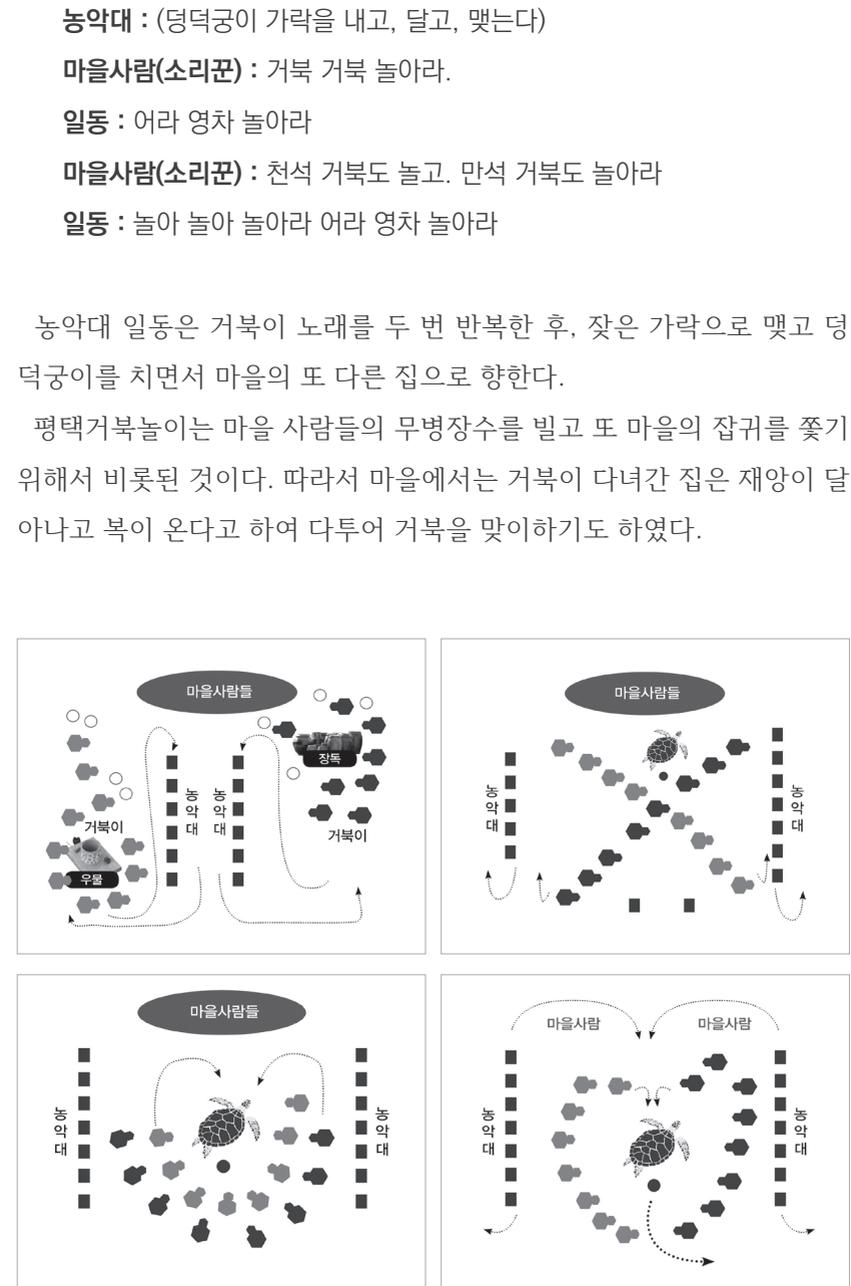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거북이들은 다시 일어나 덩덕궁이 장단에 맞춰 춤을 간단히 추면서 복을 빌어준다.)





10) 마을 뒷놀이(마당 뒷놀이)

마을 뒷놀이는 대체로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연희되는데, 굿거리, 덩덕궁이, 짹짹이, 자진가락으로 내고, 달고, 맏고, 풀면서 거북이와 마을사람들, 농악대가 어우러져 신명나게 풀어낸다.



6.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

거북놀이가 주로 기호지방에 분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호지방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며 한정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거북놀이에 관해 기 발표된 자료를 정리해 도별로 전승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 광주, 수원, 이천, 여주, 안성지역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지역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진천, 음성지역에서 주로 연희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아산, 서산은 서해안 지역으로, 해안과 인접했기 때문에 거북놀이가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충청북도나 경기도 이천, 여주와 같은 내륙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전승되는 것은 이채롭다. 문화재관리국에서 1978년 발간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북편-》에는 거북놀이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북놀이는 약 30년전 까지만 해도 충청북도 음성군과 진천군 일대에서 추석 전날인 14일부터 15일, 16일경까지 성행하였으며, 덕담에도 여러 가지가 전한다. 풍년이 들었을 땐 큰 거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약화되었고 이제는 볼 수가 없다. 거북놀이의 중심지는 한강 지류가 흐르는 장호원이었고, 이 일대에서는 거북이가 용왕의 아들이라는 설화가 있다. 물과 관련된 농경의례로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소 놀이와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⁷⁾

장호원은 고려시대에 중추에 예속되었으나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예속되었다. 1985년에 이천군에 예속되었다가 1941년 장호원읍으로 승격되었다. 장호원은 삼국시대부터 교통로로서 중남부 내륙지방의 보부상이 영남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다. 장호원은 남한강의 지류인 청미천이 흐르고 있고 충북의 음성과 진천

도 인접해 있다. 또한 시장의 형성에 물자의 교역은 문화의 교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거북놀이가 전래되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택은 진위천에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합류하여 흐르고, 팽성읍과 오성면, 고덕면에서 진위천과 안성천이 합류해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어촌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소금의 상호 교역이 이루어지는 유통경로이기도 하며, 강변은 나루와 포구, 장시가 형성되기도 했다. 평택의 거북놀이가 강변지역이나 시장과 가까운 지역에 널리 전승되어 오고 있음은 거북놀이 분포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

평택지역 거북놀이 형태에 있어서는 크게 왕거북의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으나 유형별로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유형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평택에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놀이의 구성이나 거북의 형태,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거북놀이는 수문장굿에서 시작하여 용왕굿과 터주굿, 조왕굿 등이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광장이라 할 수 있는 공터나 정자에서 마당굿을 행했다. 이러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북놀이는 지신밟기나 소놀이굿의 놀이에서와 유사하다. 집이라는 소우주에는 각 공간별 신이 정주하고 있어 영역별로 놀이가 행하여진다. 따라서 각 공간별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문장굿’은 놀이패나 농악패들이 집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문 앞에서 벌이는 곳이다. 마을의 입구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장승이나 솟대나 깃대 등이 집을 지켜주는 신이 문에 있는데, 평택시 현덕면에서는 이를 ‘걸립’이라 한다. 걸립은 문간귀신으로 잘 얻어먹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별도의 제물을 바친다고 한다.⁸⁾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환자가 생기면 제물을 올리기도 한다. 걸립은 북어대가리를 새끼줄에 꿰어 마루바깥쪽

7)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북편-》, 문화재관리국, 1978, 550쪽.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517쪽.

이나 문에 걸어두기도 한다. 10월 상달에 가을고사를 지내는데 걸립에게 시루떡을 한 접시 놓기도 한다. ‘문신’은 재액이나 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 집안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거북놀이에서 문 굿은 놀이패들이 방문하려는 의도를 그 집의 가장에게 알려 주기위한 의미도 있지만, 집의 입구인 문은 가족을 재액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굿임을 나타내고 있다.

‘터주굿’은 장독대 옆에서 벌어진다. 평택에서 터주는 집터를 지켜주는 ‘집 지킴이’라고도 하며 여자의 직성(直星)이라고도 한다. 전국적으로 터주신은 집 뒤곁의 장독대 옆에 모셔두는데 향아리 안에 쌀을 넣어두고 짚주저리를 씌워 장독대 옆에 놓는다. ‘터주신’은 집의 터의 신이며 지신이기도 하지만, 곡물의 신체로 모셔져 있는 것은 조상신이기도하다. 가을고사에서는 터주에게 떡을 올리는데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거북놀이에서 터주굿은 집 구성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대청굿’은 마루 앞마당에서 벌어진다. 대청에는 성주신이 모셔져 있다. 평택지역의 성주신은 단지로 모셔지기보다 만신이 만들어주었다고 하는데 참나무가지에 한지를 주름접이로 하여 무늬를 넣어 50cm정도 늘어뜨린 형태가 대부분이다.⁹⁾ ‘성주’는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가옥의 신으로 그 중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주신(主神)이다. 집 대들보위에 존재하기도 하여 상량신(上梁神)이라고도 한다. 성주신의 신격은 가내 제일 주신으로 조상관념까지 곁들이고 있다. 성주신은 가내평안, 농사의 풍년기원, 집안의 번영과 무병 등을 주관하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한지, 단지, 독 등 다양하며 정수(淨水)가 담긴 종자를 놓기도 한다. 성주신은 집안의 여러 가신(家神)중에서 으뜸이 되는 신이라 할 수 있다. 거

북놀이의 여러 굿 중에서도 대청굿은 앞마당에서 벌어진다. 가장 성대히 열리는 이유는 성주신이 주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청 앞마당은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각종 예능을 보이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용왕굿’은 마을 공동우물가에서 벌이는 굿이다. 우물에는 용왕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평택에서는 ‘유왕’이라고도 한다. 우물은 마을사람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물을 공급해주는 용왕에게 감사와 기원을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거북놀이는 기호지방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던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익살스럽러운 청소년들이 달 밝은 추석날 밤에 마을의 여러 잡귀 잡신을 쫓고 마을 사람들이 무병하고 장수하며 아울러 풍년을 감사하는 뜻에서 수숫잎을 엮어서 거북모양을 만든다.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모두 두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거북이가 돌아다니듯이 마을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흥겨운 농악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논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거북을 몰고 다니는 이가 “이 거북이가 서해바다를 건너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주시오.” 하면 주인은 추석 음식으로 송편과 떡, 과일 등을 차려 내놓는다. 그러면 거북이를 모는 이가 “거북 먹이가 왔으니 인사를 하고 가자.” 하면 거북이는 넙죽 절을 하고는 그 집 마당에서 한바탕 뛰어 놀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 놀이에는 반드시 흥을 돕기 위한 농악이 뒤따르며 거북이처럼 장수하라는 뜻에서 거북놀이를 한다.¹⁰⁾

놀이방법은 원래 추석 명절 달 밝은 밤을 이용하여 거북모양의 탈속으로 앞뒤에 한 사람씩 들어가 거북이의 흉내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는 농악 소리에 맞추어 재미있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거북이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거북이가 지쳐 쓰러졌으니 먹을 것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517-521쪽.

10) 전국시도교육연구원, 《民俗놀이 指導資料》, 1975, 17쪽.

을 줌 주시오.” 하고 주인에게 간청하면 주인은 떡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절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¹¹⁾

평택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언제부터 생성되고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평택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충북 음성과 청주, 충주, 그리고 인접지역인 경기도 여주와 용인, 그리고 광주에서 전승되었다고 한 《조선의 향토오락》의 조사내용을 보아 조선시대에도 활발한 전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평택거북놀이는 팽성읍과 서탄면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놀이과정과 기물(器物)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²⁾

평택에서 거북놀이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한 기록의 제시는 《설고총서》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책의 내용으로 이 놀이가 평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천안지방에서 전해지는 거북놀이의 유래담을 볼 때 그 내용의 유사함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신라 문무왕의 등장인 그것이다.

거북놀이는 충청남북도와 경기도의 내륙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런 사실은 후술하는 일제 강점기에 조사 보고된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서도 확인된다.

평택지역에서는 1970~80년까지만 하여도 마을마다 청년들이나 어린 소년들이 수숫잎으로 거북의 모습을 만들고 각자의 몸에 수수 잎을 두르고 집집마다 떼를 지어 다니며 거북놀이를 즐겼는데, 중단 된지 오래되었다. 또 중단되기 전에는 이미 아이들의 놀이로 변해, 거의 모든 마을에서 연희가 되었으면서도 그 자세한 놀이과정이나 연희 이유 등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마을이나 거북을 만들어 매우 활발하게 다니며 즐기던 중 거북들이 쓰러지고 그 거북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청원하였고, 먹을

11) 전국시도교육연구원, 《民俗놀이 指導資料》, 1975, 17쪽.
 12) 홍순석, 《거북놀이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 《제2회 이천거북놀이 심포지엄 요지집》(2006. 2. 18)

것을 주면 일어서서 신나게 한바탕 뛰어 노는 놀이의 구성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그 구체적 전개양상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¹³⁾

이렇게 해방 이후 거북놀이의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1973년 평택호방조제와 남양호방조제 공사로 간척지가 늘어나고 또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평택지역이 도시화되고 농촌 인구도 감소함에 따라 차츰 거북놀이 문화도 사라지게 됐다.

특히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전후까지만 해도 전 지역에서 활발히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전승이 되기는 하였지만, 팽성읍 노와리, 서탄면 내천1리 윗버드내, 서탄면 금각1리 쇠뿔마을, 지금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가 들어선 야리마을, 안중읍 덕우1리, 서정동, 청북읍 고잔1리 후평, 오성면 속성2리 등에서 주로 전승되어졌다.¹⁴⁾



그림2) 평택 거북놀이 분포도¹⁵⁾

13) 평택거북놀이보존회 구술 자료.
 14)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2. 332-334쪽.
 15)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이 책의 ‘평택 거북놀이 분포도’를 2020년 박성복이 재구성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에서는 1970년대까지 거북놀이가 전승되어 왔으며 놀이방법은 역할분담을 하여 놀았는데 대개 수장거북, 일반거북으로 나누어 놀았다. 수장거북의 경우 '왕거북', '큰거북' 등으로도 불렀는데 일반거북과 달리 독특한 분장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타원형의 거북등을 4명의 거북잡이가 들면 수장거북은 떡메로 땅을 치며 나아가기도 하고 거북등 속에 들어가 떡메로 땅을 치기도 한다. 또 수장거북은 마당을 돌며 일반거북은 부엌, 우물에 가고 대청, 방에도 올라가 발을 구른다. 이러한 놀이방식은 집집마다 돌며 음식을 얻어먹는데 목적이 있었다. 놀이의 주체는 남자들이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가하였다.

서탄면 내천1리 윗버드내의 경우, 1990년 초까지 추석에 거북놀이를 했다. 대개 14~16세 남자 아이들이 참여했다. 어미거북이는 한 명이 엎드리고 그 위에 수수 잎과 짚으로 엮어서 몸과 머리를 뒤집어씌운다. 예전에는 수수 잎도 귀해 밭주인 몰래 훔쳐다가 엮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위에 일반거북이가 20마리 이상 참여하는데, 이들은 수수 잎으로 허리에 치마처럼 두르고, 머리에도 뒤집어썼다. 새끼거북이는 어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따라다닌다. 그리고 주위에 부추기는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많이 쫓아다녔다. 추석날 어두워질 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북이 거북이 잘 논다. 만석 거북이 잘 논다. 천석 거북이 잘 논다"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거북이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니 먹을 것을 채워 주시오"라고 말하기도 한다. 거북이 옆에서 놀리는 사람은 거북의 머리 부분을 흔들어주고, 옆에서 춤을 추며 추켜 준다. 그리고 거북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먹을 것을 안 쥐서 그렇다면서 떡과 음식을 얻는다. 대개 집집마다 다니며 떡 한 사발 정도를 얻으며, 한 아이가 소쿠리로 된 떡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걷는다. 이때 농악은 치지 않는다. 내천1리 윗버드내

는 20여년 전 쯤부터 거북놀이를 하지 않았다. 마을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먹을 것이 귀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서탄면 금각1리 쇠뿔마을의 경우, 거북의 형상은 수수깡으로 엮어 열기 설기 맨 다음에 수수 잎으로 이영을 엮어서 덮는다는 점에서 내천1리 윗버드내와 유사하다. 그리고 잎으로 머리를 만들고, 흰 삼태기에다가 막대기를 꽂아 뿔의 형상도 만들었다. 그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며, 인근 서탄면 야리에서는 4~6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거북이 거북이 논다"고 거북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닌다. 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하면, 거북이 모는 사람이 "이 놈의 거북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나?" 하고 말하면서 침 좀 달라고, 병 좀 낮게 해 달라고 하면서, 막대기로 거북의 등짝을 푹푹 찌르는 흉내를 낸다. 8월 대보름 저녁 쯤에 마을 젊은 남자들이 주로 놀며, 대략 생활이 여유 있는 세 네 곳의 집을 돌아다니며 떡을 얻는다. 이 놀이는 6.25전쟁 이후 사라졌으며, 대체로 인근 마을에서도 같은 시기에 소멸되었다.

안중읍 덕우1리의 거북놀이는 추석날에 수수 잎을 엮어서 뒤집어 씌워 거북 형상을 만들어 돌아다니는 것은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한 사람 거북이 목 부근에 끈을 매달고 끌고 다녔다. 여러 아이들이 거북을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북 거북 놀아라"라고 말하며, 사람들과 거북이는 위아래로 들썩거리면서 흥을 돋운다. 대개 20~30세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 놀이를 하며, 음식, 떡, 술 등을 얻어서 함께 먹는다. 이 놀이는 1965년경에 사라졌다.

평택시 서정동에서도 1970~80년까지 추석날에 거북놀이를 했다. 평택시 도일동 내리에서는 거북놀이를 하지 않았지만, 인근 서정동에서 시집 온 최정희(여, 61세)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거북놀이를 기억하고 있다. 놀이방식은 앞에 제시한 마을과 비슷하다. 거북놀이는 오성면 속성2리나 청북읍

고잔1리 후평에서도 연희되었다는 구술 증언이 있다.¹⁶⁾ (표1 참조)

표1)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 내용¹⁷⁾

지역	시기	전승 주체	거북 숫자	거북형태, 놀이	놀이방식	노래	농악	소멸시기	구술자, 기타
평성읍 노와2리 평성읍 노와2리	추석 저녁 (전날 제작)	10대 (20세 미만)	수장거북 (1인) 거북잡이 (4인), 일반거북 (30-40명)	거북등 (타원형 거북등) 수장거북 (떡메로 땅을 친, 일반거북웃동일) 수숫잎으로 고깔 형태의 머리, 어깨, 허리치마, 꼬리만들	주거북은 마당을 돌음, 일반 거북은 부엌, 우물에 가고 대청, 방에도 올라가 발구름, 춤 없음	거북 거북 놀아라./ 울어라!(정지), 놀아라! (다시 놀이)/	북 1인 (춤 출때나 이동시 두드림)	1970년대 중반 소멸./ 예전과 지금 50호 놀이후 수수는 소멸이	정효재 (남, 77세, 1939년생), 정명섭(남, 1928년생)
	추석	10대 초반 -30대 후반 남성	1인 거북, 일반거북 20-30명	원형 춤. 이동은 조용, 각자 개성대로 제작(나뭇잎), 여자를 쫓아다님, 대장 당일 선출	뒷동산제작, 음식 추렴, 주인 안 주변 죽은 시늉	거북이 왔습니다/ 거북 놀아라/ 거북거북 잘 놀다/ 죽었냐 살았냐?/ 놀아라!	농악 60년대 말 삽입	1970년대 후반소멸 (수수 소멸과 이농)	장석영 (남, 60세)
평택시 통복동 (화전)	추석 오후	20대 남성	큰거북(1인) 꼬마거북 3-5마리	꼬리 흔들고 춤 / 송편, 누리미 (부침개)	추석 오후놀이(저녁은 연극, 거북놀이가 앞 놀이)	거북 놀아라, 그만 뒤라/ 거북이 싫었다. 먹여라.	일제 농악 성행, 해방 후 약화	1950년대 중반 소멸, 1970년대 소멸	성선용 (남, 1940년생)
서탄면 내천1리 윗버드내	추석 저녁	10대 남성	어미 1마리 (1인) 새끼 10마리	거북 놀리고 머리 흔들여주는 사람,		거북이 거북이 잘 놀다, 만석 거북이 잘 놀다/ 거북이가 흥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니 먹을 것을 채워주소	농악 없음.	1990년대 초 소멸(?)	백윤기 (74) 조석기 (80) 2009 조사
	추석 저녁	10-18세 정도	큰거북 1인, 새끼거북 10-20여명	큰거북은 머리, 꼬리 크기 큼, 새끼 거북치마/ 새끼거북 허리 이영, 모자	새끼거북이 춤을 춤, 대장 막대기 찌르면 다 넘어짐. 떡 주면 대장 부자되라며 축원 일동춤.	엄마 밥줘! (떡이 안 나올 경우)/ 만주에서 이곳에 오느라 배가 고프니다.	거북 놀이 때에 농악 없음	1970년 초 소멸 (40년 전 마지막)	백윤기 (79세), 2014년 조사

지역	시기	전승 주체	거북 숫자	거북형태, 놀이	놀이방식	노래	농악	소멸시기	구술자, 기타
평택시 조개터 (역부근 신평동, 합정동)	추석 저녁/ 정월 대보름		큰거북 1인 (대장 거북), 개인 거북 3-5명	큰거북 머리, 몸, 팔, 허리 (꼬리 없음) 개인거북보다 더 크고 풍성한. 수수깥 없으면 갈대잎 사용.	뛰고 노는데, 마당, 부엌, 우물터, 장독대(암마당) 에서 놀음.	거북 놀아!	농악 없음.	1980년대 중반 소멸	이동화 (남, 52세)/ 인근 배미, 통미도 거북놀이 있었음.
서탄면 금각1리 석불마을	추석 저녁	마을 젊은 남자	2인 들어가는 거북이, 거북불 (서탄면 아리 4-6인)	쓰러지면 침 놓아 달라, 병 낫게 해 달라./ 거북이 등 굵죽 찌름		거북이 거북이 놀다/ 이 놈의 거북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나?(쓰러질 경우)		6.25때 소멸	이정석 (81) 정영조 (75) 탁순대 (78) 2009년
천안시 성남면	추석 저녁	10대 소년	2-4쌍 거북/ 모자, 저고리, 치마, 행진/ 거북탈	20여호 순례, 덕담과 춤, 장난/ 빗자루 쓸음, 여출 (씨들판, 수건 돌리기, 노래자랑)		거북거북 잘 놀다. 우리 거북 잘 놀다. 만석 거북 잘 놀다. 우리 거북 잘 놀다 (단조롭게 흥겨움 반복)	농악 없음	소멸 언급 없음/ 탈로 인식 서민 저항 의식 해석	원유환 (동국대 교수) 《홍익》 23호, 1981.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추석 저녁/ 정월 대보름		큰 거북 1, 작은 거북1 (2마리)	시골 멧방석 뒤집어 씌, 위에 수수깥 잎위장, 새끼로 묶음	집안과 부엌 (조왕신)	똥어라, 똥어라 샘구멍 똥어라.	농악 있음 (쇠를 찌)	1970년대 중반 소멸	마을 걸림패 인근 원정
평택 거북놀이 보존회			거북 24, 농악 19, 기수 8 기타 28 (80명)	수장거북1, 거북잡이4 일반거북 20	길놀이 → 수문장 곳 → 용왕곳 → 터주곳 → 조왕곳 → 마당놀이	거북 거북 놀아라 (선창)- 여러 영차 놀아라 (후창)/ 만석 거북도 놀고, 천석 거북도 놀아라.(상쇠)/ 놀아놀아 놀아라, 아라 영차 놀아라(후창)	농악 (쇠3 징 2, 북4, 장구4, 소고8) 편성	1970년대 중반소멸	정덕근 (남, 54세, 1960년생, 거북놀이 회장)
기타	청북을 고잔1리 후평, 청북을 백봉리(거북이와 두꺼비) / 오성면 속성2리 / 서탄면 아리 / 서정동(50년 전까지 전승) / 고덕면 두릉2리(고덕면지) / 평성읍 본정리(거북 2-3명, 박물관 서적)								

이러한 지역적 분포를 보면 평택지역의 남동에서 북서로 연결되는 축에서 거북놀이가 집중적인 전승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대체로 벼농사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져 있으며, 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특징은 수수의 판로가 확보되지 못

16)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2, 332-334 쪽, 표1)의 내용은 정형호에 의해 작성된 것임.
 17)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2, 332-334 쪽,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수는 과거에는 주식인 쌀과 혼식하는 잡곡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목축에 사용되는 사료의 기능으로 전략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수 재배는 밭농사에서 극소수 농가만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에서는 비교적 놀이과정과 기물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1970년대 까지도 거북놀이를 행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출생한 평택거북놀이보존회 정덕근 회장은 아버지인 정태술 씨로부터 고사소리와 상여소리, 팽과리 등을 익히며 자랐다. 정태술 씨는 소리를 잘하여 타지 까지도 소리하러 불러 다니곤 했었다.

정덕근 회장은 타지에서 직장생활과 국악공부를 겸하며 청년시절을 보내다 아버지가 작고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국악 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놀이문화가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직접 보고 즐겼던 거북놀이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해 거북놀이의 발굴, 재현에 힘쓰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즐겼던 거북놀이의 놀이과정과 장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는 꾸준히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거북놀이를 기록하고 고증했다. 특히 이 마을 정효재 씨는 어린 시절에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거북이가 입는 옷과 모자 만드는 법을 보존회원 들에게 전수하기도 하였다. 또 장석영 씨는 수장 거북이가 떡메를 들고 바닥을 치며 걸어가던 놀이 과정을 재현해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북놀이를 복원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한 후 정덕근 회장을 중심으로 보존회원들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과 함께 도서 자료와 인터넷 등을 찾아 거북놀이를 복원하는 일에 힘써왔다. 2012년에는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평택시 서탄면 웃다리문화촌에서 평택거북놀이를 처음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거북놀이 발굴을 시작한지 4년만이며, 이듬해인 2013년

에는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평택거북놀이로 평택시 대표로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에는 민속학자와 향토사학자, 언론인을 초청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평택거북놀이보존회가 추진해 온 발굴 및 고증활동을 체계화 했으며, 2014년에는 제55회 전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는 등 평택거북놀이의 전통 보존과 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7. 맺음말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에서는 동북~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되어 왔다. 평택지역에서 연희되어 온 거북놀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희지역이 평택시 전역이 아닌 내륙지방이 대부분이었다는 점과 평택지역에서 흥한 웃다리농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지역에서는 거북놀이가 주로 내륙지역인 서탄면과 진위면, 서정동, 합정동, 팽성읍 지역에서 연희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 지역이 진위천과 안성천 등 큰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과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바닷가와 인접한 평택시 서부지역에서 거북놀이를 연희했다는 기록이나 구술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북놀이가 평택시 동북부와 동남부에 띠를 이루며 연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호지방의 거북놀이 연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장거북 또는 질라아비가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비해 평택시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 거북놀이는 수장거북이 나무로 만든 떡메를 치고, 일반거북은 수숫잎 빗자

루로 마당을 쓸고 밭을 구르며 이동하거나 복을 비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장거북이 나무 떡메로 땅을 치며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지신밟기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지신밟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음력 정초에 팽과리·북·장구·징 등을 갖춘 마을 두레패가 행하는 것으로 서낭당 앞 제사, 당산신을 위한 제사를 올린 후 지신풀이를 하며, 마을의 집들을 돌며 지신풀이를 하는 것으로 지신풀이 때 집 주인은 음식이나 성금을 내는데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 거북놀이는 음력 정초가 아닌 추석에 거북놀이를 하면서 지신밟기를 연희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와야골거북놀이는 추석날의 달 밝은 밤에 연희되는 것도 특징이다.

셋째, 팽성읍 와야골거북놀이는 기호지방에서 연희되고 있는 거북놀이나 평택시 북부지역에서 연희되었던 거북놀이에 비해 거북이의 수가 몇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거북놀이는 거북의 수가 수장거북 2명, 질라아비 3명으로 구성되지만 평택 와야골거북놀이는 수장거북 1명, 거북잡이 4명, 거북이 20명 등 모두 21명이 거북이로 참여하며, 이는 평택시 통북동 화천마을 4~6명, 서탄면 내천1리 윗버드네 10~20명, 서탄면 금각1리 쇠뿔마을 6~8명,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4~6명, 천안시 성남면 2~4명,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4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이처럼 평택 와야골거북놀이에서 거북이의 수가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 거북놀이의 연희자가 10대 중심 또는 10~20대 중심인데 비해 평택 와야골거북놀이는 10~30대 후반까지 참여자의 폭이 넓다는 것과 마을 주민들이 거북놀이를 대동놀이적 차원에서 참여의식을 갖는다는 점 때문으로 보여진다.

넷째, 와야골거북놀이를 연희하는데 있어서 흥을 돋우는 농악패의 치배가 다른 지역 거북놀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은 이 지역이 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의 전승지역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역 내에서도 서탄면과 진위면

지역의 경우 치배 수가 8명 내외¹⁸⁾인 점을 보았을 때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거북놀이의 치배 수는 매우 많은 편이며,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경우도 치배가 10명 정도로 연희되고 있다.

또한 평택거북놀이보존회의 연희 과정 중 길놀이 → 장승굿 → 수문장굿 → 용왕굿 → 터주굿 → 조왕굿 → 대청굿 → 마당굿 → 마을 뒷풀이로 이어지는 연희 순서가 평택농악 걸립굿의 당굿 → 마을 공동 우물굿 → 집돌이 → 수문장굿 → 우물굿(용왕굿) → 터주굿 → 조왕굿 → 고사굿(대청굿) → 마당굿 → 판굿(밤굿, 뒷풀이)의 순서와 거의 흡사하다는 점은 와야골거북놀이가 웃다리농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와야골거북놀이가 연희되고 있는 팽성읍 노와2리와 평택농악보존회의 평택농악전승회관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5km에 불과하다.

거북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추석날 낮에 준비해 둔 거북이 옷을 뒤집어쓰고 마을의 집집마다 다니며 덕담(德談)을 해주는, 일종의 주술적(呪術的) 의미를 갖고 있는 대동(大同)의 놀이였다.¹⁹⁾

평택지역의 거북놀이는 1970~80년대까지 연희되어오다 대부분 사라졌으며, 평택시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를 2012년부터 평택거북놀이보존회에서 발굴, 전승해오고 있다. 현재 각 마을에서 연희되어 온 거북놀이가 대부분 사라진 시점에 잇히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를 복원한 평택 와야골거북놀이가 원형을 중심으로 보존, 전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 차원의 더욱 깊이 있는 조사, 발굴과 학술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18)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송탄시향토사연구소, 1992년 12월 28일.

19)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표2) 평택거북놀이보존회와 이천거북놀이보존회 거북놀이의 비교²⁰⁾

평택거북놀이보존회	구분	이천거북놀이보존회
평택시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	전승지역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자채방야마을
추석 전날, 추석	연희시기	추석
10대~30대 후반 남성	연희주체	10대 중심의 남성
수장거북 1, 거북잡이 4, 거북이 20(총 21)	거북숫자	수장거북 1, 질라아비 3(총 4)
상쇠 1, 부쇠 2, 징 1, 장구 3, 북 3, 법고 8, 태평소 1(총 19)	치배	상쇠 1, 징 1, 장구 2, 북 1, 소고 4, 태평소 1(총 10)
양반 1, 마님 1, 남정네 13, 아낙 12, 마을아이 8(무동), 담장출훈 3, 고사소리 1(총 35)	잡색	양반 2, 안주인 1, 집주인 1, 머슴 2, 마을아이들 8, 마을주민 10(총 24)
농기 1, 거북기 1, 용기 2, 영기 2, 현무 1, 보존회기 1(총 8)	기수	농기 1, 거북기 1, 용왕기 1~3, 보존회기 1(총 4~6)
길놀이→장승굿→수문장굿→용왕굿→터주굿→조왕굿→대청굿→마당굿→마을 뒷풀이 (장승굿은 생략되기도 한다)	연희순서	길놀이→문굿→대청굿→터주굿→우물굿→조왕굿→마당 판굿→마을 판굿

■ 참고문헌

홍순석,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이천문화원, 2004.

김종대, 이승수, 임장혁, 《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2006년 10월 30일.

《평택군지》, 평택군지편찬위원회, 1984년 12월 30일.

평택시 서탄면 금각1리 이경태 씨 구술, 2006년 10월 9일, 평택문화원 박성복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년, ‘가장연희의 분포도’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북편-》, 문화재관리국, 1978, 55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517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517-521쪽.

전국시도교육연구원, 《民俗놀이 指導資料》, 1975, 17쪽.

전국시도교육연구원, 《民俗놀이 指導資料》, 1975, 17쪽.

홍순석, 《거북놀이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 《제2회 이천거북놀이 심포지엄 요지집》(2006. 2. 18)

평택거북놀이보존회 구술 자료.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2. 332-334쪽.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평택 거북놀이 분포도’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2, 332-334쪽

정형호, 《세시풍속과 놀이》,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2, 332-334쪽,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송탄시향토사연구소, 1992년 12월 28일.

《평택 거북놀이 전승연구》, 평택문화원, 2014년.

20) 《2020 평택학 학술대회 자료집》,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박성복, 2020년 7월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루포구의 위치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안성천 수계의 나루·포구의 위치
3. 진위천 수계의 나루·포구 위치
4. 발안천 및 아산만 수계의 나루·포구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바다와 하천은 육로교통의 장애가 되기도 했지만 생산 활동이나 수로·해로교통, 조운(漕運), 포구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달했다. 또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하천부지는 간척이나 농업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평택(平澤)’이라는 지명에는 평야와 하천, 바다가 어우러진 지형적 특징을 담고 있다. 평택지역은 서쪽으로 아산만과 남양만을 두고 있다. 평택전역에는 수원과 용인, 안성지역에서 발원한 52개 하천이 평택호와 남양호로 흐른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 남양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평택사람들은 하천과 관련을 맺고 생활했으며, 지금도 평택호와 남양호는 풍부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내수면어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산만은 항만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택지역의 수계(水系)는 남쪽으로는 안성천, 북쪽으로는 발안천, 중북부지역으로는 진위천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산만, 남양만에서 유입된 바닷물은 서탄면 회화리와 안성시 공도면 인근까지 밀려들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하천은 포락(浦落)과 수해(水害), 염해(鹽害)를 끼쳤고 왜구의 침략이나 청일전쟁을 통해 큰 피해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로교통과 조운, 포구상업, 수산업을 발달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물줄기는 평택지역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으면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예컨대 《평택항 30년사》¹⁾를 통해 기본적인 정리가 이뤄졌고, 《평택사람들의 길》²⁾을 통해 물줄기 주변의 삶과 문

화가 정리됐으며, 평택학시민강좌³⁾를 통해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본 글에서는 《평택항 30년사》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루·포구의 위치를 고증하려고 한다. 위치의 객관적 고증은 평택지역 나루·포구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본인은 고지도와, 실록, 읍지·지리지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위치를 고증하고 나루·포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성천 수계의 나루·포구의 위치

안성천은 구간에 따라 남천, 흥경천, 대천으로 불렸다.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국사봉, 서운면 서운산 등에서 발원하며 총 연장은 76km, 유역면적 1,699,60km²이고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에서 진위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흐른다. 안성천은 안성시의 한천, 청룡천, 유천, 천안시의 입장천, 성환천, 평택시의 진위천, 통복천, 도일천, 교포천, 대반천, 도대천, 아산시의 둔포천, 등 19개의 크고 작은 지류(支流)를 갖고 있다. 안성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8~9m에 달해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배가 드나들었고 강한 조세(潮勢)와 해일(海溢)로 포락(浦落)이 자주 발생했으며 수해(水害)와 염해(鹽害)도 빈번했다. 예로부터 안성천에는 나루·포구가 많았다. 나루·포구는 사람과 물자의 운송 외에도 조운과 포구상업이 발달했으며,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 일대 어업의 전진기지로 역할 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⁴⁾ 수원도호부 편에는 안성천을 대

3) 장일규, <나말여초 서해항로와 평택>, 《2015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5 ; 문경호, <조운제도와 평택지역의 해창>, 《2015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5

4) 한국고전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 1985

1) 김해규, <아산만권 개발과 평택항>, 《평택항 30년사》, 평택시, 2016

2)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천(大川)으로 표기했으며, 현덕면 권관리의 계두진(鷄頭津)과 고덕면 동고리의 이포진을 함께 소개했다. 또 직산현 편에는 팽성읍 노양1리의 경양포가 수록됐고, 평택현 편에는 오을미곶포(吾乙未串浦), 시포(市浦), 신덕포(新德浦)와 신증에 군물진(軍勿津), 지진(池津)이 소개됐다. 여기에서 오을미곶포(吾乙未串浦)는 ‘현 북쪽 10리 지점에 있었다’⁵⁾고 하므로 팽성읍 대추리에 있었던 곤지진의 다른 이름으로 파악되며, 시포는 지금은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를 말하고, 신덕포와 군물진은 통북동 신덕마을과 군문1동의 포구를 말하지만 지진(池津)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된다. 군물진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청군이 상륙하면서 ‘군문포’로 바뀌었다. 조선후기 고지도와 18세기 중엽 신치의 《팽성지》에 군물진이었던 것이 1899년 《평택현 읍지》에는 ‘군문포’로 바뀌 것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군문포는 1905년 인근에 평택역이 설치되고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평택평야의 미곡(米穀)과 경기만의 어염(魚鹽)을 평택역과 평택장에 연결시켜주는 포구로서 기능했으며, 화포와 고잔포, 삽교포로도 경기만의 어염(魚鹽)이 들어왔다.

평택지역은 조선후기 강안(江岸) 습지의 간척이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포락(浦落)에 따른 마을과 포구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세기에는 하천의 중·하류지역까지 간척이 이뤄지면서 어촌이 농촌으로 바뀐 곳이 많으며, 기존의 포구에 토사가 쌓여 기능이 중단된 포구도 나타났다.

조선후기 수원도호부에서 편찬된 읍지(邑誌)로는 《수원부 읍지》(1785),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가 있다. 이밖에 《여지도서》(1757~65)와 《만기요람》을 통해서도 나루·포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읍지(邑誌)에 수록된 안성천의 나루·포구로는 이포진과 당포진이 대표적이다. 이포진은 고덕면 방축1리 앞 안성천변에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아

래소청나루로도 불렸다. 이포진은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금물촌면에 있다’고 기록했고, 김정호의 《대동지지》⁶⁾에는 ‘수원부 남쪽 70리 지점에 있으며 평택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수원부 읍지》에는 ‘부(府) 남쪽 50리 지점에 있으며 각 읍(邑)으로 통하는 첩로’라고 했으며⁷⁾, 1831년에 편찬된 《화성지》⁸⁾와 1899년 편찬된 《수원군 읍지》에는 “수원부 남쪽 70리 오타면에 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1789년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화산 아래로 이장하고 수원도호부 읍치(邑治)를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포진(唐浦津)은 현덕면 신왕1리로 안성천 하류의 어업과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포구다. 1785년 편찬된 《수원부 읍지》에는 ‘당진포(唐津浦)’, 1831년에 편찬된 《화성지》⁹⁾에는 ‘당포진(唐浦津)’으로 표기됐다. 두 읍지(邑誌)에는 공통적으로 ‘아산 등 여러 읍(邑)으로 통하는 첩로’라고 했다.¹⁰⁾ 당포진은 충청도 아산의 백석포 평택현의 경양포와 연결된 수로교통의 요지였고, 수원을 거쳐 한양까지 연결된 육로교통의 연결고리였다. 당포진은 아산만 어업의 전진기지이며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포구였다. 19세기 말 작성된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는 청어, 조기, 미역, 소금 뿐 아니라 미곡과 목화, 창호지, 우피, 담배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음을 말해준다.¹¹⁾ 근대 이후 당포진은 신왕나루 또는 광덕나루로 불렸으며 1974년 아산만방조제 준공 전까지 어업과 포구상업으로 번성했다.

1899년에 편찬된 《직산현 읍지》¹²⁾에는 경양포가 소개됐다. 경양포는

6) 김정호, 《대동지지》,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소, 1976

7) 《수원부 읍지》, 1785,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8) 《화성지》, 1831,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9) 《화성지》, 1831,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소

10) 《수원부 읍지》, 1785,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소

11)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기전문화예술총서6, 경기문화재단, 2000년

12) 《국역 직산현지》, 성환문화원, 2000

5) 한국고전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람》 평택현, 1985

고려시대에는 아산 편섭포라고 불렀으며 12조창 가운데 하나인 하양창이 설치됐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경양현이 설치되면서 경양포로 바뀌었고 조선 건국 후에는 직산현에 통폐합되어 경양면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 편에 ‘경양포는 직산현의 해포(海浦)’라고 기록했고 평택현의 해창(海倉)이라는 기록도 있다. 포구상업도 크게 발달했으며,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아산만의 어염(魚鹽)이 거래되고 생선회에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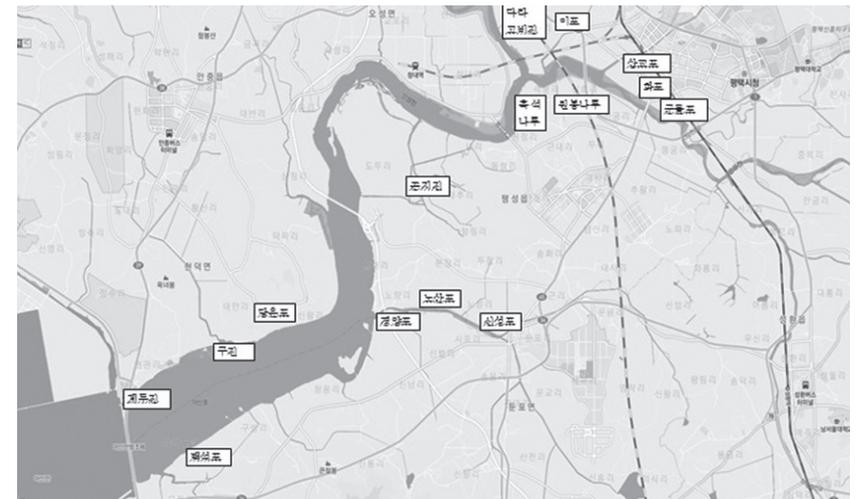
18세기 중엽 신치가 편찬한 사찬(私撰) 《팽성지》¹³⁾에는 곤지진, 신덕포, 삽교포, 시포가 수록되었다. 곤지진은 팽성읍(구)대추리 마을에 있었던 포구로 오성면이나 고덕면으로 건너가는 나루이면서 안성천 하류 어업의 중심이었다. 신덕포는 앞서 말했던 통북동 신덕마을에 있었고, 삽교포는 안성천에서 도일천이 갈라지는 입구로 신대3동 삽교마을에 있었다. 현재 안성천 북쪽에 위치한 신덕포와 삽교포가 당시에는 안성천 남쪽 고을 평택현에 속했던 것은 안성천 물줄기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진위현에서는 1843년, 1891년, 1899년 세 번에 걸쳐 《읍지》가 간행됐다. 1843년 《진위현 읍지》에는 통북동의 통북포, 1899년 《진위군 읍지》에는 군문동의 군문포, 고덕면 해창 4리의 해창포, 신대동의 고잔포가 수록되었다. 위의 세 포구는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나타나지 않고 19세기 말에서야 문헌에 등장한다. 이것은 조선후기 간척사업으로 삼남대로와 충청수영로가 바뀐 것과 관련 있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말까지 충청수영로는 삼남대로를 따라 소사동과 안성천 넘어 충청도 평택현 방면으로 나아갔는데, 19세기 평택시 칠원1동 갈원에서 통북동의 통북점을 거쳐 군물포를 통해 평택현으로 건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안성천에는 안성천 하류 어항이었던 현덕면 대안4리의 구진,

포구상업이 발달한 팽성읍 노양2리의 노산포, 노성1리의 신성포, 어항이었던 현덕면 권관2리의 석화진, 그리고 안성천과 진위천 일대 공방전이나 역둔토의 곡식을 반출했던 고덕면 동고리의 수어창진, 그리고 오성면 당거리, 팽성을 석봉리, 안중을 삼정리에도 나루가 있었다. 다음은 안성천 수계의 나루·포구의 위치다.

지도1)안성천 수계의 나루·포구



3.진위천 수계(水系)의 나루·포구 위치

진위천은 조선시대 장호천(長好川) 또는 구천(龜川)으로 불렸다. 안성천의 제1 지류로 유로연장 32km다.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서 발원해서 용인시와 화성시를 거쳐 오성면 창내리 부근에서 안성천과 합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장호천(長好川)은 현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용인 속현으로 되어 있는 처인(處仁) 동쪽에서

13) 평택시문화원, 《향토사료집》제1집, 1991

나오고, 하나는 옛 양지현 서편에서 나와서 합류한다. (진위현)객관 남쪽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흘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들어간다.”고 했다¹⁴⁾.

진위천이라는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붙여졌다. 일제는 유로구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구역명을 이름으로 정했다. 제1, 제2 지류로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있고 관리천도 큰 지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진위천에는 서탄면 회화리 부근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어선과 상선들이 들어왔으며 곳곳에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다. 진위천의 대표적인 나루·포구로는 다라고비진, 해창포, 동청포, 토진, 향곶포가 있었다. 나루·포구는 수로교통의 역할과 함께 상선(商船)들이 드나들며 어염(魚鹽)을 곡물과 교환해갔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편에는 진위천 수계(水系)에서는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만 소개했고 향곶포나 동천포, 해창포는 없다. 이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포구들은 중요성이나 규모 면에서 언급될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듯하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수원부읍지》(1785)에도 다라고비진만 나와 있다. 수원도호부에 속했던 종덕면(고덕면의 일부)의 동청포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반면 1899년 《양성군 읍지》에는 동청포와 향곶진이 나와 있다. 그것은 동청포와 향곶진이 양성현의 두입지(頭入地)였던 청북읍으로 건너가는 주요 나루였기 때문이다. 1899년 《진위군 읍지》에는 군문포, 해창포, 고잔포와 함께 황구포가 있다. 향곶진과 황구포는 같은 지명이다. 《진위군 읍지》에 동청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앞서 밝혔듯 양성현의 두입지(頭入地)였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진위천 수계(水系)에서 언급된 나루·포구는 아래

로부터 고덕면 궁리의 다라고비진, 해창4리의 해창포, 동청2리의 동청포, 옛 황구지리의 향곶진(황구포)이고, 이밖에도 청북읍 토진리의 토진(土津, 툫나루), 오성면 안화리의 안화나루, 신리 삼동촌의 신리나루가 있었다.

그러면 나루·포구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고덕면 궁1리 궁안교 아래에 있었던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은 조선후기 진위현 오타면에서 수원부 지역(서평택)으로 건너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 초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¹⁵⁾에는 “장호천(長好川)은 객관(客館) 남쪽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흘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했고, 또 1785년과 1793년《수원부 읍지》에도 언급됐지만 19세기에 편찬된 읍지(邑誌)에는 없다. 이것은 19세기 지속적인 경계조정에 따라 본래 수원도호부에 속했던 나루들이 진위현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다라고비진은 소청나루로 불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만의 새우젓배, 굴배, 소금배가 들어와 포구상업을 했으며, 서평택지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배를 탔다. 그러다가 1938년 다라고비진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고,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면서 포구의 기능은 중단됐다.

해창포는 고덕면 해창 4리에 있었다.¹⁶⁾ 고지도와 1911년경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¹⁷⁾에는 해창진(海倉津)으로 표기되었다. 해창진에는 진위현의 해창(海倉)이 있었고 세곡이 운송되는 길목에는 해창점이라는 주막도 있었다. 동청포는 고덕면 동청2리에 있었다. 이 마을에는 뱃터, 장터와 같은 지명이 있는데 과거 포구가 있던 곳이며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동청포 일대는 고려시대 종덕장이 설치됐고 조선 태종 17년 수

15) 《세종실록지리지》수원도호부 편

16) 《진위군 읍지》, 1899

17) 《조선지지자료》경기도편, 경인문화사, 2010

14) 《신증동국여지승람》진위현 조, 한국고전번역원, 1985

원부에 내속되어 종덕면이 되었다.¹⁸⁾ 그러다가 1789년 《호구총수》가 발간될 때는 진위현 고두면에 편입됐으며¹⁹⁾ 1895년 수원군에 재 편입됐고, 1914년 진위군에 통합되었다.²⁰⁾ 19세기 후반 편찬된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는 “백화염 1항아리마다 1냥, 석화염 1항아리마다 1냥 5전을 고종 21년(1884) 해방영에서 거둬갔고, 배 1척마다 2냥을 제세로서 수북면의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거둬갔다”는 기록이 있어 19세기 말까지 포구상업이 발달하고 나루로서 기능을 했음을 알게 한다.

항곶진(沆串津)은 서탄면 황구지리에 있었다. 이곳은 사리 때 바닷물이 역류하고 진위천과 황구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이었다. 《진위현 읍지》²¹⁾에는 황구포(黃口浦), 또는 항곶포(項串浦)라고 했다. 항곶포는 화성시 팔탄면과 양감면 사람들이 진위방면으로 건너가는 나루였다²²⁾.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아이들이 나루를 건너 서탄면 금각초등학교를 다녔고 서정리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이곳을 이용했다. 또 김장철에는 웅진군의 용유도나 오성면 당거리 어부들이 강다리, 송어, 새우젓, 어리굴젓, 민어포, 소금을 싣고 와서 곡물과 물물교환을 했다.

토진(土津)은 청북면 토진1리의 나루로 자연지명으로는 툫나루, 텃나루, 선살미나루라고 했다. 툫나루는 관리천을 건너 어연리 황곡이나 백봉리로 건너갔던 나루였다. 또 오성면 양교리나, 백봉리, 토진리 사람들이 진위방면으로 갈 때도 이용했다.

4. 발안천 및 아산만 수계의 나루·포구

발안천은 평택시 포승읍과 청북읍 북쪽을 흘러 경기만으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화성시 봉담읍 태봉산과 건달산 일대에서 발원하는데, 유로연장은 30km이며 유역 면적은 61km²이다. 1974년 발안천 하구에는 남양만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건설로 총저수량 3,100만m³, 유효저수량은 1,800백만m³에 달하는 남양호가 만들어졌다. 포구로는 포승읍 홍원리 자오포, 호구포와 청북읍 삼계리의 옹포, 신포, 고잔리의 고잔포가 있었고, 포구를 중심으로 조운과 포구상업, 어업이 발달했다.

아산만은 충청남도 당진군과 아산시, 경기도 평택시 사이에 발달한 만(灣)이다. 물굽이의 폭은 약 2.2km이며 상하 40km다. 우리나라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으로 물의 흐름이 빠르고 강안침식에 의한 포락이 심했다. 포구로는 포승읍 만호5리의 대진(솔개바위나루)가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계두진, 신전포가 있었다.

옹포(甕浦)는 청북읍 삼계1리에 있었던 포구다. 청북읍 일대는 조선시대 양성현 감미동면²³⁾으로 옹포에 해창(海倉)을 두었다. 양성현 해창(海倉)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선 전기에도 설치됐는지는 알 수 없다. 1899년에 편찬된 《양성군 읍지》²⁴⁾에는 “해창(海倉)은 4개이다. 감미동에 있는데 포면세와 대동미를 바쳐 올리는데 봄을 기다렸다가 포장하여 낸다”고 했다. 옹포는 우리말로 ‘독개’다.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면 일대에서는 옹기를 많이 구웠는데 이곳의 옹기들이 반출되는 포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저포(苧浦)’라고 했다. 감미동면 일대의 모시가 포구를 통해 거래되었기 때문이

23) 1899년 《양성군 읍지》에는 “감미동면은 관문으로부터 60리 지점에 있다. 송산리, 대양리, 고관리, 창리, 반촌리가 있다”고 기록되었다.

24) 《양성군 읍지》, 1899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1985

19) 《호구총수》, 1789

20)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21) 《진위현 읍지》, 1899

22) 최춘일, 앞의 책

다. 《수원부선세혁파성책》²⁵⁾에는 옹포에서는 청어, 조기, 갈치, 고등어, 북어, 민어, 미역, 대합, 김과 같은 해산물과 미곡, 소금, 소가죽, 백목과 같은 품목을 거래했다고 기록했다. 조운(漕運)과 포구상업이 발달하면서 옹포에는 객주(客主)와 여각(旅閣)도 생겼다. 옹포는 1920년대 초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삼계리와 옥길리 사이에 장독을 축조하면서 물길이 막혔다. 그 뒤로는 장독 아래로 어선과 상선들이 드나들었고, 한국전쟁 뒤 고잔리 입구가 간척되면서 포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자오포와 호구포는 포승읍 흥원리에 있다. 흥원곶에는 조선시대 국영마장(馬場)이 설치됐다. 흥원곶에 마장이 설치된 것은 세종 13년(1431년)이다.²⁶⁾ 또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부 편²⁷⁾에도 “흥원곶(洪源串)은 용성현(龍城縣)에 있는데 부(府) 남쪽까지 55리이다. 둘레가 75리이고 목장이 있다”라고 기록했다. 흥원2리 마장(馬場) 마을과 낚은성, 석정리 장성 등은 당시 마장의 흔적이다. 자오포와 호구포는 흥원관의 소와 말들이 입 반출되던 포구이며, 화성시의 장안나루와 연결되었던 수로교통의 요지였고, 남양만 어업의 배후 기지였다. 발안천 하구는 봄부터 송어와 강다리, 병어, 밴댕이와 같은 다양한 어종들이 잡히는 천혜의 어장이었다. 특히 흥원3리 ‘감배’ 마을은 1974년 남양방조제 준공 전까지 어업을 했다.

대진(大津)은 포승읍 만호5리에 있는 포구다. 다른 이름으로는 한진(漢津), 솔개바위나루 등으로 부른다. 대진은 1872년 《지방도》 수원부편에 ‘6세기 이전 백제의 해군(충남 당진 면천의 옛 지명) 가리저에 속했고, 6세기 후반 신라가 점령한 뒤로는 대당교역이 이뤄졌던 곳’이라고 말했다.

25) 《수원부선세혁파성책》, 1886

26) 《세종실록》13년 3월 28일(1431), 목장을 할 만한 곳을 찾아 소를 기르게 하다

27)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민족문화추진회, 1985

‘대진(大津)’은 시대마다 ‘대진(大津)’²⁸⁾, ‘대진포’²⁹⁾, ‘대포진’³⁰⁾, 한진(漢津)³¹⁾처럼 조금씩 다르게 불렸다. 또 여말선초에는 극심한 왜구의 침략으로 화성시 화량진에 경기도수군절도사가 배치되고 포승읍 만호리에는 수군도만호(첨사)가 설치됐다. 수군첨사는 세조 때 왜구의 침입이 잠잠해지면서 만호로 격하됐다가 아산만 인구 국화도로 통폐합됐다. 조선 후기 대진은 충청도 내포지역과 연결된 해로교통의 중심이며, 아산만 어업의 전진기지였다. 대진은 넓이가 10리가 넘는다고 했다. 《만기요람》³²⁾에는 “바람이 일면 파도가 매우 심하다”고 해서 조세(潮勢)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포구상업이 발달하면서 1960, 70년대에는 횃집과 술집들이 많아졌다. 횃집에서는 생선회와 막걸리를 팔았는데 손님들은 평택 시내와 멀리 안성에서도 왔다.

계두진(鷄頭津)은 현덕면 권관1리에 있었다. 자연지명으로는 ‘닭머리’다. 《대동지지》에는 “계두진(鷄頭津) 남쪽으로 80리인데, 아산(牙山)으로 통한다.”라고 하여 아산의 공세포나 백석포와 연결된 수로교통의 요지였음을 말해준다. 고지도에는 계두봉 아래에 위치했고 아산의 여러 포구와 연결된 해로교통의 요지였음을 표시했다.

석화진은 권관2리 고잔마을 앞 노랑바위를 말한다. 노랑바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돌곶이’라고 했다. 대체로 나루보다 어항(漁港) 역할을 많이 했다.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³³⁾에는 ‘석화진’은 보이지만 계두진은 없다. 또 석화진의 위치도 두메리 부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28) 《태종실록》11년 7월 25일(1411) 외

29) 《세조실록》3년 2월(1457) 외

30) 《수원부 읍지》, 1785

31) 《화성지》, 1831

32) 《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 1984

33)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경인문화사, 2010

있는 위치와 다르다. 계두진은 1974년 아산만방조제 준공으로 사라졌다. 석화진은 방조제 준공 뒤에도 한동안 나루와 어항 역할을 했지만 곧 중단됐다.

5. 맺음말

나루·포구는 인마(人馬)의 운송에도 사용됐지만 조운(漕運)과 포구상업, 어업도 발달했다. 평택지역에도 52개 하천에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다. 이들 나루·포구는 수로나 해로교통에도 활용됐지만 조운과 포구상업, 어업에도 활용되었다.

평택지역에는 수 십 개의 나루·포구가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 고증이 미흡했고 포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 본 논문은 고지도와 읍지(邑誌), 지리지(地理志), 실록(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지지자료와 같은 문헌자료를 활용해 위치(位置)를 고증하고 역할을 살펴봤으며, 시대에 따른 위치변화의 일면을 살펴봤다. 정확한 위치고증은 객관적 연구의 기초이며 출발이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평택지역 나루·포구 연구가 객관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 편
 《수원부선세혁파성책》, 1886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 한국고전번역원, 1985
 《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 1984
 김정호, 《대동지지》,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소, 1976
 《화성지》, 1831
 《수원부 읍지》, 1785
 《호구총수》, 1789
 《진위현 읍지》, 1899
 《양성군 읍지》, 1899
 《국역 직산현지》, 성환문화원, 2000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경인문화사, 2010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평택시문화원, 《향토사료집》제1집, 1991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기전문화예술총서6, 경기문화재단, 2000년
 김해규, <아산만권 개발과 평택항>, 《평택항 30년사》, 평택시, 2016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장일규, <나말여초 서해항로와 평택>, 《2015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5
 문경호, <조운제도와 평택지역의 해창>, 《2015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5

평택 나루 · 포구의 문화적 의미

박경순/평택쌀길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차 례

1. 과거 평택은 어촌이었다.
2. 평택의 포구와 나루
3. 나오면서

◆ 나루 :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다에서 배가 닿고 출발하는 얇은 곳
또는 강이나 시내의 얇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

◆ 포구 :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네이버 지식백과)
나루와 포구는 뚜렷하게 구분짓기 보다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1. 과거 평택은 어촌이었다.

나는 한도숙, 이상권 선생과 함께 평택 지역의 물길 조사에 동행하였다. 내 나이에 반이 넘도록 살고 있는 평택에 대해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나 하는 괴리감과 호기심이 엇갈리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평택은 도·농 복합으로 도시적인 면과 농촌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계절 감각을 가까이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나름대로 쉽게 결론 내렸었다. 그런데 이번 물길 조사 작업을 함께 하면서 과거에는 평택이 어촌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한 마을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살고 계신 어른을 소개받아 직접 찾아뵙고 그 분들에게 듣는 생활상이나 지형은 어촌에 가까웠다. 지금은 버젓이 마을이 형성된 육지인데, 한때는 배가 닿는 나루였다고 진술하시는 걸 볼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의 진술은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각자의 기억이 서로 어긋나기도 하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같은 정황이라도 기억 장치는 개개인의 몫이라서 정확한 자료 조

사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되는 조건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식량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어족이 풍부해서 은빛 물결을 이루며 송어나 강다리 떼가 모여들었다는 걸 회상하는 어르신들의 눈빛에 선홍빛 아가미 같은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였다. 만선의 선박들이 정박한 나루에는 주막도 꽤나 있었다며 그 주막에서의 추억담을 들추며 회심의 미소가 얼굴에 얼비치기도 하였다.

지금은 밭으로 개간되어 잡풀 더미가 된 곳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묵묵히 마을을 넘겨다보고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을에 생존해 계시는 어른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는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꼈다.

코로나 19라는 대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되고 있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게 되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굳게 잠겨 있고 치매에 걸린 어르신, 안타깝게 세상을 떠신 어르신 소식에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발품을 파는 일에 사명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두 번정도 조사하는 일이 보람으로 느껴져서 다행이었다. 또한 만나는 분들마다 진정성 있게 자부심을 갖고 진술하시는 모습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보를 쌓으며 대가로 담배 몇 가치를 받았다는 이야기, 이동조합을 운영하며 마을 자체 독립적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이

나 새우젓과 바꾸던 물물교환의 후불거래는 그 시대의 인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양지 바른 마당 한 칸에서 봄나물을 다듬으며 당뇨병 남편을 위해 힘들어도 냉이나 썩을 뜯는다는 소박한 아낙, 젊어 보이는 여성 이장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옛 나루터 자리에 표적이라도 해 놓으면 어떤 기록보다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거라고 주장하는 모습 등도 인상적이었다.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에서 농토를 지키며 곳곳이 살아오신 그 분들에게서 근기와 긍지를 엿보며 허약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은 조사하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하여 평택의 포구와 나루가 무려 40 여 곳이나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나이 지긋하신 분까지 포함하여 60 여 분을 만났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뽀뽀한 일정들을 잘 소화해낸 일행들에게 고마움과 뜨거운 동지애를 전하고 싶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꺾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 어르신들의 구술을 잘 기록하여 역사 자료로 남긴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과제이다. 어르신들의 진술을 녹음하여 그것을 글로 옮긴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명에 대한 발음이나 동일한 지점에 대한 의견들도 서로 달라 혼동이 따르는 일도 많았다. 그렇더라도 마을 현장의 구술을 듣고 기록하는 일은 온고지신으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근거와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2. 평택의 포구와 나루

진위천과 안성천 주변에 있는 몇 개를 예로 들어 본다

<나루와 포구가 지닌 의미>

- 첫째 : 지형적으로는 물과 육지(물)가 만나는 접점으로 물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형국
- 둘째 : 오랜 역사에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공간
- 셋째 : 문화 교류의 접점이자 관문
- 넷째 : 첨단 항해술, 조선 기술, 어로 기술 등 생산 문화의 별전 전승

❖ 포구와 나루는 인류 역사의 총체적인 정보 캡슐이자 문화 유산

1) 진위천 주변의 포구



(1) 봉남진



진위향교 앞에는 쇠다리가 있어서 건너 다녔으나 홍수에 떠내려가면 속수무책 새로 보수할 때까지 바짓가랑이 걷고 건넜다고 한다. 그래서 나를 업어서 건네주고 샴을 받는 일도 있고 하인이 마나님 업고 건너다 뭐 어찌구 하는 이야기들도 나루나 다리가 부실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들이다. 아랫말(서부)에서는 오룡동으로 돌다리로 건넜다고 한다. 1970년대에도 마산리에서 하북으로 나갈 때는 겨울에 돌다리가 가끔 사라져 얼음을 깨며 바짓가랑이 걷고 출근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존재(存齋)朴允默(1771~1849)의 시에 진위천 범람에 대한 시가 있다.

제목은 《振威前川》이다.

存齋集作

川水一何張 냇물이 어찌 이리 불어 닳는지
 洋洋數丈餘 넘실 대는게 족히 몇 길은 될 듯
 拍浮馬似鴨 둥실둥실 떠가니 말이 오리와 같네

遊泳人如魚 헤엄쳐 건너니 사람이 물고기 같네
 遠道愁行旅 먼 길 다니는게 시름겨운데
 全村失奠居 온 마을은 살 곳을 잃어 버렸네
 誰能具舟楫 누가 있어 배며 노를 준비하여
 使我好歸歟 내가 편안히 돌아가게 할 것인가

(2) 황곶포 추정지



황석영의 《장길산》에 ‘항곶포’가 나온다.

안성 청룡패 사당 고달근이 당진에 부자를 징치하고 여사당 묘역을 데리고 탈출하는 과정에 당진에서 산길을 걸어 아산 백석포에서 금가락지 하나 사공에 건네고 시포 지나 경양 지나 망해산 봉수대 지나 해창 지나 황곶포에 다다른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썰물에 배를 띄우기 어려우나 송앗대(삿대)로 밀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항구지까지는 바닷물이 미는 때면 쉽게 이동 했을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다. 간만의 차

가 9.3m에 이르는 높이이기에 장길산 시대에는 더 깊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금로치(안성 원곡면 금노동)를 지나 양성으로 30리 길을 그 밤으로 걸어갔다고 한다.

(3) 황구지 돌다리 추정지



황구지리'라는 지명은 '항곶포(진)'에서 유래됐다.

조선후기 황구지리 앞에는 '항곶포'가 있었고, 군사용으로 놓은 석교石橋가 있었는데, 이 석교를 1972년 직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들이 반출했다고 한다. 단 한 덩어리가 용소리 양지목장에 표석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황구지는 '늘어진 곳'에서 나온 이름이다. 장등리로 부터 쪽 늘어진 산줄기가 맞은편 화성 용소리 뒷산을 보고 달려들다가 황구지천을 보고 걸음을 멈춰버린다. 이 산줄기가 바다가운데로 늘어져 '늘어진은 누런'으로 '곶은 구지'로 변한 것이고 '누런은 누루황(黃)'을 차용한 것이다.

이곳은 화성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교'라는 돌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천의 왼쪽 화성은 신라, 오른쪽 평택은 백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계가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즈음으로 볼 수 있다. 《해동지지》에도 황구지 다리를 크게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돌다리는 천년 동안 사용된 다리라 보아야 한다. 1970년 하상을 정비하고 뚝을 보강하면서 하상에 묻힌 석재들을 공사 업체가 실어 내갔다고 용소리 분들은 말한다.

(4) 해창리 해창터



고덕면 해창리는 조선시대에 진위현의 '해창(海倉)'이 있던 마을이다. (경기도 박물관《평택의 역사와 문화 유적》 평택시 1999)

이곳에 조창이 설치된 것은 진위현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큰 배가 드나 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루는 해창4리 "뱃말"에 있었고, 조창은 해창3이 서북쪽 창말에 있었다. 현재 나루터는 간척으로 흔적이 없어졌으며, 창고 터와 배를 묶어 두던 자리만 남아 있다.

(5) 다라고비진



이 나루는 황곶천(황구지천)과 장호천(진위천)이 합류하여 흘러온 물이 홍경천(안성천)과 합류하며 아산만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넓은 지역이다.

나루의 위치는 궁안휴게소 뒤 서정천과 합류하는 지점이었다. 소청나루라고도 했는데, 궁안교도 소청교로 불렸다.

주민들은 지금도 '다루지나루'라고 부른다.

진위천 변에 있는 궁1리 마을 이름도 다루지 마을이라고 한다.

♪ 고기 되는 소리 ♪

〈아니리〉
 메 : 고기 많이 잡았슈
 받 : 예, 많이 잡았어유
 메 : 통도 한말에 얼마유
 받 : 백원입니다.
 메 : 통도 닷 말 주시오
 받 : 예

〈창〉
 여기도 또 새로 한 말이요
 여기도 또 두 말이로다
 여기도 또 새로 서 말이로구나.
 여기도 또 너 말이로다
 여기는 다섯 말이요

2) 안성천 주변의 포구



(1) 이포 배터



이포진에서 안성천 건너서는 원봉나루나 곤지진, 진위천 건너서는 오성면 신리 삼동촌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1930년대에 궁안교가 가설되고, 1938년 콘크리트 들어섰다. 일제 말기에 수로가 바뀌고 주변 지역이 간

척되어 사라졌다. 간척지들은 수탈의 땅이었다. 윤영렬의 땅이 많이 있었고 이는 토지분배시 농민들에게 분배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동고리 일대의 땅이 일본인 가등농장이었다는 것이다.

(2) 삽교 배 매던 나무



삽교포는 신대동 삽교마을 신대교 아래에 있었던 포구다. 안성천과 도일천이 합쳐지는 지점인데다 바닷물이 유입돼 하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주민들은 하천에 섣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됐다. 삽교다리는 고덕면으로 갈 수 있고 팽성읍의 원봉나루와 연결되었다. 해동지나 팽성현지에 삽교가 분명하게 기록 되어있고 수원으로 가는 도로도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삽교포는 수륙의 교차자점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삽교포는 1922년 신대교 건설과 주변지역의 간척으로 역할이 줄어들다가 1974년 이후 폐지됐다.

(3) 석봉 나루



석봉리 서쪽 안성천 변에 있던 나루. 석봉 양어장과 낚시터가 있었다. 안성천 건너 동고리 이포나루를 통해 궁리와 연결되었다.

♪ 노 젓는 소리 ♪

메 : 에~이허	메 : 우리 배가
받 : 에~ 이 허	받 : 어야디아
메 : 어 야이	메 : 잘도 간다.
받 : 어~야아	받 : 어야디아
메 : 에~헤~ 헤~ 헤 에이허	메 : 어~야아
받 : 에~헤~ 헤~ 헤 에이허	받 : 어~야아
메 : 에~이허	메 : 여기 이곳은
받 : 에~이허	받 : 어야디아
메 : 에~야아	메 : 어디쯤이요
	받 : 어야디아. 돌기봉이다.
	에~헤~ 헤~ 헤 에이허

(4) 계양의 경양 포구터



일찍이 타이포(打伊浦) 나중에 '사섭포(使北浦)'로 불리다가, 아주(牙州

충남 아산) 하양창(河倉)

(충청도 서북부, 경기도 남서부의 세곡을 모아 개경으로 실어가던 조창) 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직산현과 평택현의 세곡만을 모아 한양으로 실어가는 경양창(계양의 별칭)이라 불리웠다.

하양창(河陽倉) 지역은 조창이 설치되기 전부터 인근 지방의 세곡을 운송하기 위한 기지였다.

(5) 구진개 포구



대안 4리 구진. 해방 까지도 아산만 어장의 대표적인 어항일 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던 곳이었다. 이름도 '갈매기 나루'라는 뜻의 '구진개'다. 송어, 강다리, 병어, 깡치(가물치)들이 많았다.

송어가 잡히는 이른 봄이면 강화도 옹진군 일대의 어선들까지도 모여들었다고 한다.

《술좌석에서의 만남》

향천(香泉)공재선(孔在善)

현덕면 기산리 샘골출신 1946년 作

시 짓는 자리 떠나 술좌석에서 만나니
 훌륭한 선비들은 부하고 귀한 모습들
 온 하늘엔 용의 기운으로 구름이 가득하고
 피꼬리 우는 사월 되니 나무 그늘이 짙네

풍류는 적벽 아래서 논 소동파와 짝하고
 필법은 동방의 또 하나의 석봉일세
 십리 계양강(桂陽江) 흐르는 물 위에는
 흰 갈매기 나는 곳에 돛단 고깃배 따르네

3. 나오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이다. 포구와 나루가 있던 곳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일었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촌이 형태를 이루고 있던 평택 서남부 지역을 이제와서 어찌라는 것일까? 심지어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평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은 군사적 도시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물길을 이용한 축제, 즉 포구나 나루를 기반으로 문화 키워드를 개발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양수리 두물머리에는 황포돛대가 있다. 사진인들이 모여 들면서 유명해지자 주변에 상권도 자리잡았다.

풍어제나 고사굿 등 물가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평택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에서 유리하다. 지역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 활동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평택에는 아직까지 대표 축제가 자리잡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평택지역 조창과 조운
- 하양창을 중심으로

문경호/공주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화
3. 고려시대의 평택과 하양창
4. 조선시대 조운과 평택의 해창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 전근대 시기의 주요 운송수단은 수레가 아니라 선박이었다.¹⁾ 지방에서 거둔 조세와 특산물도 漕運을 통하여 수도까지 운송되었으며, 주변국과의 사신 교환과 경제 교류 또한 대부분 선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고려로부터 시작된 조운제도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조세가 금납화되는 1894년까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高麗史》를 토대로 하는 문헌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漕倉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운선의 형태 등을 연구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운제도의 시행 시기나 조창의 구체적인 위치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고려는 國初부터 水郡 지역에 12개(훗날은 13개)의 조창을 설치하여 조세의 수집과 운송을 담당케 하였다. 고려시대의 조창은 군현에 딸린 하나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각 지역에서 징수한 조세를 모아 두었다가 선박을 통해 수도로 옮기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²⁾ 이에 따라 추수 이후 겨우내 조창에 집결된 조세는 해동이 시작되는 2월부터 4월까지(개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5월까지) 배에 실려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이처럼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수도의 경창으로 옮기는 일을 일컬어 漕運이라 했다.³⁾

1) 《宣和奉使高麗圖經》卷15, 車馬, “麗國多山 道路坎壈 車運不利” ; 《宣和奉使高麗圖經》卷33, 舟楫, “麗人 生長海外 動涉鯨波 固宜以舟楫爲先”

2) 北村秀人, 〈高麗初期の漕運についての一考察 -《高麗史》食貨志漕運の條所收成宗11年の輸京價制定記事を中心に-〉《古代東アジア論集(上)》, 吉川弘文館, 1978, 350-351쪽.

3) 《萬機要覽》에 따르면 “租稅를 선박으로 운반하여 서울에 상납하는 것을 ‘漕’라고 한다”고 하였다(《萬機要覽》財用編 漕轉 總例).

조운을 통해 운송되는 물자는 비단 조세에 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식화지 조운조에는 ‘公私의 물건을 운송하다가 침몰했다고 거짓으로 고하고는 뱃사람들이 물품을 나눠 갖는 행위를 처벌한다.’⁴⁾는 규정이 남아있는데, 이를 국가의 공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전달되는 물품 역시 조운을 통해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고려의 조운제도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경에서 생활하는 관료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시작된 조운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수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13개의 조창은 9개 조창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에서는 조운을 확보하고, 조운선을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제작하는 등 안정적인 조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고려시대로부터 시작된 조운제도는 갑오개혁으로 조세가 금납화되는 시기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조운제도가 정착된 고려시대로부터 조운제도가 폐지되는 1894년 무렵까지 바닷가나 큰 강가에 위치한 군현은 대부분 조운의 역에 매여 있었다. 서해에 인접해 있었던 평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택은 고려시대 13개 조창 중의 하나인 하양창이 자리잡았던 곳이고, 조선 후기에는 경양창을 비롯하여 안중창, 진위 해창 등이 설립되었던 곳이다. 평택 지역 해창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고려로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조창과 조운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 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高麗史》卷33, 食貨, 漕運, “文宗三十三年 正月 判 公私漕運穀米梢工水手等托爲敗船溺水私自分用者並令徵之”

2.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화

조운은 바다로 연결된 포구에 곡식을 집결한 뒤 배를 이용하여 수도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바다가 안정되지 못하면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고려가 國初부터 해상 호족 세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끌어들이고, 지방 포구를 행정체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지방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조운은 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관이 공식적으로 파견되기 이전까지 고려는 지방 호족의 협조 아래 조운을 징수하고 운송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⁵⁾ 그러한 과정에서 호족들의 포구 장악과 자의적인 輸京價 징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포구명을 개칭하고, 개경까지의 운송료를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조운운송 과정에서는 호족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성종 11년의 포구명 개정과 60포창의 輸京價 제정은 호족에 의존하던 조운제도를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조운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

성종 11년에 정해진 수경가는 최대 5석당 1석에서부터 최저 21석당 1석까지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포창별 수경가에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거리의 원근⁷⁾, 항해

의 난이도⁸⁾, 포창의 설치 시기⁹⁾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세의 1차 집결지가 지정된 점, 포창으로부터 개경까지의 운송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 점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조운제도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종 11년에는 60개 포창 중 이미 9개 소에 조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9개 조창은 주변 포창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9개 조창이 설치된 지역 또한 통일신라 말 대당 교역의 중심지이거나 고려 초에 명성을 떨친 호족 출신 고위관료의 근거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이러한 사실들은 《高麗史》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國初부터 지방의 조운을

8) 한정훈, 위의 논문, 136~139쪽. 한정훈은 내륙수운을 이용하는 경우 강물 깊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므로 강운하는 조운선이 해운하는 조운선보다 많은 수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대개 조운이 이루어지는 2~5월은 비교적 봄가뭄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간으로는 양평군에 위치하는 大灘을 꼽았다. 실제로 내륙 수운 구간 중에서도 대탄을 기점으로 그 전후 구간은 수경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로를 이용하는 조운선의 경우 울돌목, 안흥량, 손돌목 등을 통과하는 구간이 수경가 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운선이 가장 자주 파선했던 곳은 안흥량과 칠산 앞바다였던 것 같다. 포창의 설치 지역이나 후대의 기록을 통해 울돌목이나 손돌목, 장산곶이 험로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곳에서 파선했다는 기록은 많지 않다.

9) 수경가 후반에 기록된 20개 포창의 추가 기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성호(김성호, 1996, <고려시대 조운항로와 등대의 기원>,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맑은소리)가 최초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한정훈 역시 추가 기록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한정훈, 위의 논문, 132쪽).

10) 보안(안흥창), 임피(진성창), 나주(해릉창), 영암(부용창), 사주(통양창), 승주(해룡창) 등은 신라 말 당나라와 이어지는 항로였다. 이들은 대부분 신라 말 당으로 유학을 떠난 선종 승려들과 6두품 학자들이 귀국한 포구와 일치하거나 그 근방에 자리잡고 있다. 891년부터 924년까지 선종 승려들이 귀국한 항구는 무주 회진, 무주 승평, 전주 임피, 강주 덕안포, 전주 희안 등이다(이도학, 2006, <신라말 진현의 세력형성과 교역>, 《신라문화》28, 200~201쪽). 또한, 합포(석두창)는 진례산성을 토대로 활동한 김인광, 영암(부용창)은 최지몽, 승주(해룡창)는 박영규, 아주(하양창)는 임희, 나주(해릉창)는 오다련의 근거지였다.

5) 윤용혁, 2009, <중세의 관영물류 시스템, 고려의 조운제도>,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117쪽.

6) 연구자에 따라 흔히 60포, 60포제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고려사의 기록대로 60개만 있었던 것인지 더 많은 수가 있었는데, 60개만 소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7) 한정훈, 2009, <고려초기 60포제의 실시와 그 의미>《지역과 역사》25, 부경역사연구소, 136쪽.

개경으로 조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성종 11년 무렵에는 조운과 관련된 9개의 조창 시설이 다른 포구와 공존하다가 이후의 어느 시점에 포창제는 사라지고 12조창제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浦倉과 공존했던 9개의 漕倉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浦’라는 행정구역 내의 조세 집결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¹¹⁾ 9개 포창의 위치가 나말 여초 호족 출신들의 근거지이자 관할구역이고,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면 사주 통양창이나 승주 해룡창의 사례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곽을 두르는 등의 보호 시설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크다.¹²⁾ 그러나 이 시기의 조운제도는 조창제 확립 이후처럼 개별 조창이 특정한 수세 구역을 갖는 정도의 체계적인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종 때 각 조창에 조운선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농민들이 조세와 함께 수경가를 납부하는 부담도 져야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60개의 포창과 함께 기록된 9개 조창 중 昇州 海龍倉, 牙州 河陽倉, 泗州 通陽倉 등에 보이는 승주와 아주, 사주의 예를 들어 조창이 설치된 시기가 현종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¹³⁾ 실제로 《高麗史》地理志만을 토대로 하면 그러한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高麗史》‘世家’와 ‘列傳’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1) 하양창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高麗史》卷56, 志10 地理1, 청주목 천안부) 浦와 마찬가지로 漕倉 역시 일정한 행정구역적 성격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60포창의 수경가 제정기사에 세주로 표기된 漕倉은 浦와 같은 행정 구역이 아니라 순수한 조세 집결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12) 김덕진, 2009, <고려시대 조운제도와 조창>,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144-145쪽.

13) 한정훈, 2009, <고려초기 60포제의 실시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25, 부경역사연구소, 148쪽 44번 각주. 《高麗史》지리지의 근거로 牙州, 昇州, 泗州는 현종 때 생성된 지명이므로 12조창제의 성립은 현종대 이후의 사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A-① 계해일에 熊州[공주], 運州[홍주] 등 10여 주현이 모반하여 백제에게로 가서 붙었다. 前 시종 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軍事로 임명하였다.¹⁴⁾

A-② 朴英規는 昇州 사람이니 견훤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견훤의 장군이 되었다. 神劔이 반역을 일으키자 견훤이 귀순하여 왔다.¹⁵⁾

우선 아주 하양창이 있었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는 본래 稷山의 월경지로 현종 9년 이후 천안에 소속되었다가 몽골 간섭기 이후 河陽倉이 慶陽縣으로 승격되면서 독립된 縣이 되었다. 그 후에도 慶陽은 여전히 稷山 또는 천안의 영역이었을 뿐 牙州의 영역이 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하양창이 있었던 평택시 팽성읍 일대가 牙州라고 불렸던 시기는 현종 9년 본래 仁州였던 아산 지역이 아주로 바뀐 시기가 아니라 A-①에 나타난 것처럼 김행도가 知牙州軍事로 임명되었던 태조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태조 당시 牙州는 홍주, 공주를 견제할 만한 지역으로 천안, 아산 일대를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룡창의 소재지 昇州도 마찬가지이다. 《高麗史》지리지에 의하면 지금의 순천은 신라 경덕왕 이래 고려 초까지 昇平郡이라고 불리다가 성종 14년에서야 비로소 승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高麗史》의 기록대로라면 해룡창이 설치된 시기는 성종 14년, 즉 승평군이 승주로 승격한 이후 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A-②에 보이는 것처럼 성종 14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영규의 열전에는 그가 승평군 사람이 아

14) 《高麗史》卷1, 世家 太祖 元年 8月. “癸亥 以熊運等十餘州縣叛附百濟命前侍中金行濤爲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

15) 《高麗史》卷92, 列傳5 朴英規. “朴英規昇州人娶甄萱女爲萱將軍及神劔爲逆萱來投”

니라 승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⁶⁾ 박영규가 고려로 망명하던 934년 당시의 순천이 《高麗史》 지리지에는 승평군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제 승주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는 《高麗史》 지리지에 일부 누락된 사실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⁷⁾

그렇다면 고려 초에 牙州, 昇州라고 불렸던 두 지역의 지명이 《高麗史》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록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혜종 사후 서·남해 호족들이 세력을 잃고, 패서 호족들의 힘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화되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조창이 자리잡고 있었던 지역의 호칭만을 근거로 조창의 설립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박영규 뿐만 아니라 정종의 왕비였던 문공왕후 편에도 승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박영규의 생물연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박영규가 승평을 승주로 개칭한 성종 14년(995) 무렵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文恭王后 朴氏)

17) 이 경우 사주 통양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高麗史》에 의하면 泗州는 경덕왕 이후 泗水縣이라 불리다가 현종이 즉위한 후 豐沛의 땅이라 하여 사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현종 이전에 사천이 사주로 불렸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승주의 사례에 나타나는 것처럼 高麗史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태조 이후 사천이 사주로 불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통일신라 말 중국과의 교역항으로 활용된 포구들의 상당수는 주로 승격하였으며, 《高麗史》 식화지 60포창 기사에 기록된 지명의 경우 신라 시기의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군과 현이 명칭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통양창의 소재지 사주는 남해에서 진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혜의 포구였다. 진주 일대에서 성장한 친견훤계의 왕봉규가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주로 이용된 포구도 사천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고려적인 성향의 윤웅이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그 후에도 견훤과 왕건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태조가 진주, 사천 일대를 회유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사천을 사주로 승격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양창이 있었던 사주의 지명이 현종 2년에 정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통양창의 설립 시기를 반드시 현종 2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재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 정청주, 1996,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27~33쪽.

이후 60개 浦倉을 중심으로 조세를 운송하던 초기 형태의 조운제도는 성종 11년~14년에 이르러 12개 조창을 거점으로 조세를 운송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60개 포창에서 12개 조창으로 수조처가 줄어든 것은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어 정부가 이전보다 집약적으로 조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귀족들의 대토지 점유와 삼별초의 대몽항쟁, 왜구의 발호는 조운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 조창제 중심의 조운제도가 군현별 조운제도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13개의 조창은 주변 군현들의 조세 수집처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다. 조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수집과 군현별 조운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 지자 조창은 내륙으로 옮겨갔으며, 조세운송도 육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육로 운송의 편이를 위해 역과 원을 수리하고, 도로를 개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육로 운송은 위기상황에서 단행된 임시조치였으므로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조운을 재개하였으며,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조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漕轉城을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말의 조전성은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시대 조운제도의 성립에서 동요되기까지의 과정이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조운제도는 포창제도(고려 초) → 12조창제도(고려 성종 14년 이후) → 13조창제도(고려 문종) → 조창과 군현별 조운제도 병행(13세기 중·후반 이후) → 조선 초의 17개 포창제도(세종 때에는 15개) → 9조창 제도(《經國大典》) → 조창과 군현별 海倉 제도의 병행(《續大典》) 등의 순으로 변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근대 시대의 국가 재정은 전적으로 농민들로부터 거둔 전세, 공부에

의해 유지되었다. 농민들이 납부한 조세는 郡·縣倉에 수납되거나¹⁹⁾ 가까운 조창으로 이송되었다. 조창은 경창과의 거리에 따라 납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가까운 곳은 4월, 먼 곳은 5월까지 운반을 마쳐야 했다.²⁰⁾ 조세운송이 2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유는 추운 겨울에 운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성강의 결빙기간이 12월부터 3월 중순까지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²¹⁾ 따라서 13개 조창은 각 군현에서 납부한 조세를 조운선이 출발하기 이전까지 보관하다가 경창으로 운송하던 기관으로 조운제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3. 고려시대의 평택과 하양창

1) 하양창의 설치와 변천

고려시대 평택은 크게 평택과 진위, 하양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양창이 자리잡은 평택시 팽성읍 일대는 직산현의 월경지였다.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있는 다음의 기록은 이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잘 보여준다.

B-① 편섭포(便涉浦) 이전에는 타이포(打伊浦)라고 하였는데 아주(牙

19) 주현의 창은 신라시대에도 존재했으며(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제 연구》, 일조각, 2004, 145-154쪽), 고려 건국 시기에도 주현마다 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언총이 고려에 귀부했을 때 태조가 忠州, 原州, 廣州, 竹州, 堤州 창고의 곡식 2,200석, 소금 1,785석을 하사하였는데, 이 창고들은 주현에서 관리하던 것이었다(《高麗史》卷92, 列傳5 王順式). 또한, 문종 2년에는 왕의 명령으로 여러 도들에 있는 館驛의 公須田 조세를 축적하여 두었다가 廩給하고 남으면 각각 고을 창고에 가져다 바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20) 《高麗史》卷78, 志33 食貨2 漕運.

21) 조선총독부, 앞의 책(1929), 275쪽. 예성강의 결빙기간은 양력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이다.

州) 하양창(河陽倉)이 여기에 있다.²²⁾

B-② 稷山縣은 원래의 尉禮城이다. 백제의 始祖 溫祚王이 나라를 창건하고 이 곳에 수도를 정하였으며 후에 고구려가 탈취하여 蛇山縣으로 고쳤고 신라에서도 그대로 부르면서 白城郡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부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 고려는 河陽倉을 慶陽縣으로 고쳐서 縣丞을 두어 鹽場官을 겸임케 하였다.²³⁾

B-③ 慶陽廢縣 고을 서쪽 44리에 있다. 본래 고려의 河陽倉인데,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승을 두고 鹽場官을 겸임시켰다.²⁴⁾

B-①에 의하면 본래 하양창은 편섭포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 편섭포는 직산현에 속해 있었으며 단순한 포구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행정구역이었다. B-②와 B-③에 따르면 직산현에 소속되어 있던 하양창은 고려 중기 이후 감무가 설치되던 어느 무렵에 경양현으로 독립했다가 조선 건국 이후에는 폐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팽성읍 일대는 하양창이 자리잡고 있었던 까닭에 일찍부터 포구가 발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 편섭포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慶陽浦, 億賊浦, 아산과 평택의 경계에 있었던 市浦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경양포는 하양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고려시대의 편

22) 《高麗史》卷79, 志33 食貨 漕運.

23)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청주목 천안부.

24)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충청도 직산현.

섭포로 추정된다.²⁵⁾ 경양포 부근에 市浦라 불리는 포구가 곁에 있었던 것도 하양창의 조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육지를 통해 충청·전라도 지역의 물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운선이 닿는 포구와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고려 후기 이 지역은 잦은 외침에 시달려야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36년 몽고의 침입이다.

C. 몽고 군사 백여 명이 溫水郡(충남 온양)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車峴(차령산맥)으로 나아가고, 또 남경·平澤·牙州(충남 아산)·河陽倉 등에 나누어 둔쳤다.²⁶⁾

기록대로라면 몽골군이 지금의 서울을 비롯하여 평택, 아산, 팽성 일대에 진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몽골은 충청, 전라도 등지에서 江都로 올라가는 물자를 막으려고 시도한 것 같다. 평택과 아산, 하양창의 길목을 지키면 남쪽에서 江都로 올라가는 육로와 해로의 길목이 모두 막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경양포는 몽골군이 물러간 후 또 다시 왜구들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다.

D-① 왜적이 慶陽縣을 노략질하였는데 양광도 도순문사 한방언이 이와 접전하였으나 패전하였다.²⁷⁾

D-② 왜적이 慶陽을 침공하고 드디어 平澤縣에 침입하였으므로 양광

도 부원수 印海가 적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²⁸⁾

D-③ 왜적이 慶陽과 안성군을 침범하니, 양광도 원수 王安德이 겁내고 나약하여 싸우지 못하고, 부원수 印海와 陽川 원수 洪仁桂를 불러 퇴각시켜서 加川驛에 머물면서 적이 돌아가는 길에서 요격하려 하였으나, 적이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갔다.²⁹⁾

D-①~D-③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왕 때의 기록에 하양창이 아니라 경양현이라고 되어있다는 점이다. 조창이 약탈당했다거나 조운선을 빼앗겼다는 기록도 없다. 이는 고려가 하양창을 경양현으로 바꾸었다고 기록한 《고려사》 지리지 천안부조와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하양창이 경양현으로 바뀐 정확한 이유나 시기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양창이 없어지면서 아주(또는 직산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현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³⁰⁾ 이와 관련하여 고려초기의 조창은 2개 이상의 복수 촌락으로 구성된 지역촌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³¹⁾ 아주 하양창을 경양현으로 바꾸었다는 기록, 몽골의 군대가 하양창에 진을 쳤다는 기록, 왜구가 하양을 노략질 했다는 기록도 이렇게 해

28) 《高麗史》卷133, 列傳46 신우 3년 2월.

29) 《高麗史節要》卷30, 신우 3년 1월.

30) 조창제도가 붕괴된 것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14세기 이후 군현별 납부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민왕 8년조에 보이는 흥주창 역시 군현창이었을 것이다(주38번 참조). 이에 따라 하양창 지역에도 경양창이라는 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해동지도》에 나타난 경양창 역시 고려로부터 기원하였을 것이다.

31)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 《조선역사논총》, 1979, 410-412쪽; 최완기, 〈고려조의 세곡 운송〉《한국사연구》34, 39쪽; 김재명, 〈고려의 조운제도와 사천의 통양창〉, 《한국중세사연구》20, 2004, 176쪽. 조선 후기 경양면에는 魚隱里, 本堰里, 仁處里, 魚村里 등 4개 마을이 소속되어 있었다(《輿地圖書》, 忠淸道 稷山 坊里).

25) 《大東地志》, 方輿總志 高麗, “河陽倉在牙州今稷山慶陽浦海倉前號打伊浦又改便涉浦”

26) 《高麗史節要》卷16 고종 23년 8월.

27) 《高麗史》卷133, 列傳46 신우 원년 3월.

석하면 쉽게 이해된다. 즉, 고려시대의 하양창은 창고 건물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양창이 위치한 경양면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 영풍창이 있었던 지역이 조선시대 영풍창면으로 불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경양현은 곧 폐지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이 되었다.

E. 慶陽縣을罷하고 慶陽庄으로 하여 稷山郡에 예속시키었다.³²⁾

조선 건국 이후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고, 그에 따라 면천의 범근내포와 아산 공세포처럼 큰 바다와 더 가까운 곳에 수조처가 설정되면서 편섭포는 조운과 관련된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경양현으로 승격된 후 감무가 염장관을 겸임하긴 했지만³³⁾ 염업과 관련한 기사도 마땅히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당진포 만호와 대진 만호를 거쳐 들어가는 깊은 내륙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기능이 특별히 강화되지도 않았다.

현재 경기도 팽성읍 노양리와 본정리 일대에 하양창과 관련된 유적이거나 지명 등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노양리와 아산 둔포리 사이를 흐르는 둔포천도 1990~1991년 직선화 사업으로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다만 같은 시기의 다른 조창들이 포구를 끼고 산 중턱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하양창의 창고시설은 팽성읍 노양리와 신대리에 걸쳐있는 망해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하양창 사람들의 생활

고려시대 13개 조창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본래 조창에는 판관, 색리, 초공, 수수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중에서도 조창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중앙에서 파견된 판관이며, 지방의 縣尉·監務와 같은 20석의 녹봉을 받았다.³⁴⁾ 판관이 직접 조운선에 승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판관은 조운의 총 책임자로서 조운선이 패몰하는 경우 색리, 초공, 수수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했다.³⁵⁾

판관이 조창의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관이었다면 실질적인 업무는 色典이 맡았다. 향리 신분에 준한 색전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직접 수납하고, 倉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다 조운선에 적재하여 경창까지 가져가는 업무를 맡았다. 조운선이 경창에 도착하면 그것을 말[斗]로 되질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까지가 색전의 업무였다.³⁶⁾

색전의 임무가 주로 행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운선의 운항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梢工에게 있었다. 초공은 수수·잡부들과 함께 창에 소속된 주민이었으며, 그들을 지휘하여 배를 운항한 선장이었다. 조운선 1척마다 초공은 1명씩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조운선에는 노를 젓는 水手와 조세를 싣거나 내리는 雜夫가 승선하였다. 이들은 조운선 1척마다 10명(격군과 잡부를 포함) 정도씩 배정되어 있었다.³⁷⁾ 해창의 경우 조창마다 배속된 조운선이 6척이었으며

34) 《高麗史》卷80, 志34 食貨3 祿俸 外官祿.

35)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漕運.

36) 《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租稅 恭愍王 12年 5月.

37)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漕運. 水手는 《入唐求法巡禮行記》를 비롯하여 고대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배의 운항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운항 담당요원이었다(이창섭, 〈고려시기 수군〉,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7-15쪽).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格軍이라고 하였는데, 바람이 약하거나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노를 젓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을해조행록》). 雜夫는 梢工, 水手와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조곡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32) 《太祖實錄》5년 11월 2일.

33) 《고려사》권56, 지10 지리 청주목 천안부.

로³⁸⁾ 한 번 출범할 때마다 약 70명 정도가 한꺼번에 동원되었다. 만약 고려시대의 조운이 조선시대와 같이 2교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조창에 거주하는 주민은 초공·수수·잡부만도 140명이 넘는다. 이는 정창원 민정문서에 기록된 4개 촌락 男丁 인원 92명의 약 1.5배에 가깝다.³⁹⁾

험악한 파도를 이기고 경창까지 곡식을 무사히 운반해야 하는 일 이외에도 조창민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많았다. 조운선이 파손되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에 맞춰 糶粟을 하거나 煙燻도 해야 했다.⁴⁰⁾ 정기적으로 조운선을 제작하는 것도 조창민의 몫이었다.⁴¹⁾ 또한, 倉에 보관된 곡식을 도난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으며,⁴²⁾ 운반 도중에 축나는 곡식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⁴³⁾ 조선시대의 漕卒이 身良役賤이었음을 고려하면 고려시대 의 조창민 역시 그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⁴⁴⁾

3) 하양창의 수세구역과 조운로

하양창 관할에 속한 양광도 남부 지역은 한남정맥과 금남정맥을 따라 물길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높은 산에 속하는 것은 차령, 가야산, 광덕산, 계룡산 등이며, 주요 하천은 금강, 삽교천, 안성천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 지역의 수조처가 경양포, 공세곶포, 범근내포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山系와 水系를 고려한 것이다.⁴⁵⁾ 안성천 유역에는 평택, 직산, 아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삽교천 유역에는 홍주·면천·덕산·대흥·예산·온양·천안 등이 있고, 금강유역에는 공주·청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많은 중·소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다.⁴⁶⁾ 또한, 이 지역은 금북정맥을 경계로 금강문화권과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하양창에 조세를 납부한 군현은 한남금북정맥의 서쪽에 위치한 청주목 관내 금강문화권에 속하는 군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대개 조선 초 공세곶에 조세를 납부한 청주, 공주, 천안 관할 군현과 일치한다.⁴⁷⁾

43) 《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文宗 7年 6月. 耗米에 관한 규정이다. 본래 모미를 징수한 목적은 조운 시행 이후 원거리 이동을 하면서 도중에 축난 쌀을 뱃사람들이 배상하게 되자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본래 1석당 2승씩 거두었는데, 문종 7년에 이르러 1斛당 7승씩 부과하였다.

44)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287쪽.

45) 《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46) 홍금수, <역사지역지리의 기초연구 : 호서지방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3-5쪽.

47) 조선총독부, 《조선하천조사서(1929)》, 국토해양부, 2010, 277쪽.

38)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漕運.

39) 兼若逸之, <신라 <均田成冊>의 연구 -이른바 민정(촌락)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23, 한국사연구회, 1979, 93쪽. 고려 하양창이었던 경양현의 경우 조선 후기에는 직산현의 경양면이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경양면의 인구는 남 213명, 여 389명이었다. 신라 민정문서에 수록된 4개 촌락 丁의 인원이 약 92명 정도였음을 고려하면(4개 촌락 전체 인구는 462명) 고려시대 하양창의 인구는 그보다 적었을 것이다.

40) 김재근, 《우리배의 역사》, 1988, 125쪽. 改粟은 배 전체를 해체하여 썩은 목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며, 煙燻은 목선천공충(shipworm)과 바다나무좀(limnoria) 등의 벌레들이 배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외판의 표면을 불로 그을리는 작업이다.

41) 《定宗實錄》1年 1月 7日 戊寅. 조선시대의 경우 배의 제작, 수리, 조운 등이 모두 조졸의 몫이었다. 조선시대의 예에 비춰보면 조운선은 10~15년 마다 새로 제작해야 했다(《경국대전》工典 舟車). 이에 따르면 5년마다 개삭하고, 10년에 새로 배를 짓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典會通》에는 해선의 경우 10년에 개삭하고, 20년에 새로 짓고, 참선의 경우 7년마다 개삭하고, 14년마다 새로 짓는다고 하였다(《大典會通》卷2, 戶典 漕轉). 배의 사용 연한이 조선후기에 들어 두 배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42) 《成宗實錄》6年 2月 24日 癸卯. 조선시대에는 인근 백성들이 지켰으나 고려시대에는 조창민들의 역이었을 것이다.

표 1) 13조창의 위치와 수세 구역⁴⁸⁾

조창 이름	위 치	수세 구역	군현 수
흥원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원주 관내	
덕흥창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충주목·상주목·경산부·안동부·경주·예주 관내	
하양창	경기도 평성읍 노양리·본정리	청주목·천안부·공주목 관내	
영풍창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승리	홍주목·가림현·부성현 관내	
안흥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남포리)	남원부, 고부군 관내	
진성창	전북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전주목, 임피현·진례현김제현·금구현 관내	
부용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고법성	영광군 관내	
해릉창	전남 나주시 영산동	나주목, 해양현, 능성현	
장흥창	전남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원해창	장흥부, 영암군, 진도현 관내	
해룡창	전남 순천시 흥내동·오전동 해룡산성	승평군, 보성군 관내	
통양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진주목, 협주, 고성현, 남해현, 거제현 관내	
석두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울주, 금주, 양주, 밀성군 관내	
안란창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구진리	풍주·웅진현 관내	

하양창에서 조세를 실은 조운선은 풍도와 갑죽도 사이에 있는 도리목 고개⁴⁹⁾라는 바다에서 썰물을 타고 나와 합류한 후 영흥도·대부도를 거쳐 팔미도에 이르렀다.

당시 영흥도를 지나는 뱃길에는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를 지나는 내도와 오른쪽 큰 바다로 돌아가는 외도가 있었다. 조운선은 외도보다는 내도

를 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외도로 운항하다가 자칫 조난당하는 경우 먼 바다로 떠밀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조난시의 구호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大典會通》에 의하면 조운선이 파선하는 경우 즉시 인명을 구호하고, 썰물에 곡식이 드러나면 건져 올려 말리거나 찌도록 규정되어 있었다.⁵¹⁾ 조운선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최대한 해안에 근접하여 운항한 것은 인명과 물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⁵²⁾

영풍창이나 하양창과 같이 안흥량 북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이들 조창에서 개경까지는 5~6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었다.⁵³⁾ 팔미도⁵⁴⁾ 오른쪽 해안으로 올라온 선박들은 다시 월미도 왼쪽 해안과 작약도 사이를 거쳐 자연도(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의 바다에 도착하였다.⁵⁵⁾

50) 이러한 사실은 2008년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의 바다에서 고려시대 선박이 출토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산 대부도 발굴 조사 보고서》, 2008).

51) 《大典會通》卷2, 戶典 漕轉.

52) 19세기 조운선 조난사고 190건의 사망자의 수는 1건당 0.8명으로 1% 미만이었다(〈十九世紀忠淸道의海難-漕運船의遭難一百九事例を通して〉《朝鮮學報》121, 1986, 67쪽).

53) 《여지도서》에 의하면 서산 명천포에서 한양까지의 거리가 5~6일 거리였다. 성연 명천포와 영풍창이 있었던 창포의 灣入거리는 유사하므로 소요기간 또한 유사했을 것이다.

54) 팔미도는 남북을 오가는 뱃사람들에게 중요한 항표성이었다. 인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 화량진을 기점으로 화량진과 佛島 사이에 작은 물길이 있고, 불도와 先甘島 사이에 작은 물길이 있으며, 선감도와 大阜島 사이에 작은 물길이 있었다. 또한 대부도와 靈興島 사이에 세 개의 물길이 있었고 영흥도와 召忽島 사이에 큰 물길이 있었다. 이어 소홀도와 德積島 사이에 큰물길이 있었다. 이 뱃길들은 팔미도 앞바다에서 합쳐져서 북쪽으로 영종도《월미도》무치도 사이로 흐른다. 팔미도는 여러섬들 안쪽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므로 여러곳으로부터 오는 선박들이 모두 팔미도의 좌우를 지나 영종의 앞바다로 갔으므로 섬이름을 팔미도라고 했다고 한다(이철성, 〈조선후기 《輿地圖書》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田結稅와 漕運路 연구〉《인천학연구》6, 2007, 278-279쪽).

55) 문경호, 앞의 논문.

4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의 121쪽(윤용혁, 〈중세의 관영물류 시스템, 고려의 조운제도〉)와 152쪽(한정훈, 〈고려시대 조세 운송 경로〉)의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4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7-38쪽. 영흥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갑죽도와 풍도 사이에 있는 도리목 고개라는 바다에는 아산만으로 이어지는 갯고랑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아산만의 포구를 골라서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도리목 고개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뱃길은 중국으로 이어졌다.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 군대가 풍도에 도착한 것은 아마도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견하였다.⁵⁹⁾ 이 시기 조운제도의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왕강이었다. 왕강은 密直副使兼全羅慶尙楊廣三道水軍都體察使가 되어 鹽鐵漕轉에 큰 공을 세웠으며, 안흥량 험로를 피하기 위해 굴포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⁶⁰⁾

공양왕 2년의 조운제도 부활은 화포의 개발 등으로 왜구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⁶¹⁾ 왜구의 침입은 조선 초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이는 모처럼 재개한 조운제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각 지방의 군현에서는 바닷가 지역의 봉수를 정비하고, 수군을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그마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옛 조창이 있던 지역이나 인근의 보다 안전한 지역에 조전성을 쌓기에 이르렀다.⁶²⁾ 지금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조전성은 용안의 용안성, 나주의 영산성, 신창의 당성, 사천의 통양창성⁶³⁾, 김해의 漕轉城⁶⁴⁾ 등이다. 조전성이 축조된 지역의 입지와 당시의 조운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F. 倭가 일어나면서부터는, 租稅받는 곳을 海口에 두지 않고 산에 있는

59) 朴宗基, 2008,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한국중세사연구》24, 한국중세사학회, 194-203쪽.

60) 《太祖實錄》卷4, 2年 8月 10日 癸未. 조선 건국 이후에도 태조의 왕강에 대한 신임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씨 일가들이 몰살당할 때에도 태조는 그를 옹호하고 지켜주려 하였으나 대간들의 빗발치는 상소가 이어지자 결국 공주로 귀양보냈다(《太祖實錄》卷5, 3年 2月 26日 丙申).

61) 우왕 말년 이후 왜구의 감소는 최영과 이성계의 활약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일본 내부에서 남북 쟁란이 종식된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박종기, 앞의 논문, 194쪽).

62) 六反田豊, 1993, <高麗末期の漕運運營>《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國際文化學科編 第2號.

63) 《新增東國輿地勝覽》卷31, 慶尙道 泗川縣 古跡.

64)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慶尙道 金海都護府 古跡.

모든 城에 두었으므로 조세 바치는 백성들이 소와 말에 싣고 험한 산천을 밟으며, 빙판과 눈길을 오르내려 三冬을 지나서야 겨우 끝난다. 봄이 되어 조운할 때가 되면 또 바다로 수송하게 되는데, 길이 멀고 험하여 며칠이 걸려야 닿게 되므로 그들의 농사일은 하지도 못하고 여름이 되어야 끝나게 되니, 겨울에는 얼고 굶주리며 봄에는 주리고 지쳐, 사람과 가축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게 되고, 또 그 斗量의 소모가 두량할 때마다 줄어들어 반드시 조세를 더 받아 보충하는데, 심지어 빛을 내서라도 정액을 내게까지 하니, 백성의 병폐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장구한 계책을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려 하매 바다를 따라 그 지형을 관찰하여, 全州에서는 鎭浦의 龍安을 발견하고, 羅州에서는 木浦의 榮山을 발견했는데, 모두 바닷가에 언덕이 활처럼 구부정하게 둘러 있고 앞에는 바다가 활짝 트였다.⁶⁵⁾

조전성이 설치되기 이전의 조창은 내륙의 산성에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산꼭대기까지 힘겹게 조세를 납부하였다가 조운할 시기가 되면 다시 조운선이 정박한 포구까지 조세를 운송하여야만 했다. 무거운 조세를 산성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는 운송과정에서 생겨난 손실미를 배상하는 것도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바닷가 가까이에 조전성이 설치되면서 그러한 병폐가 사라졌다. 당시 조전성이 설치된 지역은 대개 ‘활처럼 휘어있는 형태로 바닷가에 돌출되어 있으면서도 앞에는 바다가 활짝 트여 있는’ 지형을 갖춘 곳이었다.⁶⁶⁾

65) 《陽村先生文集》卷11, <龍安城漕轉記>.

66) 이는 영산성, 용안성뿐 아니라 통양창이나 당성창에도 적용된다. 당성창이 위치한 선장면 獐浦는 노루목과 같이 돌출되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며, 통양창이 위치한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역시 사천만 중앙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쪽에서만 성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3면은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바다에 닿아 있다(김재명, 앞의 논문, 189-190쪽). 六反田豊은 불암창을 김해 조전성으로 보고 있으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六反田豊, 1987, <李朝初期の田稅輸送體制>《朝鮮學報》123, 48쪽).

바다에 닿아 있어 조세를 조운선에 적재하기 편하면서도 왜구가 쉽게 배를 정박시키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가 조전성의 적격지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조전성은 각처의 바닷가에 세워졌으며, 평택 가까이 아산의 선장면에도 당성이라는 조전성이 들어섰다.

조정에서는 조전성이 설치된 지역과 조운선이 지나가는 해로의 요충지에는 만호를 배치하여 호송하도록 하였다.⁶⁷⁾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조운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공양왕 3년, 西江(예성강)에 豐儲倉과 廣興倉을 짓고 배로 실어온 미곡을 저장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은 이 시기의 조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⁶⁸⁾

이렇게 부활된 조운제도는 조선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더욱 체계적으로 보완되었다. 태조는 건국 초기부터 조창을 復設하는 한편, 戰艦과 戍卒의 수를 늘렸다.

G. 전하는 즉위하자 유사에게 명하여 戰艦을 수리하고 戍卒을 늘려서 바다에서의 공격과 육지에서의 방어를 강화한 결과, 왜구는 앞으로 나아가도 약탈할 수가 없고 뒤로 물러가도 얻는 것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왜구는 마침내 멀리 달아나 해운이 트이게 되니, 육로 수송을 하는 내륙 지방의 州郡은 아무리 멀어도 4백~5백 리만 가면 강에 닿을 수 있게 되어 백성들의 노력이 절감되고 나라의 재정이 풍족하게 되었다.⁶⁹⁾

위와 같이 조운이 재개되고, 조창이 복설되어 가자 정부는 군사의 호송 체계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해운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국가 재정은 풍족해졌다. 태종은 박돈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상도 上道 지역을 제외

한 삼남지방의 모든 조세를 조운하도록 하였다.⁷⁰⁾ 조운에 필요한 선박은 해당 군현에서 각각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사공과 격군은 뱃길에 익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私船을 이용할 때 지급했던 만큼의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⁷¹⁾

이후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성종 조에 이르면 9개 조창에서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가 마련한 조운선을 통해 조세를 운송하는 조선식 조운제도가 정착하기에 이른다. 조선식 조운제도는 고려의 조운제도를 계승하였으나 고려의 조운제도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조창은 일종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조창에 소속된 백성들을 동원하여 조세수납과 운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였다. 그에 비하면 조선시대의 조운은 여러 군현의 조세를 지정된 인근 조창에 집결시킨 후 국가가 제작한 조운선과 七般賤役 중 하나인 조군을 활용하여 운송한 일종의 해운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운을 실제 누가 담당했는가를 보여주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H-① 제 기한 내에 출발하였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키잡이(梢工) 3명 이상, 뱃군(水手)·잡인(雜人) 5명 이상이 미곡과 함께 침몰한 경우에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지 않으며 제 기한보다 늦어서 출발하였고 梢工, 水手의 3분의 1까지의 인원이 빠져 죽은 경우에는 그 고을의 官, 色典, 梢工, 水手 등에게 평균하게 징수하게 하였다. …… 문종 33년 정월에 왕이 명령을 내려 국가의 것이나 개인의 곡식을 배로 운반하다가 梢工, 水手들이 파괴·침몰되었다거나 (곡물의 일부가) 물에 빠졌다거나 하는 구

67) 《高麗史》卷56, 志10 地理 淸州牧 天安府.

68) 《高麗史》卷46, 世家 恭讓王 3年 3月 戊戌.

69) 《三峰集》卷13, 朝鮮經國典(上) 賦典 漕運.

70) 《太宗實錄》卷2, 1年 8月 2日 戊午.

71) 위와 같음.

실을 붙여 저희들끼리 나누어 먹은 자들에게서는 모두 그 곡물을 받아 내기로 제정하였다.⁷²⁾

H-② 출항기한이 지나도록 선박이 출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守令의 告身을 剝奪하고 파견원·海運判官을 파직할 것을 논의한다. 기한 내에 선박을 출항시켰어도 上納기한이 지나서 上納한 경우에는 監官·色吏·沙工 및 格軍은 杖 100에 처한 후 定配한다. 漕運田稅를 정월이 되어도 포구로 수송하지 못한 守令 및 선박을 정비하지 못한 判官은 모두 罷黜한다. …… 監官과 色吏가 漕運船에 승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하면 杖 100대, 流 3000리로 처벌하며 이 경우에 해당 守令과 이를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은 파견원은 모두 잡아서 拿問한 후 定罪한다.⁷³⁾

H-①에 의하면 고려시대 조운선에 탑승한 사람들은 梢工, 水手, 雜夫 등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조창의 判官이나 色典이 함께 승선했다는 구절이 없다. 이들은 조운선이 패물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침몰하여 사망한 인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세곡을 나눠먹은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조창의 판관이나 색리들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있다.

반면 H-②에서는 조운의 모든 책임을 지방의 수령이 지고 있다. 사공이나 조졸이 태만하여 제 때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면 실제 책임자는 수령과 해운판관이다. 고려시대의 조운은 조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으로 운송하였으므로 조창민들이 운송 담당자이자 책임자였지만 조선시대의 조운은 국가가 파견한 관리(海運判官, 差使員, 守令 등)

가 국가에 소속된 漕卒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조세를 운송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실질적 책임자는 관리들이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의 조운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창 중심의 조운제도가 점차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다. 조창 중심의 조운제도가 동요되기 시작하자 조선 정부는 기존의 조창 복원에 힘쓰는 한편, 각 군현에 해창을 설치하여 지토선이라 불리는 지방의 중·소형 선박이나 한양의 경강선과 같은 사선, 또는 훈련도감대변선과 같은 국가소유의 대형선박을 동원하여 조운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 지역에는 해창이 설치되고, 각각의 형편에 맞는 조운선이 구비되었다.

평택 지역의 경우 평택에는 해창없이 읍창만 30칸이 설치되었으며, 직산현의 월경지인 안중에 안중창(안중읍 대반 3리 창말), 경양면 지역에 경양창(팽성을 노양리), 진위현 지역에 진위 해창(海倉- 고덕면 해창리), 양성 해창(청북면 삼계리)이 설치되었다.

안중창은 창고건물 8칸과 좌기청 4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면으로부터 60리 지점에 있었다. 경양창은 창고건물 13칸과 좌기청 6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양포 변에 있었다. 이들 해창은 대체로 안성천과 진위천 주변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유사한 루트를 거쳐 한양에 이르렀다. 《여지도서》에는 각 해창에서 한양에 이르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I-① (진위) 정월에 수봉하여 4월에 배에 갖춰 신고 해창 수원 광덕포, 아산 당포, 수원 영웅대해, 남양 도리대해, 인천 팔미대해, 영종 손도항(손돌목), 강화, 통진, 김포, 고양 행주, 양천포를 거쳐 20여 일 만에 경강군자감에 상납한다.⁷⁴⁾

74) 《輿地圖書》京畿道 振威 田稅.

72)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漕運.

73) 《大典會通》卷2, 戶典 漕轉.

I-② (양성) 해마다 2월에 수봉하여 3월에 배에 실어 본현의 해창 옹포에서 발선하여 강화 해로를 경유하여 용산강에 도착하는데 수로로 계산하여 순풍이면 5일이면 도착한다.⁷⁵⁾

I-③ (평택) 2월에 수봉하여 3월에 배에 갖춰 신고 노산포로부터 출발하여 영웅해, 도리해, 팔미해, 황무포, 연미정 바다를 거쳐 경강 광흥창과 군자감 별영에 나누어 납부한다.⁷⁶⁾

I-④ (직산) 정월에 수봉하여 이월에 (경양포에서) 발선하여 영웅수로를 거쳐 서강에 들어가 10일이면 경창에 도착한다.⁷⁷⁾

광덕포, 옹포, 노산포, 경양포 등이 매우 유사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20일에서 최저 5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각각 많은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9세기에 기록된 조행일록에는 강화도에 도착한 이래 물때를 맞추느라 많은 날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실제 거리로는 고려시대 조운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일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평택지역에 설치된 해창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 소개한다.



그림 4) 경양창



그림 5) 진위 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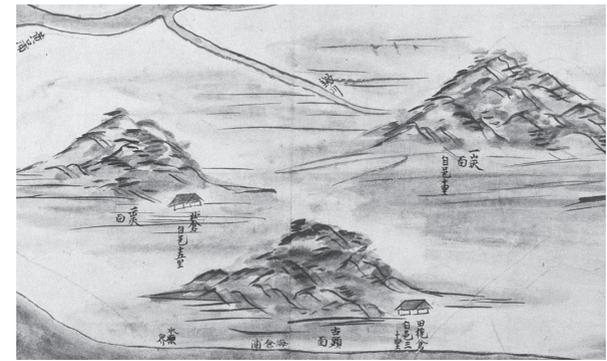


그림 6) 1872년 지도의 진위 해창

먼저 그림 4)은 경양창의 위치를 보여준다. 망해산 봉수대 아래 둔포천(탁천) 가까이에 창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그림 6)은 진위 해창의 위치를 보여준다. 역시 나지막한 산을 뒤로 하고, 경양포구라고 기록된 안성천 가까이에 해창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옆의 갈원주막은 평택시 칠원동 일대이다.

75) 《輿地圖書》京畿道 陽城 田稅.

76) 《輿地圖書》忠淸道 平澤 田稅.

77) 《輿地圖書》忠淸道 稷山 田稅.

5. 맺음말

평택은 고려 하양창이 설치되었던 해상교통의 요지였다. 하양창은 고려 13조창 중 가장 늦게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창이다. 그러나 다른 고려시대 조창이 그렇듯 하양창도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잊혀졌다. 그나마 다른 조창 설치 지역에는 창터와 관련된 지명이라도 남아있지만 하양창터는 물론, 그 뒤를 이어 설치된 경양창 조창도 어느 곳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평택 지역의 역사에서 아주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닷가의 교통이 발달한 지역 대부분이 그랬듯이 평택 역시 바다와 함께 크게 번성했다가 해상 교통이 힘을 잃으면서 그 역할이 줄어든 지역이다. 그러나 21세기는 다시금 해양의 세기가 되어 가고 있다.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바다에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양의 세기를 맞아 평택지역이 전근대 시대 해상교통의 발달과 함께 조운의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양창과 관련된 유적의 조사와 발굴을 시작하고, 각 지역에 남아있는 해창 관련 유적들을 정비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의 평택의 저력과 지역민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의식 정도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평택에서의 한국전쟁과 미군기지 이전

김아람/한림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전쟁기 평택의 피난과 난민정착사업
3. 한국전쟁 이후의 지역 변화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피해는 전국적이었다. 각 지역은 전투나 학살이 벌어지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다. 그 후에는 피난과 복귀, 수용과 정착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전투나 작전에 의한 피해, 정부에 의한 학살, 점령 주체의 변화에 따른 마을 단위의 갈등은 한국전쟁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전쟁의 성격을 보여준다.

전쟁기와 전쟁 후에 지역이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은 각 지역 공간에서 지역민의 일상, 피난민의 이주, 지리적인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고, 전후 복구와 재건은 전선의 변화, 지형적인 특징, 과거의 역사적 경험 등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 단위에서의 전쟁 경험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중앙 정부, 군(軍), 원조기구와 지방 정부, 지역 내 유력자들 등이다. 즉, 한국전쟁이 초래한 사회적 영향과 변화상을 지역 단위에서는 정부부터 전쟁 피해자들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한국전쟁 경험을 복원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실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전후 지역 공간이 여러 면에서 변화하게 된 배경이자 주요한 주제로 평택에서의 이주와 정착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전쟁기 한반도 내에서 대규모의 이주를 발생시킨 소개(疏開)와 피난은 전쟁기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피난한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는 과정은 전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고, 이들의 피난과 정착 문제는 전시 민사 업무와 전후 구호정책의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1952년에 시작한 '난민정착사업'은 전쟁 난민을 농촌으로 복귀시

키거나 배치하여 농지를 만들게 하고 정착시킨다는 목표의 구호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가 협력하여 미개간 토지를 알선하고 단기의 식량과 최소의 주택자재를 제공하여 개간 후 경작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1952년에 시작한 이래로 1960년까지 전국 1,685개 사업장에서 43만 6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¹⁾

전시 민사업무가 남한 전역을 단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이주한 피난민의 정착이 복합적으로 시도되었던 공간이었다. 특히 도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동하거나 정착하는 곳이었지만 농촌은 1950~60년대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재건의 수단으로 삼았다. 난민정착사업을 실행하는 농촌에서는 피난민이 기존 지역에 유입되면서 다른 공간을 창출하였는데 정착을 위한 농지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평택의 한국전쟁 경험으로써 전시 피난과 난민정착사업을 다루고자 한다. 평택은 전쟁기에 경기도에서 주요한 피난 경로였고, 전후 1950년대에 난민정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다음으로는 평택이 다른 지역과 달리 중요한 사례가 되는 몇 가지 점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가 장기간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녔던 한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 여기서 농지 소유권 분쟁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하여 농촌에서의 정착은 국가가 요구하는 과제와 어떻게 결합하거나 갈등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수 있다. 둘째, 미군 주둔지이자 용산 기지

1) USOM(미 대외원조처), The Summary of Statistics of A and R Project in Korea(宋柱仁, <韓國의 難民定着事業과 家內手工業에 關한 考察>),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21쪽, 표 1. '난민정착상황'. 한편, 도시에서도 1957년부터 주택과 가내수공업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난민정착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농지를 조성하거나 정부가 정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난민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므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가 이전된 평택 지역의 특징이다. 평택에서는 1950년대에 피난과 난민 정착사업, 1960~90년대까지 소유권 분쟁, 2000년대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토지 편입 문제가 진행되었다. 평성읍²⁾ 지역은 이 과정을 모두 경험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강제적인 이주를 거듭하였다.

평택의 피난민 정착이 지역에서 발간하는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³⁾ 여전히 전쟁기 정착 과정과 이후 변화를 연속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미진하다. 미군기지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있는데,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당시 주둔 지역 상황, 이전 확정과 지역민의 반대 투쟁, 이전 후의 지역 변화에 대해 각계에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최근에는 평택 기지촌

의 여성과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⁵⁾ 이 논문에서는 난민정착사업에 대해 새롭게 발굴한 미국 자료 및 정부 기록물, 평택 사업장에 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역사 자료, 《평택시사》 등 지역 발간 자료를 활용하여 평택을 통해 한국전쟁과 전후 지역사회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기 평택의 피난과 난민정착사업

1) 평택 지역의 피난과 정착

1951년 1·4후퇴는 대규모의 피난 과정이기도 했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귀 또한 시작되었다. 1951년 봄부터 단시일 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있었다. 피난 지역은 경기도 남단과 대전 이북 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피난 장소는 아산, 둔포(아산시 둔포면), 발안리(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서천, 온양, 논산이었다. 경로는 서울시 성동, 성북, 동대문구, 포천, 가평, 양평, 광주의 난민이 A선(이천-용인-신갈 경유), B선(안성-평택시 안중읍-평택-장호원 경유)으로 이동하고 개성, 문산, 장단, 김포, 영등포의 피난민은 소사-신천리-반월리-수원을 경유하여 평택, 장호원 방면으로 남하할 것으로 정하였다.⁶⁾ 평택은 서울 서북 지역의 피난민이 이동하는 경로였다.

이 경로는 평택으로 들어온 피난민 다수의 출신 지역과도 일치한다. 평택에는 파주와 장단 출신 피난민의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황해도 연백 출

2) 평성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 평택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가 개편 후 평택군 평성면으로 유지되다가 1979년에 평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을 평택시로 확정하며 현재의 평택시 평성읍이 되었다. 평택문화원, 평성읍지편찬위원회, 《평성읍지》, 2010, 166쪽.

3) 평택 지역사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교사 김해규는 마을의 역사를 다룬 여러 논저에서 피난과 정착을 서술하였다.〈평택역사- 42. 한국전쟁의 피난민들〉,《평택시민신문》 2014년 3월 13일.

4) 보고서나 자료집으로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 조사: 최종보고서》, 2006.1; 평택대학교 주한미군 연구센터, 《미군 주둔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및 정책적 함의 : 동두천 및 평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7; 김기수, 《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시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2001년~2005년)》, 2005; 양용동, 《여명의 황새울 :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맞선 평택, 그 4년간의 현장기록》, 평택일보사, 2007 참조. 연구논저로는 강상원,〈지역의 목소리 : 땅은 우리의 목숨!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기록과전망》 6, 2004; 송기춘,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 국민에 대한 균형법 적용의 문제〉,《민주법학》31, 2006; 윤영미,〈전략적 미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의 함의〉,《한국동북아논총》49, 2008; 최승범,〈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토지수용 전 단계를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9-1, 2009 등 참조.

5) 이양구, 〈연극 <일곱집매>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사(生涯史) 구술 자료의 활용〉,《구술사연구》4-2, 2013; 한정우, 〈필리핀 이주 기지촌 여성 '쥬시걸'의 민족지적 연구〉,《여성학논집》31-2, 2014; 김희식, 이인휘, 장용혁,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년-2018년〉,《역사와경계》109, 2018 등 참조.

6) 社會部, 〈1. 救護對策에 新措置〉,《救護狀況月報》5월 상반기 16호, 1951.5.15 (국가기록원 BA0135071).

신의 사람들도 많았다.⁷⁾ 팽성읍에는 노와리, 신대리, 석봉리에 피난민 수용소가 만들어졌다.⁸⁾ 현재 팽성읍 노와4리 경계에 설치된 장단 피난민수용소는 3개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3반에 속했던 마을이 대사2리로 분리 독립했고 신대 1·2리로 발전했다고 한다. 신대3리에도 장단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장단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수용소와 난민 정착사업장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전선이 교착된 1951년부터는 피난과 동시에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기도는 전시에 가장 먼저 원주민의 복귀가 시작되었다. 1951년 2월부터 국회의 결의로 충청도에 있던 경기도민이 복귀할 수 있었다. 평택은 1차적으로 충청도로 피난했다가 복상하는 경기도민이 대기하는 장소였다. 복귀가 가능한 전이 평택 이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평택 서북방인 오성지구에 13만여 명, 서남방 둔포 등지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복상을 기다리고 있었다.¹⁰⁾

또한 평택은 전라도에서 서울, 경기도로 복귀하는 통로가 되었다. 복귀를 위해 복상하는 피난민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귀향 대책을 마련하였다.¹¹⁾ 귀향은 부산-대구 등 피난민이 다수 집결한 도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도착 지역은 '38선 이남 지역에 한하여 비전투지구로서 행정 및 치안 기관이 복귀되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다. 귀향 순서와 방식은 38선 이남 원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38선 이북 출신의 월남민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현주지에 잔류하게 하는 것으로 출신군 또는 단체별로 집단 귀향을 계획하였다. 정부는 제주도와 거제도만 선박을 이용하고 다

른 지역을 도보 귀향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경로 또한 부산-서울 간, 대구-서울 간, 호남지구-서울 구간을 지정하였는데, 평택은 호남지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로의 거점이 되었다. 이 길은 이리-논산-부여-청양-예산-온양-평택-서울로 이어지는 길이었다.¹²⁾

평택은 한강 이북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열차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1952년 5월에 피난민의 한강 도강이 일부나마 허가되어 경기도에서는 한강 북쪽의 농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양, 가평, 양주, 파주, 양평, 6개 군 농민의 농민이 도강 허가가 난 직후에 복귀하였다. 이들의 귀향을 위해서 평택을 출발하여 의정부로 가는 열차가 동원되어 약 5천명이 탑승하였다.¹³⁾

정부는 구호대상자를 감소시키고 1951년 당해 농사를 위해 피난민의 귀향을 유도한 것이었다. 동시에 1951년 봄에 정부의 피난민 구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구호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시 재정 절약과 국민 자력자급 정신의 계몽이 요청된다고 구호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호 원칙을 변경하였다.¹⁴⁾ 정부가 피난민의 구호 부

12) ▲부산-서울 간 : 부산-김해-진영-창녕-현풍-고령-성주-김천-a,b로 분할.

a. 김천-상주-보은-괴산-충주-이천-광주(廣州)-서울

b. 김천-무주-금산-논산-공주-온양-발안리-소사-서울

▲대구-서울 간 : 대구-성주-김천-서울.

13) 〈怨恨의 漢江라인 緩和! 農民五千名移送〉, 《경향신문》 1952년 5월 15일.

14) '노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노유약자, 불구질병자, 병자 및 부녀자만을 구호 대상으로 하여 구호양곡을 무상으로 배급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피난민 또는 전재민이라 할지라도 노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구호대책에서 제외하고 구호양곡을 무상배급하지 말 것, 단 수입의 방도가 전무한 자에 대하여는 구호양곡의 무상배급을 실시하되 지방 실정에 즉응(即應)하여 청소, 도로, 교량수리 등 기타 공공작업에 종사하는 자에만 한하여 규정에 의한 무상배급을 실시토록 적절히 지도할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원칙 상 배급을 위해서 '절대요구호대상자'의 통계를 작성하고 무상배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社會部, 〈1. 救護對策에 新措置〉, 《救護狀況月報》 5월 상반기 16호, 1951.5.15 (국가기록원 BA0135071).

7) 이북도민회 경기도연합회 평택군지회, 《망향반세기-서해안 평택에 정착-》, 1993, 252~356쪽.

8) 평택문화원, 평성읍지편찬위원회, 《팽성읍지》, 2010, 166~167쪽.

9) 〈마을-평택의 마을〉, 《평택시사》, 2014 (<http://sisa.pyeongtaek.go.kr>).

10) 〈南下한 避難民北上開始〉, 《동아일보》 1951년 2월 6일.

11) 〈歸鄉은 徒步原則〉, 《동아일보》 1951년 2월 14일.

담을 감쇄시키는 방법으로 피난민의 복귀가 이루어졌고, 평택은 서쪽 방면 복귀의 거점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2. 난민정착사업의 사례들

난민정착사업은 전쟁기에 한국 정부와 유엔군이 합작하여 추진하였다. 사업을 관장한 기구는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였다. UNCACK은 1953년 7월 1일에 한국민간원조사령부(KCAC)로 흡수되기 전까지 민간 구호와 경제 부문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부와의 조정 하에 수행하는 난민의 통제와 구호는 UNCACK의 핵심적인 업무였다. UNCACK의 구호사업은 한국민간구호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 원조의 구체적인 실행이기도 했다.¹⁵⁾

정부와 UNCACK은 1952년 3월에 한미합동정착위원회(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를 결성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였다.¹⁶⁾ 사업 방식으로는 농지 관개가 가장 높고, 농지 개량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다른 도 보다 특히 사업 요구가 높아서 농림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 농지 1,300정보에 정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사업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던 농지 관개 및 개량 사업이 정착사업장으로 적절한지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또는 지역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임을 살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는 점,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지적되며 부적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⁷⁾

전쟁 후반기에는 피난민의 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앞두었던 1953년 6월에도 28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가장 많은 규모인 91만 여명이 있었다.¹⁸⁾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주지가 복귀가 아니라 ‘수복지구’나 신규 지역에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였다.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는 정착사업을 전 국가 차원의 운동(Resettlement Campaign)으로 삼고 피난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사업의 원칙으로 강조하였다.¹⁹⁾

평택은 경기도에서 난민정착사업의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었다(표 2)). 사업 방식은 크게 분류했을 때 농업과 염전 조성으로 나뉘지만, 농업의 세부 지목으로 보면 하천부지, 황무지, 임야, 황연지, 귀속농지로 다양했다(표 1)). 표 1)과 표 2)를 통해 평택 내 난민정착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두 자료 상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그림자 표시)이 있고, 대표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약 1만 1천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1,700여 ha의 농지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평택시사》(2014)의 각 마을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도 마을에서 사업으로 피난민의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5) 전쟁 시기 UNCACK의 조직 변화와 기능에 대해서는 김학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2010, 선인, 295, 305~515쪽 참조.

16) RG 554, Entry 125,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Subject Correspondence Files 1952 series, Report of the Nineteenth Meeting of the 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1952.8.22(이하 회의록은 같은 파일).

17) RG 554, Report of the Eighteenth Meeting of the 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Annex B. 1952.8.7.

18)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2.7.1.-1953.6.30, p.9,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3(source: UNCACK).

19)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7, 262쪽.

표 2) 경기도 난민정착사업장일람표(1959~1960)

연번	시군	읍면	동리	세대수	인원수	대표자	사업종류
1	평택	팽성	신대	150	915	이석경	염전
2	"	"	석봉	70	415	이흥기	"
3	"	"	도두	120	665	변완식	"
4	"	오성	창내	200	1,060	김춘용	"
5	"	포승	원정	140	874	이강환	"
6	"	"	(희곡) ²¹⁾	130	780	이강균	"
7	"	청북	삼계	120	662	주용규	"
8	"	포승	홍원	380	2,242	차연홍	농업
9	"	서탄	마두	125	742	김형재	"
10	"	평택	통북	70	417	강승업	"
11	"	"	고잔	100	550	강석관	"
12	"	고덕	지곡) ²²⁾	150	895	심송영	"
13	"	현덕		150	900		"
소계				1,755	10,217		
14	김포		13개	1,876	7,652		
15	부천		9개	887	5,096		
16	파주		7개	1,053	6,090		
17	화성		4개	671	4,119		
18	강화		4개	518	1,110		
19	여주		3개	456	2,452		
20	안성		3개	125	698		
21	광주		3개	217	1,202		
22	웅진	백령	2개	400	2,110		

23	고양	송포	대화	300	1,890		
24	양평	청운	비룡	17	90		
25	양주	주내		180	1,050		
26	인천	선학		38	228		
27	시흥	수암		50	300		
계				8,683	45,203		

비고: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에 소장된 문서 자체에 중복 페이지가 있으므로 일부 사업장이 누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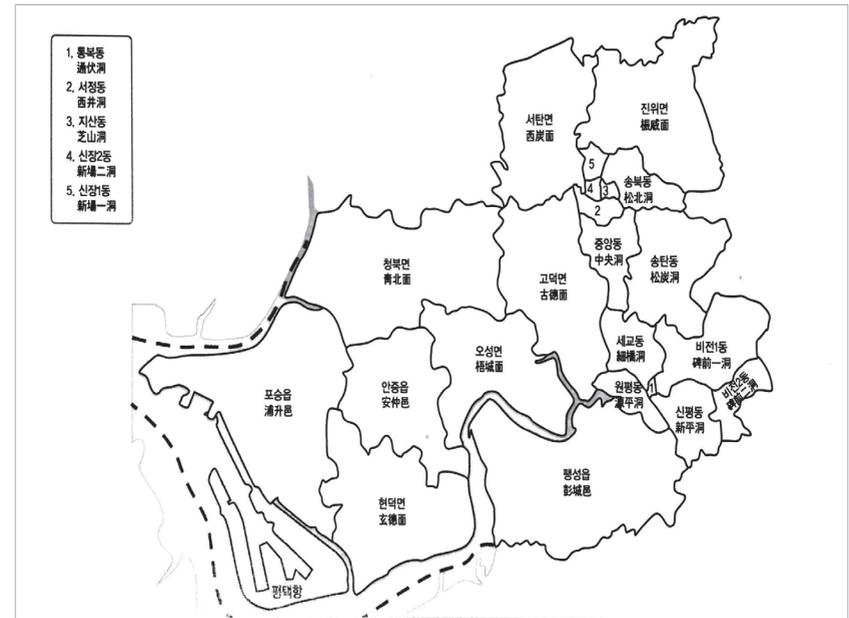


그림 현재의 평택시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권》, 2014, 362쪽)

20) RG469,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 1955 - 11.03.1961 [Entry P 319], (33) Resettlement & Assimilation 489-81-270 (Documentation) FY 58, Allocation of Earth Machine and Utility Mixers for the Resettlement and Assimilation Program, 1961.9.14.

21) 자료상으로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마을 자료 상 희곡리로 추정된다.

22) 문곡리의 오류로 보인다. 문곡 4리의 자연지명은 신흥동이다. 신흥동은 1956년 신흥동과 개미새터 사이 피난민들에 의해 간척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간척 주체는 파주 피난민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신흥동에서 개미사이의 간척지를 간척해 경제기반으로 삼았다.

먼저 표 1)에서 확인되는 마을을 보면, 팽성을 추팔리는 전쟁이 끝난 뒤 본래 국유지여서 면에서 관리했던 ‘면산面山’에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정착하면서 2리가 만들어졌다. 마을 이름도 ‘면산마을’이다. 신대리는 영창(2리), 장단(3리)에 피난민과 충청도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한 마을이

다. 석봉리는 해방 전후의 인구가 흑석, 원봉 두 마을을 합쳐 30호가 약간 넘었는데 전쟁 때 마을 입구에 피난민수용소가 생기고 타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인구가 늘었다. 흑석리의 새터는 전후 수용소에 있던 피난민이 안성천변의 하천부지를 간척하여 만든 마을이다. 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노와리에도 피난민의 집단 이주로 노와4리가 형성되었다. 이곳에 온 피난민은 경기도 장단, 파주 출신들로 전쟁 당시에 서울 수색동에 정착했다가 1955년에 약 50세대가 노와리로 이주하였다.²³⁾

오성면에서는 창내리가 정착 지역이었는데, 전쟁 후 피난민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빈농들이 개척단을 조직해 간척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창내리는 ‘뚱창내’라고 불릴 만큼 생활환경이 힘들었고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됐다.²⁴⁾

평택 시내에도 피난민의 정착 마을이 생겨났다. 현재의 비전2동 한빛선경경남아파트 주변에 있던 마을을 피난민촌 또는 문화촌이라고 한다. 피난민촌은 일제 시기에 ‘외집메’ 또는 ‘세집뫼’라고 불렸고 낮은 구릉 사이에 초가 두세 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전쟁으로 피난민과 근처의 빈농이 모이고, 1960년대에는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일궈다. 피난민촌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향이 모두 달랐는데, 선경·경남아파트 주변의 피난민촌, 동일공고 뒤쪽의 전라도촌,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에 있었던 당재로 나뉘어졌다.²⁵⁾

포승읍에는 원정, 희곡, 흥원리에 피난민이 정착하였다. 원정리 진등은 마을 남쪽 긴 능선에 형성된 마을이다. 본래 마을이 없다가 전쟁 후 피난민이 마을을 일구었다. 원정6리 여술은 몇 호 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가 피난민의 정착으로 마을이 커졌다. 희곡3리 일자촌의 자연마을

통뿌리 일대가 간척된 것은 전쟁으로 간척되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전쟁 피난민과 마을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로 나온 밀가루를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간척사업을 했다고 전한다. 흥원리 일대는 일제 시기부터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호구진 동쪽에서 청북면 고잔리로 이어진 갯벌을 수레를 동원해 간척했지만 실패했고, 일제 말기에 덕우리의 대지주 이강세가 주민들을 동원해 시도한 간척도 물살 때문에 실패했다. 한국전쟁 뒤 정부가 황해도 연백지역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간척을 시도해 성공했고, 남양만방조제가 완공된 뒤에는 경작지가 확대되어 충남 대청댐 수몰민들까지 정착했다.²⁶⁾

서탄면은 마두2리가 피난민 정착촌이다. 1952년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난민 125호가 연백난민 정착촌(사업소)을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당시 마을 주변에는 적산농지 36만 평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1호 당 3천 평씩 임대해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피난민들은 3년 동안 구호품으로 연명하며 개간에 성공했다.²⁷⁾

청북면은 고잔리에 여러 마을이 정착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마을 기록으로는 고잔6리가 남겨져있다. 이곳의 ‘혁명촌’이 피난민들이 형성한 마을로 농골이라고도 부르는데, 혁명촌이 자연마을로 독립된 것은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이다. 마을이름도 당시 쿠데타 명칭을 빌려 ‘혁명촌’이라고 지었다. 삼계5리는 신영촌이 피난민 마을로 ‘개발단’이라고도 부른다.²⁸⁾

이처럼 평택은 피난 경로의 거점이자 피난민의 주요 정착 지역이 되었다. 여러 마을에 정착하게 된 피난민에 의해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하천을 간척하거나 임야와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농지를 조성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난민이 정착한 후에 마을은 농지를 둘러싼

23)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권》, 2014, 370~385쪽.

24)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66쪽.

25)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57쪽.

26)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07, 413~414, 416~417쪽.

2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37쪽.

2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77~478쪽.

격변에 놓이게 되었다. 팽성읍 신대리의 사례로 보면, 농지 소유권자의 등장과 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가 결속하여 저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마을은 소실되었다.

3. 한국전쟁 이후의 지역 변화

1) 팽성읍 농지 소유권 분쟁

전쟁기부터 실시되었던 난민정착사업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사업장에 조성된 농지에서는 경작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사업으로 토지 개간이 완료된 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1950년대에 난민정착사업은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 원조물자를 공급받아서 개간과 간척이 진행되었으나 등기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였다.²⁹⁾ 피난민이 개간한 농지는 보건사회부의 지시에 의해 면에서 제공하여 경작권을 확보한 국유, 귀속, 사유의 황무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이었다. 그런데 개간이 완료되자 국유나 귀속토지의 연고를 주장하거나 사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³⁰⁾

1962년 7월에 이북5도지사들은 ‘난민 토지 분쟁에 관한 진정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다. 정착한 피난민과 원주민 또는 지주 사이의 소유권

분규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개간촉진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조정 절차 및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난민정착사업이 1953년 이래 9년간 약 150,000여 세대 763,000명이 당시 1,095개 사업장에서 황무지, 간척지, 국유임야 33,000여 정보를 개간 완료하였는데³¹⁾ 이 개간 완료 토지 중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소유권자의 소유권 반환 또는 경작료 청구가 이어지고 있었다.

보건사회부는 진정서를 토대로 농림부에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정착사업 당시에 사업장 토지에 대한 군수·읍면장의 주선 또는 지주의 임의 사용 승인이 있어서 개간을 시작하였는데, 농토가 조성된 후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다수 정착 피난민들이 다시 “노두(路頭)에서 방향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적 혼란을 막고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면을 고려”해달라며 대책을 제안하였다. 사업장에 개인 경작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개간촉진법 상에 개간 경작지를 삽입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착 피난민들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여 연부 상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또는 국공유 임야지를 피난민들에게 불하 조치해 줄 것이었다.³²⁾ 보건사회부에서는 문제가 야기되자 전국에 난민정착사업장의 토지 분규 여부를 조사하였다.³³⁾

그러나 농림부는 보건사회부가 요청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난민정착사업으로 이미 개간된 지역은 개간촉진법의 개정으로 조치하기 어

29) 1950년대 말부터 개간 완료된 지역에서 분규가 있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송포면의 하천부지 60여 만평을 이북 출신 난민이 개간하였으나 보건사회부와 경기도에서 27만평을 원주민과 38선 이남 ‘미수복지구’ 난민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이들 사이의 유형 사태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되었다. <春耕期 농칠 60萬坪>, 《동아일보》 1959년 4월 7일; <사설: 高陽의 耕作權 싸움을 善處하라>, 《동아일보》 1959년 4월 8일; <“開墾農土 뺏지말라” 北韓難民 議事堂 앞서 示威陳情>, 《동아일보》 1959년 5월 11일.

30) 呂重鉉(전 난민정착사업중앙연합회 부회장), <開墾農地紛糾의 問題點 難民定着事業의 境遇>, 《경향신문》 1962년 11월 23일.

31) USOM(미국 대외원조처)의 자료에서는 1,685개 사업장, 7만8천여 세대, 43만 6천여 명으로 집계하여 차이가 있다. 宋柱仁, <韓國의 難民定着事業과 家內手工業에 關한 考察>,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21쪽, 표 1. ‘난민정착상황’.

32) 보건사회부장관, <정착난민 토지분규 미연방지 협조 의뢰>,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조성과, 《귀농정착관계철》, 1962.7.27 (국가기록원 BA0132517).

33) 전라남도, <난민정착사업장토지분규조사>,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난민정착사업관계철》, 1962.8.6. (국가기록원 BA0052447).

렵고, 사유 미간지(未墾地)는 개간 허가의 우선권이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정착민에게 개간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삼아 토지매수대금을 융자하고 피난민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³⁴⁾ 농림부가 개간촉진법을 입안하였고, 농지 개간과 이후 분규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 부처였으나 난민정착사업은 여전히 구호사업으로 취급되어 보건사회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소유권을 인정받을 법령의 제·개정이 난망한 상황에서 피난민 측의 요구 수준도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난민정착사업중앙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여중현(呂重鉉)은 법적인 대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할 것과 고가의 지대 또는 소작료의 제재를 제안하였다. 피난민 측에서 지주에게 현실적인 보상방법을 제시하여도 지주 측에서 터무니없는 지대나 소작료를 요구하며 부당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분쟁에 관한 제도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간촉진법은 개정되었지만 미개간지의 개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기존의 개간된 토지에 적용될 내용은 없었다. 최초 개간촉진법은 개간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개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미간지로서 1단지 30정보 미만의 국유 또는 자기 소유지도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³⁶⁾

34) 농림부장관, <정착난민토지분규 미연방지 협조 회시>,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조성과, 《귀농정착관계철》, 1962.8.16 (국가기록원 BA0132517).

35) 呂重鉉, <開墾農地紛糾의 問題點 難民定着事業의 境遇>, 《경향신문》 1962년 11월 23일.

36) 소유권 등기가 미필 중이어서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 분배를 받은 자, 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를 불하 또는 양여 받은 자, 귀속재산처리법과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해 토지 불하를 받은 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개간 허가의 1순위인 영세농가는 '영세농가 및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할 농가'로 변경하였다. <개간촉진법> 법률 제1392호, 1963.8.14, 일부개정. 제6조 제3항 신설, 제9조 제1호 개정.

난민정착사업장의 농지 분규는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합의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는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다. 팽성 사업장은 하천 매립 후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기존 지주의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정착한 피난민은 소작인이 되었다.

팽성읍(당시 팽성면) 도두리와 신대리 일대의 '신대자조정착사업장'은 1954년 5월 13일에 승인을 받고 '복귀불능 난민정착'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식민지기부터 몇 차례 이주를 경험한 피난민이 들어왔다. 이들 150세대는 경북 월성 또는 영천에서 태어나 1930년대에 일제의 수탈을 피해 강원도 철원 등지로 집단 이주했었다. 해방 후 전쟁이 발발한 후 피난하여 영천으로 돌아왔으나 고향에서의 생활도 어려웠다. 동향 출신으로 평택에 있던 이석경, 정석준이 정착사업을 추진하며 150세대 750명이 신대리, 도두리 일대에 오게 되었다.³⁷⁾

이 사업은 150정보의 안성천 갯벌을 막는 사업으로 1954년 5월 1일부터 2년을 기한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 승인한 조건은, 2년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기한 후에는 일체의 구호물자 배급을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토지는 정부에서 양여(讓與)하여 세대 당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³⁸⁾ 195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4년 여 공사 후 3km의 제방을 쌓아 간척하였고, 그 후 6년여 동안 토지의 염분 제거와 매립, 고르는 작업을 거쳐 농지를 조성하였다. 1963년 9월 세대 별 3000평 썩의 농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10월에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미국 대외원조처) 관계자, 평택군수가 참석하여 '자립선언식'을 치르며 구호는 중단되었다.

37) 유재문 외 146명, <진정서>, 《대양학원,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및 도두리 주민 간 토지소유권분쟁 관련 자료》, 1995 (국사편찬위원회 06-경기-평택-팽성읍-개인1-001),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문건은 동일한 문서철임.

38) <복귀불능피난민 정착사업 실시 승인의 건> 1954.5.17, <확인원>, 1955.4.

그러나 간척된 농지의 소유권은 매립 이전의 하천 지주에게 넘어갔다. 지주는 학교법인 대양학원(大洋學園, 구 수도여사대, 현 세종대학교 재단)이었다. 대양학원은 1949년 윤희태(제2대 이사장)로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던 이 토지를 기증받고 재단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양도되었을 당시 지목은 임야, 하천이었다. 난민정착사업장으로 승인될 당시에 소유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개간 이전에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없었고, 지방 정부가 사업장 대상 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소유권자 역시 개간을 묵인했거나 토지에 무관심하다가 개간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며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피난민에 의해 간척된 농지에 대해 대양학원은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청구하였고, 농민들은 거부하였다. 1964년 난민대표 등 9명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한 농민에게는 별도의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재판의 쟁점은 토지가 간척 전에 바다에 포락되었는가 여부였다. 재판부는 토지가 포락된 바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고, 1심 판결이 고등법원(1967년 11월), 대법원(1968년 4월)에서 유지되었다. 판결에 따라 농민들은 대양학원에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다. 농민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였다. 대양학원이 생산량 30%의 소작료와 재단의 생산량 책정을 시행하자 농민들이 수용하지 못하였고, 1970년대에 대립은 계속되었다.

농민들은 1981년에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정부와 경기도는 11월 대양학원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해당 토지가 바다 포락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946, 1948, 1967년 항공사진, 1954, 1955년 당시 사업 승인서, 면장의 포락 확인서 등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1984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1985년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도 기각되며 법

적 논쟁은 종결되었다.³⁹⁾

그러나 농민이 토지를 계속 경작하는 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농민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 당시 평택 이외에도 영암, 서산, 고창 등 10개 토지분쟁 지역의 농민들이 전국협의체로 '토지무상양도 전국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토지분쟁이 중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⁴⁰⁾

팽성읍 농민들은 상경하여 대양학원에서 농성을 하였다. 농민 50여명은 1987년 11월 17일부터 65일간 이사장실에서 농성을 하였다. 농민들은 평택군에서 농지구입자금 용자를 주선한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하였지만, 서울 농성 중에도 재단이 농민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더욱 안하무인격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⁴¹⁾ 농성을 푼 농민들과 대양학원은 평택군수의 중재로 매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농민들은 간척 노동의 대가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가격에 반영되기를 바랐고, 대양학원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협상했기 때문이었다.⁴²⁾

농민들은 팽성으로 돌아와서 재단 직영 농장에서 농성하며 직접 영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39만여 평 중 대양학원이 11만평을 자영하고 있

39) 유재문 외 146명, <진정서>, 1995; <10년의 피땀 水泡化>, 《경향신문》 1966년 5월 31일; <억척으로 싸워 일군 40萬坪 허무하게 빼앗겼다>, 《경향신문》 1981년 3월 13일.

40) <생존권싸움 '토지분쟁' 잇따라>, 《한겨레》 1988년 7월 29일; <농지분쟁 공청회 내용 땀흘려 개간한 땅 박탈 부당 불리한 소작조건 생존 위협>, 《한겨레》 1988년 11월 30일

41) 도두지구 토지반환 대책위원회, <토지반환소식> 창간호, 1988년 5월 26일; <世宗大땅 경작농민 65일 만에 농성 풀어>, 《동아일보》 1988년 1월 21일.

42) 유재문 외 146명, <진정서>, 1995.

있기 때문이다. 1988년 3월부터 마을 내 대양학원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87년도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며 6개조로 나뉘어 2개월 간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한 ‘도두지구 토지반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식지를 발행하여 상황을 공유하였다. 5월 15일에는 평택 시내에서 집회를 추진하였는데, 정부의 저지로 팽성읍에서 진행하였다. 이 집회에는 팽성읍 내 7개 마을 농민 120여명과 농촌 봉사를 위해 현지에 온 대학생 등 340여 명이 참여하였다. 마을에서 10km 떨어진 평택역 광장으로 출발했으나 시계 2km 전방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면서 8명의 농민과 5명의 대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대책위에서는 “농민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최루탄을 마구 던지고 곤봉으로 농민과 학생들을 때렸다”며 경찰의 저지에 분개하였다.⁴³⁾ 농민들은 학원 이사장 부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 점거 농성, 세종호텔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당시 농민들의 요구는 토지 무상양도였다. 농민들은 주장한 근거는 첫째, 난민을 영구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가 조성되었고 난민의 노력으로 개간하였다, 둘째, 개간 당시 재단에서 개발 대가를 지불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셋째 1970년대까지 재단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재단 재산관리 대장에도 개간 10년 후인 1964년에 등재하였다, 넷째, 바다에 포락되어 있는 농지여서 1950년 농지개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고, 개간 이전에 어장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었다.⁴⁴⁾

농민 측에서는 토지 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었다. 국가가 권리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에 대해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고, 소유권까지 인정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43) 도두지구 토지반환 대책위원회, <토지반환소식> 창간호, 1988년 5월 26일; <耕作땅 매각움직임에 항의 農民·대학생 격렬 시위>, 《동아일보》 1988년 5월 16일; <농민·대학생 4백명 시위>, 《한겨레》 1988년 5월 17일.

44) 평택 도두지구 토지반환 대책위원회, <농성소식> 제4호, 1988년 12월 9일.

“국가의 조치를 믿은 국민의 신뢰는 얼마나 보호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⁴⁵⁾

농민들은 1995년에 정부의 토지 매수 후 무상양도 또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대토와 이주 및 정착 비용 제공을 진정하였지만,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가평균 상면 상동리 일대 도유지 338만여 평을 대양학원에 매각하는 대신, 대양학원은 도두지구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되팔기로 협약하였지만 가격차가 커서 성사되지 못했다.⁴⁶⁾

경기도는 1997년에도 경작권과 임대료에 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대양학원 측 재산 상 손실 초래 않는 범위 내 해결”로 정하고 있었다.⁴⁷⁾ 검찰에서는 이 합의를 통해 “최소 3년 간 분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⁴⁸⁾

농민들은 계속해서 결의대회나 진정서를 통해 대양학원과 정부에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 결의대회에는 도의원도 참석하여 농민들이 양보안

45)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진정서>, 《대양학원 평택농장 분규 관련 양측변호사간 계약조항 합의 동향》, 1997 (국가기록원 CA0330014).

46) 유재문 외 146명, <진정서>, 1995; <평택 도두지구 41만평 소유권 농고 이주농민-대양학원간 분쟁>, 《한국농어민신문》 2002년 1월 17일; 국무조정실, <대양학원과 농민 간 50년 분쟁 타결 합의서 서명식 결과>, 《대양학원》, 2004 (국가기록원 DA0531896).

47)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협약서>, 《대양학원 평택농장 분규 관련 양측변호사간 계약조항 합의 동향》, 1997 (국가기록원 CA0330014).

48)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양학원 평택농장 분규 관련 농민보고대회 결과 동향>, 《대양학원 평택농장 분규 관련 양측변호사간 계약조항 합의 동향》, 1997 (국가기록원 CA0330014).

을 내놔도 재단에도 냉담하다고 지적하였다. 세종대 총학생회장 또한 참가하여 재단을 비판하고 농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추후 서울대 농생대, 경기대, 세종대 학생들도 참가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다.⁴⁹⁾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기도가 분쟁 중재에 나서고 일정한 조치를 하였다. 2000년에 경기도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서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기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였다.⁵⁰⁾ 즉, 난민정착사업으로 국유지를 경작했다면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어서 여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대 사업장은 사유지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세금 면제로 농민들의 개간 노동과 비용이 상쇄될 지는 미지수였다.

경기도의 중재 방식이 농민들의 처지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2002년에 경기도가 '서산간척지 대토'를 제안했고 농민이 수용하면서 농지구입 예산의 188억원을 편성하여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2004년까지 31명만이 농지매입을 완료한 반면 대부분은 담보능력 한계 등의 문제로 융자금 활용이 지연되고 있었다.⁵¹⁾

정부의 중재로 농민과 대양학원의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04년이였다. 이때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는데, 바로 미군기지의 확장과 용산기지 이전이였다.

2) 미군기지 이전과 정착민의 이주

평택의 지역민은 미군기지가 형성되며 전쟁기부터 강제 이주를 경험하였다. 1942년 일본해군시설대(302부대)라는 보급 부대가 팽성읍 안정리, 함정리, 대추리 일대에 비행장과 격납고 등을 건설한 바 있다. 미군이 기지를 건설한 것은 1952년부터였는데, 정부가 51년에 안정리 비행장을 미군에 공여하기로 하고 미 공군이 활주로를 확장한 후 K-6미군기지라고 명명하였다. 기지가 확장되며 대추리 마을 주민들은 근처의 곤지나루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신정문 부근의 서정자 마을과 일곱집대 마을 사람들도 인근 마을로 옮겨가야 했다. K-6는 1961년 오산 부근에서 군사 작전 중 헬리콥터 사고로 숨진 미 육군 기술장교인 벤저민 K.험프리즈를 추모하기 위해 62년에 캠프 험프리즈라고 명명하였다. 지역민이 이주한 뒤 부대 앞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⁵²⁾

한미 양국은 2003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을 개정하며 팽성읍 토지 24만 평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결정했고, 2004년에 주한미군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을 이전하기로 확정했다.⁵³⁾ 이에 따라 팽성읍은 기존에 캠프 험프리즈와 부속부대 터로 5.5km²를 제공하다가 현재 14.65km²를 제공하고 있다.⁵⁴⁾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고 용산기지를 이전할 것이 결정되며 대양학원과 분쟁했던 신대·도두 지구도 기지 대상지에 편입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계속되던 대양학원 소유 토지에 대해 2004년 12월 20일에 정부가 중재하여 농민과 대양학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70여명 중

49)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농지 반환을 위한 평택 농민 결의대회〉,《대양학원 평택농장 분규 관련 양측변호사간 계약조항 합의 동향》, 1997 (국가기록원 CA0330014).

50) 〈대양학원 토지분쟁 '종지부'〉,《경기일보》 2000년 1월 4일.

51) 국무조정실,〈대양학원과 농민 간 50년 분쟁 타결 합의서 서명식 결과〉,《대양학원》, 2004 (국가기록원 DA0531896).

52) 평택문화원, 팽성읍지편찬위원회,《팽성읍지》, 2010, 168~170쪽.

53) 평택문화원, 팽성읍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74쪽.

54) 〈[김수환의 리얼웨이] "미군기지 조기반환하라" 왜? 美中 사이 '국익외교' 시동〉,《헤럴드경제》 2019년 8월 31일.

농민 측에서 신대도두지구 대책위원장, 평택농민회장, 도두2리장 등 20명과 대양학원에서 이사장과 총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합의서의 결론은 대양학원이 미군 시설 부지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보상이 20%를 ‘농지간척 및 개량에 대한 변상’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국방부에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또 대양학원의 토지경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해인데, 경작기간을 1년 연장하여 영농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⁵⁵⁾

정부에서는 이 합의가 50년 분쟁을 타결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와 평택시장, 국회의원, 정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농민 측에서도 “가슴에 담겨 있던 한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대양학원 측의 배려와 정부의 중재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농민들로서는 아쉬움도 남을 수밖에 없었다. 신대도두지구 대책위원장은 합의를 수용하면서도 토지를 미군기지로 편입하는 것이 “만아들을 잃어버리는 심정”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농민들이 아쉬운 것은 심정적인 데에만 있지 않았다. 합의 내용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보상 대상은 농지였기 때문에 50여 년 동안 살았던 대지에 대해서는 협상이 된 것이 아니었다. 농지 합의 당시에도 “어떤 형태로든 대양학원 측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도두 2리 주민들이 냈던 소작료였다. 도두 2리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50여 년간 대양학원에 “토지를 꼬박 꼬박 내며 살아왔”고, 이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⁶⁾

이상과 같은 평성 난민정착사업장의 사례로 볼 때, 1950년대에 난민정착사업 대상지를 정부에서 알선하였지만, 농지개혁에 따른 소유권 변동

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난민이 경작권을 보장받아 개간하였고 정부로부터 소유권도 확인 받았지만, 개간 후에 등장한 지주가 고가의 지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하여 피난민들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 정부는 개간을 촉진할 법령과 제도를 구축하면서도 기존에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피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성 사업장의 농민들은 민주화 이후 대양학원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토지 무상양도를 주장하였다. 사법부의 판단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개간의 대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분쟁은 해당 토지가 미군기지에 편입되면서 종결되었지만 피난민 출신으로 정착했던 농민들은 다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평택은 전쟁기에 주요한 피난 공간이자 복귀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전쟁 후 1950년대에 난민정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평성 신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실시 당시 정부의 행정 부재로 인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는 장기간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난민정착사업은 정부가 전후 난민을 구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촌에서 자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사회정책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난민 또한 농지를 조성하고 정착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1950년대에 정부의 의도와 주체의 욕구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개간을 통해 농지가 조성되었고, 단기적인 정착 여부로 본다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성의 농민들은 대형 사학재단 지주의 소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55) 국무조정실, <대양학원과 농민 간 50년 분쟁 타결 합의서 서명식 결과>, 《대양학원》, 2004 (국가기록원 DA0531896).

56) 위와 같음.

이촌향도(離村向都)와 도시 중심의 산업화 과정을 지나면서도 평성에 정착한 농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와 자본에 대응하였다. 국가는 토지를 알선하여 난민정착 사업을 실행한 주체이면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법적 판단과 원 소유권의 보장을 근거로 하여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을 중재하고자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학재단의 이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었고,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장기간의 갈등은 지역 내 미군기지의 확장과 이전이라는 국제적, 국가적 요구에 직면하자 봉합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민은 전쟁기에 이어 또다시 강제 이주를 받아들여야 했다. 분쟁을 합의하는 데에는 당장의 경제적 인 보상이 매개가 되었다. 농민들에게는 과거로부터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았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았던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난과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은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고 국가를 신뢰하였지만 결국 보호받지 못하였다. 국가가 개간과 정착을 목표로 했던 사업에 피난민으로 참여했고, 농민이 되어 그 목표도 이루었지만, 다시 국가에 의해 정착할 수 없었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평택시민신문》, 《한겨레》, 《헤럴드경제》
- 국무조정실, 〈대양학원과 농민 간 50년 분쟁 타결 합의서 서명식 결과〉, 《대양학원》, 2004 (국가기록원 DA0531896).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조성과, 《귀농정착관계철》, 1962 (국가기록원 BA0132517).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양학원 평택 농장 분규 관련 양측변호사간 계약조항 합의 동향》, 1997 (국가기록원 CA0330014).
- 社會部, 〈1. 救護對策에 新措置〉, 《救護狀況月報》 5월 상반기 16호, 1951.5.15 (국가기록원 BA0135071).
- 전라남도, 〈난민정착사업장토지분규조사〉,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난민정착사업관계철》, 1962 (국가기록원 BA0052447).
- 《대양학원, 평택시 평성읍 신대리 및 도두리 주민 간 토지소유권분쟁 관련 자료》, 1995 (국사편찬위원회 06-경기-평택-평성읍-개인1-001).
- RG469,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 1955 - 11.03.1961 [Entry P 319], (33) Resettlement & Assimilation 489-81-270 (Documentation) FY 58, Allocation of Earth Machine and Utility Mixers for the Resettlement and Assimilation Program, 1961.9.14.
- RG 554, Entry 125,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Subject Correspondence Files 1952 series, Report of the Nineteenth

Meeting of the 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1952.8.22.

RG 554, Report of the Eighteenth Meeting of the 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Annex B. 1952.8.7.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2.7.1.-1953.6.30, p.9,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3

경기도 평택시,《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최종보고서》, 2006.1.

김기수, 《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시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2001년~2005년)》, 2005.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2017.

김학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2010, 선인.

宋柱仁, 〈韓國의 難民定着事業과 家內手工業에 關한 考察〉,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1.

양용동, 《여명의 황새울 :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맞선 평택, 그 4년간의 현장기록》, 평택일보사, 2007.

이북도민회 경기도연합회 평택군지회, 《망향반세기-서해안 평택에 정착-》, 1993.

평택대학교 주한미군 연구센터,《미군 주둔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및 정책적 함의 : 동두천 및 평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7

평택문화원, 팽성읍지편찬위원회, 《팽성읍지》, 2010.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권》, 2014.

지역사(地域史)와 평택지역사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지역사와 지역사 연구
2. 독일과 일본의 지역사 연구 사례
3. 평택지역 학술단체와 지역사 연구
4. 평택지역사 연구 성과와 과제
5. 맺음말

1. 지역사(地域史)와 지역사 연구

1) 향토사와 지방사 연구

국내 역사학계가 지역(地域)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중(民衆)이나 아래로부터 역사쓰기에 관심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전후에는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과 역사인식이 대두하면서 ‘지역사’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초기 지역사(地域史)는 지방사(地方史) 또는 향토사(鄉土史)와 혼용되어 사용됐다. 하지만 역사학이 발전하면서 향토사가 ‘고향에 오래 거주하고, 고향을 사랑하며, 지역발전과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텔링’로 정의되고, 지방(地方)이 ‘중앙에 지배 종속된 주변부 또는 정치, 행정적 수직관계’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지방(地方)’보다는 ‘지역(地域)’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많아졌다.¹⁾ 김광철도 ‘지방(地方)’은 중앙의 변두리 영역으로 중앙에 종속된 대칭적이고 수직적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위적, 강제적 구역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을 뜻하는 ‘지역(地域)’이 타당한 용어라고 주장했다.²⁾

역사적으로 ‘지방사’는 18, 19세기 국민국가 형성이나 민족주의운동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왕권강화나 중앙집권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영향 받아 지방(地方)을 중앙(中央)에 종속되고 지배되는 공간으로 이해했다. 그러다보니 중앙(中央)과 다른 지역(地域)만의 이질적이고 미시적이며 고유한 요소들은 부정되거나 중앙중심의 역사에 동화, 종속되기를 강요당했다.

우리나라 지방사 연구는 1980, 90년대 서유럽의 지방사연구 성과를 소

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소개된 사례 중에서도 영국 레스터대학의 지방사학과가 추구했던 지방사(地方史)의 정의와 대상, 방법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레스터학파의 핀 버그가 주장했던 ‘지방사(地方史)란 국가사(國家史)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地方)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은 지방사 연구자들의 이정표가 되었다.³⁾ 핀 버그의 주장을 수용한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방사는 국가사나 민족사의 한 부분으로 전체사를 연구하고 제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다시 말해서 지방사란 국가나 민족사를 돕고 보완하는 역사연구라는 대단히 종속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다.

지방사에 대한 개념,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독일이나 영국의 지방사학자들도 지방사의 학제를 마련하고 역사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 내에서도 중앙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서술을 비판, 반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력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고유한 역사·경제·문화공동체로서의 ‘지역(地域)’보다는, 중앙에 지배되고 종속되는 ‘지방’이라는 인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2) 지역사연구와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지역사(地域史)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정주의식 강화를 위해 지역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지역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유용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권의 지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비전문적 영역에서 연구되던 지역사가 폭넓은

3) 안상준, <독일 지방사 연구의 다양한 지평>,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1

1)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지역사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20, 역사문화학회, 2017

2)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석당논총》35권, 2005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을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연대하여 지역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고, 지역의 전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나 학회⁴⁾가 조직되기도 했으며, 지역학⁵⁾을 표방하며 역사학 뿐 아니라 지역관련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사는 중앙사의 보조적 역할, 거시사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사례연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사나 민족사와 구별되며 지역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갖는 지역사, 사료의 차별성과 분석의 차별성, 해석의 차별성을 갖는 지역사 연구, 지역이라는 다원적이고 혼종적인 삶을 성찰하는 지역연구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계는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우선 양적으로 지역학 연구자들이 많아졌고 연구방법도 다양해졌다. 《수원학 연구》나 《인천학 연구》처럼 지역별로 학술잡지가 간행되기도 했으며, 민관(民官)이 협력하여 전개되는 지역조사와 지역지(地域誌) 편찬도 활발했다. 화성시처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고문헌 번역 및 해제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가하면, 독립운동사연구를 통한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역지(地域誌) 편찬사업도 시사(市史)나 군지(郡誌) 편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읍(邑)·면(面)·동지(洞誌)를 넘어 마을지 편찬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야사에 대한 연구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4) 1994년에 창립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7년의 '역사문화학회' 등이 대표적이다.

5)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학'이 선두주자고 부산학, 대구학, 인천학, 강원학이 등장했으며, 평택시 주변지역에서는 수원학, 천안학, 안산학, 용인학이 뒤를 잇는다.

지역(地域)은 다원적 시간과 문화가 존재하는 삶의 장소이며 공동체와 개인의 행위가 함께 이뤄지는 영역이다.⁶⁾ 그러므로 지역(地域)은 마을, 읍(邑)·면(面)·동(洞)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때론 대륙(大陸)이나 국가(國家), 도(道), 시(市) 등 광역적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반한 한국연구라든가, 서구문명 중심에서 탈피한 아시아의 이해, 제1세계와 구별되는 제3세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예측된 평택이 아니라 평택이라는 고유한 시공간 안에서 평택연구로 개념 지을 수 있다.

근래에는 지역사연구가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다.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앙에 대비되는 지역(地域)'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류 역사에서 생략된 역사, 다원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학'으로 지역사를 정립하려고 노력했다.⁷⁾ 이 같은 관점에서 서 있는 학자로 허영란⁸⁾이 있다. 허영란은 "우리나라는 국가나 중앙의 통제와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지방(地方)이라는 개념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다양하고 이질성이 중첩되는 혼종적인 지역(地域)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생각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가져왔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독재정권 아래서 중앙의 강력한 지배와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 이해에 '중앙(中央)'은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동일한 한반도 내에서도 중앙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지역 별로 다르고,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지형적 조건, 인구와 계층적 조건,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에 의한 획

6) 허영란, 앞의 논문

7) 허영란, 위 논문

8) 울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사의 방법론 정립과 울산지역사 연구에 괄목할 성과를 냈다.

일적이고 일방적인 역사해석은 객관성을 얻기가 힘들다. 허영란도 이 같은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적 관점과 방법이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중앙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혼종적인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 방식의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발굴하고 해석해야 한다. 둘째, 자료분석과 해석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역사를 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중앙사가 참고하는 자료들로 지역을 들여다보고, 중앙사의 해석의 틀을 지역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지방사적 연구방식이고 중앙사의 보완적 연구에 불과하다.

자료(史料)는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매개다. 지금까지 지역연구에 활용됐던 자료들은 중앙적 관점에서 또는 지배층의 관점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 같은 자료는 수량적으로도 많다. 그것은 계급사회에서 뿐 아니라 근대 이후에도 자료(史料)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피지배층보다는 지배층이 다수였고 국가나 행정조직과 같은 중앙적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문헌자료로 지역을 해석하는 것은 과거 그들이 지역과 피지배층을 바라봤던 시각을 답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적 시각, 피지배층의 시각을 입증할 자료발굴이 필요하다.

지역적 입장, 피지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로는 마을자료, 민장문서, 일기류, 구술, 영상, 사진, 생활유물, 생산활동 유물 등 지극히 사적(私的)이고 주관적(主觀的)이며 유동적(流動的)인 민간기록들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민장문서 중에서도 지역의 지배층이 생산한 문헌과 피지배층의 입장을 대변할 문헌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연구에서는 읍지(邑誌)·지리지(地理誌)와 관찬(官撰), 사찬(私撰)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었다. 하지만 비록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방통치기구들은 국가나 중앙

의 통치적 시각, 지배층의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한계를 가졌다. 행정기관이나 지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의 자료와 반대편의 자료도 비판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려면 자료 조사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지조사나 구술조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신문 자료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민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구술을 채록 정리하고, 마을과 민가, 개인들이 소장한 각종 문헌과 유물을 폭넓게 수집 정리해야 한다. 과거에 민간에서 폭넓게 사용됐던 전화번호부나 공공요금 영수증조차도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해석(解析)의 문제는 지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지역사 연구가 비판받아온 이유 중 하나가 해석의 객관성 문제였다. 해석의 객관성은 자료(史料)가 대변한다. 자료적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만이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역사관(歷史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가의 관점으로 과거사실을 해석한 것이다. 역사가들이 관점을 갖고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해석할 때만이 지역사는 체계를 갖고 발전할 수 있다.

이밖에 인접학문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지역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방법이 도입되고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의 인접학문으로는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문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건축학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연구는 이들 학문들의 분야 별 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

2. 독일과 일본의 지역사(地域史) 연구⁹⁾

1) 독일의 지역사 연구¹⁰⁾

19세기 중반까지 지방분권의 역사가 지속된 독일은 지역주의 전통이 강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지방사가 연구되었다. 독일에서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봉건제후국이나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애국적 성격의 역사서나 지방지가 편찬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서는 봉건제후국이나 자치도시의 국경분쟁이나 상속분쟁에 대비한 것인데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사료(史料)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당시 편찬된 역사서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독일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과 19세기 후반의 독일통일운동은 지방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했다. 지역단위로 역사협회가 결성되고 연구자들도 배출되었다. 이 시기에 발달한 독일근대역사학은 국민국가 형성을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내용적으로도 민족의 기원과 성장과정, 민족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9세기 민족주의적 역사연구를 이끌었던 단체는 프로이센학파다. 프로이센학파는 역사주의적 객관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고 승자 중심의 역사서술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 이전 영방국가나 교회령, 자치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부정되거나 소외됐고, 지방사는 중앙사에 종속되었으며, 지방사가 통일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이념적 도구로 역할하게 되었다.

19세기 초, 중반 독일 지방사연구에는 두 계통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

는 전문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향토사(鄉土史)라고 부르는 아마추어리즘적 연구였다. 이들은 수행하는 역할도 달랐다. 전문연구자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의 기원을 해명하고 고고학 발굴이나 고미술품 발굴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며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수집이나 보조학문 습득에 열심을 냈다. 반면 향토사가들은 지방인물 소개, 지역사로 수집, 정리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향토사가들이 편찬하는 역사서는 문헌비판이나 역사관이 뚜렷하지 않고 객관성이 떨어지며 낭만적 서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사가들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방에 보관 중이던 다양한 문헌사료¹¹⁾가 해제됐고 국가나 중앙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하여 역사학의 범주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독일통일은 지방사발전의 전기가 되었다. 독일통일 후 지방정부들은 정치적 자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역사가들을 지방사연구에 참여시켰고 역사협회를 조직해 지방사와 향토사를 전문화, 학제화하도록 도왔다. 19세기 말 제국주의침략정책도 지방사연구의 또 다른 촉매가 되었다. 당시 독일제국주의는 침략정책의 필요성에서 애환운동과 역사교육을 강화시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높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사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강조된 이념은 ‘국민통합’이었다. 독일정부는 국민통합을 내세워 교육과정에 지방사를 포함시켰으며 이것이 지방사연구와 지방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의 국가주의적 역사연구의 대표적인 학자가 램프레히트와 오벡이다. 램프레히트는 문화사(文化史)를 제창했고 이것이 오벡에게 계승되었다. 오벡은 역사지도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물질문화와 경제문화, 대중에게서 나타나는 문화현상을 연구하여 일명 ‘문화공간’이

11) 독일 향토사가들은 공증문서 분석을 통한 수도원의 창립, 도시의 자치정부 구성, 토지소유권 변동과 같은 세밀한 부분들을 정리해냈다.

9) 위 내용은 안상준과 현명철의 논문에 필자의 생각을 담아 정리한 것이다.

10) 안상준, 위 논문

라는 개념을 창출했다. 오백의 연구는 1차 대전 후 독일이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었고, 뒤에 나치정권의 역사정책 및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백의 연구가 나치정권에 활용되면서 지방사연구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고 지방사 연구가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백의 지방사연구는 나치정권에 협력하면서 국가사회주의체제에 협조하고 나치의 침략주의와 인종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차 대전 후에도 과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던 독일지방사연구는 1969년 슐레징어의 산업화와 노동운동사, 인구사, 근대헌정사연구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또 인접학문인 사회과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지방사연구에 자극을 줬다. 사회과학자들은 지방 또는 지역을 '정치적 의미가 배재된 객관화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치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경제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지방(地方)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 시기를 거치며 지방사(地方史)와 지역사(地域史)를 구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일부 독일 역사가들은 '근대의 태동'에 관심을 갖고 인구 변화의 추이, 사회구조의 변동, 경제생활의 변화 등 사회전체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地域)'을 공간적 연구단위로 삼았다. 이를 통해 태동된 독일 지역사는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관심에서 벗어나 문화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관점이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방식과 문화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반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독일 역사가들은 문화(文化)를 '사회적 추체들이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지역의 태동은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지역을 연구하려는 지방사가들과 갈등을 야기했다. 1990년대 발생한 이 같은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간극은 많이 좁혀진 분위기다.

2) 일본 지역사 연구¹²⁾

일본의 지역사(地域史) 연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막번체제(幕藩體制)라는 지방분권적 봉건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에도(江戶)시대에는 번학(藩學)을 통해 막번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번학(藩學)은 번(藩) 중심의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번(藩)의 특수성¹³⁾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시행했다. 번학(藩學)의 발달은 일본의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번학을 통해 지방에서 생산된 주요사건 재판기록과 일기류, 경제관련 사료들이 기록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68년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으로 막번체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탄생했다. 막번체제의 붕괴와 중앙집권화, 향후 일본의 제국주의화는 지방사연구를 약화시켰다. 메이지정권은 번(藩)이 지향했던 지방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비판했다. 또 번학(藩學)을 연구했던 역사가들을 고루한 복고주의자 분파주의자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향토사(郷土史)는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을 연구하기보다 민속자료 수집이나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역할이 규정되었다.

메이지유신은 근세사연구를 활성화했다. 근세사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향토사(郷土史) 보다는 지방사(地方史) 연구가 활발해졌다. 전문연구자들 중에도 지방사를 연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 지방사자들은 '중앙에 정치·행정적으로 예측된 지방, 중앙사를 보조, 보완하는 지방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후대에 비판을 받았다.

지방사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지역사(地域史)'가 태동했다. 일본의 지

12) 현명철 <일본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1, 역사문화학회, 1998

13) 다이묘의 가계(家系)나 가신들의 계보, 번(藩)을 위해 활약한 인물연구가 중심이었다.

역사가들은 ‘민중들의 삶과, 역사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처럼 민중(民衆)이라는 피지배층 중심의 역사연구는 국가주의적 역사연구를 비판하고 객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중앙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민중적 시각에서 지역사회변동을 해석하려고 했으며, 오히려 지역(地域)적 관점에서 국가재비의 모순과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다.

일본지역사연구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전문연구자들이 배출됐다. 연구인력의 확대는 일본지역사연구의 내용과 깊이를 강화시켰다. 2차대전 후 지방자치의 발달도 지역사연구를 발전시켰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적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했으며, 지역관련 사료수집과 지역 문서관을 설립했고,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했다. 또 연구 성과를 결집하여 도지(都誌)·도지(道誌)·부지(府誌)·현지(縣誌)를 발간했고, 그 아래 단위인 시지(市誌)·정지(町誌)·촌지(村誌)까지 발간했다. 지방문서관이 설립되면서 일반인들 가운데 지역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배출된 것도 특징이며, 관광산업의 발달로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근래 일본지역사는 내용과 깊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발전했으며, 지역과 촌락의 역사, 촌락의 조직과 기능, 촌락사회사, 근대이후 농민층 분해, 경제구조의 변화, 지역문화발전 등 분야사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 성과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민을 교육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도 많다.

3. 평택지역 학술단체와 지역사 연구

1) 평택문화원의 역할

앞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地域史) 연구가 발전하려면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지원이 활발해야 한다. 평택지역은 지역사연구 성과에서는 앞서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인력 육성과 문화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자치단체의 역사관련 지원도 체계적이거나 활발하지 못하며, 지역관련 민간학술단체의 활동도 미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평택지역의 학술연구를 선도해온 단체는 평택문화원이다. 평택문화원은 1954년 비인가단체로 설립되었다가 1971년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81년 송탄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송탄문화원이 설립됐고, 1986년 평택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1989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1995년 통합평택시가 출범하면서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평택시문화원이 통합하여 평택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평택문화원은 창립 후 평택지역의 문화유산발굴 및 보존, 지역지 발간, 지역문화유산의 전승 및 기록, 보존, 문화예술교육에 힘써왔다. 지역사적 측면에서 평택문화원의 역할은 지역사료 발굴과 지역지 편찬, 지역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개발을 들 수 있다.

지역지(地域誌) 편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은 군지(郡誌)와 시지(市誌) 발간이다. 군지(郡誌)와 시지(市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사(正史)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평택시가 지원하고 평택문화원이 편찬한 시지(市誌)·군지(郡誌)로는 1984년 《평택군지》, 1994년 편찬한 《송탄시사》, 2001년, 2014년 발간한 《평택시사》가 있다.

또 1999년부터 읍지(邑誌)·면지(面誌)를 편찬하여 현재 6권을 발행했다. 2020년에는 평택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수리 마을지》 간행을 추진하는 등 지역지편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평택향토사》, 《평택의 맥》¹⁴⁾, 《송탄의 민속과 설화》(1993), 《평택의 금석문》(2001), 《평택의 사우·재실·정려》(2003),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2004), 《평택민속지》(2009, 2010), 《평택 인물지》 시리즈를 발간하여 연구인프라 구축과 분야사 정리를 시도했고,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전3권, 2006~2008), 《교운일기》(2009), 《이것이 평택의 토종》(2015),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사람들의 길》 등 개인연구서나 저작물을 출간했다. 이밖에도 평택군문화원이 발간한 《평택문화》, 평택문화원의 《소사별》과 같은 부정기간행물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간행하는 《평택학연구》는 년 1회 간행하는 본격적인 학술지로 향후 평택지역 관련 연구를 수록할 예정이다.

자료조사로는 2014년부터 시작한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학술조사가 대표적이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학술조사는 평택지역 중에서도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을 대상으로 인문지리와 구술조사를 기본 축으로 하고 마을과 민간에 남아 있는 문헌과 유물을 조사하여 연구 보고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 개최한 ‘평택향토사료전시회’와 ‘사진으로 보는 평택근현대사’도 사료의 소재파악과 축적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근래에는 개인 일기류 및 고문헌 발굴과 ‘총쇄록’¹⁵⁾, ‘진교일기’¹⁶⁾ 등 자료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14) 평택문화원 홈페이지(<http://www.ptmunhwa.or.kr>) 참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 오형묵의 저작이다. 1902~1907년 사이 진위군수를 지내며 고을 사정을 정무일기 형태로 썼다.

16) 공립진위소학교에 근무했던 작자미상의 인물이 1907년 11월~1909년 3월 사이에 쓴 개인일기다.

2010년부터 시작한 ‘평택학시민강좌’, ‘평택학학술대회’와 자료집을 발간은 지역사의 대중화와 연구 성과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개최한 지역학술대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택문화원은 이밖에도 ‘시티투어’, ‘평택야행’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택문화원은 지금까지 평택지역사 연구의 큰 축이었고 동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뚜렷하다. 먼저 관변단체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이 약하다. 평택문화원의 재정은 대부분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다보니 평택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지역지편찬에 앞장서고 외연을 확대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지역지발간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많다. 특히 시·군 통폐합 후 발간한 《평택시사》는 출판 목적이나 과정, 결과 그리고 객관성 측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지역의 정사(正史)로서 《평택시사》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쉽다. 향후 편찬과정에서는 편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역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며, 서술의 객관성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읍지(邑誌)·면지(面誌) 편찬과 함께 도시지역인 동지(洞誌), 마을단위 역사서인 리지(里誌) 편찬도 추진해야 한다. 편찬과정에서는 충분한 문헌사료, 민장문서, 마을사료를 수집하고 구술 사료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적 입장, 민중들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

셋째, 사료수집과 번역, 연구, 해제 작업을 통한 연구기반 확충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가 발전하려면 연구할 근거자료인 사료(史料)가 다양하고 풍부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지역사와 관련된 사료는 실록이

나 승정원 일기, 지리지 및 읍지류¹⁷⁾, 고지도¹⁸⁾, 근·현대 신문사료, 일제하 관변자료, 마을사료¹⁹⁾, 민장문서, 학교 및 공공기관 자료²⁰⁾, 시민사회단체 자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개인문집의 지역관련 사료, 일기류²¹⁾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실록이나 지리지·읍지, 관보, 신문사료는 지역 연구의 기초자료에 해당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 여러 기관에서 원문이나 번역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과 객관적 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원은 지역연구 기초자료의 정확한 번역과 해제를 우선해야 한다. 역량이 된다면 관보, 마을문서나 민장문서의 정리도 해야만

17) 문헌사료로는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호구총수, 여지도서, 읍지(邑誌), 지리지(地理志),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관보(官報), 토지관련문서, 지방행정문서, 통계자료, 분야별 관찬(官撰) 서적(書籍)과 문서(文書)와 고지도, 근대지도와 같은 관찬(官撰) 사료가 있고, 사찬(私撰)사료는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각종 문집(文集), 택리지, 산경표, 팽성지, 대동지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편찬사료를 집성한 경인문화사의 한국지리민속지총서도 매우 중요하다.

18) 고지도는 1872년 지방도처럼 정부에서 편찬한 고지도와 읍지 편찬과정에서 수록된 지도가 있다. 지역관련 정보는 정부보다는 지역에서 만든 고지도가 더 많다. 근현대지도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뒤 1916~18년 사이에 편찬된 근대지도와 해방 후 만들어진 근대지도, 항공지도가 있고, 마을관련해서는 1:5,000 지도가 매우 유용하다. 이 같은 지도는 서울 종로의 중앙지도사 등에서 판매한다.

19) 마을사료에는 이동협동조합 사료, 농지개혁관련 사료, 새마을운동 사료, 식량증산이나 경지정리관련 사료, 마을 계(契) 관련 사료, 대동회 문서 등 다양한 사료가 있다. 또 일제강점기 간척관련 사료는 총독부 문서나 신문사료, 민장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한국전쟁과 1970년대 후반 남양간척지 관련 사료는 농촌공사나 피난민정착사업소가 있었던 팽성을 신대2,3리, 포승읍 원정4,5,6리, 흥원1리, 청북읍 고잔6,7리, 고덕면 문곡4리, 서탄면 마두2리 등 여러 마을에 소장되었다.

20) 팽성읍사무소 서고 등에는 농지개혁관련 사료, 귀농정착사업 자료 등이 풍부하고, 농어촌공사 서고에는 1970년대 경지정리, 야산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많다. 교육관련 사료는 진위초등학교나 팽성을 부용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등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초등학교와 포승읍 희곡리 땃골마을의 이계송, 독곡동 수성 최씨 집안의 사료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21) 칠월1동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김기호의 수기와 청북읍 고잔5리 신권식(남, 1929년생)의 '대곡일기'는 마을에서 발굴된 개인사료로 괄목할만하다.

한다. 사료의 정확한 번역과 객관적 정리가 있을 때만 지역사의 객관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문화원은 통사(通史) 발간이나 인물지(人物誌) 편찬에서 범위를 넓혀 지리학,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역사학 내에서도 분야사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연구 성과의 대중화에 노력해야 한다. 평택지역에서는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역할은 미진했다.²²⁾

가장 미진한 부분은 대중서(大衆書) 발간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지역사를 쉽고 바르게 서술한 대중서가 없다보니 지역의 연구 성과들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평택문화원은 평택지역사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 2월 평택문화재단이 설립됐지만 평택문화원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에도 평택문화원이 지역사 연구를 선도하려면 위에서 제시한 것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민간학술단체의 활동

평택문화원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활동했던 본격적인 민간학술연구단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한 민간학술단체를 꼽는다면 사)지역문화연구소 평택분소, 사)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평택박물관연구소가 있고, 2002년 2월 사)지역문화연구소 평택분소를 해

22) 평택문화원이 전개해온 '평택시티투어', '평택학시민강좌', '평택야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폭넓은 계층이 쉽게 지역사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면 도서출판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유튜브나 문화원 홈페이지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산하고 새로 조직한 평택인문연구소가 있다.

사)지역문화연구소 평택분소는 2008년 조직됐다. 하지만 연구조직을 체계화하지도 못했고 연구소의 이름을 걸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지도 못했다. 다만 사)지역문화연구소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몇 번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이 나름의 성과였다. 사)민세 안재흥기념사업회는 지역사 연구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기억과 전승’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연구에 동참했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 2002년 2월 창립한 평택인문연구소는 본격적인 평택지역 인문학연구를 표방했고,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연구자들을 대부분 망라해 향후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런 상태에서도 매 월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와 함께 ‘평택학학술대회’를 개최했고, 평택시 원평동과 연대하여 ‘원평동 역사찾기사업-원평동 근대건축물 소재지 조사 확인 표석설치’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평택시의회로부터 ‘평택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연구’를 수주하여 보고 완료했다. 평택박물관연구소는 지난 2014년 평택지역에 박물관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연구자들이 평택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적합한 박물관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연구회는 그동안 자체 학술세미나와 박물관 답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다. 또 2020년에는 연구위원들이 전국의 박물관을 답사하고 신문에 기고하여 이를 책으로 묶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역사연구단체가 아니다보니 역사연구나 인문학연구에 깊이 참여하지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가 발전하려면 전문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전문연구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껏 이 같은 문제는 자생적인 발전, 연구자 개인의 노력

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지역사연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할 수 없다. 자치단체에서는 인문학관련 연구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연구자들도 학술연구단체를 통한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외부의 전문연구자들과의 연대도 중요하다. 전문연구자들이 지역관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연구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학예사를 배치하여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평택시와 같은 중소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평택시청 문화예술과에 2명의 학예사가 배치되었다. 향후 박물관이 건립되면 3~5명의 학예사가 추가 배치될 것이다. 학예연구사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역사학에 대한 연구수련을 거친 사람들이다.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등 분야 별 전문능력을 갖춘 학예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평택 지역사는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지역대학과의 상호협조와 연대도 필요하다. 평택지역에는 평택대학교와 복지대학, 국제대학 등 몇몇 대학들이 존재하지만 역사학과를 설치했거나 교양학부에 역사전공자를 교수로 배치한 학교가 드물다. 지역사를 연구하거나 지역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대학에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준비나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연대는 양질의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밖에 평택시의회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원시가 ‘인문학도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평택시는 ‘인문학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평택처럼 중소도시에서는 학술발전을 개인의 노

력과 열정에만 의존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연구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수반 되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학술단체는 관(官)에서 조직한 단체보다는 자유롭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 다시 말해서 연구비가 부족하고 성과물을 논문집이나 대중서로 편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힘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본의 경우처럼 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도 적극 나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지역연구 성과와 과제

1) 연구 인력과 연구경향

평택지역사는 역사분야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역사 중에서도 근·현대사연구가 두드러진다. 반면 문학이나 철학(사상사), 사회학, 경제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근래에는 평택농악을 비롯한 민속분야의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어 주목된다.

근·현대사 논문이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 전근대로 갈수록 지역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있다고 해도 중앙에서 기록한 내용의 일부라서 지역적 입장에서 민중들의 시각으로 지역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는 지역관련 논문이나 책들도 양반지배층이 남긴 기록이나 자료를 토대로 한다. 그러다보니 지역민 전체의 삶과 관점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지역 내 지배층의 정치와 사회활동, 삶과 사상만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근·현대는 다르다. 우선 근대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고 근대교육을 받은 계층이 다양해진데다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면서 사료(史料) 생산자들의 수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관변사료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사료들도 상당 수 남아 있다. 무엇보다 마을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마을 관련 사료들도 다수가 남았으며, 해방 전후 시기는 구술조사를 통해서도 민중들의 삶과 생각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로 편중된 연구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근대를 전공한 전문연구자들을 발굴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또한 전근대 사료를 정확히 번역하고 해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역사학에만 편중된 연구경향도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文)·사(史)·철(哲)'을 말하는데, 평택지역도 역사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역사 관련에서도 고고학이나 지리학, 인류학, 민속학 연구는 미진하다.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연구의 토대가 되는 사료(史料)가 부족한 현실에서 연구 분야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외부 전문연구자들과의 연대와 자치단체의 지원, 연구자들의 발로 뛰는 열정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연구 인력의 확대와 질적 성장도 필요한 요소다. 현재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들은 성주현, 김해규, 장연환, 김방, 서태정, 황수근, 임원택, 김용겸, 김일, 임봄, 우대식 등이다. 이 가운데 성주현, 김해규, 장연환, 김방, 서태정, 황수근, 김일은 역사학,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 연구자들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임원택은 대학원에서 기와 문양 등을 연구한 미술사가지만 연구에 한계가 있고, 임봄과 우대식은 등단한 시인 겸 문학평론가다. 구조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절대 다수이며, 역

사학 중에서도 근·현대 전공자들이 다수여서 근·현대에 편중된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 고려사 전공자인 윤한택, 고고학전공자인 이동성 등이 평택지역으로 이거했고, 평택시청에 고고학전공자와 미술사학 전공자가 학예사로 배치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향후 지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전근대전공자, 지리학, 민속학, 인류학 전공자, 정치경제학, 사회학 전공자들도 지역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자들의 활동과 연구 성과

역사학 분야에서 평택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는 앞서 밝힌 성주현, 김해규, 장연환, 김방, 서태정, 황수근을 꼽을 수 있다.

성주현²³⁾은 경기대학교 대학원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근·현대사를 전공한 전문연구자다.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2011~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위원(2012~15), 천도교 종학대학원 교수(2016~현재)를 지내며 천도교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으며 이밖에도 대한제국시기와 일제강점기에 관한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발표했다. 평택지역에서는 평택시사편찬위원(2014),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2016~현재), 평택박물관연구소장(2020~현재)을 지내며 지역지 편찬에 참여하고, 지역신문에 기고하며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주현의 지역관련 저술과 주요 논문이다.

23) 천도교와 대한제국 시기 의병전쟁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을 발표했다. 지역에서는 천도교와 의병전쟁 외에도 3.1운동과 청년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근현대 사료발굴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표1) 성주현의 주요 저술 및 논문²⁴⁾

번호	제목	시기	비고
저술	평택시사, 팽성읍지, 안중읍지, 청북읍지, 포승읍지	2010년 전후	편찬 및 집필위원
저술	교운일기	2009	서문
저술	근현대 평택을 걷다(공저)	2016	평택문화원
논문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2009	소사벌
논문	안재홍의 민족운동과 옥고기록 분석	2011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논문	근현대 평택을 걷다(공저)	2017	평택시민신문
논문	근대 평택지역 행정구역의 개편과 평택의 정체성 모색	2017	국편지역사워크숍
논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청년운동-진위청년회를 중심으로	2018	역사와 교육 28호
논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체육활동 연구	2018	경기학회
논문	이석영과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고찰	2019	평택문화원
논문	평택지역의 2019년 포상된 독립유공자	2019	평택3.1운동선양회

김해규는 총신대학, 공주대학, 한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다. 김해규는 1989년 한광중·고등학교 역사교사로 부임하면서 지역연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향토사 또는 지방사적 연구방법에 의존했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서 지역관련 사료를 찾아내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진위현읍지》, 《평택현읍지》, 《팽성지》, 《고지도》에서 지역관련 사료를 발굴하여 중앙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지역사례들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석사 학위과정을 공부하면서부터 근·현대연구에 눈을 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 사료, 일제하 관변사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를 연구했다. 그러다가 지역사적 연구방법을 고민하면서 마을문서, 민장문서, 구술사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쓰기를 하고 있다. 특히 20년 넘게 진행한 평택지역 구술사료 수집은 마을연구, 민중생활사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 이밖에도 여러 권의 공동저술과 다수의 평택시사 및 읍·면지 편찬, 지역지

24) 성주현 이력서(2020) 참조

편찬에 관여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택의 사라지는 마을 인문 및 구술조사’ 활동, 각종 역사관련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표2) 김해규의 저술과 논문

번호	제목	시기	비고
저술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3권)	2006~2008	평택문화원
저술	평택의 역사·인물·문화	2006	경기문화재단3
저술	평택문화유산길잡이	2007	경기문화재단4
저술	총렬공 이대원	2010	평택문화원
저술	평택역사산책	2013	평택시민신문
저술	근현대 평택을 걷다(공저)	2015	평택문화원
저술	오성면의 역사와 문화-다섯 가지 이야기	2016	오성면사무소
저술	안정리 사람들(공저)	2016	문화살롱 공
저술	주한미군과 평택	2017	평택시민신문
저술	평택사람들의 길	2019	평택문화원
논문	평택지역 향토사연구 현황과 발전방향	2002	평택문화원
논문	평택의 농업과 두레	2004	평택농악보존회
논문	평택지방의 산과 하천 지명	2007	소사별
논문	평택지역의 정체성(正體性)과 지명(地名)	2008	평택문화원
논문	평택지방의 조창(漕倉)과 조운(漕運)	2009	평택문화원
논문	근대도시 '평택'의 성립과 발전	2009	소사별
논문	지역사 연구 방법론	2010	소사별
논문	지역문화연구의 다양한 방식	2011	과천문화원
논문	평택지역의 전쟁유적과 호국인물	2011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논문	평택지방의 역사지명	2011	소사별
논문	'평택학'의 현재와 미래	2014	경기문화재단
논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2014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논문	평택지역 마을제의 형식과 특징	2014	평택학시민강좌
논문	무신 난(1728)과 평택지역 지배세력의 재편	2015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의 간척과 변화	2015	사)지역문화연구소
논문	평택지역 마을과 민속문화의 활용	2016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의 역사지명	2016	소사별
논문	심순택(沈舜澤)과 평택	2017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2017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2019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역 부설과 근대 평택의 형성	2018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마을제	2018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平澤地域)과 마을신앙	2019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경주 이씨 6형제와 평택	2019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향토사, 지역학, 지역학의 미래	2019	경기문화재단
논문	평택지역의 외국인 주둔과 미군	2019	평택시의회
논문	경주 이씨 가문과 평택	2020	평택학 학술대회
논문	평택지역 지리적 특징과 나루·포구의 위치	2020	평택학 학술대회

박성복은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평택지역 초기 언론과 방송을 주도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후 평택시사신문 사장, 평택문화원부설 평택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성복은 언론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향토사에 관심을 가졌다. 문헌자료와 유물수집에 열심이었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지역에서 박성복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민속분야 연구 및 사료(유물) 수집가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사·연구 프로젝트와 학술행사가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을 출간했고, 평택지역 전통예인을 연구하여 《평택의 전통예인》(2016)도 냈다. 최근에는 사진집 《평택 근현대 풍경》을 출간했다.

효명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장연환은 신문기고와 다수의 지역지 편찬에 관여했다. 2018년부터는 ‘평택의 사라지는 마을 인문 및 구술조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근현대 평택을 걷다》(공저)를 냈다.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임봄은 문학 외에도 평택지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평택의 토종》, 《평택새마을운동 50년사》를 저술했다.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우대식은 평택출신의 시인 박석수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고 《주한미군과 평택》(공저)에 참여했다.

이밖에 송탄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간사를 지낸 김용겸은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를 냈고, 진위중학교 교사를 지낸 임원택은 《평택의 사우·재실·정려》(공저)를 편찬했다. 평택문화원부설 평택학연구소 학예사인 황수근은 평택문화원이 주최하는 학술행사, 조사연구 프로젝트, 편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연구를 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연구,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평택지역과 연대하여 지역사를 연구한 학자로는 고 노동은 중앙대 교수, 김인호 동의대 교수, 김인호 중앙대교수, 최자은 세명대 교수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밖의 연구자들도 평택관련 논문들을 발표했다.(인물 중심의 연구 논문은 제외함)

표3) 평택관련 주요 논문

번호	이름	논문 명	연도	비고
1	고도임	한국 전통 농가 안방의 주생활 변화과정 - 1950년대 이후 평택군 오성면의 농가를 중심으로	1992	성심여자대학
2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2018	지역과 역사
3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경제의 근대적 진로-외압주도 경제의 역기능	2016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김영미	평택 대곡일기를 통해서 본 1960~70년대 초 농촌마을의 공론장, 동회와 마실방	2013	한국사연구
5	김아람	피난지에서 미군기지까지, 평택에서의 이주와 정착	2019	역사와 현실
6	김윤학	생성 과정에서 본 땅이름 연구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덕목리, 신왕리	1982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7	김낙기	京畿 남부지역 소재 高句麗 郡縣의 의미	2005	고구려발해연구
8	김도영	안성천 유역 분지의 지형발달의 특색-안성 평택 중심	2011	교원대 석사
9	김주희	한국농촌주민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화-평택의 S마을을 중심으로	2014	비교문화연구
10	김주홍	고려, 조선시대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곶봉수의 역할	2005	평택문화원 학술대회

번호	이름	논문 명	연도	비고
11	김호준	京畿道 平澤地域의 土城 築造方式 研究	2007	문화사학
12	김영미	칠원마을이 최우수 새마을이 된 사연	2009	역사와 현실
13	김희식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2019	서울시립대
14	김희식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 공간	2019	서울시립대
15	김홍환	땅이름에 깃든 이야기-경기도_평택시_서탄면_금암리(金岩里)	1995	대한토목학회지43
16	류은영외	평택 고습지의 구조 및 고환경 연구	2007	지질학회지43
17	박철하	평택지역 삼일운동 배경	2014	민세인재홍기념사업회
18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2016	서강대학교
19	서태정	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2014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	손동인	평택군 현덕면의 전래동화	1983	인천교육대학
21	심영근	평택지구 농촌실태조사보고	1960	농경제학과
22	안혜경	'평택일기'를 통해 본 일생의례와 속신	2011	실천민속학연구
23	안영희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마을숲의 생태적 특성	2009	한국환경과학회지 제18권
24	안영희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마을숲의 식물상 및 식생	2007	한국환경과학회지 제21권
25	오세현	평택시 도시공간구조의 시계획적 특성	2011	경원대 박사
26	양윤주	1960, 70년대 농민의 의식구조와 변화-평택 일기를 중심으로	2016	국민대 석사
27	양정석	고고유적을 통해 본 신라 후기~고려전기 평택지역	2015	신라사학보
28	이경미	평택농악과 안성남사당 농악 비교연구	2011	중앙대 석사
29	이상웅	농촌주택의 주거양식과 의식구조-지제3리 중심	1979	건국대 석사
30	이석길	평택군 팽성읍 기지촌 연구	1985	고려대 석사
31	이정철	평택지역 구석기유물에 대한 예비적 고찰	2010	동국사학48
32	이양구	'일곱집매'에서 기지촌_여성들의 생애사 구술 자료의 활용	2011	구술사연구
33	어영애	평택두레소리와 방개타령의 연구	2013	동국대 석사
34	이용범	평택무속의 일반성과 특수성	2011	한국무속학
35	이정철	평택지역 구석기 유물에 대한 예비적 고찰	2018	동국사학
36	임국평	민주화 이후 평택지역 선거연구	2014	성공회대 석사
37	임미례	농촌지역 소하천 경관의 환경지리적 분석 - 평택시 관리천 사례	2017	교원대 석사
38	장규식	나말여초 서해 항로와 평택	2015	신라사학보34호
39	장정민외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평택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9	평택대학교

번호	이름	논문명	연도	비고
40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갈등과 국내정치 : 평택미군기지갈등 사례 분석	2008	국방연구 58
41	정동화	평택지방의 민요고-현덕면, 포승면	1983	인천교육대학
42	조남석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의 땅이름 연구	1987	건국대석사
43	최문환	평택 자미산성 출토 막새 연구	2012	신라사학보24
44	최성은	평택 심복사(深福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2017	동국사학
45	최원규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査定과정과 裁決-진위군 관련	2003	한국근현대사연구25
46	최자운	경기도 평택시 이민조 민요 가창자 연구	2018	세명대학교
47	홍태한	평택지역의 巫俗 研究	1996	국제어문
48	홍사열	최은창을 통해 본 평택농악의 전승과 상쇠의 역할	2006	안동대 석사
49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1997	역사와 현실

평택지역도 ‘지역사’, 또는 ‘지역학’을 표방하지만 그에 걸 맞는 사료축적이나 연구방법, 해석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다만 과거 향토사나 지방사가 추구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방법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한국적 보편성과 지역적 고유성이 공존하고, 지역 내에도 다원적이고 혼종적인 문화가 상존하는 공간과 문화를, 지역적 관점에서 또는 피지배층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택 ‘지역사’ 또는 ‘지역학’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연구 인력도 갖춰야 하며, 지역사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사료수집과 연구도 강화해야 하고, 연구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평택 지역사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맺음말

지역(地域)은 중앙에 예속된 공간이 아니다. 또한 다원적 시간과 문화가 존재하는 독립적인 삶의 장소이고 공동체와 개인의 행위가 함께 이뤄지는 영역이다. 지역사란 이처럼 혼종적이고 다원적인 지역(地域)을 대상으로 한다. 근래에는 지역사를 주류 역사에서 생략된 역사, 다원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학으로 정의하려는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중앙적 관점의 지방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 각각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가진 지역공동체를 연구하려면, 또는 지배층만의 역사가 아니라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역사가 서술되려면 지역사적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사 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지방사와 지역사, 향토사와 지역사를 혼동하기도 하고, 지역학과 지역사를 동의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학제가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다. 지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축적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험적이다.

■ 참고문헌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문화원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석당논총》35권, 2005

현명철 <일본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1, 역사문화학회, 1998

안상준, <독일 지방사 연구의 다양한 지평>,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1

김해규, <평택학의 현재와 미래>, 《소사벌》 25호, 평택문화원, 2014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지역사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20, 역사문화학회, 2017

김해규, <향토사, 지역사, 평택학>, 《평택을 이해하고 디자인하다》, 경기문화재단, 2019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K-6)

김희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연구센터 연구원

차 례

1. 서론
2. 일본 해군의 평택항공기지 건설
3. 미군의 기지확장과 기지촌
4. 안정리 사건 : 반미를 외칠 수 있었던 공간
5. 결론

1. 서론

1937년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졌고, 일본은 물론 조선과 타이완 만주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본토 방위를 목적으로 조선에도 군사시설을 조영하였다. 미군 상륙이 예상되는 곳곳에 군사 요새를 세웠는데 평택에도 항공기지를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이 잠시 점령하게 되었고, 1950년 10월경 미군이 접수하여 보수 및 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평택에는 2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오산 공군기지는 처음부터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계획적으로 건설하였지만, 캠프 험프리스는 일본 해군이 건설한 평택항공기지시설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다.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서정자 마을도 이전해야 했고, 그 사이에 미군의 폭력, 공해와 소음,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압박이 있었지만 당장은 항의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사를 지었지만, 일부는 미군부대 노무자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간척을 통해서 농토를 일구어나가면서 한 마을을 형성해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읍소를 하기도 했지만, 미군들을 속이거나 조롱한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절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957년 미군의 외박이 허용되면서부터 기지촌의 상업서비스가 발달하게 되었다. 미군의 요구대로 클럽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생겨났고, PX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물건과 소비재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기지촌이 형성되게 되었다.

1950년 7월 9일 미8군 사령부가 대구에 설치되고 대구 K-58 비행장이 공여되는 것을 시작으로 1951년 2월 5일 캠프 험프리스가 공여되면서 전국 곳곳에 미군기지의 공여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한국 정부는 소파(SOFA) 규정에 따라 공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정부조차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 치외법권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사이에 미군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공간구조와 산업구조는 왜곡된 채로 70여 년이 흘렀다.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평택과 대구 지역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해외 파병기지를 의미하는 캠프(camp)에서 개리슨(garrison) 험프리스로 확장하며 현재 평택 미군기지는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기존 약 496만㎡(150만 평) 규모의 부지가 1455만㎡(440만 평·여의도 5배 규모)가 넘는 크기로 확대됐고, 게이트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미군기지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에 존재하면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그 공간이 남긴 과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미군기지 공간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는 아메리카나제이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김미덕은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이 지닌 젠더, 민족, 계급, 인종 등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저항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하고 있는데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¹⁾ 최종일은 미군기지에 의한 이태원의 공간 분화, 그 내부에서 소비되었던 문화의 전파, 그리고 공간의 상징을 통해서 ‘아메리카나제이션’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지촌

1)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아메리카나제이션의 선구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²⁾ 안미정은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확대과정은 개인소유의 토지가 국가에 의해 공공화 되는 과정이었으며, 그 역으로 토지에서 이탈된 주민들이 군기지 주변으로 귀속되는 생활세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충실은 1960, 70년대 춘천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희식외 2인은 송탄 기지촌은 미군, 국가, 자본가, 시민과 주민에 의해 생성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³⁾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생애사적 접근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다. 조국 근대화와 한미동맹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호모 사케르’였던 성판매 여성에게 가해졌던 다층적인 억압이 밝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⁴⁾ 미군이 기지촌의 형성과 성 산업의 일종인 매춘지대를 요구한 것은 남성 군인의 본능을 그대로 용인한 정치의 산물임과 동시에 주둔 및 관리에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협력자나 교섭의 정치적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캐서린 문과 신시아인로의 연구 역시 남북대치와 냉전을 핑계 삼아 한미 양국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일방적인 성 착취를 해

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군기지 공간의 역사성과 공간확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리슨 험프리스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확장과정을 거쳐와서 오늘날의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는지에 관한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지촌 정화사업의 태동이 되었던 안정리 사건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시기는 1942년 일본제국이 건설한 평택항공기지 건설부터 1970년대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기지경제의 의존도는 1970년대 최고 조였다가 이후 쇠퇴 길로 걷기 때문이다. 연구자료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발간한 행정자료 외에 <인천일보>, <경기연합일보>, <연합신문>, <경기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의 구술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름은 공개를 꺼려서 제외하기로 했고, 그 밖에 면담일, 나이, 직업은 다음과 같다.

표1) 인터뷰 대상자

면담일	이름(가명)	나이	직업	경험유형
2019. 05.18	박일	61세	클럽경영	전 특수협회 회장 역임
2019. 05.18	정춘식	58세	클럽경영	클럽 경영
2019. 05.23	김점식	75세	숙박업경영	전 팽성상인연합회 회장 역임
2019. 08.21	박춘자	75세	무직	미군 위안부
2019. 12.13	정점이	70세	무직	미군 위안부

2) 최종일, <이태원 공간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제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 안미정,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역사문화학회, 2013;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9; 김희식, 이인휘, 장용혁,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1952-2018>, 《역사와경계》 109, 부산경남사학회, 2018.
 4) 캐서린 문, 이정주 역, <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토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

2. 일본 해군의 평택항공기지 건설

평택항공기지는 1942년 일본의 병참 기지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던 일본 해군 시설대 302(301)부대가 주둔하면서 건설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패망 이후 재조선 일본 해군 지휘관이 1945년 9월 9일 자로 작성해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공기지는 진해경비부 산하 8개 항공기지(진해, 제주도, 부산, 광주, 영일만, 여수, 평택, 웅진) 중 하나였다. <진해 경비부 인도목록>에는 관련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주요 시설들의 배치도면이 포함되어 있다.⁵⁾

그림1) 평택항공기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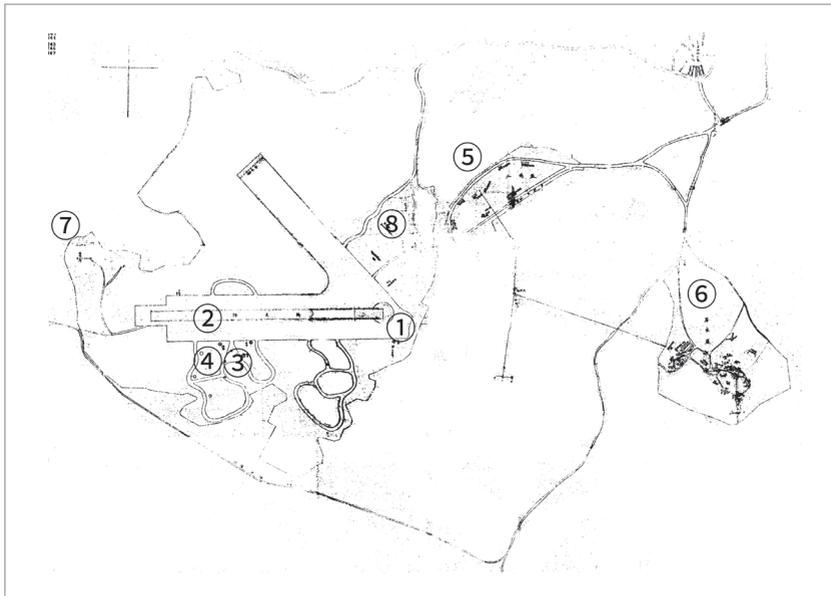


그림2) 1946년 평택 비행장



출처: 장수아(2019). <평택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특성화 전략>

그림1)은 일제강점기 평택항공기지 위치도이다. 일본 해군은 비행장을 항공기지라고 불렀다. 원본 화질 상태가 불량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지만, 비행장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2)의 1946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원정리 방향의 활주로가 미완성으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장 및 평택항공기지는 현재의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 하고 있다. 이곳에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된 것은 <평택군지>에 의하면 1939년 4월 대추리, 동창리, 안정리, 함정리 등의 일부 지역에 일본 해군성 소속 비행장이 설치되어 사용되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⁶⁾ 캠프 험프리스 홈페이지에는 “본래 일본인이 1919년에 건설했으며 한국전쟁 중 평택공군기지로 알려졌다”고 나와 있다. 언제부터 평택항공기지를 계획했는지는 알

5)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일본 방위성방위연구소, 해군일반자료 인도목록 (c08010529700) 진해경비부 인도목록 평택항공기지 별도(別圖) 제20242.

6) 평택군지편찬위원회(1984), 《평택군지》 256쪽.

수 없으나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2년 일본해군시설대(302부대)가 안정리, 함정리, 대추리 일대에 비행장과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공기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떠나야 했고, 항공기지 건설 과정에서 근로봉사대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⁷⁾

“길이 1,700m, 폭 50m 규모의 비행장 건설은 국내에서 차출된 2만여

7) “1945년 보성중학교 4학년 졸업반.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53일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일본 해군 진해시설’제301부대 평택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며 근로봉사를 하러 갔다.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는 안하고 하루 종일 나무 하나 없는 넓은 땅에서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담가(擔架: 가마니 양쪽에 기다란 대나무를 꿰어 맨 들 것)에다 흙을 잔뜩 퍼올려서 비행장 만드는 곳까지 날랐다. 조금 대량으로 운반하는 방법은 땅에다 좁은 레일(rail: 궤간 軌間 610mm)을 목적지까지 깔고 위에다 나무 상자차를 올려놓고 파놓은 흙과 돌들을 양쪽에서 학생들이 잔뜩 퍼 올리면 2명이 뒤에서 밀고 가는 토목공사용인 일본인 말로 ‘도록꼬’라는 운반차를 굴렸다. 식사는 밥 공기에 퍼주는 현미보리밥인데 강냉이가 2/3나 섞여있었다. 우리 학교는 4학년이 3개조로 편성돼 있었고 1조가 정원 60명이었다. 숙소는 넓은 목조 건물이고 60명이 큰 마루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평택 작업장에서는 무척 굶주렸다. 하루 종일 땅벌에서 중노동을 하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매끼 항공기의 밥이다. 밥 항공기는 현미와 강냉이가 섞인 것인데 현미가 1/3이고, 나머지가 강냉이다. 그런데 강냉이 알갱이가 어찌나 굵은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우량종은 보지 못했다. 준비성 있는 학생은 집에서 미숫가루를 준비해 왔다. 찹쌀가루나 맵쌀가루를 볶아서 만든 가루로 배고플 때 먹으면 충분히 요기가 된다. 이것을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심을 쓰다가는 삽시간에 동이 날 것이므로 숨겨두었다가 밤이 돼서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먹다가 목이 뻐져 재채기를 하고 가루가 사방으로 튀어 소란이 일어나 모두 깐 일도 있다. 어떤 친구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집에가면 미숫가루 한 말(斗)만 해서 먹어야 겠다.“라고 푸념하는 소리도 들었다. 하루는 쉬는 날이 돼서 가까운 친구들 다섯명이 모여 작업장을 벗어나 뒷산 너머의 농가를 찾아갔다. ”배가 고파서 왔다.“라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어느새 3관정도나 되는 감자를 찌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큰 바구니에다 수북하게 내놓으신다. 눈이 휘둥굴해진 우리들은 고맙다는 인사구 뭐구 없이 덤벼들어 먹기 시작했다. 요리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게는 감추듯 치워버렸다. 모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 얼마씩 거둬서 아주머니에게 감자값을 드리려고 하니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우리 아들도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쯤 어디서 학생들처럼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어찌 감자값을 받겠느냐“고 한사코 사양하셨다. 1945년 5월 31일 작업을 끝내고 다른 학교 근로봉사대에 인계하고 서울로 돌아왔다.”<https://blog.naver.com/ds1jxm/220415848856> (검색일, 2019. 12.6)

명의 징용대와 평택지역에서 차출한 근로보국대가 맡았다. 하지만 전시(戰時)였기 때문에 보급물자가 부족하고 건설장비도 삼과 곡괭이, 우마차가 대부분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컸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 길(약 15m) 깊이의 격납고가 무너져 사람이 죽기도 했으며, 공사장에서 흡사당하거나 죽은 소나 나귀 등이 길거리에 버려지곤 했다고 전한다.”⁸⁾

주민들은 프로펠러 하나짜리 비행기가 자리 잡은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곳에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활주로, 격납고, 연료창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항공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평택항공기지 규모는 5,243,000㎡(약158만8000여평)이며, 공사비는 10,486,000 円으로 표기돼 있다. 토지 가격은 기지에는 비행장, 활주로, 유도로, 연락도로, 창고, 숙소, 공장, 병원, 전기, 급수설비 등이 있었다. 병기로는 일반 병기와 다양한 항공병기도 보유했다.

표1) 평택항공기지 공사 내역서

명칭	수량	가격	비고
土地	5,243,000㎡	10,486,000	항공기지
飛行場	470,000	2,820,000	비행장
滑走路	80,0000	1,200,000	활주로
誘導路	5,000	150,000	유도로
連結道路	6,500	65,000	연결도로
掩體	9基	250,000	격납고
隊道	1,700	700,000	터널
水道	1式	320,000	
廳舍	2동	142,000	
士官舍	2동	168,000	
兵舍	7동	546,000	
工場	6동	341,000	
電信所	6동	181,000	

8) 평택문화원, 평성읍지편찬위원회(2010), 《평성읍지》, 169쪽.

명칭	수량	가격	비고
病舎	1동	45,000	
倉庫	7동	252,000	
附屬家	21동	314,000	
宿舎	46동	552,000	
電氣設備	1式	252,000	
給水設備	1式	42,000	
계		18,826,000	

표2) 평택항공기지 항공병기

품명	수량	비고
91式魚雷改三(強)	18	
實用頭部改七	18	
三式魚雷車	9	
爆彈兼魚雷車	5	
99式三號發	94	
2式頭起彈2型	90	
99式3號爆彈信管改 2	100	
15式彈底發火製置1型改3	36	
97式2號彈頭底發火製置1型改1	32	
99式通常爆彈信管 甲	4	20個入
99式通常爆彈信管 丙	1	20個入
安定機	9	
91式 織0機	4	
80番通常一型爆彈	40	
零式0光照明彈2型改1	50	
零式航法目標彈一型	500	
零式0光照明彈發火製置改一	30	
99式投下管改三	1000	
零式航法目標彈燈一型	480	
90式爆發先2型格納筐(強)	24	
固定十三耗機銃	2	
固定二十耗機銃	2	

품명	수량	비고
同右彈藥包		目下調査中
99式三番3號爆彈	100	

평택항공기지의 주요 살펴보면 중요 시설은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비행장

<위치도>의 ①이다. 비행장의 동서 방향은 1500×300m, 동남에서 서북 방향 역시 1500×300m로 나와 있고, 비행기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다만 우천시에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항공 관련 장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는 ‘張芝轉壓’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쟁 시 콘크리트가 포탄을 맞으면 복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디를 깎 것으로 보인다. 잔디를 이식한 것은 부산 수영 비행장, 울산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에서도 발견된다.

2) 활주로

<위치도>의 ②이다. 비행기 이륙 및 착륙 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로이다.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1500×50m이며 사용 가능한 상태이지만 안정리 방향의 활주로는 미완성으로 자료에 표시되어 있다. ‘泥凝土鋪裝厚六0’마지막 자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뜻은 알 수 없으나 진흙을 응고시켜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유도로

<위치도>의 ③이다. 활주소에 착륙한 비행기는 격납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비행기를 격납고까지 옮기는 도로가 유도로이다. 당시에는 사람이나 말을 이용해서 격납고에 넣었는데, 자료에는 3500m 중 연장 10평 내지

30m라고 나와 있다. 실제 이렇게 시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도로 역시 잔디를 깔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특징으로는 소형 전투기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4) 엄체

〈위치도〉의 ④이다. 평택 항공기지에는 모두 9기의 엄체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엄체는 비행기 격납고를 말하는데 적의 공습으로부터 군용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5) 공장구

〈위치도〉의 ⑤이다. 이곳에 공장건물이 6개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상으로 볼 때 집단 공장보다는 단독 공장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지 안에 어떤 용도로 공장을 세웠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군수품 생산이나 조달하는 성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 거주구

〈위치도〉의 ⑥이다. 앞서 살펴본 공사 내역에는 士官舍 2동, 兵舍 7동, 廳舍 2동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평택항공기지에 장교 10명, 병사 142명 등 총 141명의 상주병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명칭을 거주라고 표기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군인과 가족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함께 수용할 공간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짐작된다.

7) 폭탄고

〈위치도〉의 ⑦이다. 爆彈庫는 지하에(隧道) 땅굴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325㎡며, 일부는 진흙으로 응고시켜서 감아 놓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8) 연료고

〈위치도〉의 ⑧이다. 연료고는 250㎡ 정도의 연료고가 지하 동굴에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연료고가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도 연료고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2~3개의 연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 기타시설

〈위치도〉에는 많은 시설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글자 판독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없다. 비행장 보조 시설로 어뢰 격납고 수도(隧道)는 338㎡를 건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치를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시멘트 보유량 450둔, 목재 3000석이 기록에 나와 있다.

일제가 패망한 후 비행장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채 종전됐고 해방과 더불어 미 해병대 12의 본거지가 되었고 이어서 1949년 미군 철수 후 한국 해병대가 일시 주둔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들이 주둔하게 되었다.

3. 미군의 기지확장과 기지촌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5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방위 목적으로 안정리 기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952년 미 해군비행단과 제 6147전술통제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기존 활주로를 2,400m로 새롭게 확장하고 휴전 후 미 육군 대구지원부대 일부가 주둔하면서 일곱집매를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⁹⁾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대추리 마을은 2번째로 이전을 해야 했는데 인근의 곤지나루로 강제 이주 당했으며, 신정문 부근의 서정자 마을과 일곱집매 마을도 송화리 등 인근 마을로 옮겨야 했다.

9) 1953년 10월 1일 고덕면의 알파 탄약고가 공여되었다.

미군이 들어와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과정은 일본군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해방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놈들이 와서 이 비행장을 차지한 거. 대추리에 200호 가까이 됐었어. 그렇게 살았는데 별안간에 사는 사람이고 지랄이고 무조건 막 도저로 밀어지고, 짐승이고 뭐고 싹 밀어버리는 거. 막 미니까 우린 떠날 수 밖에 없어. 그땐 뭐 시방마냥 떠나란 저기도 없었어. 무조건 씨바 밀어버려.”¹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K-55 건설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송판 두 평, 각기목 세 개였다. 당시 미군들에게 ‘저항’이나 ‘항의’는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림3) 1956년 팽성면 지도



“캠프 험프리스 정문은 초기 만해도 팽성을 본정2리에 있었다. 미군기지 정문이 세워지자 일대에는 상가와 주택이 들어섰고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기지촌은 본정2리의 주변 마을인 함정1리와 두정2리까지 확산하

였고 도두리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기지 사령관에게 진정서를 내어 기지정문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안정리 쪽으로 정문이 이전했고 안정2리 일곱집매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되었다.”¹¹⁾

“구정문 앞 일곱집매 일대에는 상가들이 들어섰고 주변의 구릉지대와 논밭에는 판자촌(하교방촌)이 형성되었다. 하교방은 서정자 마을 서쪽 소당산 기슭에도 있었다. 기지촌의 상가들은 구정문에서 로데오거리의 수정약국까지 150m 사이에 많았다. 상가의 대부분은 지붕이 낮은 한옥들이었다. 이들 상가에는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양복점, 금은방, 사진관, 구멍가게 등이 많았다. 로데오거리와 안정2리 방향의 뒷골목에는 미군클럽이 많았다.”¹²⁾

1962년 기지명을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바꿨는데 이는 1961년 오산 상공에서 헬기사고로 숨진 미 육군 기술장교 ‘벤저민 K 험프리스’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지는 미8군 사령부, 서울지역사령부, 제7 병참사령부에 배속된 부속 기지였다가 1964년 미 8군사령부에서 독립하여 캠프 험프리스 지역사령부로 개편되어 출범하였다. 성격이 바뀌면서 한국의 모든 지역 탄약 지원 공급 및 유지 보수, 보관을 제공하고, 미 8군에 공급할 우유 공장을 운영하였다.

1968년 미국의 푸에블로호(USS Pueblo, AGER-2)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여 북한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 일어났고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정찰국 소속인 124군 부대 무장대 33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의 공격적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함께 미국의 방위 노력을 증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

11) <평택시사신문> 2019.01.23일자

12) 김해규(2015), 《안정리 사람들》 16쪽.

10)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엮음(2005), 《들이 운다》 리북 206쪽.

군비행장이 있는 군산, 오산, 광주, 대구, 수원에 활주로를 개선하고, 비행장에는 방공호가 지어졌다.

1970년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다. 11월 15일 캠프 카이저(camp Kaiser)가 폐쇄되어 한국군 5군단에 반환되었다. “부평의 애스컴 시티가 해체되면서 1968년 제512 및 516 병기부대가 해산되어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969년에는 제38 보충대, 제337 병기 중대, 제122 야전병원 등이 용산으로 옮겨갔고, 제55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각각 이전해서 갔고, 1970년엔 백마장의 미육군형무소도 평택으로 옮겨졌다. 애스컴 사령부마저 1971년 해산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자 부평의 기지촌은 거의 폐업단계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윤락’여성들과 미군 상대업소는 탄 기지촌을 찾아 훌훌 부평을 떠났다.”¹³⁾ 이때 일부의 클럽과 ‘미군 위안부’ 일부가 안정리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그림 4)를 보면 안정리 방향의 활주로는 현재와 같이 정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302부대가 건설한 동서 방향의 활주로 자리에 미군 시설과 건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1956년 지도에는 동서 방향의 활주로는 존재했지만 그림 4)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964년 지역사령부 전환 이후에 동서 방향 활주로는 복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¹⁴⁾

그림4) 1969년 캠프 험프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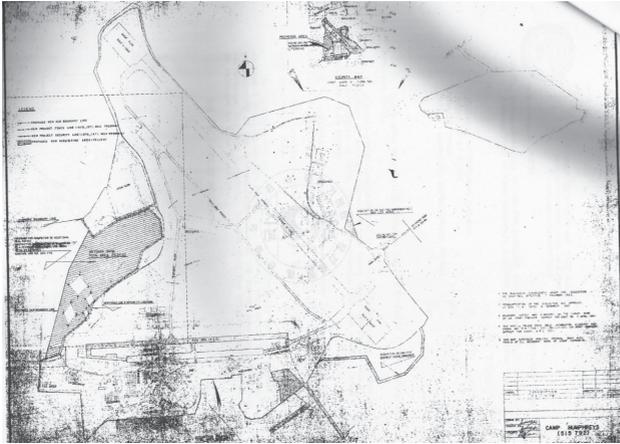


출처: 장수아(2019). <평택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특성화 전략>

캠프 험프리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확장과 반복을 계속해 왔다. 미군들은 일본인들이 메인 활주로로 사용했던 동서 방향의 활주로 대신 안정리 방향의 활주로를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1969년 이전에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13) 서울신문사(1979), 《주한미군 30년》 행림출판사, 435쪽.
 14)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공군기지 활주로 공사를 하청 공사중 위임받은 토건업자가 공사비를 받고도 노임지불을 하지 않아 46명의 노무자들이 농성데모를 벌이고 있다. K-6 활주로 공사는 창설토건에서 하청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10번지 김기봉(41)씨에게 66년 9월 다시 하청을 주었던 것인데 지난 6월 29일 김기봉씨로부터 김영진씨가 공사를 위임 받았던 것으로 현재까지 공사진척은 99%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한편 현지 경찰에서는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인천신문》 1967년 10월 3일자)

그림 5) K-6 통신 안테나 부지(SAC-776)



출처: 국가기록원(CA0000399)

그림 5)의 빗금친 지역은 안테나 설치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대추리와 함정리 소재 미 공군 통신 안테나 시설부지 징발번호 SAC-776의 102.008.16평(83.34에이커)이고 이 부지에는 통신 안테나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경작이나 다른 농업 행위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전, 답, 묘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 지역을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1962년 12월 1일부로 미군에게 영구임대해 주었다. 1970년대 들어와 미 “주둔군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는데 미군 군사시설 건설계획에 한국의 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2년 캠프 험프리는 비행기 정비 격납고, 호크 미사일 지원 시설, 의무실 및 숙소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며 규모가 커지고 설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숙소는 3층짜리 건물 열 채로 각각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사와 1,0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독신자 숙소였다. 또한, 32채의 이동식 막사도 세워졌다. 이동식 막사에는 최대 24명이 거주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미 육군 캠프에서 사용

되었다.¹⁵⁾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초 갑자기 부대시설 보호란 명목으로 부대 울타리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고립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부락간 연결도로를 주민 총동원하여 삽과 곡괭이로 장기간 작업 끝에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안테나 시설 공사 이후 미군의 재산 보호를 위해 부대 주위로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제한적인 공유공간에서 점차 배타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나갔다.

1974년 19 지원여단의 발족으로 미 육군 수비대로 지정되었고, 1985년에는 전시지원 조직으로 개편돼 23 지원단으로 지정됐다. 1996년 6월 17일 미 육군 지원 활동 구역 III (USASA Area III)이 설립되어 미 육군 제3 지역지원사령부로 출범했고 7월 24일 아파치(AH-64) 실전배치와 더불어 미 육군 제6 항공전투부대를 운영하게 됐다. 현재 기지에는 5,000여 명(군인 3,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정보수집용 정찰기와 블랙호크(Black Hawk), 시누크(Shinook), 아파치(AH-64) 및 코브라(Cobra) 등 다양한 헬리콥터와 중·소형의 수송기 및 경비행기가 하루 평균 30~85회 운항하고 있다.

4. 안정리 사건 : 반미를 외칠 수 있었던 공간

미군들의 놀이 장소였던 기지촌 클럽 골목을 중심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술 취한 미군이 동거인이나 한국인에게 가하는 폭행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었다.¹⁶⁾ 안정리에서 발생한 흑백갈등이 언론

15) 김영일(2015), 《주한미군기지 역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19쪽.

16)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군기지촌을 주변으로 미군들의 행패가 날로 늘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일밤 10시 30분경 평택군 평성면 안정리 소재 미제44포대본부중대소속 <페버갈빈제이>(22)알병 등 4명이 이날 안정리산 16번지 최△△여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조△△(28, 평성면 안정리112)씨 등 2명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유리컵으로 안부를 난타하고 식도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구타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경찰은 이들 4명을 특수폭행혐의로 압건 했다.”(《경기연합일보》, 1968년 9월 4일)

에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 기지촌에서는 크고 작은 흑백갈등이 있었다. 클럽형성과정부터 흑인용과 백인용으로 나누어 구역이 정해졌었다. 용산을 비롯하여 평택, 문산, 파주 용주골, 동두천, 부산 등이 대표적이다. 흑인 상대 '미군 위안부'들은 흑인만을 백인 상대 '미군 위안부'들은 백인만을 상대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흑백의 갈등으로 자주 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도 피해를 입었다.¹⁷⁾ 일부 미군에 의한 한국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무시와 멸시는 항상 있었고, 목숨을 잃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는 일은 다반사였다.

기지촌을 둘로 쪼개 놓은 흑백의 대립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1968년 4월 그 정점에 달했다. 흑인 병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부닥치는 대로 백인 병사들을 무조건 두들겼고 기지촌 대로에서 反白시위를 벌였다. 술집에서나 길에서 만나는 흑인들은 서로 손바닥을 치고 팔을 끼며 소울 브라더(Soul Brother)의 단합을 맹세했다.¹⁸⁾

1971년 7월 9일 안정리에서 일어난 흑백갈등은 기지촌정화사업이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70년 11월 15일 캠프 카이저(camp Kaiser) 폐쇄를 시작으로 잇따른 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직간접적

인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 철수 확대와 지원감축을 막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1971년 4월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압박을 돌파할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기지촌정화사업'이다. 1971년 9월 SOFA 한미합동위원회는 미군 관계 특별 소위원회를 개설하여 한국인과 미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을 해결하는 공식 통로가 만들었다. 그해 12월 청와대 직속으로 발족했고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되었다. 미군 관계 특별 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주한 미군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성병 관리였고, 미군은 성병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높았다고 알려진다.

1971년 7월 10일 안정리 주민 7백 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내건 구호는 '킹콩을 죽여라', '우린 어떤껌등이도 원치 않는다. 목화밭으로 돌아가라', '색마소다 즉각 물러나라' 등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2시간 동안 대치를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군 측은 금족령을 내리고 부대 밖 출입을 금지했다.

그림 6) 평택 안정리 1971. 7. 10일(캠프 험프리스 구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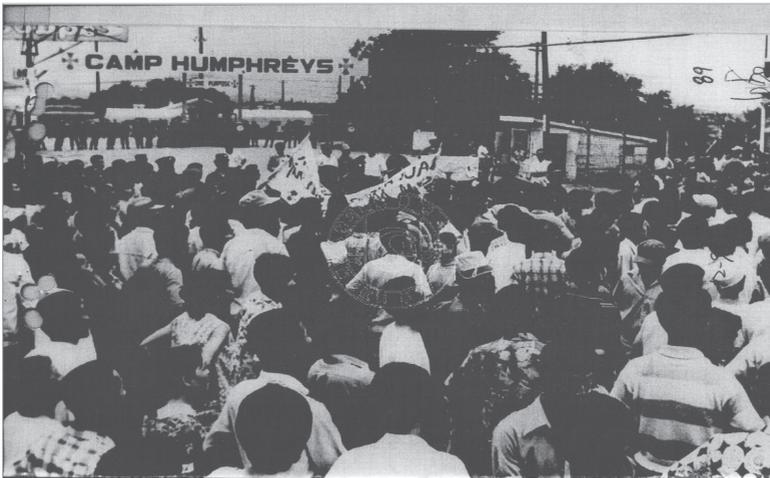


17)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요즈음 송탄읍 일대 주한미군의 난폭한 행동이 심한가하면 이를 주민이 미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일단 검거하나 부대에 들어가면 사건을 이유없이 희미하게 처리하는 등 미수사당국의 편파적인 비협조로 인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등 골탕을 먹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밤 11시경 송탄읍 신장리 스테리홀(주한운영)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던 미공군 K-55부대 소속 리차드, E맥길(가명.23) 에머드, L. 맥첼(가명.24)상병등 4명이 주인과 마담의 눈을 피해 반달형 소파를 파손하는가 하면 맥주를 훔치다 이를 본 마담 김△△(34.송탄읍 신장리)양을 때리는 등 시가 13만원어치의 손해를 입히고 주민의 신고로 급히 출동한 미군헌병에 의해 검거되어갔으나 하루도 지나지 못한 16일 아침 에머드, L. 맥첼(가명.23)상병 등 2명을 내보내버리고 한 명만 입건시키는 등의 피해자의 눈만 피해 동정을 살피는 실정이라 미 수사당국의 좀더 우호적인 협조와 공평 수사를 요망하고 있다.”(《연합신문》, 1971년 2월 17일)

18) 서울신문사(1979), 위의 책, 452쪽.

출처: 국가기록원(BA0165772)

그림 7) 평택 안정리 1971. 7. 10일(구 고려상회, 현재 킹 쉐타 앞)



출처: 국가기록원(BA0165772) “킹콩을 죽여라”

그림 8) 평택 안정리 1971. 7. 10일



출처: 《연합신문》 1972. 6. 9(색마 소다 즉각 물러나라)

한 달 만인 71년 8월 7일 금족령을 해제했다. 미군의 요구는 가로등 보강, 골목 안 미군 홀에 대해서는 금족령을 해제할 수 없다. 성병 감염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책, 미군들을 상대로 한 사채행위 제한과 저리의 이자를 받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6개 항을 제시했다. 미군 측은 외출하는 병사들에게 한국의 예의범절을 가르치겠다는 태도를 정리했다. 문제의 원인이 골목 안 클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⁹⁾

그림 9)는 지역민이 기억하는 안정2리 클럽 골목이다.²⁰⁾ 구정문에서 현재 예술인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이 흑인 전용 클럽이 있었던 곳이고, 나머지는 백인 전용 클럽이다. 흑인 클럽은 피콕, 아리랑, 유엔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있었고, 탑햇, 세븐, 홀리, 더피스, 티 클럽은 백인전용 클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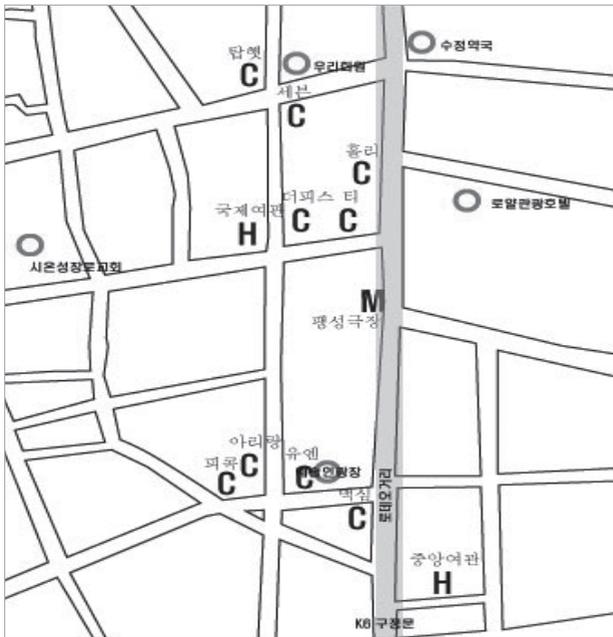
K6 정문앞쪽이 흑인 클럽이 모여 있었고, 나머지는 백인 클럽이었다. OB클럽이 피콕으로 바뀌었고, 예술인 광장안에 피콕하고 파라다이스가 있었다. 흑인 클럽이 구정문쪽과 클럽골목에 있었다. 지금 제우스장 지하가 티클럽 이었고, 그 옆이 은하수(갤럭시) 였다. 세븐 클럽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옆에 큰 건물 올라가는 부분이 맥심클럽이다. 탑햇은 꽃집 맞은편이다. 집 짓는 뒤로 홀리 클럽은 뒤에 공터자리였다. 더피스

19)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6일 밤 9시30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서 미23직접지원단 백인병사 전용홀인 <카피스홀>, <티클럽>, <트리세븐홀>, <파라다이스홀> 등 네곳을 누비며 기물을 파괴 피해액 2천여만원을 내고 김광식(34. 카피스홀 지배인)씨등 한국인 6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불상사를 빚어냈다. 올해에 접어들면서 점차 가열되기 시작한 기지촌 미군들의 흑백분규가 극심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긴 했으나 이날처럼 조직화된 난동은 일찍이 없었다. 흑인병사들은 사건발생직전에 흑인전용홀인 <스타클럽>에서 모종의 모임을 갖고 일제로 거리로 뛰쳐나와 4개소의 백인전용홀을 습격 기물과 한인 종업원들에게 닥치는대로 폭행을 가했다.((연합신문) 1971년 7월 10일자)

20) 정점이(가명, 여, 1945년생)

는 답헛에서 내려오다 보면 장로교 가기 전에 모퉁이에 부서진 건물 자리다. 아리랑, 유엔, 피콕은 지금 예술인 광장에 뭉쳐 있었다. 길 자리에 파라다이스가 있었다. 유엔 클럽은 예술인 광장 안에 있었다. 아리랑, 유엔, 피콕, 오른쪽 옆에 파라다이스가 있었다. 그 중에 아리랑만 백인 클럽이었고 빨리 없어졌다. 유엔 클럽이 흑인 클럽의 상징이었다. 파라다이스가 백인클럽에서 흑인클럽으로 바뀌었다.²¹⁾

그림 9) 지역민 A가 기억하는 1970년대 클럽 위치



지역주민 700여 명이 반미 시위에 동참한 것은 안정리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기지촌에 살면서 미군에게서 받은 인간적인 멸시와 모멸

21) 김점식(가명, 남, 1945년생)

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²²⁾

표3) 1966~1971년 안정리 주요 신문기사

연번	연대	중요내용	출처
1	1966.11.29	군용 도로 이전 바라	인천신문
2	1967.07.15	평택서 부락민과 미군이 투석전	인천신문
3	1967.08.26	K6 기지촌위안부들 공공연히 검피 기피 늘어	인천신문
4	1967.10.03	K-6활주로 공사노무자들이 노임 달라고 농성	인천신문
5	1967.10.09	미군이 탄 남자와 동석했다고 위안부 집에 방화	인천신문
6	1968.09.04	미군들 탈선 늘어 평택기지촌에 폭행한 4명 입건	경기연합일보
7	1969.01.25	위안부 검진 집단화	경기연합일보
8	1969.07.11	10대 윤락행위 늘어	경기연합일보
9	1969.04.15	기지촌 땅값 급등	경기연합일보

22)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흑인병사의 난동 동기는 단순했다. 지난 4일 오후3시쯤 안정리 합동의원 앞길에서 흑인3명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그 중 한 명은 택시지붕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명은 본네트위에 올라앉는 등 짓궂은 장난을 했다. 운전기사가 항의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지나가던 한국공수부대원 2명이 달려가 싸움이 붙었다. 흑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났다. 이날밤 흑인 50명이 전용홀인 유엔센터에 모여 보복을 결의했다. 그러나 기밀이 새어 미헌병이 출동으로 제지됐다. 이런일이 있은 뒤 9일 오후 5시 백인전용홀인 T 클럽 앞에서 흑인1명과 백인1명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백인이 도망가며 돌을 던져 흑인의 머리가 깨졌다. 이 사건은 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1의 목표를 백인홀로 잡은 것은 냉대 등 흑백감정이 뒤얽힌 결과라고 한다. 주민들도 흑인병사들에 대한 울분이 섞여 있었다. 안정리 이장 김운하(47)씨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우리를 지켜주려 온 고마운 군대인데 오죽하면 그들을 배척하겠습니까’라며 기지촌 주민들의 서러운 사연을 털어냈다. 백인 위안부들에 대한 흑인들의 공공연한 트집과 행패, 물건값을 절반만 내고 빼앗다시피가져가는 것. 지난3월 흑인병사에게 매를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한 위안부는 10일의 데모에서 ‘내 코를 보상하라’며 쌓인 분을 터트렸다. S양복점 주인 공모(41)씨의 경우, 지난 5월 흑인병사에게 2만원짜리 양복을 해주었으나 ‘1만원 밖에 없다’고 때를 쓰며 찾아가지 않겠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8천원을 깎아줬다. 이장 김씨는 흑인들의 행패가 만연된 이유를 백인에게서 느끼는 콤플렉스가 한국인에 대한 멸시감정으로 나타나 분풀이의 화살이 돌려지는 것으로 풀이했다.”(《조선일보》 1971년 7월 11일자)

연번	연대	중요내용	출처
10	1970.01.05	휴일의 미군탈선 여인에 폭행하고 방화도	경기연합일보
11	1970.03.10	환각제 복용늘어 기지촌 위안부 미군들	경기연합일보
12	1970.04.08	미군들 흑백싸움	경기연합일보
13	1970.04.14	기지촌 불경기 흑백싸움 여파 금족령 내려	경기연합일보
14	1970.06.22	미군 행패 늘어 하루 3건이나	경기연합일보
15	1970.07.14	성병 낙검자 수용소 17일부터 문 열어	경기연합일보
16	1970.07.15	주민들 도로 확장을 진정 공군기지주변분배 교통사고빈발	경기연합일보
17	1970.07.21	의사배치를 안해 성병보균자수용소 급식도 엉망	경기연합일보
18	1970.10.12	평택보건소 강경책세워 성병보균자수용	연합신문
19	1970.10.15	무허가 건물 난립 2층도 세우고 도시계획선 침범	연합신문
20	1971.04.14	흑인미군들난동 백여명이 흉누비며 폭행 10여명 중상	연합신문
21	1971.05.04	도로 멋대로 폐쇄 K-6 기지서 내리동 3개부락 큰 불편	연합신문
22	1971.05.24	영내서 흑백분쟁 수류탄던져 3명 중상	연합신문
23	1971.06.01	추악한 미군행패 폭행요구보상에 소이탄 세례	연합신문
24	1971.06.15	낙검 위안부목인 수용치료기피해도 고발안해	연합신문
25	1971.06.23	홀선정권도안위 평택포주들위안부혹사	연합신문
26	1971.7.10	흑인병사 100여명이 집단난동	연합신문

당시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참여했다. 흑인들이 마약을 하고 여자들 음부에다가 우산 찢러 죽이고 어떤 거는 형광등을 넣어서 찢러 죽이고 변태짓을 2명이 한 거다. 같은 날 죽은 건 아니고 연이어서 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각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때려잡으려고 했다.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와의 갈등이었다. 기록에 당시 양색시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2400명 이었고 보건증 미소지자를 합치면 4000명 정도 있었을 거다. 당시 안중읍이 2000명 정도 인구였고, 주거시설이 열악했지만 1만 6천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다. 당시에는 클럽이 삶의 원천이었다.

처음에는 울분이 있어서 싸웠는데 고려상회 앞에 관을 갖다놓고 여자들 소복 입고 우린 뒤에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지역 어른들이 난리가 났고 군수가 찾아가서 거꾸로 뒤에서 우리가 빌었다. 흑인 애들이 헬기타고 숨어 있으면 헬기가 와서 구출해 가고 흑인애들은 무조건 다 잡아갔다.

흑인들은 5명 정도 모이면 클럽을 부수는 게 아니고 백인들에게 시비를 걸어도 꿈쩍을 못했다. 말대꾸하면 물매를 맞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백인애들이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봤다. 싸우면 흑인애들은 금방 와서 도와주는데 백인애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백인애들은 흑인 멸시하고 흑인애들은 멸시 받으니까 니네 알아서 하라고 했다. 흑백갈등은 너무 많았고, 큰 싸움은 한국여성이 죽은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평택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도망 못 간 사람은 잡히면 죽는거였다. 중2때니까 71년도 이다.²³⁾

미군 측과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의 모든 업소는 흑백 구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8군은 정책적으로 업소의 인종차별을 금한다는 경고 풋말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금족령을 내렸다. 그 뒤에도 흑백갈등을 양상은 1980년대까지 지속 되었다.

1971년 안정리 흑백갈등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간의 편견이 존재했고, 암묵적으로 지키는 분리된 선이 존재했다. 절대다수의 백인과 소수의 흑인이 있는 기지촌에서 흑인 미군은 힘으로 백인 미군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백인 미군과 흑인 미군 사이에 어정쩡하게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과 ‘미군 위안부’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들에게 온순하

23) 박일(가명, 남, 1958년생)

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이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었다.²⁴⁾

당시만 해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이 속에서 권력의 차이에 의한 비대칭적이고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점철된 기지촌은 게토처럼 존재했었다. 미군은 안정리 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계속 제기했던 것이 성병 문제였다.²⁵⁾ 1974년부터 평택지역에 총 7개의 성

24)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3일 낮 12시부터 K-55 미공군기지 정문에서 공군기지 미군의 위안부 확대 인하등 유인물 뿌려뿌린데 대한 반발 시위를 벌였던 직업여성들은 **미당국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자 5일 낮 12시 다시 시위를 벌였다.** 이들 3백여명은 송탄읍 지산리 부녀회 광장에서 모임을 갖고 일부 미군들이 뿌린 유인물 뿌라 중 화대비결정, 관광출입의 지나친 미군간섭 등 7개 항목 무효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 K-55 기지 사령관에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연합신문》 1971년 5월 6일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3일 밤 12시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하워드>에 현지 한국인 60여명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미군 2명이 부상하고 찢차가 크게 부서졌다고 밝혔다. 미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밤 여자를 구타하던 한국인 남자를 미군들이 말리려하자 현지주민 60여명이 몰려들었으며 미군헌병이 이들을 해산시키려하자 기지정문밖에서 돌을 던졌다.《연합신문》 1971년 5월 27일자; 10일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미군 K-6부대 정문앞 노상에서 팽성부녀회원 300명(대표: 이정자)이 미군들의 금족령을 해제해달라고 데모를 벌였다. 이들 팽성부녀회원들은 지난 7월 9일 흑인난동사건으로 취해진 미군당국의 금족령으로 인해 심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 미군당국 금족령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미군부대앞에서 벌인 농성데모는 미군당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수등이 이들 팽성부녀회회원들을 해산 귀가 철수중에 있다.”《연합신문》 1971년 8월 10일자; 송탄기지촌부녀회 회장이 인솔한 40여명은 지난 9일 하오 1시 20분경 위안부 지정 검진소인 허승의원에서 무자격자에게 페니실린을 맞고 20분만에 숨진것에 대해 항의소동을 벌인 것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장례도 치르지 않겠다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위안부들은 자기네들의 관철될때까지 계속 농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신문》 1972년 3월 13일자)

25)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곳 K-6 기지당국은 9일 평택군 당국에 동 기지촌 팽성면 안정리에 성병진료소를 늘여주도록 요구했다. 기지 당국은 요즘 늘고 있는 성병예방책의 일환으로 동 기지촌 1천 2백명 위안부들의 성병진료소가 1개소 밖에 없어 주2회의 검진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검진기피현상등 갖가지 부작용을 빚어내고 있다고 성병진료소인 서울합동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을 성병진료소로 지정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군당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 검진시설을 갖춘 K병원중에 성병진료소를 개설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신문》 1972년 1월 10일자)

병 진료소가 운영되었는데 송탄지역에 1~4진료소가 운영되었고, 안정리 지역에 5~6 진료소와 현덕면에 7진료소가 개설되었다.

안정리 사건 이후 미군과 한국 정부 관계자 모두 정확 운동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주요 행위자로 인식했다. 여성들을 ‘민간 외교관’으로서 미군을 인종차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여성들이 손님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군과 한국 정부가 성병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자 여성들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여성들의 미군 기습 단속에 보건증을 제시해야만 했고, 성병에 걸렸을 때는 완치될 때까지 강제수용되었으며 미군과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에 동원되었다.²⁶⁾ <그림 10>은 평택군 성병 진료부이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미군 위안부’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감정보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다. 작성지침에는 낙검이 되었을 경우 병명과 치료 일자(기간)와 간단한 소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구보관을 위하여 개인 병력(病歷) 지득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감염자대장>까지 갖추어 철저히 관리하려 했다. 1977년 이전에는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정화사업의 안착과 미군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였다. ‘미군 위안부’의 지위 향상과 교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팽성 극장에서 반공 영화를 상영하였다.²⁷⁾ 미군의 요구대로 안정리 지역의 성병진료소 2곳을 늘려서 안정리 성병진료소는 3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 성병진료소에서

26)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0쪽.

27) 《연합신문》 1972년 7월 20일자

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²⁸⁾ 당시 검진료는 1회 25원, 주사약의 경우 관에서 또는 미군에서 공급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 1회 30원, 매독혈청검사료 100원, 검진증 발급 비용 50원이 전부인데 1달 동안 1만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십 배의 착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택군은 대용 성병진료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영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그림 10) 평택군 성병진료부

가장 관서			
번호	호	성병 진료부	가
방문연월	년 월 일	성병진료소	
관서연월	년 월 일	성병진료소	
성명	예명	년월	성
분역	경천(북쪽) ①		남
주소	도 군 면 리 이 동		여
직업	면 위 점 가	교류점도	구
친척주소	촌전면 서	촌전면 서	선면 정현면 화산 화산 화산
여우관계	이혼	기혼	미혼
허증			
명			
계명	아카의아카부	년 월 일	년 월 일
의뢰자	김사현량		
피부	이(의)		진
인(유)명	만수		파용기
수관	만수		Colype대복
서부	유남		한정부
성공신	Berzalm대인		무보서
년도	거주		
임의인	남소		
는	회부		
가사 및 의료현황			
연	가사현	병명	취요
		결핵	부호
		기타	참고
			0194

출처: 국가기록원(BA0663198)

28)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일 기지촌인 팽성면 안정리 이모양(22)등 직업부녀회원들은 성병진료소의 횡포로 1만원까지 부당하게 뜯기고 있다고 주장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주일에 2번씩 있는 성병검진과정에서 성병보균율이 안전선인데도 낙검자로 취급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고 있으며 김모양에 의하면 1개월동안 무려 1만원여원이나 성병진료소에 뜯겼다는 것으로 성병진료소 운영을 관에서 취급해주던지 진료소마다 감시원을 배치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연합신문》1972년 6월 21일자; 1972년 6월 24일자)

1960~70년대 안정리 지역에 ‘미군 위안부’의 수가 얼마만큼 인지 추산하기는 힘들다. 다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3천 명 이상의 ‘미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연감>에 의하면 송탄과 안정리 양 기지에 21,440명이 있고, 등록된 수는 1,897명이라고 보고 있다.²⁹⁾ 신문기사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정리 지역에는 1100~800명 정도가 실제로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기지촌정화사업이후 여성들에 대한 성병관리 조치는 이전보다 철저해졌다. 이전까지는 클럽 업주와 부녀회를 통해서 성병 검진을 독려하는 수준이었다. ‘미군 위안부’들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단속이었다.³¹⁾

지역에 평택 송탄읍과 안정리에 기지촌정화위원회를 조직했다. “서울지검 수원지청이 조직한 기지촌정화위원회는 평택군수, 경찰서장, 세관수원출장소장, 미군부대헌병대장 등 미군 관계자들과 기지촌의 명망 있는 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군 물자절취 사건, P·X 물품유출 등 관세법 사건, 위안부·미군의 마약 흡연 등 기지촌 특유의 범죄와 위안부들의 성병보균·전염병 예방문제 미군상대 한국인인 관광객 업소의 풍기단속, 미군들의 영외에서의 폭력행위, 흑·백 충돌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전예방에 자율적인 활동을 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²⁾ 기지촌정화사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높아지는 성병 감염률 문제와 ‘미군 위안부’와 미군들의 마약 문제를 단속하려는 조치였다.

29) 경기신문사(1974), 《경기연감》 523쪽.

30) 《연합신문》1972년 2월 5일자

31) 《연합신문》1972년 8월 12일자; 《경기신문》1976년 4월 14일자

32) 《경기신문》1975년 3월 26일자

표4) 안정지구 성병 검진 실시 계획(1973년)³³⁾

진료소	검진요일	검진 인원수	출별검진계획	등록 인원수	비고
안정지구	월	170	세븐	110	
			휠리	60	
성병관리소	화	246	타피스	139	
			부대	107	
	수	153	맥심	65	
			라펠	88	
	목	145	은하수	69	
			티크럽	76	
	금	164	유엔	61	
			피록	64	
파라다이스			39		
계		878	11개소	878	

출처 : 국가기록원(BA0663198)

평택보건소에서는 비정기적 단속을 시행해서 미등록자와 낙검자 검진기피자들을 단속하여 이날 적발된 50명을 평택군 직업훈련소로 넘겼다.³⁴⁾ “경기도 보건당국은 연인원 2450명을 동원하여 미등록자 1046명, 검진기피자 887명 등 모두 2533명을 적발하였다. 도는 2일 이 중 957명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252명을 직업보도소에 입소 조치, 165명은 귀가 조치, 606명의 검진기피자는 수용치료와 802명은 등록처리 하고 나머지 78명은 훈방 조치하였다.”³⁵⁾ 기지촌정화사업이후 ‘미군 위안부’들은 애국자나 ‘민간 외교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불법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강화되어 갔다.

1950~1970년대까지 ‘미군 위안부’와 주민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멀리서 온 미군들을 환영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사짓던 땅

을 내줘야 했고, 강제로 밀려났지만,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제23지원단 이었던 K-6에서 일상적으로 도둑질이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동네에서 불이 나면 미군 부대 소방차가 나와서 진압해주었고,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평택역 광장을 정리 작업하는 일 등을 해주었다. K-6는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빵과 우유를 주었던 미군은 점점 ‘미군 위안부’와 주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반복되었다. 내국인의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1971년 안정리 사건은 이런 울분을 표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미구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지촌 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안정리에 산다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우려가 동시에 분출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5. 결론

평택의 지리적 입지 특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중간 지역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평택항의 입지에 따른 유통상의 지리적 이점이 강점이다. 또한,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진위천이 주한미군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 등을 이용한 군사 작전 및 군사 운송이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의 안정리와 캠프 험프리스가 어떤 공간적 변화와 확대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조영한 평택항공기지의 지리적 위치와 확장과정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 캠프 험프리스의 정착과 기지촌정화사업의 태동이 되었던 안정리 사건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

33) 부대는 캠프 험프리스 내 클럽에 등록된 여성을 의미함.

34) 《경기신문》 1975년 8월 29일자

35) 《경기신문》 1977년 12월 3일자

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1971년 7월 10일 안정리 주민 7백 명이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내건 반미구호는 ‘킹콩을 죽여라’, ‘우린 어떤 껌등이도 원치 않는다. 목화밭으로 돌아가라’, ‘색마 소다 즉각 물러나라’ 등을 외치면서 2시간 동안 대치를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군 측은 금족령을 내리고 부대 밖 출입을 금지했다. 엄중한 시절 기지촌이라고는 하지만 반미구호가 등장했다. 이후 주한미군과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정화사업을 통해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개발을 하는 한편 ‘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성병 검진을 지속하면서 ‘미군 위안부’들은 애국자나 외교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불법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강화되어 갔다. 이후 눈에 띄는 흑백갈등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어서 갔고,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여 간 측면이 있다.

평택에는 두 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미군기지가 끼친 영향과 미군기지를 통한 미국문화 수용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 글에서는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공군기지(K-55)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하여 평택 도시의 정체성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 2000년 초중반에 있었던 대추리 투쟁 이후 평택은 어떤 모습으로 변천해 갔는지는 연구해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산공군기지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고 반환예정인 원주와 인천의 캠프마켓과도 비교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평택의 다른 지역에서 기지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이와 도시구조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평택군성병진료소 설치조례관리조례개정》 관리번호 (BA0663198)
- 국가기록원, 《재산조사지시》 관리번호 (CA0000399)
- 국가기록원, 《한국인과 미국인간의 충돌 사고 방지책 계획 수립보고》 관리번호 (BA0165772)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일본 방위성방위연구소, 해군일반자료 인도목록 (C08010529700)
- 진해경비부 인도목록 평택항공기지 별도(別圖) 제20242.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행림출판사, 1979
-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 평택문화원, 팽성읍지편찬위원회, <팽성읍지> 2010
- 경기신문사(1974), 《경기연감》
- 《경기신문》 《경기연합일보》 《인천신문》 《연합신문》 《조선일보》 《평택시사신문》
-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라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2007)
- 김영일, 《주한미군기지 역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지전사업단, 2015
-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도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112,(2015)
- 김해규, 《안정리 사람들》 문화살롱공, 2015
- 김희식, 이인휘, 장용혁,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1952-2018> 《역사와 경계》 109, (2018)
-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

군 기지촌 “양공주”》《동방학지》 161, (2013)

안미정,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2013)

박정미,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장수아, 《평택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특성화 전략》 2019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 《한국학연구》, 68(2019)

최종일, <이태원 공간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제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캐서린 문, 이정주 역, <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엮음, 《들이 운다》 리북, 2005

.”<https://blog.naver.com/ds1jxm/220415848856> (검색일, 2019. 12.6)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평택지역의 체육활동

성주현/평택박물관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스포츠단체 조직과 운동회 개최
3. 지역을 넘어선 체육활동 : 정구대회와 열네공 대회 등
4. 맺음말

1. 머리말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형성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스포츠는 한국 근대화 과정과 일정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¹⁾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봉건에 대한 근대화와 반제국 반침략에 대한 자주 주권의 확보에 있었다. 이에 따라 근대스포츠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대스포츠는 근대성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근대스포츠는 신교육의 도입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²⁾

1895년 고종이 공포한 <교육입국조서>에 의하면 교육의 3대 기강 즉 덕양, 체양, 지양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체양은 신체를 튼튼히 하며 무병해야 한다는 것으로 ‘체력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체육 도입에는 약육강식의 경쟁적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하게 하려는 현실인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근대체육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병식체조이다.³⁾

그렇다고 근대 이전에는 스포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한기나 각종 명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대부분 민속적인 측면과 심신의 단련의 측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래되어 오던 씨름, 그네타기,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석전놀이, 죽마놀이, 썰매타기, 팽이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1) 근대체육에 대해서는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1990; 이학래, 《한국체육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을 참조할 것.

2) 《한국사》 45(신문화운동I), 국사편찬위원회, 2000, 365쪽.

3) 이에 대해서는 나순성, 〈한말 학교체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0, 숙명여자대학교, 1970년을 참조할 것. 병식체조는 1895년 최초의 학제공포 이후 1909년 학교령 개정 공포까지의 시이게 학교체조의 중심이었다. 체조의 내용은 대열행진, 집총교련, 구보 등이었다.

공차기 등이 농촌이나 일반 사회에서 행하여졌다. 이와는 달리 지배층은 격구, 토호, 쌍육, 기국, 격봉 등이 오락으로 행해졌다. 유학자들은 심신 단련을 위해 체조를 하는가 하면 활인심방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근대의 체육은 고래의 전통적 오락 내지 유교적 교육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체육활동을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택지역에서 체육활동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간행된 신문을 통해 추적해보고자 한다.

2. 스포츠단체 조직과 운동회 개최

근대스포츠는 19세기 중엽 개항 이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1895년 신교육 제도가 실시되면서 체육이 학교 제도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는데, 1896년 외국어 학당이 설립되면서 외국인 교사들의 의해 축구를 비롯한 근대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소개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근대스포츠는 1896년 5월 2일 서울 삼선평 영어학교에서 개최한 육상경기였다.⁴⁾ 그리고 이듬해 1897년 4월 서울 관공립 소학교 학생 1천여 명이 훈련원에 모여서 대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다.⁵⁾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운동회는 한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연합운동회로까지 발전하였다. 당시 운동회는 사회체육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4) 이학래, 앞의 책, 101쪽; 《개항 100년 연표 한미수교 100년사》, 637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근대사연표 1896년조.

5) 《고종시대사》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근대사연표 1897년조.

이러한 운동회는 근대적 체육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족적 위기를 맞아 민족의식의 각성과 새로운 지식을 계몽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서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⁶⁾가 발족하고 ‘제1회 조선정구대회’⁷⁾를 시작으로 1929년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열었고, 지방에서의 체육활동도 활기를 띠어 체육 단체가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회는 체육부를 두어 다양한 체육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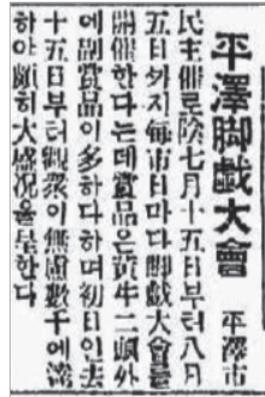


그림1) 평택시민 주최로 개최된 씨름대회 기사 《동아일보》 1927년 8월 17일

전통놀이 중이 하나였던 씨름은 ‘각희대회(脚戲大會)’라는 이름의 스포츠로 새로운 변신을 하였다. 평택지역도 각희대회가 추석 등 명절 때면 늘 하는 행사였으며, 전시체제기인 1943년 10월 8일 경방단원의 체력향상과 심신단련을 도모하기 위해 씨름대회를 가진 바 있다.⁸⁾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스포츠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체육활동을 전개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평택지역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야구부⁹⁾의 조직이었다. 야구는 서양의 대표적인 근대스포츠였지만 일찍이 평택에 수용되었다. 1917년 3월 평택지역 청년들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목적으로 야구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야구부 조직을 위해 뜻있는 사람들의 찬성과 의견을 모집을 하는 한편 세척을 만들고 임원을 선발하고자 하였다.¹⁰⁾ 그리고 이해 5월 27일에 진위청년체육구락부에서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예고 기사가 있었다.¹¹⁾ 이로 볼 때 야구부는 조직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체육구락부가 조직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된다. 이를 계기로 평택지역에 크고 작은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운동회는 학교, 조합, 면, 관공서, 청년단체 등이 참가하였다. 이는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라 마을 축제였다.

운동회나 체육행사는 당시 연례행사로 개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월이나 10월이면 운동회와 체육행사에 관한 기사가 유난히 많았다. 그렇다고 당시의 운동회나 체육행사가 모두 기사화되지는 않았다. 평택지역도 운동회가 많았지만, 실제 기사화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평택지역 체육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0년대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체육활동 또한 거창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평택에서는 ‘찬란 광장’한 대규모의 운동회가 1920년 5월 2일 평택곡물매매조합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운동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는 당시의 기사로 볼 때 첫 운동회였

6) 한말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구락부,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부, 대한국민체육회, 대동체육구락부, 대한흥학회 운동부, 소년광창체육회, 체조연구회 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들어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2월 18일 조선체육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조선인 중심으로는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를 창립하였다.

7) 《동아일보》 1921년 6월 25일자. 제1회 정구대회는 경성 명치정 동순테니스코트에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개최되었다.

8) 《매일신보》 1943년 10월 10일자.

9) 우리나라에는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P.Gillett)에 의해 야구가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선교사로 온 미국인 질레트가 황성기독교청년회(현재의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 야구가 소개된 지 12년만인 1917년, 당시 널리 알려진 스포츠가 야구였다는 점에서 평택에도 야구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앞서 평택지역도 체육이 적지 않게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매일신보》 1917년 3월 17일자.

11) 《매일신보》 1917년 5월 27일자.

다. 당시 《매일신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地 穀物賣買組合 主幹으로 今 五月 二日 日曜日 暖風和하고 柳綠花明 陽春佳節을卜하여 一般 官民 及 普通 尋常 兩校 生徒와 聯合으로 普通學校 運動場에서 運動會를 開催하였다는데, 本會의 諸般 設備와 賞品 等の 豐足은 勿論 組合으로부터 全部 擔當한다 하며, 此에 伴하여 學父兄 諸位 及 有志者 李成烈 徐丙稷 鄭鶴謨 氏等의 發起로 左記 金額을 損出하여 普尋 兩校에 運動器具 一式을 購買 贈呈하였다 하니, 有志者 諸氏의 公益熱은 感服할 바이오. 又 組合의 誠意는 尤히 艷羨할지로다. 常日 會場의 華麗한 裝飾을 加하여 燦爛宏壯을 助함은 勿論이오. 京城으로 一流의 樂隊를 招聘하여 嶄新奇節한 數百種의 科目으로 空前絶後의 大盛況을 모할 터이라더라.¹²⁾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운동회는 관내 관민뿐만 아니라 평택공립보통학교와 평택심상소학교 두 학교 학생 연합으로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운동회를 주관한 곡물매매조합은 운동회와 관련된 제반 설비와 상품 등을 전담하였으며, 학부형과 이성렬, 서병직(徐丙稷), 정학모(鄭鶴謨) 등은 의연금을 모아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에 운동기구 일체를 기부하였다. 운동회가 개최된 이날 후원금은 689원에 달하였다.¹³⁾ 또한 이날

12) 《매일신보》 1920년 5월 2일자.

13) 당일 운동회에서 기부금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圭泰 1백원, 徐丙稷 50원, 李成烈 30원, 鄭鶴謨 30원, 南泰熙 30원, 李河善 20원, 金炯哲 20원, 金鎮圭 20원, 徐相馥 20원, 安鍾哲 20원, 金文煥 20원, 成周漢 20원, 崔漢肯 20원, 韓禹教 10원, 李弘商 10원, 吳壽泳 10원, 徐相浩 10원, 韓明錫 10원, 李晉善 10원, 鄭成教 10원, 李學峻 10원, 申贊雨 10원, 森賢吉 10원, 朴進謙 10원, 南相殷 20원, 朱榮煥 5원, 崔華燮 5원, 睦俊相 5원, 禹兢夢 5원, 尹錫東 5원, 高崎房吉 10원, 尹應九 5원, 李德相 5원, 閔光植 5원, 韓允教 5원, 柳現 10원, 崔承烈 5원, 徐丙復 5원, 徐丙德 5원, 李時英 5원, 金商國 5원, 李鍾九 10원, 申舜浩 5원, 朴鳳鎮 5원, 李漢圭 2원, 三苦磯介 3원, 濱田源 3원, 金熙敬 3원, 李圭翰 3원, 梅村由吉 3원, 金學奎 2원, 柳昌棲 30원.

운동회는 만국기를 걸고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말 그대로 찬란 굉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유명한 악대까지 초빙한 평택 공전의 대행사였다고 평가하였다.

운동회는 이후 1920년대 중후반까지 거의 해마다 개최되었다. 1921년에는 5월 15일,¹⁴⁾ 1922년에는 5월 7일,¹⁵⁾ 그리고 1923년에는 5월 13일¹⁶⁾에도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여 평택지역 전체를 들쭉이는 지역 축제로 체육활동이 지속되었다. 1924년 5월 27일에는 안중공립보통학교에서 제1회 춘계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운동회는 4,5천 명의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40종목의 경기가 열렸으며, 군수 최익하와 경찰서장菅野芳松의 ‘체육장려와 근학’이라는 훈사도 있었다.¹⁷⁾

1924년 6월 3일에도 대규모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운동회는 진위군청이 주최하였는데 평택공립초등학교, 평택심상소학교, 안중공립보통학교, 서정리공립보통학교, 봉남공립보통학교 등 5개 학교의 연합으로 평택역 철도 부지에서 개최되었다. 비용은 군청에서 60원, 진위청년회에

14) 《매일신보》 1921년 5월 4일 및 5월 18일자.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去 十五日 日曜는 舊曆 四月 八日에 浴佛日이오 平澤公立普通學校 校舍 一部の 洛城日이라. 當日 同校 運動場 構內에서 當地 青年團과 聯合大運動會를 開催하였는데, 早朝에 青年團 一行 八十名은 樂隊를 先頭로 하고 自動車 六隊를 分乘하여 運動會場을 向할 새, 附近 沿路에 殺到하는 男女 觀覽客은 人山人海를 成하여 頗히 大混雜을 成하였으며, 運動會場에는 燦爛한 萬國旗와 宏傑한 天幕은 人的 情神을 恍惚케 하며 衝天하는 煙火聲과 啣랑하는 奏樂聲裏에 嶄新奇節한 165鍾의 科目으로 空前絶後에 大盛況을 모하였는데, 當日 觀光 男女는 約 一萬人 以上에 達하였고, 平澤 開基 以後 初有에 大集會이라더라.”(《매일신보》 1921년 5월 18일)

15) 《동아일보》 1922년 5월 14일자.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平澤公立普通學校에서는 本月 七日 即 日曜日을 利用하여 春季大運動會를 開催하였는데, 當日 一般學父兄과 多數 來賓이 有하여 盛況을 이루었다더라.”

16) 《조선일보》 1923년 5월 16일자.

17) 《동아일보》 1924년 5월 30일자.

서 40원, 상인들이 60원, 일본인들이 40원,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이 30원 등 모두 230원이 소요되었다. 진위청년회가 운동장을 7일간 정비하였고, 관람객이 인산인해라고 할 정도로 대성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가한 선수만 1천 5백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평택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체육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운동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振威郡廳의 主催와 振威青年會의 後援으로 平澤, 安仲, 西井里, 鳳南, 尋小 聯合大運動會는 지난 三日 平澤驛 前 廣場에서 열리었는데, 各校에서 出陣한 男女 兒童 一千 五百餘 名에 達하였고, 定刻에 이르러 會長 崔益夏 氏의 開會辭가 마치자 兒童의 競技는 徒步競技를 비롯하여 順序대로 進行하여 結局 優勝旗는 西井里公普校로 돌아갔으며, 뒤를 이어 振威青年團 徒步 自轉車 飜食 競走 滋味있는 競技와 來賓 中 靑北里 日新 講習院의 競走가 畢한 後 午後 四時 半에 閉會하였다고¹⁸⁾

이외에 일제강점기 개최되었던 운동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10월 4일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는 추계대운동회는 6백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50여 종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5천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¹⁹⁾ 1928년 6월 3일에는 평택



그림2) 평택 시민운동회 기사(《동아일보》 1928년 6월 1일)

곡물상조합과 합동운송주식회사에서 주최하고 20여 개의 단체와 각 신문사

18) 《동아일보》 1924년 6월 6일자.
19) 《동아일보》 1925년 10월 7일자.

가 후원하여 평택역 철도부지 광장에서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다.²⁰⁾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시체제가 형성되었지만 운동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1932년 9월 18일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 추계대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²¹⁾ 1935년 5월 5일 진위군교육회 주최로 진위군 1면 1교 완성을 축하하는 연합대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11개교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²²⁾ 1940년 11월 3일에는 평택군과 평택체육회가 주최하고 매일신보 평택지국의 후원으로 성동소학교에서 평택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운동 종목에 참가한 선수는 500여 명, 관람객은 3천여 명이나 되었다.²³⁾ 1941년에는 9월 29일 추계운동회²⁴⁾와 10월 5일 제2회 평택군민체육대회²⁵⁾를 가진 바 있다. 1942년 10월 18일에도 평택군체육진흥회(회장 瑞原 평택군수) 주최로 성동국민학교에서 체육연성대회를 개최하였는데, 40여 종의 경기에 관람객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²⁶⁾

이러한 평택에서 개최한 운동회는 대부분 관 주도의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21년 5월 15일 개최된 운동회의 경우 군수 주영환은 관내 유지 이성렬, 유창근, 신찬우, 이학준, 성주한 등을 초치하여 운동회 계획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으며,²⁷⁾ 1924년에 개최한 운동회도 군청에서 주최하였다.²⁸⁾ 전시체제가 형성된 이후

20) 《동아일보》 1928년 6월 1일자.
21) 《동아일보》 1932년 9월 15일자.
22) 《동아일보》 1935년 4월 18일자.
23) 《매일신보》 1940년 10월 25일자; 1940년 11월 10일자. 당시 연합체육대회는 선수 5백여 명, 관람객 3천여 명으로 공전의 대성황이었다.
24) 《매일신보》 1941년 10월 3일자.
25) 《매일신보》 1941년 10월 8일자.
26) 《매일신보》 1942년 10월 25일자.
27) 《매일신보》 1921년 5월 4일자.
28) 《동아일보》 1924년 6월 6일자.

에는 평택군청과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평택체육회가 주관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참여한 지역 유지들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지역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주도한 인물은 이성렬, 유창근, 신찬우, 이학준, 성주한, 서병직, 정학모 등이다.

먼저 이성렬은 병남면 평택리에 거주하는 유지로²⁹⁾ 평택발전회 협의원,³⁰⁾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³¹⁾ 평택합동운수(주) 사장,³²⁾ 평택상사(주) 이사,³³⁾ 계인조합 설립,³⁴⁾ 평택제방 신축 위원,³⁵⁾ 평택금융조합 감사³⁶⁾ 및 평의원,³⁷⁾ 진위군농회 특별의원,³⁸⁾ 평택대행영업소 주임,³⁹⁾ 평택상업조합장,⁴⁰⁾ 평택면 협의원,⁴¹⁾ 평택공립보통학교 증급기성회 고문,⁴²⁾ 평택상공회 창립 역원,⁴³⁾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참여,⁴⁴⁾ 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⁴⁵⁾ 평택군농회

특별의원,⁴⁶⁾ 평택협찬회 평의원,⁴⁷⁾ 진척학원 학부형회 고문⁴⁸⁾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평택역 앞 시장통에서 주단과 포목을 취급하는 대성상회⁴⁹⁾ 이성렬상점⁵⁰⁾을 경영하였다. 이외에도 관변단체인 진위청년단 발단식에서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⁵¹⁾ 1937년 10월에는 차남 결혼비용을 절약한 70원을 평택방공감시초원의 위문금으로,⁵²⁾ 국방헌금 3백 원을 헌납하였다.⁵³⁾ 그렇지만 지역 공민을 위한 구휼활동도 적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⁵⁴⁾

성주한은 진위청년회 경리부장,⁵⁵⁾ 평택발전회 서기,⁵⁶⁾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⁵⁷⁾ 상업조합 곡물부 주임,⁵⁸⁾ 평택제방신축시민회 위원,⁵⁹⁾ 안성천 개수속진기성회 실행위원,⁶⁰⁾ 평택면협의원,⁶¹⁾ 평택공립보통학교 증급기

46)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자.

47) 《경성일보》 1924년 11월 19일자.

48) 《매일신보》 1942년 5월 6일자. 당시 이성렬은 창씨를 하였는데, ‘赤城成烈’이라고 하였다.

49) 《조선신문》 1927년 6월 5일자; 1929년 1월 22일자.

50) 《조선신문》 1934년 1월 1일자.

51) 《조선신문》 1935년 12월 27일자.

52) 《매일신보》 1937년 10월 9일자.

53) 《매일신보》 1937년 8월 3일자. 이해 9월 10일에는 국방헌금 100원을(《매일신보》 1937년 9월 15일), 1940년 1월 황군장병 위로금 500원(《매일신보》 1940년 1월 23일)을 냈다.

54)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자; 1940년 2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 1934년 2월 14일자; 《매일신보》 1920년 2월 21일자; 1922년 8월 20일자; 1940년 1월 23일자.

55)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자.

56)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57) 《동아일보》 1937년 10월 20일자.

58) 《조선신문》 1927년 6월 5일자.

59) 《조선신문》 1926년 6월 7일자.

60) 《조선신문》 1931년 8월 20일자.

61)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9일자.

29)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자.

30)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31) 《동아일보》 1928년 1월 14일자.

32) 《조선신문》 1929년 1월 22일자.

33)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4)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자.

35) 《조선신문》 1926년 6월 7일자.

36) 《조선신문》 1929년 4월 17일자; 《경성일보》 1929년 4월 17일자.

37) 《조선신문》 1931년 4월 24일자.

38) 《경성일보》 1929년 4월 18일자.

39) 《조선신문》 1932년 6월 2일자.

40) 《조선신보》 1933년 1월 9일자.

41)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9일자.

42) 《조선중앙일보》 1936년 2월 23일자.

43) 《매일신보》 1938년 7월 12일자.

44) 《매일신보》 1938년 7월 7일자.

45) 《매일신보》 1942년 5월 28일자.

성회 상임위원,⁶²⁾ 평택축우증식조합 평의원,⁶³⁾ 평택미곡상조합 이사장,⁶⁴⁾ 평택상공회 창립 역원,⁶⁵⁾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이사,⁶⁶⁾ 진위군농회 역원,⁶⁷⁾ 평택협찬회 평의원⁶⁸⁾ 등으로 활동하였다.

유창근은 병남면 평택리에서 양조장을 운영하였으며⁶⁹⁾ 평택발전회 협의원,⁷⁰⁾ 진위청년회 부회방,⁷¹⁾ 병남면장,⁷²⁾ 경기도 평의원(평택),⁷³⁾ 평택자동차운수(주) 감사,⁷⁴⁾ 동아일보 평택분국장⁷⁵⁾ 및 지국장⁷⁶⁾ 등으로 활동한 지역 유지였다. 신찬우는 청북면에 거주하였으며 대동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한 후⁷⁷⁾ 평택발전회 부회장,⁷⁸⁾ 진위청년회 회장,⁷⁹⁾ 조선소작인상조회 진위지회 이사,⁸⁰⁾ 진위군농회 통상의원,⁸¹⁾ 평택군농회 통상의원,⁸²⁾ 평택

축산동업조합 평의원,⁸³⁾ 청북면장,⁸⁴⁾ 진위군농회 역원⁸⁵⁾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학준은 평택발전회 협의원,⁸⁶⁾ 평택협찬회 부회장,⁸⁷⁾ 평택제방신축 시민회 위원,⁸⁸⁾ 평택역 앞에서 평이상회(平二商會)를 운영하였다.⁸⁹⁾ 서병직은 평택발전회 협의원,⁹⁰⁾ 정학모는 평택발전회 회계,⁹¹⁾ 평택곡물무역상회 부회두⁹²⁾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평택 미곡계의 원조’라고 불렸다. 이들은 대부분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평택의 유력자들로 알려졌으며, 운동회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평택지역 운동회에 적극 참여한 지역 유력자들의 사회활동 이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평택지역 운동회 지원 유력자 사회활동 이력

이름	주요 경력	비고
이성렬	평택발전회 협의원,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 평택합동운수(주) 사장, 평택상사(주) 이사, 계인조합 설립, 평택제방신축시민회 위원, 평택금융조합 감사 및 평의원, 진위군농회 특별의원, 평택대행영업소 주임, 평택상업조합장, 평택면협의원, 평택공립보통학교 증급기성회 고문, 평택상공회 창립 역원,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참여, 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 평택군농회 특별의원, 평택협찬회 평의원, 진정학원 학부형회 고문	평택리 거주, 대성상회, 이성렬상점 경영, 공민 구휼, 국방헌금 헌납

62) 《조선중앙일보》 1936년 2월 23일자.

63) 《조선신문》 1930년 9월 21일자.

64) 《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자.

65) 《매일신보》 1938년 7월 12일자.

66) 《매일신보》 1938년 7월 7일자.

67) 《매일신보》 1933년 6월 1일자.

68) 《경성일보》 1924년 11월 19일자.

69) 《매일신보》 1927년 10월 30일자.

70)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71)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자.

72) 《조선신문》 1927년 6월 5일자.

73) 《조선신문》 1926년 12월 31일자.

74)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자.

75) 《동아일보》 1920년 5월 8일자.

76) 《동아일보》 1926년 7월 9일자; 1927년 11월 24일자.

77) 《황성신문》 1910년 4월 30일자.

78)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79)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자.

80) 《매일신보》 1922년 5월 27일자.

81) 《경성일보》 1929년 4월 18일자.

82)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자.

83) 《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자.

84)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자.

85) 《매일신보》 1933년 6월 1일자.

86)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87) 《경성일보》 1924년 11월 19일자.

88) 《조선신문》 1926년 6월 7일자.

89)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자.

90)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91)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92) 《매일신보》 1921년 8월 7일자.

이름	주요 경력	비고
신찬우	평택발전회 부회장, 진위청년회 회장, 조선소작인상조합 진위지회 이사, 진위군농회 통상의원, 평택군농회 통상의원, 평택축산동업조합 평의원, 청북면장, 진위군농회 역원	청북면 거주, 대동법률학교 졸업
유창근	평택발전회 협의원, 진위청년회 부회장, 병남면장, 경기도 평의원(평택), 평택자동차운수(주) 감사, 동아일보 평택 분국장 및 지국장	양조장 경영
성주환	진위청년회 경리부장,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 상업조합 곡물부 주임, 평택제방신축시민회 위원, 안성천 개수속진기성회 실행위원, 평택면협의회, 평택공립보통학교 중급기성회 상임위원, 평택축우증식조합 평의원, 평택미곡상조합 이사장, 평택상공회 창립 역원,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이사, 진위군농회 역원	
이학준	평택협찬회 부회장, 평택제방신축시민회 위원,	평택리 거주, 평이상회 운영
서병직	평택발전회 협의원	
정학모	평택발전회 회계, 평택곡물무역상회 부회두	평택미곡계 원조

3. 지역을 넘어선 체육활동 : 정구대회와 열네공 대회 등

체육활동은 지역을 넘어선 다른 지역과 연합대회를 개최하거나 단일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평택에서도 지역별 내지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평택에서 지역을 넘어서 개최한 체육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정구대회였다. 당시 구기 종목 경기 중 정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평택에도 정구구락부가 만들어졌고 인근 지역과 많은 교류 시합을 갖는 등 정기적인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1921년 7월 3일 평택, 안성, 천안, 인천 등 4개 지역 정구단이 참여하는 연합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다.

安城, 平澤, 天安, 仁川 四個 庭球團에서는 本月 三日(日曜)을 卜하여 平澤尋常小學校 運動場에서 聯合庭球大會를 開催하였는데, 安城團에서는 田基說 羅壽元 尹泳穆 金魯默 外 六名이오, 當地 青年 有志諸氏 五十餘

名은 應援키 爲하여 李源翊 氏 引率 下에, 또 本社 安城分局 總務 及 記者團 一行은 同日 午前 七時 自動車를 驅하여 平澤에 往하였고, 午前 十一時에 到하여 開會하고 終日 勝負를 爭하되 午後 六時에 至하기까지는 雌雄을 未決하다가 最後에 至하여 仁川組 一行과 決戰한 바, 多幸히 安城側에서 勝捷하였고, 然後에 賞品授與式을 行하고 平澤側에서 主客을 慰問하는 宴會에 列하여 交歡하고 午後 七時 半頃에 散會 歸鄉하였더라.⁹³⁾

평택심상소학교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연합정구대회는 안성정구단과 인천정구단이 결승에서 맞붙었지만 안성정구단이 우승하였다. 이날 안성정구단은 청년 50여 명과 매일신보 안성분국 임원들이 현장까지 와서 응원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평택정구단은 안성정구단과 경기를 하였지만 패배하였다.⁹⁴⁾

평택정구구락부는 연합정구대회에 참가에 이어 7월 30일 안성정구단과 시합하였다. 안성정구단은 안성공원에 정구장 신설을 기념하는 발회식을 갖고 평택정구단을 초청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⁹⁵⁾ 계속해서 평택정구단은 7월 31일 천안에서 개최한 연합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⁹⁶⁾ 이후 평택정구구락부는 평택정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언제 개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23년 8월 19일 평택정구회 주최로 평택심상소학교 코트에서 진위군과 안성군의 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진위군이 승

93) 《매일신보》 1921년 7월 7일자.

94) 《동아일보》 1921년 7월 4일자.

95) 《동아일보》 1921년 8월 2일자; 《매일신보》 1921년 7월 27일자. 《매일신보》는 7월 31일이라고 하였지만, 7월 30일이 맞다고 판단된다.

96) 《동아일보》 1921년 8월 2일자. 천안에서 개최한 연합정구대회는 천안, 평택, 안성, 조치원 등 4개 지역 정구단이 참가하였다.

리를 거두었다.⁹⁷⁾

이와 같은 평택의 정구는 그동안 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소년들에게까지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1923년에 는 소년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소년정구대회는 《동아일보》에 광고까지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시 : 9월 23일(우천시 순연)
- 장소 : 진위청년회 운동장
- 추첨 : 9월 23일 오전 10시
- 참가금 : 1조 80전
- 선수 : 20세 이내(신장 5척 2촌 이내)
- 신청기 : 9월 22일까지
- 신청소 : 동아일보 평택지국
- 상품 : 은제 기념장 기타
- 주최 : 동아일보 평택지국
- 후원 : 조선일보 평택지국⁹⁸⁾

진위소년정구대회는 20세 미만으로 신장은 5척 2촌 즉 173cm 이하로 제한하였다. 참가금은 조당 80전으로 정하였으며, 상품은 은제 기념장을 주었다. 이 정구대회는 언론사인 동아일보 평택지국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평택지



그림3) 진위소년정구대회 광고 《동아일보》1923년 9월 16일



그림4) 평택소년회에서 주최한 제1회 중선소년정구대회 광고 《동아일보》1924년 8월 7일

국이 후원하였다. 그러나 진위소년정구대는 수해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 7월 20일경 시작된 장마로 인해 평택 일대를 안성천과 진위천의 범람으로 시내가 물에 잠겼다.⁹⁹⁾ 이후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구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해로 인해 부득이 취소되었던 소년정구대회는 이듬해 규모가 확대되었다. 평택소년회의 주최로 '제1회 중선소년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8월 10일 개최된 중선소년정구대회는 시대일보 평택지국과 동아일보 평택지국 후원으로 성동소학교에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중부지역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¹⁰⁰⁾ 그리고 이해 11월 2일에는 관내 연합정구대회를 개최되었으며, 5개 팀 25조가 참가하였는데 서정리군이 우승하였다.¹⁰¹⁾ 당시 제1회 중선소년정구대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平澤少年會에서는 時代日報 平澤支局, 東亞日報 平澤支局 後援으로 第一回 中鮮少年庭球大會를 平澤小學校(교-트)에서 八月 十日을 期하여 開催할 터인데, 中鮮地方 各郡에 在한 少年庭球團은 制限 없이 入會함을 바라며 名譽의 優勝旗와 (메달)記念章을 授與할 터이라고.¹⁰²⁾

이미 報道함과 같이 平澤少年會 主催 時代 本社 支局 後援인 少年庭球大會는 지난 十日 午前 十時부터 當地 小學校 코트에 開催하고 李相駿 君의 開會辭를 비롯하여 金錫鉉 李炳甲 朴建陽 三氏 主審 下에 競技를 始作하였는데, 勇壯한 各 團體의 選手들은 火輪같은 曝陽을 무릅쓰고

99) 《매일신보》1923년 7월 22일 및 7월 24일자.
 100) 《동아일보》1924년 8월 7일; 8월 13일자. 제1회 중선소년정구대회는 시대일보와 동아일보 평택지국에서 후원하였으며, 인천 오산 서정리 안중안성 직산 천안 등 7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안성팀이 우승하였다.
 101) 《시대일보》1924년 11월 4일자.
 102) 《동아일보》1924년 8월 8일자.

97) 《동아일보》1823년 8월 29일자.
 98) 《동아일보》1923년 9월 16일 및 9월 17일자.

榮譽의 勝利를 얻고자 最後의 全力을 다하여 奮鬪한 結果 마침내 勝利는 安城 勤莊少年軍에 歸하였는데, 參加團體는 아래와 같다고.
仁川, 烏山, 西井里, 安仲, 安城, 稷山, 天安¹⁰³⁾

이후에도 중선소년정구대회는 1927년까지 해마다 개최되었다. 1925년 두 번째 개최된 중선소년정구대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평택지국의 후원으로 8월 16일 평택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열렸다.¹⁰⁴⁾ 제3회 중선소년정구대회는 1926년 8월 1일 개최되었다.¹⁰⁵⁾

제4회 중선소년정구대회는 1927년 7월 31일 개최되었으며,¹⁰⁶⁾ 서정리 소년군이 우승하였다. 당시의 정구대회 상황을 간략하게 기사로 다루었는데, 다음과 같다.

진위군 평택소년회 주최와 진위청년회 조선 동아 양 지국 후원으로 제 사회 중선소년정구대회는 예정대로 거월 삼십일일에 오전 구시부터 동공보 코-트에서 개최하였는데, 서정리군이 우승하였다더라.¹⁰⁷⁾

중선소년정구대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구대회로 발전하였다. 첫 중선정구대회는 1925년 8월 30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平澤體育協會 主催와 朝鮮 東亞 平澤支局 後援으로 來 三十日 上午 九

- 103) 《동아일보》1924년 8월 13일자.
104) 《동아일보》1925년 8월 11일자.
105) 《동아일보》1926년 7월 28일자.
106) 《동아일보》1927년 7월 27일자.
107) 《동아일보》1927년 8월 5일자.

時 半부터 平澤公普校 코-트에서 第一回 優勝旗 爭奪 中鮮庭球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團體 或은 個人組라도 多數 參加하기를 바란다 하며, 參加金은 每組에 二圓式이고 賞品은 優勝旗 外에 優勝組에 限하여 車賃을 負擔하며 其他 賞品도 있다고.¹⁰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선정구대회는 평택체육협회의 주최하였고, 지역 언론기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 지국에서 후원하였다. 그러나 이 중선정구대회는 8월 30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우천으로 연기되어 9월 13일로 연기되었다.¹⁰⁹⁾ 그러나 연기된 9월 13일도 우천으로 인해 9월 20일로 다시 연기되었다.¹¹⁰⁾ 이듬해에는 제2회 평택정구대회라는 대회명으로 1926년 8월 15일 평택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개최되었다.¹¹¹⁾

평택체육회가 주최하였던 제1회와 제2회 두 차례 개최하였던 중선정구대회는 세 번째 맞는 제3회 중선정구대회는 진위청년회에서 주최하였다.¹¹²⁾ 역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보 양 지국과 평택소년회가 후원하였다. 3회 중선정구대회는 1927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참가팀은 11개의 단체팀에 55개조가 참가할 정도로 상황이었다. 결승전은 경성팀과 서정리팀이 경기하였지만 서정리팀이 참패하고 경성팀이 우승하였다.

振威青年會와 朝鮮 東亞 兩支局 及 平澤少年會 後援 下에 第三回 中

- 108) 《동아일보》1925년 8월 28일자.
109) 《동아일보》1925년 9월 10일 및 9월 11일자.
110) 《동아일보》1925년 9월 20일자. 이후 정구대회에 대한 기사가 없어 실제로 개최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111) 《동아일보》1926년 8월 13일자.
112) 《동아일보》1927년 8월 4일자.

鮮庭球大會는 既報한 바와 如히 지난 十四日부터 十五日까지 當地 公普校 코-트에서 開催되었는데, 參加團體는 十一個 團體에 五十五組로 會長 金永柱 氏 開會辭를 이어 各組 選手의 白熱戰이 開幕되었는데, 當日에는 豫選戰을 마치고 翌日 午前 十時에 始作되어 勢不得한 西井里軍이 慘敗를 當하고 最後 優勝은 京城軍에게 歸하였더라.¹¹³⁾

제5회 중선정구대회¹¹⁴⁾는 1929년 7월 14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광고와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위청년회(振威靑年會)에서 체육부 주최로 오는 삼사일에 제5회 중조선개인정구대회(中朝鮮個人庭球大會)를 평택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거행할 터이런데, 우승조(優勝組)에는 우승기를 주고 기타 부상품도 있다 하며, 신청기한은 대회 전날까지 이고 참가금은 오십전(정심자담)이라더라.¹¹⁵⁾

이처럼 평택지역에서는 정구대회를 평택을 넘어선 중선 즉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정구대회는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평택지역에 정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으며,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1934년 개최한 중조선연식야구대회 광고

이외에도 1933년 9월 3일에는 평택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평택지국 후원으로 중조선연식야구대회(中朝鮮軟式野球大會)를 개최하였다.¹¹⁶⁾ 연식야구대회는 평택 시구(市區) 개정 준공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연식야구대회는 이듬해 1934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평택 역전 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다.¹¹⁷⁾

한편 흥미로운 것은 민속놀이의 하나인 ‘얼네공 치기’를 체육운동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얼네공치기는 ‘杖球’라고 하는데, 서양의 하키와 비슷한 전통 민속놀이의 하나이다.¹¹⁸⁾

1931년 2월 1일 수원소년동맹 양감지부에서 용소리 진위천변에서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얼레공 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당시 경기 상황은 좀 길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땅의 고래 운동을 부흥하는 의미 깊은 장거인데다가 더욱이 일반 무산아동들에게도 체육을 장려하자는 ‘슬러건’ 아래 수원소년동맹 양감지부 주최 《별나라》 양감지사와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 조선 동아 양일보 오산분국 후원으로 제1회 전조선 ‘얼네공’ 대회는 지난 1일 오전 10시에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앞 천변에서 성대히 막을 열었다.

116) 《동아일보》 1933년 8월 29일 및 9월 1일자.

117) 《동아일보》 1934년 9월 22일자.

118) 얼네공 치기는 일명 장치기라고도 한다. 장치기는 서양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로 나무 채를 이용하여 나무 공을 쳐 가며 경쟁하는 민속놀이이다. 지방에 따라 공치기, 타구(打毬) 놀이 등으로도 불리며, 한자로는 봉희(棒戲)라고 쓴다. 전통 격구 중에서 말을 타고 행하는 ‘기마격구’가 아닌 ‘보행격구’가 장치기에 해당한다. 두 편으로 나누어 각자 채를 가지고 공을 쳐서 상대방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내는, 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하는 민속놀이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흔하게 행해졌던 전통 민속놀이였으나 요즘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다음 스포츠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62XX53500191>)

113) 《동아일보》 1927년 8월 22일자.

114) 제5회 대회명은 ‘中朝鮮個人庭球大會’이다.

115) 《동아일보》 1929년 7월 9일자.

천변운동장에는 얼음 위에 푸른 솔로 대회 정문을 만들어 놓았고 그 위에 주최 측의 깃발이 휘날리어 의의 깊은 대회를 장식하였다. 이 대회에



<그림 4> 열네공 풍속화(<http://cafe.daum.net/AGOD/GLjw/642?q=%EC%9E%A5%EC%B9%98%EA%B8%B0%20%EB%86%80%EC%9D%B4&re=1>)와 대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동아일보』 1931년 1월 31일자)

출전한 선수는 천진스러운 농촌의 소년소녀 32팀으로 16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처음으로 이렇게 장식한 장엄한 대회에 출전하는 기쁨에 어찌할 줄 모르고 날뛰는 어린 남녀들의 입장식이 끝난 뒤 넓은 눈벌판에 천여 명 관중이 모인 가운데서 오산군과 두릉군의 제1회전으로 근대 조선체육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꾸밀 경기의 막이 열렸다.

별항과 같이 대회가 열리자 처음 출전하는 소년소녀들의 기쁨에 넘치는 동작으로 영예를 위하여 활약하는 광경은 장관을 이루었으며, 특히 두릉야학과 신흥학당 전은 가장 열전을 연출하였다. 소년소녀가 한데 어울려 접전에 접전을 거듭한 결과 최후의 우승은 두릉야학팀이 획득하였다. (하락)¹¹⁹⁾

119) 《동아일보》 1931년 2월 5일자.



그림7) 《동아일보》에 소개된 열네공 대회 광경(1931년 2월 5일)

제1회 열네공 대회는 무산아동에게도 체육을 장려하자는 슬로건으로 황구지천 빙판¹²⁰⁾에서 32개 팀 1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평택에서 출전한 두릉야학팀이 오산팀과 첫 경기를 하였고, 결승전에서도 두릉야학팀이 신흥학당팀을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다. 아마도 두릉야학팀이 평택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열네공 대회는 당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朝鮮에 있어서 古來에 널리 盛行되던 一種의 冬節運動으로 거의 그 存在조차 없어질 形편이었는데 (중략) 鄉村에 있는 一般 男女少年들의 冬節體育을 獎勵”¹²¹⁾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시골에서 체육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전통의 민속놀이인 장치기 즉 열네공 치기를 근대 체육운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열네공 대회에서 사용하는 공은 고무제품의 단단한 공이었으며, 공을 치는 나무장

120) 제1회 열네공 치기 대회 장소는 수원과 평택의 경계를 이루는 황구지천으로 서정리역에서 동서북으로 10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121) 《동아일보》 1931년 1월 24일자. 이외에도 열네공치기 대회의 슬로건은 “우리 프롤레타리아 소년들도 체육을 장려하자!”는 것이었으며, “나무꾼은 지게 진 채로, 학생은 책보 낀 채로, 품 파는 소년은 호미를 든 채로 그대로 木杖 하나만 들고 뛰어오라.”고 안내 문구로 홍보하였다. (《동아일보》 1931년 1월 28일자)

의 길이는 4척으로 제한하였다.¹²²⁾

얼네공 대회는 평택지역에서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평택에서 참가한 팀이 우승하였다는 점에서 평택의 체육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이후 얼네공 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평택지역에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있었다. 1939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평택에서 전조선축구대회¹²³⁾가 열리는 등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구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39년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평택전조선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8월 12일 평택과 안성 대표팀이 참가하였다. 결승전에는 평택과 안성 대표가 맞붙었으나 우승은 안성이 차지하였다.¹²⁴⁾ 1940년 6월 23일에도 평



그림8)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조선일보》1939년 8월 10일자)

122) 《동아일보》1931년 1월 28일자. 얼네공대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大會는 第一回 얼네공大會라 稱함.
2. 본大會는 無産少年少女의 體育獎勵를 目的으로 함.
3. 4. 5는 생략
6. 參加申請은 當日 競技 前까지 主催側 事務所로 함을 要함.
7. 參加資格은 十八歲 以下의 少年少女로 함.
8. 一組는 五人式으로 하고, 一組 以上隨意 參加함.
9. 參加金은 一組 二十五錢으로 함.
10. 用球는 고무 製堅球로 함. 공채는 直木 四尺 限으로 함.
11. 競技規定은 距離(三百米) 及 線內로 하고, 其他는 審判指揮 下에 行함.
12. 一切 競技는 審判의 指揮에 服從함을 要하되, 異議가 있을 時는 參加組의 決議로 採決可否를 定함.
- 13, 14는 略함.

123) 《조선일보》1939년 8월 12일자.

124) 《조선일보》1939년 8월 15일자.

택축구구락부에서 제2회 전 조선 축구대회를 성동소학교에서 개최하였다.¹²⁵⁾ 이 대회에는 참가팀을 14조로 나누어 경기를 할 정도로 성황이었으며 평택군이 최종 우승하였다.¹²⁶⁾

4.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체육활동은 진위청년체육구락부, 진위청년회, 평택체육협회, 평택군 청년단 체육회, 진위소년회 등 체육 관련 단체와 청년 및 소년단체 등을 통해 운동회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근대체육을 보급되었다.

둘째는 평택지역에서의 체육활동은 연합운동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점차 정구대회, 연식야구대회, 축구대회 등 평택지역을 넘어선 중선 또는 전국적인 규모로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제식민지라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지만 평택지역에서도 근대체육이 발전하게 되었고, 각 학교 운동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체육대회는 학교의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개최 한 것을 보면 학교교육의 발전이 평택의 근대 체육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체육대회는 관변단체에서 주최하는 위로부터의 움직임뿐 아니라 청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비록 일제강점기에서의 체육활동은 그들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협적인 한계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일제 식민통치의 억압된 통치

125) 《조선일보》1940년 6월 18일 및 6월 21일자.

126) 《조선일보》1940년 6월 26일자.

체육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구심체로서의 역할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평택지역 운동회 개최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지역 유력자들이었으며, 평택지역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안재홍 국내외 현장답사의 성인학습적 의미

황우갑/송실대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 선임연구원

차 례

1. 서론
2. 본론
3. 맺음말

1. 서론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1891~1965)은 일제강점기 국내항일운동을 이끈 민족운동가·언론인·역사학자로서 해방 후에는 정치인·정치사상가로서 그 분야마다 굼직한 자리를 차지한 ‘고절(高節)의 국사(國士)’였다¹⁾. 안재홍은 ‘동경삼재’, ‘조선 삼재’로 알려진 이광수·최남선·홍명희 등과 함께 근대 석학의 대명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었다²⁾. 일제 강점기에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 언론인으로 최대 옥고를 치렀다. 언론 필화(筆禍)로도 빈번하게 투옥되었지만 언론과 직접 관계없는 사건에 연루되어 형무소에 들어가기도 했다. 병약했고 모진 고문으로 허리마저 못썩지만 식민지시대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키며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분투했던 온건파 지식인이었다³⁾. 민세는 1999년 ‘20세기 100년을 밝힌 9인의 지성’에 유길준·신채호·이광수·백남운·홍명희·김창숙·박종홍·장준하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⁴⁾.

일제강점기에는 신간회운동·조선학운동 등을 주도하며 국내민족운동의 핵심 지도자로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의 민족통일국가수립을 위해 헌신한 중도파 지식인 안재홍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함께 독립운동에 힘쓴 김규식·조소앙·정인보 등과 함께 납북됐다. 이후 권위주의 정부에서 언급이 금기시된 인물이었으나 민주화 이후인 198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면서 그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폭넓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안재홍 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안재홍

의 생애 활동과 정치사상에 대한 조명과 민세주의·신민족주의론을 주창한 정치사상가 안재홍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민족운동단체 신간회 창립의 주역 안재홍의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해방 후 좌우합작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운동 과정에서 안재홍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역사학자로서 안재홍의 조선 상고사 연구, 일제 식민사관 비판에 담긴 역사적식, 신민족주의 역사의학의 사학사적 위치에 대한 재조명도 있었다. 이 밖에도 안재홍의 언론사상 조명, 안재홍의 근대문화사상과 조선학운동 재조명, 납북이후 재북 평화통일 활동,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 등의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안재홍 연구에서 향후 새롭게 주목해야할 분야는 기행 수필 분야라고 생각한다. 안재홍은 일제 강점기에만 14차례 국내외 기행을 다녀오고, 관련 소감을 자신의 언론활동 근거지였던 조선일보와 국내 여러 잡지에 기고했다. 기행문만 정리해도 6~7권 이상의 단행본이 가능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민세 스스로 당시 청년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농촌계몽과 문자보급운동의 참여를 통한 농촌 현실 개선과 국토 기행을 통한 국토애의 고취를 강조했다. 그리고 민세 자신이 이 두가지를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안재홍에게서 국토 답사는 한 가로운 취미여행이 아니라 국토애의 심화를 통해 민족의 현실 개선을 위한 정신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었다. 현재 민세의 기행 수필이 가지는 현상성, 문학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수필은 안재홍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시론으로 안재홍의 일제강점기 국내외 현장답사의 몇가지 사례와 그 성인학습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자료 분석에 바탕을 둔 역사연구방법을 사용했다.

1) 천관우. <해제> 1. 《민세 안재홍 선집》 1. 서울:지식산업사. 1981

2) 안호상. <간행사>. 《민세안재홍 선집》 1. 서울:지식산업사. 1981.

3) 김재명. 《한국현대사의 비극: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 2003. 서울:선인

4)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21》, 1999년 4월호.

2. 본론

1) 일제 강점기 안재홍의 국토기행 사례 검토

안재홍은 국토답사와 걷기 여행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민족의 현실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꿈꿨다. 안재홍은 취미가 등산이며 국토답사일 만큼 국내외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고 많은 글을 남겼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안재홍은 1913년 첫 답사에 이어 1935년까지 총 14회의 국내외 답사를 다녀오고, 관련 경험을 조선일보 등 신문 매체를 통해 기고하고 단행본을 발행한다. 만 리를 넘는 그의 답사는 주로 걷기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청년들에게도 국토순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여행이란 관념의 세계를 벗어나서 참신한 관찰의 세계에 혹은 냉정한 객관의 세계를 섭렵하기 위한 가치를 느끼는 일이었다⁵⁾. 이는 단순하게 취미나 한가로운 여가가 아닌 시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한 부단한 현장학습이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답사를 통해 가난한 조선 인민의 외로움과 방황을 보면서 구체적 현장경험을 통해 민족독립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일제에 대한 부단한 저항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⁶⁾. 그에게 있어 국토여행은 조선심(朝鮮心)을 사랑하고 우리 국토를 예찬하고 조상 생활의 뜻깊은 자취를 뒤지고 더듬는 매우 귀중한 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 14회에 걸친 안재홍의 국내외 현장답사 기록을 정리하면 표 1-1) 과 같다.

5) 《조선일보》, 1925년 2월 15일자
 6) 《조선일보》, 1927년 10월 18일자
 7) 《조선일보》, 1926년 6월 6일자

표 1-1) 안재홍의 국내외 현장 답사 기록

구분	연도	내용
1	1913년 여름	여름에 중국여행.
2	1916년 5월	중앙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주산성, 강화도 답사
3	1925년 2월	사리원, 평양에 이르는 취재 답사.
4	1926년 4월	부산, 통영, 지리산, 전주 답사.
5	1927년 3월, 7월	해서지방 답사
6	1927년 7월	원산, 함흥 일대를 답사
7	1929년 9월	예천, 문경새재 답사.
8	1929년 9월	광주 서석산(무등산)일대 답사.
9	1930년 5월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를 답사
10	1930년 7월~8월	백두산 답사.
11	1934년 6월	황해도 구월산, 장수산 답사
12	1934년 7월~8월	속리산에 출발 남해충무공 유적지 답사.
13	1935년 봄	동경 강연회를 겸한 답사.
14	1935년 5월	인왕산 일대 답사

출처 : 안재홍 기행 관련 1916년 ~ 1935년 수기(手記) 및 언론기고 자료

(1) 1913년 여름 중국 기행

안재홍은 23세 되는 1913년 와세다대 3학년 진학하는 여름에 중국여행을 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있었다. 그는 상해에서 신규식이 이끈 독립운동단체 동제사에 가입했다. 또한 당시 상해에 있던 동년배의 청년 지식인 이광수, 홍명희, 조소앙, 문일평 등과 만났다. 당시의 상황을 민세는 훗날 아래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뱃길로 상해에 건너가 남경 한구 아직 소란한 까닭에 다시 뱃길로 청도로 가서 제남, 천진, 북경, 산해관 등을 거쳐 봉천(심양)을 돌아 안봉선으로 안동현에 와서 서울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 상해에서 허다한 우리

혁명선배와 동지를 만났으나 그 빈곤 자못 딱도 하였고 북경의 동지들은 더욱 빈곤하였으며 만주의 농민동포는 언뜻 보아도 참혹하였다. 노자조차 다 떨어져서 초라하게 돌아오는 백면서생 나에게 하소연하던 수난동포의 정경이 가끔 눈앞에서 선하게 되살아난다⁸⁾.

안재홍은 이 여행을 통해서 해외 독립운동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평생 국내에 남아있는 민중들과 함께하며 국내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스물 세살 때에 남중국으로 남만주의 일부를 훑어보고 돌아온 칠십 여일의 여행은 나에게 시베리아, 태평양 하는 낭만적인 공상을 씻어 버리고 고국에 집착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⁹⁾.

(2) 1916년 5월 강화도 일대 답사

안재홍은 중앙학교 학감(현재의 교감) 시절인 1916년 5월 16일~ 20일까지 교장 유근과 함께 강화도 마니산 일대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하고 돌아와 《강도일지(江都日誌)》라는 미발표 원고를 남겼다. 당시 답사는 첫날 비를 맞아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1박한 후 배와 도보, 기차 등을 이용해 4박 5일의 여정으로 전등사, 마니산, 인천항 일대 답사의 여정으로 이루어졌다. 답사 장소가 임진왜란 사적지, 단군 유적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다. 민세는 이 학교에서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 민족시인 이상화, 국어학자로 1942년

8) 《신천지》, 1950년 1월호

9) 《신동아》, 1936년 5월호

함께 수난을 당하는 이희승, 독립운동가 이병우 등을 가르쳤다.

오— 한배, 한배, 우리들의 한배, 우리 배달(倍達)나라 사람들의 한배! 모든 것의 님 되시는 우리 한배, 우리들을 굶어살피시오. 우리들의 죄많은 어린 손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나는 눈물 한줌, 한숨 한마디로 지고(至高)한 예물을 드렸다. 오— 한배, 한배, 나를 그 거룩한 품안에 품어주시오! 부르짖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인다. 허나 망각할 수 없는 이 세상과의 얽힌 인연은 또 다시 우리들을 충동하여 날새고 조금하게 돌아가는 길을 재촉한다. 가거라! 가거라! 너희가 빨리 가서 바삐 배우고, 어서 일하거라!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두 귀에 쟁쟁하다. 나는 이 한번 악물고, 주먹 한번 움켜쥐어, 한배께 여쭙고 한발 한발 돌아보며 단(壇)을 내려왔다¹⁰⁾.

(3) 1926년 4월 영호남 일대 답사

안재홍은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호남 기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서울을 출발해서 고향 진위(현재의 평택)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경부선을 타고 대구 부산을 거쳐 마산, 진주, 통영, 하동과 지리산, 남원, 전주에 이르는 영호남 기행을 다녀왔다. 기행중에 민세는 자신이 주필로 있던 조선일보에 글을 계속 연재했다. 분량으로 보면 《백두산등척기》와 함께 한권의 단행본으로 묶어도 충분할 양이다. 부산의 동래성, 진해 일본군항, 통영 한산도 충무공 유적, 진주대첩과 논개, 하동 쌍계사, 불일암, 칠불암, 남원 실상사와 황산대첩비, 광한루, 전주 한벽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행의 일부 글은 해방후 국정 국어교과서에 ‘춘풍천리’, ‘목련화 그늘에서’와 같은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 고향에서의 하룻밤으로 답사를 시작

10) 안재홍 미발표 수고《江都日誌》(1916, 고대 박물관 등록번호 0275)

한 민세의 영호남 기행은 진위행이라는 소재목으로 고향의 역사 소개가 첫머리를 장식한다

한숨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지나는 길에 글로 고향 진위에 관하여 써보려 한다. 예전에는 삼남 통로의 역참(驛站)의 소재지가 되어서 남조선 인사에게는 꽤 소개되었지만 최근에는 평택미의 산출지라고 하거나 혹은 수원성의 남쪽에 있다고 설명을 붙이기 전에는 먼 데 사람은 빨리 알아주지 않는 무명 소읍이다.

자기의 시골인 까닭에 온갖 것을 다 알아 보았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고구려 연달부곡(淵達部曲)이라고 하였으니 문헌에 나타나는 최고의 명칭이다. 고구려가 성할 때에 그 판도가 멀리 계속 이령에 미쳤으나 그는 일시의 일이요 한수 이북으로 혹은 김포 반도까지가 그의 세력 범위였던 즉 연달의 명칭이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수 없다. 여기가 백제의 영지(領地)요 또 신라와의 쟁탈지를 지었던 것은 명백하다.

연달의 이어서 송촌활달(松村活達)의 명칭이 있었고 신라 이후 부산(富山), 금산(金山)의 명칭이 있었으니 달(達)과 활달(活達)은 고어에 산 혹은 봉의 뜻이다. 삼국사 지리지를 보더라도 달의 의역이 산으로 사용되어 여진 만주의 방어에는 산봉을 합달(하따)이라 칭하니 지명의 고증이 매우 멋이 있다. 연(淵)을 '감'이라 할 수 있으니 유수(流水)가 '감' 돌아서 물이 괴어있는 곳을 연(淵)이라 하기때문이다. 연과 부(釜)(가마)가 말소리가 유사하고 달과 산은 동일한 어의이니 연달과 부산은 같은 말의 다른 해석이다. 지금 진위 구읍 북방 수리에 부산동(釜山洞)이 있는데 속명에 '가마 댕'이다. 송촌활달은 부산으로 대역된 것이니 송과 김이 말소리가 가깝고 활달이 산인 것은 앞의 설명과 같다.

고려 이후에 진위(振威)라 칭하니 이는 조선의 지명이 한자화한 시대의

일이다. 정거장에 내려서 도보로 들어가니 언제 지세를 평하였던 바와 같이 구름이 낮고 평평하며 평범한 농촌의 광경이 소위 가거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한다. 십수년래로 주민들의 자각과 당국의 장려가 있어서 식림과 재상이 자못 성행되어 간혹 울창한 송림을 보게 되더니 수삼 년래 송충의 해를 입어 소나무숲이 쇠하여 없어진 곳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적송, 흑송 등의 단순림보다는 밤나무 등을 혼합한 잡목림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

민세는 19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사건으로 대구감옥에서 첫 옥고를 치르고 1922년 6월 9일 출옥했다. 이 기행중 4월 15일 대구를 지나며 수년전 감옥에서 겪었던 수형생활의 어려움을 회상하고 있다.

한숨 고요한 가을 찬 밤 귀뚜라미 울지 마라. 어지러운 때의 물결이 적엔 어이 되고. 등 아래 홀로 누운 몸이 한숨겨워하노라.

왕년 대구 옥중에 있을 때 지은 시조이다. 시야 어찌 되었는지 대구는 나의 잊기 어려운 인상 깊은 도시이다. 추풍령을 넘은 남행의 기차는 약목, 왜관 등 역을 지나서 대구까지 왔다. 왜관은 낙동강의 중류가 굽이를 지어 흘러가는 곳이라 흘러가는 탁류(濁流)가 바로 장강대하(長江大河)의 맛이 있다.

오른편으로 달성공원의 들뜨는 봄색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금호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추억 많은 대구역에 왔을 때에는 벌써 십수년 전의 추억은 사라지고 다만 기미 임술 동안 깊고 깊던 옥중 생활의 인상이 되살아난다. 10분간 정거를 이용하여 구름다리를 건너 개찰구까지 가서 역 앞에 물리는 군중을 쳐다보았다. 동쪽으로 팔공산, 서쪽으로 남산의 푸른 경치가 더욱 회고하는 필자의 감회를 돕는다.

11) 《조선일보》1926. 04. 18자 2면

삭풍이 살을 에는 듯한 감옥 중의 운동장에서 백설 하얀 팔공산의 연봉을 바라보던 덜덜 떨리는 수인(囚人)에게는 마치 세차게 매운 운세의 마왕과 같이 보이더니 지금은 자못 강산의 풍경 빼어나게 뻗어나가는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더욱이 남산은 감옥의 창으로 들어 쏘이는 햇별을 실어오는 봄날과 함께 인간 세상 동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바 오늘날에도 더욱 다정해 보인다¹²⁾.

2) 안재홍 국내외 국토현장답사의 성인학습적 의미

14차례의 기행을 통해 스스로 국토 답사를 실천한 안재홍은 우리 산하를 답사하는 것이 문화민족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내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오히려 우리 산하를 더 자주 여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토 답사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키워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산하를 찾는 것은 문화민(文化民)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산에 오르고 물을 건너고 수풀을 헤치고 들을 지나 시냇가에 땀을 씻고 바람을 받고 성벽에 기대어 지난 자취를 묻고 강산을 바라보아 참신하고 웅원(雄遠)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예로부터 산하를 찾는 사람만이 가지는 인생의 씩씩하고 상쾌한 멋이다¹³⁾.

안재홍의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닌 부단한 현실 인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경험학습의 하나였다. 안재홍의 여행을 통한 일평생에 걸친 부단한

평생학습은 크게 4가지 경험학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해외 답사를 통해 조선의 객관적 현실 냉정하게 자각하기

안재홍은 두 차례 해외 답사를 통해 조선의 객관적 현실을 비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 안재홍은 일찍이 해외 선진국의 현황을 알기 위해 아시아 소수 민족을 한 코스로 미국, 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를 한 코스로, 사회주의가 발흥한 소련 등을 한 코스로 국가와 그 지역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¹⁴⁾. 이는 제1세계인 선진국에서 2세계인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인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현실을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조선의 현단계를 자각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는 1913년 중국 상해에서 봉천(현재 심양)에 이르는 40일간 여행을 통해 조선인의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고 중국에 진출한 조선인 기업이 없다는 것과 망명 중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실망한다.

남북 중국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조선인의 경제적 토대가 예상보다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해, 천진, 북경, 봉천 등 각 도시에서도 그 당시에 당당한 조선인의 영리기관조차 거의 없었고 따라서 그 정치운동(독립운동)의 토대가 빈약한 것이었습니다¹⁵⁾.

1935년 봄에는 일본 메이지대 동창회의 강연 요청으로 20여년 만에 동경 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로 변명을 누리고 있

12) 《조선일보》, 1926. 4. 21자 2면

13) 《조선일보》, 1935년 8월 1일자

14) 《삼천리》, 1936년 2월호

15) 《삼천리》, 1931년 7월 호

는 일본의 발전상과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야심이 드러나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낙후한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감상은 말하자면 부럽고 또 부럽고 부럽다 못해서 자연스럽게 슬픈 생각조차 들고 무엇인지 내가 잘못해서 우리들(동경유학생과 필자)이 함께하는 만남이 매우 불행하게 되거나 한 듯이 일본의 진보(進步)와 번창(繁昌)을 볼수록 나 홀로 끝없이 한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필두로 중요한 공장시설이 멀리 서로 바라보일만큼 늘어선 상공입국(商工立國)의 현대자본주의화한 외관이 아주 정제되어 있고, 비록 농촌의 주택이라도 모두 반듯하게 정제되어 이십여 년동안 동경은 6~7배에 가까운 팽창을 이뤘습니다. 현재에는 국가비상사라는 시국의 영향에 끌려 만사가 모두 군국식(軍國式) 혹은 전투식(戰鬪式)의 형태(形態)로 되었으니 이것도 간과할 바 아니고 흥미있는 점입니다¹⁶⁾.

(2)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 일깨우기

안재홍은 국내 여러 지역 답사를 통해서 우리 국토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언론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데 힘쓴다. 예를 들어 1926년 경부선 기차를 타고 경성에서 부산까지 각 역의 봄풍경을 묘사한 춘풍천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긴 여정의 끝을 전주에서 마치며 이곳에서 자신의 목도한 우리 문화유산과 국토 곳곳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명소로서 나에게도 인상이 얹지 않은 성환역의 부근에서는

16) 《삼천리》, 1935년 7월호

벌써 여러 그루의 수양버들을 보았다. 신탄진 강머리에서 두건 쓴 사공이 좁고 긴 목선에 4~5명의 흰옷 입은 남녀를 싣고 맑고 푸른 강물을 건너려는 것을 보며 무르녹은 시심에 잠기려 하였다. 대전역을 지나 사방에 솟은 산악(山岳)을 바라보며 한참 장엄한 기분을 느끼는 가운데 나무 베는 남자가 작은 아이와 함께 길가에서 쉬는데 나무지게에는 마른풀이 한 짐이고 옆에는 붉게 타오르는 진달래가 한 묶음이다¹⁷⁾.

호남 제일관은 안으로 보이는 풍남문(豐南門)의 이름이다. 성 위에 까맣게 솟은 이층 누각을 지나, 발이봉(發李峰)의 남쪽 기슭 옥류동의 비탈에 있는 한벽루(寒碧樓)에 올랐다. 누각이 다소 퇴락(頹落)해서 현판조차 없어졌고 누 아래에는 편편한 암벽이 오륙 길 떨어져서 옥류동의 물속에 잠겼다. 옥류동(玉流洞)은 추천(楸川)의 상류로서 남원의 만마동(萬馬洞) 굽이치는 물이 사십여 리를 가서 이곳에 이르기엔 붙여진 것이니 조약돌이 짝 깔린 계곡으로 흘러 맑게 흐르니 마치 주옥(珠玉)과 같다¹⁸⁾.

또한 안재홍은 지리산 답사 과정에서 들과 산에 핀 우리꽃 무궁화의 무궁(無窮)이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순수국어라는 어원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국화의 소중함과 조선 자연의 아름다움과 멋을 알리고자 했다.

여기에서 비로소 무궁화(槿花)를 본다. 무궁화의 다른 이름은 훈화(薰華)이니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는 북쪽에 있고 훈화초가 있다라고 한 것은 즉 무궁화(槿花)를 이름이요, 무궁화(無窮花)라고 한자로 쓰지만은 '무궁'은 본래 순수한 조선말이다¹⁹⁾.

17) 《조선일보》, 1926년 4월 20일자

18) 《조선일보》, 1926년 6월 1일자

19) 《조선일보》, 1926년 5월 20일자.

일제는 식민지 동화정책을 통해 우리 전통 마을 공동체를 해체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에 맞서 안재홍은 일제 강점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조선 전통적 설화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해석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남원에서는 조선인의 영원한 고전인《춘향전》정신을 일깨우고자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지조에서 의기(意氣)의 중요성을 성찰한다.

국민적 애정사와 아름다운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서로 걸려 끝없는 무한정을 자아내니 이것이 남원성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하는 이유이다. 약간이라도 비분강개(悲憤慷慨)가 없다면 더불어 의기(意氣)를 말할 수 없다²⁰⁾.

(3)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민족적 고난과 수탈 현실 알려주기

안재홍은 여행을 통해 일제의 군국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일본 이주민의 한반도 진출로 삼남 지방의 조선인들이 농토를 버리고 계속 북쪽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소위 일제의 북진책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남진이나? 북진이나? 이는 저네들이 그 자본적 제국주의(資本的帝國主義)를 단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망설이던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만주 뭉고 대륙까지 진출하게 된 저네들의 북진책이 근본적인 국가정책으로 아주 굳어버린 것은 이제 다시 말할 여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저네들은 이 조선안에서도 다시 북진의 북진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²¹⁾.

20) 《조선일보》, 1926년 5월 30일자

21) 《조선일보》 1927년 8월 9일자

일제는 한반도 남쪽 마산, 진해 지역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군국주의의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여행중에 안재홍은 군사기지 주변을 답사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다.

진해항은 동양의 대표적인 최적 항구로 항내에는 세계의 군함을 집어넣을 만 하다 하거니와 이제 일본이 이곳에 군항을 설치하고 규슈(九州)의 사세보항(佐世保港)과 함께 남해의 제해권을 갖는 근거지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일차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바다 가운데 보이는 일본중포병대(重砲兵隊)의 막사들과 해안의 연병장은 저들의 군국주의 배치의 치밀함을 알게 한다²²⁾.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당시 한글로 되어있던 조선의 전통 마을 지명을 없애고 일본식 한자로 새로 부르게 하였으며, 당시 조선총독, 일본 고위관리 등의 이름을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지명에 붙여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고도 했다. 안재홍은 이런 식의 이름 짓기를 봉건적 침략의식의 표현으로 보고 이는 민족적 모멸감을 더 크게 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이름 짓기 좋아하는 버릇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일본인의 봉건적 침략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제등만(齋藤灣)과 유길치(有吉峙) 같은 것은 그의 치기(稚氣)가 웃을 만한 천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명산 멋진 경치와 누각 정자에 이름을 기록하고 가는 것은 가장 유치한 자들이다. 다만 남는 것은 조선인의 민족적 모멸감을 조장할 뿐이다²³⁾.

22) 《조선일보》, 1926년 4월 30일자

23) 《조선일보》 1926년 5월 1일자

안재홍은 지방을 다니면서 기차역, 열차 등에 일본어만 사용해서 조선인으로 하며금 언어혼란으로 교통상의 커다란 불편과 손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조선어 병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당시 80% 가까운 한글 문맹상황에서 일본어 표기의 확대는 조선 사람에게는 이중 삼중의 불편이 아닐 수 없었다.

늘 문제되는 바이지만 일어로만 기차용어를 쓰고 조선어로 해주지 않는 것은 괴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어 아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의 전차(電車)에서도 반드시 조선어를 사용하거든 큰 지방을 통행하는 기차에서 일본어만 전용(專用)해서 지방 사람들 더욱이 부녀승객들이 많은 곳에서 교통상 과실을 당하고 뜻밖의 손실을 당하게 하는 것은 괴심한 일이다²⁴⁾.

4)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정기의 소중함 일깨우기

안재홍의 여행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민족정기 확립이다. 그는 충무공 사적을 여러 차례 답사했고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충무공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고향 평택의 집 앞 월명산에 올라가면 남쪽으로 아산 영인산 자락에 충무공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그에게 아버지는 ‘저기가 이충무공의 묘소이다’라고 늘 이야기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충무공은 그에게 어른이요, 스승이요, 존경의 대상이었다²⁵⁾. 그는 충무공을 자유혼이요 투혼이요 생명력의 아름다운 전당(殿堂)이요, 그대로 영원한 민족발전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²⁶⁾. 1931년 아산 현충사 재건 등 충무공현창 운동에도 앞장선 그는 1926년 첫 한산도를 답사하며 식민지 현실로 인해

충무공 사적이 퇴락해지고 그 정신을 배우려는 노력이 미진함을 안타까워하며 충무공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힘써 충성을 다하였으니, 아아 세상과 백성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 어찌 이 분의 영령을 받들어 추모하지 않겠는가? 이 분의 탄생일에는 청년의 선구자로 이곳에 참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봄에는 반드시 청년제군의 감격에 쌓인 기념이 있기를 바란다²⁷⁾.

1934년 8월 다시 여수 전라 좌수영을 찾은 안재홍은 임란기 일본군과 맞서 불패의 신화를 만들며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충무공의 리더십을 다시금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 정신을 배우자고 호소한다. 그는 충무공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전술, 면밀한 군정, 창안, 식견, 지혜, 충실, 애민, 인격, 덕, 판단력, 담대함, 열정, 책임감, 경제능력 등 14가지 충무공 정신에서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핵심역량을 찾고자 했다.

충무공에게는 초인적인 전략전술과 면밀한 군정(軍政)의 재주와 과학적인 발명 창안의 지혜와 위난과 급작스러움을 미리 헤아리고 준비하는 주도면밀한 식견과 어려움을 알아 지키고 지키고 익힐 것을 알아 싸우는 지모(智謀)와 완급의 기회와 크고 작은 임무에 조금도 착오 없는 충실함과 백성을 위함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애민의 능력이 있다. 또한 명나라의 사나운 장군도 그에게 경탄하며 복종하게 하는 인격적 수완과 천하 군민에게 우러러 공경하고 사랑으로 복종하게 되어 하늘의 뜻으로 제사하는 덕과 전쟁 중 위험한 간계를 미미 간파하여 선불리 꾀에 빠지지 않는 판단력과 여

27) 《조선일보》, 1926년 5월 6일자

24) 《조선일보》 1927년 3월 21일자

25) 《조선일보》 1934년 9월 16일자

26) 《한성일보》, 1949년 12월 20일자

러 군사와 더불어 바다에 넘는 대군을 대적하되 항상 가슴에 여유가 있는 담대함(雄)과 홀로 앉아 걱정으로 늘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열정(烈)도 있다. 또한 두 어깨 한나라 백성을 떠메고 있으되 한 손으로는 형제의 부모없는 외로운 아이를 어루만지기에 소홀함 없는 책임감과 한 몸으로 무너지는 하늘을 지탱하는 큰 능력을 소금 만들고 사냥하고 고기잡고 질그릇 만들고 집 세우고 농사하고 무기 만들고 무역을 시키는 등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가난한 데서 넉넉케 하는 그 경제적 능력의 뛰어남을 아울러 옛날과 이제 동시에 없는 우리의 자랑인 것은 또 한번 다시 인식하고 싶다²⁸⁾.

안재홍은 진주성과 축석루를 답사하며 임진왜란기 왜군에 맞서 6만명이 함께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진주대첩의 정신을 일깨우고 배우자고 호소한다. 이 글을 쓸 당사가 일제강점기이고 검열이 심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항일순국의 역사현장에서 느낀 감회를 알려 스러져가는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치열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한 안재홍의 의도를 알수 있다

육만의 백성이 모두 죽고 진주성은 빈터를 만들었으니 처참하지 아니하랴? 축석루로부터 남북 양안에 시신이 서로 걸치고 청천강(菁川江)으로 무봉(武峰) 아래까지 오 리 사이에 죽은 자가 강에 막혀 내려갔으니 처참치 아니하랴? 동서고금 이러한 참극(慘劇)도 또한 드문 것이라 내 어찌 다만 감회일 뿐이라?²⁹⁾

그는 또한 지리산 자락 남원을 답사하면서는 고려말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황산대첩비를 돌아보고 승전의 현장에서는 국난에 다 함께 민관에

맞서 승리한 그 열정에 대한 자부심 확인을 통해 민족의 자존감도 높이고자 했다.

이곳이 황산대첩(荒山大捷)의 전장이요 이성계의 화수비(花樹碑)가 있으므로 이뿔(화수리) 이름이 생겼다. 당시의 외구가 함양으로부터 팔랑치를 넘어 남원산성을 치고 후퇴해서 운봉에 불지른 후 인월역에 주둔, 기세가 자못 창궐(猖獗)하자 태조 이성계, 안열 등과 함께 남하, 황산의 서북쪽 녹정봉(麓鼎峰)에 올라 기세를 살피고 험준한 곳에 들어가 적을 꺾어내 힘든 싸움을 한 지 수차에 마침내 적은 참패해서 오직 육칠십 인만 살아남았다고 하니 황산의 대첩은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³⁰⁾.

이 밖에도 안재홍은 황해도 해서지방을 여행하면서 임진왜란 육전 3대첩의 하나인 연안대첩비를 답사하고 임진왜란의 연패 이후 이정암이 이끈 해서승첩(勝捷)의 의미를 되새기고³¹⁾, 진도 용장산성에 올라서는 고려 몽고침입기 강화도를 떠나 끝까지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삼별초의 해상혈전(海上血戰)의 강인한 저항정신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³²⁾. 안재홍은 1930년 7월 31일 백두산 정상에 오른다. 그에게 있어 20여일에 걸친 백두산행은 한가로운 여행이 아니라 민족의 성산에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조상이라는 동화정책에 맞서 단군정신을 다시 조명하고 식민지 현실이라는 멍에를 벗기 위한 대정진의 노력과 ‘민족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구도의 길이자 저항의지의 확인이었다.

그렇대! 거꾸거꾸 닥쳐오는 해륙세력(海陸勢力)의 대침입 아래 천백 번

30) 《조선일보》, 1926년 5월 26일자

31) 《조선일보》1927년 7월 23일자

32) 《조선일보》1934년 9월 21일자

28) 《조선일보》1934년 9월 11일자

29) 《조선일보》1926년 5월 10일자

다시 나서 생존의 대항쟁을 하던 세계에도 드세고 질긴 조선의 백성들은 지쳤노라. 쉬어가듯 이제 낙후자의 재수난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가 물려준 무거운 멍에를 메고 현대의 청년들은 비킬 틈 없는 대정진(大精進)을 하고 있는 것이 산과 바다에 넘치는 아픔으로 되는 것이다³³⁾.

3. 맺음말

선천적·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의 학습과 달리 성인기 학습은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Fluid intelligence)이 학습 역량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결정적 지능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능력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안재홍의 성인학습 과정에서 국내외 답사는 이런 후천적 능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안재홍의 국토 답사는 단순한 여가활용이 아니라 국토 곳곳의 역사 현장에서 스스로를 다잡는 무형식 성인학습이었다.

앞서 살펴본대로 안재홍은 꾸준한 국내외 답사를 통해서 조선의 객관적 현실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민족적 고난과 수탈 현실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정기의 소중함 일깨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안재홍의 1만 리에 넘는 14회 이상의 답사는 그가 지닌 개인의 힘과 우리 민족의 지닌 저력을 발견하고 알리고 일깨운 소중한 학습경험이었다. 일평생 술과 담배와 미식을 멀리한 그는 답사 실천을 통해 민족독립의 희망을 발견했다.

일제강점기 안재홍은 여름방학을 맞아 객지에서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청년지식인들에게 두가지를 당부했다. 첫째가 국토 답사였다. 우리땅 곳곳을 직접 돌아보고 느끼면서 국토애, 민족애를 한껏 느끼고 장차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둘째, 농촌을 찾아 문맹퇴치(문자보급운동)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주문했다. 당시 80%가 넘는 조선인 문맹의 현실에서 민족독립의 토대는 민중계몽에 있고 그 바탕은 기초적인 한글과 수학 교육을 통해 민중의 교양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세는 이 두가지를 몸소 실천했다. 14회에 걸친 국내외 답사와 그 장강대하와 같은 명문장, 고향 평택에서의 간이학교 운영과 친형 안재봉의 평택고덕초등학교 설립(1931년)과 해방후 1950년대 중반 셋째 안재학 소유의 종덕초등학교 교지 회사 등이 그 예이다. 민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안재홍의 삶과 활동은 여러모로 육당 최남선과 비교되는 면이 많다. 육당의 동생 최두선은 일본 와세다대를 안재홍과 함께 다녔다. 일본 유학후 돌아온 안재홍은 최남선과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시대일보 사장을 지낸 최남선은 1925년 후에 동국대 설립자인 석전 박한영스님과 함께한 호남지역 역사문화유산 답사기인《심춘순례》를, 1927년에는 백두산 답사의 감회를 기록한 《백두산근참기》를 발간하며 국토문화답사의 붐을 일으켰다.

민세는 1931년에는 《백두산등척기》를 발간하고, 1934년에 7월에위당 정인보, 석전 박한영 스님과 함께 속리산을 시작으로 충남 논산 명재고택과 관촉사, 고창 실학자 황윤석 고택, 순창 여암 신경준 고택, 장성 백양사 등을 답사하고 남해 여수에서 진도 목포에 이르는 충무공 사적을 돌아보고 9월 8일 서울에서 다산 정약용 서세(逝世) 99주년을 기념하며 조선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유사한 국내 명산 기행과 문화유산 현장 답사였지만 그 결과는 판이했다. 한사람은 친일의 길을 걸어갔고, 다른

33) 《조선일보》, 1930년 8월 30일자

한 사람은 국내 항일의 선두에 서며 옥고를 견디고 양심을 지켰다.

안재홍 국토 현장답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전히《백두산 근참기》에 비해 《백두산등척기》는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책으로 정리하면 기행문만 6~7권은 족히 될 안재홍 기행 관련 자료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복원되어 안재홍 연구의 지평이 크고 넓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정리를 통해 강화도길, 영호남길, 백두산길, 무등산길, 지리산길, 북녘산하길 등 다양한 주제의 민세길을 만들어 그 길을 따라 시민청년들이 역사인식을 현장에서 느끼는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논저 및 단행본

- 고려대박물관(2005). 민세안재홍선집 6. 서울: 지식산업사.
- 고려대박물관(2008a). 민세안재홍선집 7. 서울: 지식산업사.
- 김인식(2007). 중도의 길을 걷은 신민족주의자. 서울: 역사공간.
- 김재명(2003). 한국현대사의 비극: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 서울:선인.
- 삼천리(1935b). 구문명의 붕괴, 신문명의 건설. 이십년만에 동경을 보고 와서. 제64호, 1935년 7월호.
- 송건호(2009). 송건호의 인물론: 역사에 민족의 길을 걷다. 서울: 한길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81).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83). 민세안재홍선집 2.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90). 민세안재홍선집 3.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93). 민세안재홍선집 4.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99). 민세안재홍선집 5.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1916). 강도일지. 등록번호 0275. 서울:고대 박물관
- 안재홍(2007). 고원의 밤. 구중서편. 서울:범우사.
- 안호상(1981). 간행사.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 윤대식(2018). 건국을 위한 변명, 안재홍 전통과 근대 그리고 민족과 이념의 경계인: 안재홍. 서울:신서원.
- 이지원(2007). 한국 근대문화사상사연구. 서울:해안.
- 정윤재 (2018a). 민족안재홍 평전. 서울:민음사.
- 천관우(1978). 민세 안재홍연보. 창작과 비평 통권 50호. 1978년 겨울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황우갑(2010). 안재홍의 백두산등척기에 대한 고찰.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편. 안재홍의 항일과 건국사상. 서울:백산서당.

황우갑, 최은수(2018). 안재홍의 성인교육활동과 사상 탐색.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21 No4, 49-74.

황우갑(2019). 성인교육자 민세 안재홍. 서울: 선인.

2. 신문자료

동아일보(1926). 1926년 4월 28일자. 영호 양남기자대회. 4면 1단.

조선일보(1925). 觀念旅行. 안재홍. 1925년 2월 15일 2면 6단.

조선일보(1926). 春風千里(一). 東萊에서 安民世. 1926년 4월 20일 2면 6단.

조선일보(1926). 和風櫻雨春悽悽. 鎭海에서 安民世. 1926년 4월 30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재등만 배타면서. 鎭海에서 安民世. 1926년 5월 1일 1면 4단.

조선일보(1926). 閑山島 봄바람에 (下) 統營에서 安民世. 1926년 5월 6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晉陽城外水東流(下). 축석루상에서 安民世. 1926년 5월 10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木蓮花 그늘에서(下). 4월 21일 지리산 쌍계사 安民世. 1926년 5월 15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頭流山千萬疊(一). 四月二十三日 智異山 七佛菴. 安民世. 1926년 5월 20일 1면 4단.

조선일보(1926). 荒山大捷의 戰跡에서. 安民世 1926년 5월 26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烏鵲橋 잘 있거라. 四月廿六日 南原途中 安民世. 1926년 5월 30일 1면 4단.

조선일보(1926). 發李峯 지는 해에(二). 1926년 6월 1일 1면 5단.

조선일보(1926). 尋春巡禮를 讀함(一). 安民世. 1926년 6월 6일 1면 5단.

조선일보(1927). 海西紀行(一) 安民世. 1927년 3월 21일 1면 4단.

조선일보(1927). 海西紀行(四) 信川溫泉에서 安民世. 1927년 3월 30일 2면 1단.

조선일보(1927). 海州城 나그내로. 海州에서 安民世. 1927년 7월 8일.

조선일보(1927). 碧瀾渡 건너와서. 安民世. 1927년 7월 23일 1면 4단.

조선일보(1927). 崔六堂의 白頭山觀參記를 읽음(下). 安民世. 1927년 10월 18일 석간 1면 5단.

조선일보(1929). 塔山園의 展望. 光州는 湖南雄藩 安民世) 1929년 10월 6일 4면 1단

조선일보(1930). 白頭山登陟記(18). 噫! 莊嚴한 大白頭(一). 通澈無碍의 神秘境. 天池가에서 安民世. 1930년 8월 30일 4면 3단.

조선일보(1934). 忠武遺跡(一). 古英雄 新認識. 朝鮮心の 理想的 具現者麗水에서 安在鴻. 1934년 9월 11일자 1면 2단.

조선일보(1934). 忠武遺跡(六). 古今島月黑夜 悽愴不堪의 當時少年. 天龍丸中 安在鴻. 1934년 9월 16일 1면 2단.

조선일보(1934). 忠武遺跡(十). 蒙古亂壬辰役! 血淚에 어린 西南海島. 天龍丸中 安在鴻 1934년 9월 21일 1면 2단.

조선일보(1936). 國際連帶性에서 본 文化特殊過程論. 安在鴻. 1936년 1월

평택문화연구 제2집

발행일 :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박성복(평택학연구소장)

발행처 :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인 쇄 : 나무기획

저작권자 2020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ISSN 2713-6884

※ 이 책의 저작권은 발행처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